

泰安半島 表象

南門誌

南門誌 編纂委員會

泰安半島 表象

南門誌

| 발간사 |

유구(悠久)한 태고(太古)의 역사(歷史)를 품고 장엄(莊嚴)하게 우뚝 솟은 백화산(白華山)의 기백(氣魄)과 정서(情緒)를 지니고 장명소(張明所)와 사땃감(淺水灣)을 내려다보고 앉은 남문리(南門里)는 성(城) 남문(南門) 밖에 형성(形成)된 마을로 태안반도(泰安半島)의 중심(中心)이며 표상(表象)입니다.

1930~40년대(年代)를 회상(回想)하여 본다면 남문리는 태안반도(泰安半島)의 행정(行政), 경제(經濟), 사회(社會), 문화(文化), 체육(體育)의 시발점(始發點)이었습니다. 일찍이 배움의 전당(殿堂)인 학교(學校)가 남문리에서 시작(始作)되었고 면사무소(面事務所), 전매서(專賣署), 금융조합(金融組合), 등기소(登記所), 우체국(郵遞局), 차부(車部), 경찰서(警察署), 병원(病院), 주막(酒幕), 상점(商店)들도 대부분(大部分) 남문리에 있었으며 연지방앗간과 현대화(現代化)된 도정공장(塢精工場), 소달구지공장(牛馬車工場)도 있었습니다. 중국(中國) 사신(使臣)이 쉬어 가던 경이정(憬夷亭)도 남문리와 동문리(東門里)의 경계선상(境界線上)에서 남문리 동네를 향(向)하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읍성(泰安邑城)도 이곳에 존재(存在)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산(白華山)에서 발원(發源)한 물은 동네 중심(中心)으로 내려뺐었으며 돌로 축성(築城)되어 잘 정돈(整頓)된 남문천(南門川)을 거쳐 천수만(淺水灣)으로 모여지며 남문천에는 다섯 곳의 돌다리가 아름답게 놓여 있는 고풍(古風)스런 동네로 비가 온 뒤면 개울에서 아낙들이 빨래를 하고 아이들은 붕어와 미꾸라지를 잡고 물장구치던 옛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남문리에는 부자(富者)들이 많아 커다란 집들도 많았지만 남문리 이소집(里事務所)은 군내(郡內)에서도 가장 큰 이소집으로 동네에서 제일 넓은 마당이 있어서 여름에는 보리짚을 말리기도 하고 가을이면 바싹마당으로 모두가 이용(利用)했으며 아이들의 유일(唯一)한 놀이터이고 저녁때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흥겨운 사물놀이 한마당이 벌어져 농사(農事)일에 힘들었던 하루의 노고(勞苦)를 달랬으며 추석(秋夕)에는 온 동네 아낙들이 모여 강강술래를 즐기고 희희낙락(喜喜樂樂)하며 전통민속(傳統民俗)놀이를 즐기던 조상(祖上)들의 넋과 지혜(智慧)가 깃들었던 공간(空間)이기도 했습니다.

태안반도(泰安半島) 서부팔개읍면(西部八個邑面) 당시(當時) 서부칠개면(西部七個面)의 제반농수산물(諸般農水產物)은 예부터 남문리에 있는 태안시장(泰安市場)을 통해 유통(流通) 되었는데, 태안오일장(泰安五日場)은 호서지역(湖西地域：泰安, 瑞山, 洪城, 唐津)에서 유명(有名)한 ‘삼대시장(三大市場：泰安場, 廣川場, 合德場)’으로 오일마다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룰 정도로 큰 장이 있으며 이곳 특유(特有)의 저잣거리도 남문리만의 명물(名物)이었습니다.

남문지(南門誌)를 발간(發刊)하면서 이렇게 아련한 추억(追憶)을 되살리는 기회(機會)가 되었던 것 같아 감개무량(感慨無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잊혀져가는 옛 남문리(南門里)의 훈훈한 정서(情緒)를 담은 한 권(卷)의 책이 남문리(南門里)에 거주(居住)하는 여러분의 끈질긴 집념(執念)과 노력(努力)으로 편찬(編纂)되었으니 두고 두고 자랑할 일이며 이는 옛것을 되돌아보는 계기(契機)가 되고 변화(變化)하는 세상(世上)에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生覺)합니다.

남문지(南門誌)를 완성(完成)하기까지 부단(不斷)한 노력(努力)을 기울여 주신 편찬위원(編纂委員), 감수위원(監修委員) 여러분의 노고(勞苦)를 감사(感謝)드리며, 특히 집필(執筆)을 담당(擔當)하고 오랜 기간(期間) 고생(苦生)한 림 성만 선생(林成萬先生)께 감사(感謝)와 찬사(讚辭)를 보내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협조(協助)해 주신 모든분들께 고마운 인사(人事)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지(本誌) 편찬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심혈(心血)을 기울인다고 하였으나 여러분들의 안목(眼目)으로 볼때 혹 미흡(未洽)한 점(占)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諒解)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南門誌 編纂委員長 柳 相禧

태안의 중심지인 남문리에서 리지를 발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한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고 생활을 시작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뽑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성을 쌓았으며, 사람이 출입하는 성문을 냈으니 그 중에도 남쪽이 길(吉)하다 하여 남문을 중심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거주하였습니다.

태안에도 태안읍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하였는데, 그 중에도 남문을 중심으로 성시를 이루며 많은 사람이 거주한 곳이 남문리입니다.

따라서 남문리는 상업의 중심지이며 행정의 중심지였으니 남문리의 역사는 태안의 역사라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남문리지는 역사, 문화, 교육, 체육, 지리, 인물, 민속, 설화 등 정사(正史)에서 야사(野史)까지 다양한 자료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소상하게 기술하여, 태안의 성장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남문리지의 발간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역주민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임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더욱 돈독히 하고 인심이 후덕한 고장으로 길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문리지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방대한 남문리지를 집필하신 동포 림 성만 선생, 편찬에 심혈을 기울이신 류 상희 편찬위원장과 편찬위원님, 김 영규 선생을 비롯한 감수위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태안문화원장 명 수남

크게 편안한 고장 태안!

우뚝 선 백화산 아래 제일 큰 마을 남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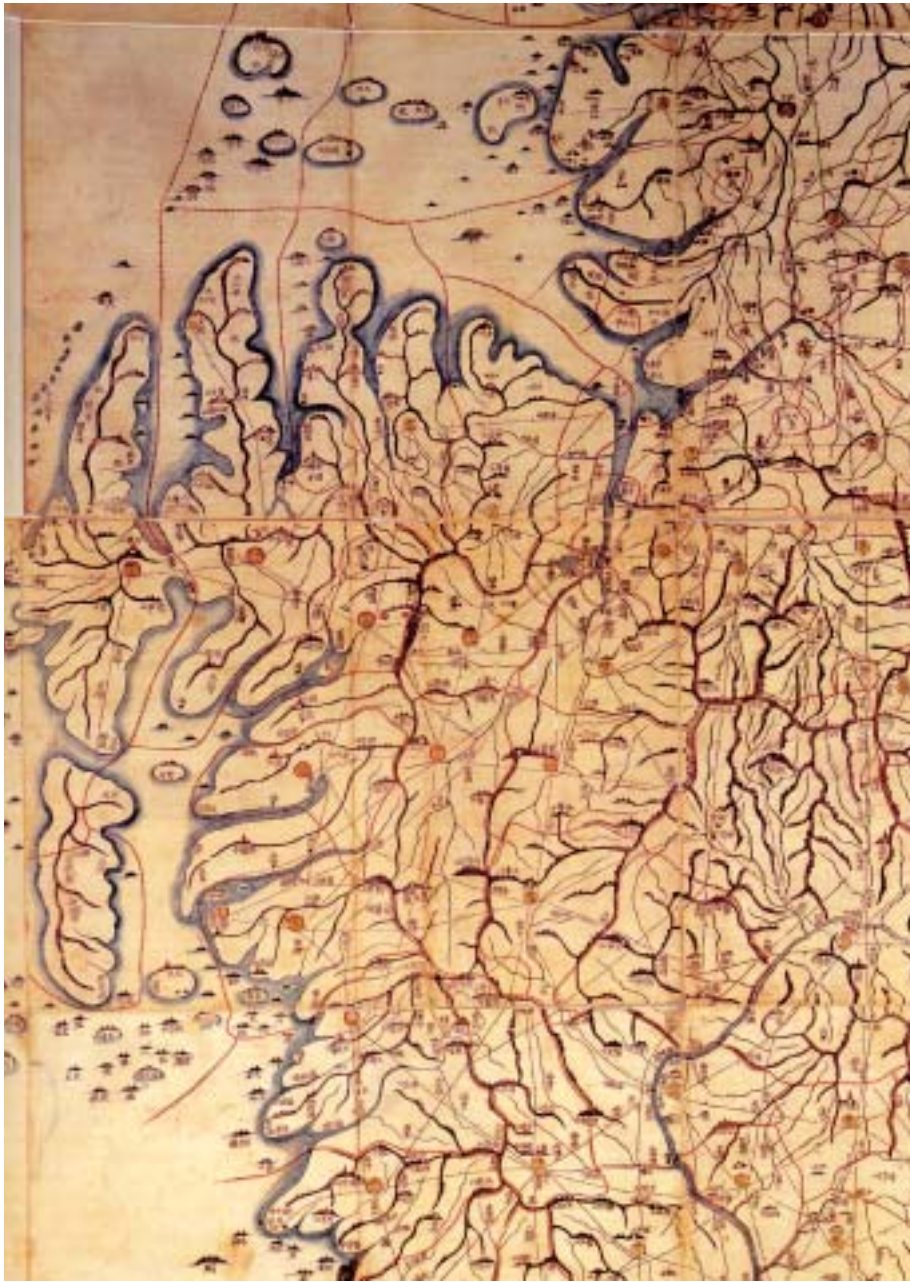
남문리의 역사와 문화를 후손에게 길이 전하고자 “남문리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잊혀져 가는 남문리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류 상희 편찬위원장, 전임 정 우영 문화원장, 명 수남 태안문화원장, 남문리지를 집필하신 림 성만 선생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선조께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지혜로 견뎌 오면서 오늘의 남문리를 가꾸어 주셨습니다. 남문리에 뿌려진 문화와 역사, 희노애락을 하나 하나 챙겨 “리지”로 발간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소중한 사료이며 후손에게 넘겨 줄 값진 선물이며 선조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렸다 하더라도 올바른 역사관과 문화발전 없이 인간의 삶은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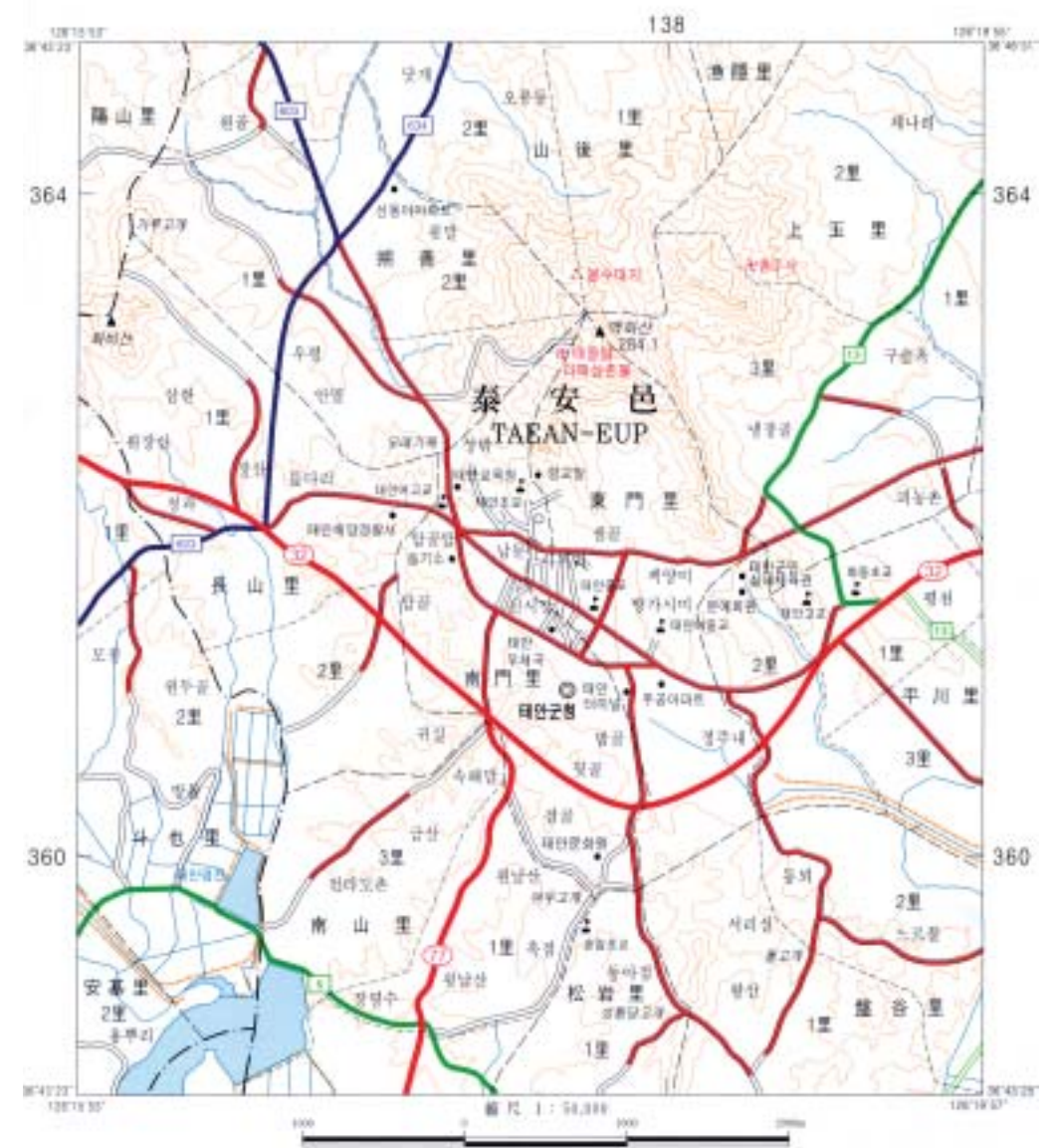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하고 후세의 바른 교육 자료로서 새로운 차원의 “남문리지” 발간은 향토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태안읍은 41개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가장 유서깊은 남문 1, 2, 3, 4리를 시작으로 나머지 37개리의 “리지”도 더 늦기전에 발간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하고 후세의 바른 역사자료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뜻깊은 “남문리지”의 발간은 우리 지역의 물질적 정신적 문화발전에 커다란 구심점으로 작용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남문리지” 발간과 함께 3만여 태안읍민이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굳게 뭉쳐 태안읍 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 “리지”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결실이 있길 바라고, 모쪼록 3만여 태안읍민께서 편안한 삶이 되길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남문리지” 발간에 즈음한 축사를 갈음합니다.

태안읍장 이 기재



대동여지도(목판본) 김 정호. 1861년. 규장각



태안읍 현황 지도



태안마애삼존불(泰安磨崖三尊佛) 국보 제307호

태안의 대표적 문화재인 태안마애삼존불 중앙에는 연화대좌를 포함한 총고 2.23m, 상고 1.81m인 관음보살입상(觀音菩薩立像)이 있고, 왼쪽에는 총고 3.06m, 상고 2.55m의 아미타여래입상(阿彌陀如來立像)이, 오른쪽에는 총고 2.96m, 상고 2.40m의 약사여래입상(藥師如來立像)이 있어 특이한 도상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현존하는 백제 최고의 마애불로 발밀에는 연화대좌가 구비되어 있다. 아래상의 경우 얼굴은 둥글면서 팽팽하며 머리의 육계도 팽이 모양으로 작고, 체구 또한 육중하여 웅장한 느낌을 준다. 보살 또한 이와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보주를 잡고 있는 점에서 또한, 이형의 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양 형식 여래상과 구별된다.

이처럼 얼굴이나 체구가 둥글면서 중후하게 처리된 것 등은 중국의 경우 북제시대(北齊時代)에 주로 나타난 양식인데 이로 보아 이 불상의 제작 연대는 538~600년 경으로 추정된다.(태안읍 동문리 산42번지)



경이정(景夷亭)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23호

태안읍성의 사설물로 남아 있는 경이정은 누각형 목조 건물이다. 조선조 정종(定宗) 원년인 1399년에 건립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정사편'에 보면 "경이정은 군(郡) 남문(南門) 밖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 『동국여지승람』이란 책이 발간되기 이전부터 경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이란 책은 조선조 성종(成宗) 12년인 1481년에 노 사신(虜 思愼) 등이 왕의 명에 의하여 세종(世宗) 14년인 1432년에 완성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또는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본따서 만든 책이며 이를 다시 중종 25년인 1530년에 이 행(李 荇) 등이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따라서 경이정은 조선조 중종 또는 성종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

1986년 11월 19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되어 현재 태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이정은 1988년에 다시 중수하기에 이르렀으며 1993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근 땅과 불량주택을 정리하였으며 1997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지붕을 해체 복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이정에서는 매년 정월보름(음력)날 저녁에 주민의 안녕과 태평을 비는 재우제(宰牛祭)를 지내는 등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인 구심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태안읍 동문리 573번지)



남문1리 회관



남문3리 회관



남문2리 회관



남문리 시가지



태안군청



태안문화원



태안읍사무소



고인돌



목애당



근민당



남문리 5층 석탑



태안읍사무소 경내 비석군

차례

■ 태안지역의 연혁

태안군(태안읍) _ 21 남문리 _ 63 남문리의 위치 및 유래 _ 71

■ 남문리의 행정 및 단체

역대 이장 _ 75 태안청년회의소 _ 76 태안신문사 _ 77 태안로타리클럽 _ 80

소성로타리클럽 _ 81 백화산로타리클럽 _ 82 (사)태안반도 태안청년회 _ 83

(사)동학농민혁명 태안군 기념사업회 _ 85 장애인(지체장애인협회) _ 88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 _ 89 (사)한국서예협회 태안지부 _ 92

태안건축사회 _ 94 (사)한국국악협회 태안군지부 _ 94

(사)서산장학재단 태안지회 _ 95 노인회 _ 96 태안군 노인복지회관 _ 99

태안군 약사회 · 의사회 _ 100 부동산 _ 102

운송사업(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_ 103 건설업 _ 105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_ 109 우체국 _ 111 한국전력공사 태안지점 _ 115

한국통신(KT) _ 116 대한지적공사 태안군지사 _ 117

한국농촌공사 서산 · 태안지사 태안지소 _ 118 태안군 수의사회 _ 119

유도회(儒道會) 태안지부 _ 120 태안군보훈단체 _ 121

태안군 교육삼락회 _ 121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 _ 122

■ 남문리의 문화유적

백화산 _ 123 태일전 _ 126 태안읍성 _ 127 태안읍성의 현황 _ 151

목애당과 근민당 _ 155 남문리의 유적현황 _ 165

■ 남문리의 종교, 문화, 교육, 체육

종교 _ 197 태안문화원 _ 212 태안문학회 _ 214 흙빛문학회 _ 215

태안교육청과 전신 학교 _ 216 태안체육회 _ 246

■ 남문리의 상업과 금융업

태안상업의 발달과정 _ 250 태안금융업의 발달과정 _ 252

태안농업협동조합 _ 254 반도신용협동조합 _ 258 서산축협태안지소 _ 260

남문치안센터 _ 262 남문리의 주거공간 _ 263

■ 남문리의 전설과 민속

남문리의 전설 _ 267 남문리의 민속 _ 275 자선공익사업 _ 285

일화 _ 291 읍면별 주요 현황 _ 296 태안군 팔경 _ 303

■ 신증동국여지승람 _ 304

泰安八景(泰安邑)

林 成萬 作詩

1. 磨崖光彩(마애 광채)

천 사백 년 동안 밝은 빛과 미소가 마애삼존불에 보이고

2. 鷹峰落照(응봉 낙조)

저녁 노을 빛은 매(새)바위 넘어 황홀하게 물드는데

3. 興住曉鐘(흥주 효종)

새벽 종소리 울려 퍼지니 흥주사 골에 하루가 열리는구나

4. 泉谷初人(천곡 초인)

태안에서 처음 사람이 살았던 샘골이지만 지금은 적막한데

5. 掘浦運河(굴포 운하)

선조들이 못다 이룬 거대한 운하의 꿈은 흔적으로만 남아있고

6. 冷泉長林(냉천 장림)

맑은 샘물은 얼음 같고 깊은 계곡과 숲은 끝없이 이어지네

7. 牧景秋月(목경 추월)

경이정과 목애당에 가을 달빛은 여전히 찬란하게 비치는데

8. 華山城烽(화산 성봉)

화려했던 백화산성과 봉수(烽燧)는 어디가고 빈터만 남았느냐



태안지역의 연혁

태안군

태안(泰安)은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준말로 국가가 태평하고 국민이 평안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태평하고 안락하다」는 내용을 지니므로 가장 살기좋은 곳이 태안(泰安)이란 뜻도 담고 있다.

태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에서 5000년전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안면도의 고남에서 발견된 10여개소의 패총군과 남면 달산리 패총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신석기 유물로 판명되고, 또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으로 태안을 장산리, 고남면 고남리의 고인돌(지석묘)이 발견되므로써, 선사시대부터 이미 태안에 사람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대(삼한시대)에는 마한 54개국 중 충청남도에 위치했던 나라는 모두 16개국이며, 이중 태안에 자리한 나라는 신소도국(臣蘇塗國)과 고랍국(古臘國)인데 신소도국은 지금의 태안을 동문리 백화산 기슭의 샘골(일명 斜陽洞)이며, 고랍국은 고남면 고남리에 있었다.

태안의 옛 이름(舊名)이 소태(蘇泰), 소주(蘇州), 소성(蘇城) 등으로 불리워진 것도 이 소도(蘇塗)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시대(百濟時代)는 서기 369년 근초고왕이 마한 54개국을 정복하여 백제국에 병합할 때 태안에 위치했던 신소도국과 고랍국도 백제국에 편입되는데, 이때 태안이 성대해현(省大兮縣)으로 개편된다.

통일신라시대는 서기 676년(문무왕 16)에 당군(唐軍)을 축출함으로써 3국 통일을 이룩하는데 3국을 통일한 신라는 광대한 영토관리와 전제왕권강화를 위해 지방조직을 개편하여 9주 5소경(九州 五小京)을 설치하는데, 태안이 웅천주(公州)의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었다. 그 후 경덕왕(景德王) 15년(서기 756)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태안의 성대해현(省大兮縣)이 소태현(蘇泰縣)으로 개칭된다.

고려시대에는 성종(成宗) 2년(서기 983)에 전국을 12주로 나누어 관리하였는데 이때 태안은 공주목의 관할지역이 된다. 그 후 현종(顯宗) 9년(서기 1018)에 다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데, 이때 태안은 지금의 홍성인 운주(運州)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충렬왕(忠烈王) 24년(서기 1298)에 소태현(蘇泰縣)이 태안(泰安)으로 개칭되고 따라서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이렇게 개칭되어 오늘날까지 700년 동안 泰安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 이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年 代	沿 革
1895. 5. 26.	○勅令第98號(1895. 5. 26. 公布)로 泰安郡 設置
1914. 4. 1.	○府令第111號(1913. 12. 29. 公布)로 瑞山, 泰安郡과 海美縣을 統合하여 瑞山郡 設置(20面)
1972. 9. 1.	○瑞山郡 條例 第235號(1972. 8. 26. 公布)로 安眠面에 古南 出張所 設置 ○大統領令 第6543號(1973. 3. 12. 公布)로 泰安面이 邑으로 昇格
1973. 7. 1.	○大統領令 第 6542號(1973. 3. 12. 公布)로 梨北面靑山, 馬山里를 遠北面에 安眠面 看月島里를 瑞山郡 浮石面에 編入
1980.12. 1.	○大統領令 第10050號(1980. 10. 20. 公布)로 安眠面이 邑으로 昇格
1983. 2. 15.	○大統領令 第11027號(1980. 1. 20. 公布)로 保寧郡 熊川面 挿矢島里 一部(內波水島, 外波水島, 外島)를 安眠邑에 編入
1984. 5. 7.	○瑞山郡 條例 第871號(1984. 5. 7. 公布)로 瑞山郡西部 出張所 設置
1986. 4. 10.	○大統領令 第11874號(1986. 3. 27. 公布) 安眠邑 古南 出張所가 古南面으로 昇格
1987. 1. 1.	○大統領令 第12007號(1986. 12. 23. 公布)로 梨北面을 梨園面으로 名稱變更
1989. 1. 1.	○法律 第4050號(1988. 12. 31. 公布)로 瑞山郡에서 泰安邑, 安眠邑, 古南面, 南面, 近興面, 所遠面, 遠北面, 梨園面(2邑, 6面)으로 泰安郡 設置

태안읍

태안읍은 백제 때에는 성대해현(省大兮縣)이라 칭하였고,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에는 소태(蘇泰)라 개칭하여 부성군(富城郡), 지금의 서산시(瑞山市) 영현(領縣)으로 되었고, 고려 충렬왕(忠烈王) 24년에 태안(泰安)으로 개칭되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은 왜구(倭寇)의 침입이 심하여 마침내 고려말엽인 공민왕 22년(1373)에는 이로 인해 태안군이 폐군되는 비참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때 태안군수는 2~3명의 직원을 데리고 서산군에 붙이고 있었는데, 10년 뒤인 1383년에는 다시 서산에 왜구가 침입하므로서 서산군에 붙이고 있던 태안군수는 다시 예산으로 옮겨갔다.

그후 영락 병신년(永樂 丙申年 1416)에 조선조(朝鮮朝)의 태종(太宗)께서 춘렵차(春獵次) 이 곳에 임행하셨다가 황폐해진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수행원에 게 복군(復郡)하라는 하명(下命)을 내렸다. 그 후 23년 뒤인 정통 기미년(正統 己未年 1439) 2월에 김 혼지(金 侖之) 군수가 부임하므로서 태안군은 폐군 후 66년만에 복군(復郡)되었다.

서기 1914년 일제치하의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한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서산군(瑞山郡)으로 폐합되고, 동년 3월에 원태안군내(元泰安郡內) 동일면, 동이면, 근흥면, 남면 일부를 합(合)하여 태안면(泰安面)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면사무소는 태안의 동현(東軒) 자리였는데 오늘날의 목애당(牧愛堂) 자리였으며, 1913년 3월 총독부령 제16호로 공포된 면경비부담법(面經費負擔法)과 1917년 6월 9일 총독부령 제1호로 공포된 면제(面制)에 의하여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로 1973년 7월 1일 태안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1월 1일 태안군이 복군(復郡)됨에 따라 다시 태안군의 관할지역

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태안읍은 13개 법정리(法定里)와 41개 행정리(行政里) 183개의 반(班) 92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87.6km²이다.

〈연혁〉

年 代	變 遷 內 譯
백제시대	省大兮縣
745(신라경덕왕)	蘇泰縣 改稱
1298(고려충렬왕)	泰安郡(縣) 改稱
1895. 5. 26.	勅令 第98號(1985. 5. 26. 公布) 泰安郡 設置
1914. 4. 1.	서산군으로 폐합 태안면이 됨(부령 제111호)
1971. 7. 1.	태안읍으로 승격(대통령령 제6543호)
1989. 1. 1.	태안군으로 편입(대통령령 제4050호)

위치와 면적

數理的 位置

태안군의 위치를 수리적 위치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도와 위도의 극점				
소 재 지	단	지 명	극 점	연장거리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번지	동단	안면읍 중장리	동경 126° 26′ 16″ 북위 36° 27′ 41″	동서간 80.2km
	서단	근흥면 가의도리	동경 125° 32′ 21″ 북위 36° 36′ 37″	
	남단	고남면 고남리	동경 126° 25′ 20″ 북위 36° 23′ 30″	남북간 64.9km
	북단	이원면 내리	동경 126° 18′ 24″ 북위 36° 58′ 34″	

태안군은 한반도의 중부지역인 서해안의 태안반도로 이루어졌다.

위치적으로 볼 때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인 대전으로부터 250km 떨어져 있는, 충청남도의 서북단(西北端)에 자리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에서 볼 때 동쪽으로는 동경(東經) 126° 26′ 16″로 안면읍 중장리 산40번지가 동쪽 끝이 되고, 서쪽으로는 동경 125° 32′ 21″로서 근흥면 가의도리 산 27번지가 서쪽 끝이 된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위(北緯) 36° 23′ 30″인 고남면 고남리 334-57번지가 남쪽의 끝이 되고, 북쪽으로는 북위 36° 58′ 34″인 이원면 내리 산18번지가 북단(北端)이 된다.

地理的 位置

태안군의 지리적 위치는 동쪽은 서산시(瑞山市)와 연육 및 천수만과 이어져 있고 서남북(西南北)의 3면은 바다에 둘러 쌓인 반도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연육된 서산 팔봉면과 경계를 이루고 해면으로는 홍성군 결성면과 마주하며 서쪽으로는 서해(西海), 남쪽으로는 보령시(保寧市)의 원산도(元山島)와 마주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경기도(京畿道)의 덕적군도(德績群島)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 접하고 있는 서산시는 내륙으로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관문이며 서쪽은 서해로 351km 나가면 중국의 산둥반도에 이르게 되는데 일찍 대륙문화가 이 서해를 통해 태안반도에 들어왔다. 근흥면 정족리에 소재한 안흥항은 일찍이 여송무역선(麗宋貿易船)의 기항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고 북쪽의 원북 청산리는 일찍 해상교통이 발달하여 인천항을 내왕하는 정기여객선이 60년대까지 대성업을 이루어 앞서가는 도시문화 유입에 한몫을 다했

으나, 육상교통의 발달로 인해 여객선 운행은 중단된 상태이나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 등 관광입군을 지향하는 태안군으로서는 관광여객선 취항이 시급한 실정이다.

면적

태안군의 면적은 503.4km²로서 충청남도의 총면적 8,585km²의 5.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에 의거 서산군에서 분리되어 복군될 당시의 면적은 466.6km²였으나 그 동안 간척지 개발에 따른 신규등록, 택지조성을 위한 매립사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995년 남면 당암라↔서산시 부석면 창리와 이어진 현대 간척지(일명 B지구)의 준공으로 32.8km²의 면적이 늘어나는 등 미등록지의 신규등록으로 연도별 통계수치가 변하고 있다.

도내에서의 면적비중은 15개 시군중 연기, 서천, 청양, 홍성군보다 넓은 열한번째에 해당이 된다.

’98년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면적은 176,421필지에 503.4km²로서 임야가 244.6km²(48.6%)로 가장 넓고 경지는 밭(田)이 54,558필지 63.6km², 논(畓)이 47,856필지에 108.0km²이나 임야가 저산성 구릉형으로 산지를 개간하면 앞으로 많은 면적의 경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각 읍면별 면적분포를 비교하면 안면읍이 90.4km²로 가장 넓고 상대적으로 제일 좁은 지역은 27.6km²의 고남면이다.

자연환경

지형

태안은 동쪽이 서산시와 연육되어 있고 나머지 3면은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해안선이 무려 530.8km에 이르고 있으며 유·무인도 119개가 위치하여 수려한 해안절경과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해안선은 리아스식해안으로 개펄과 백사장(모래 해변)이 잘 발달되어 근해 어패류 양식과 30여개소의 해수욕장이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차령산맥의 미봉인 백화산이 태안읍사무소 뒷편에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지맥이 사방으로 뻗어내려 저산성 구릉형을 이루며 마치 문어발처럼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로 인한 굴곡된 만곡(灣曲)이 심하여 간척지(干拓地)가 잘 발달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일반적인 지형인 노년기 지형에 속한다.

기후

기후란, 기온·강수·일조·습도 등 지리적 요건고 대기순환 기압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부근의 대륙과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단은 주로 시베리아기단, 오호츠크해기단, 북태평양기단, 양쯔강기단, 적도기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태안지역도 위 기단의 영향권안에 들어 기후의 변화에 순응하고 있다. 시베리아기단은 한냉건조한 대륙기단으로 우리나라의 겨울철을 지배하며, 오호츠크해기단은 비교적 한냉한 공기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해양기단으로 여름철 강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북태평양기단은 온난 다습한 기단으로 주로 여름철에 우리 나라를 지배하면서 번개와 천둥을 일으켜 소나기를 내리게 한다.

양쯔강기단은 대륙성 열대기단의 온난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으로 봄과 가을에 맑은 날씨를 유지하게 한다.

적도기단은 적도해역에서 발원하여 남서무역풍에 의해 이동해 오는 고온습윤한 해양성기단으로 여름철에 호우를 초래하는 기단이다.

태안군은 우리나라 중서부의 위도 36도선에 위치한 관계로 온대지방에 속하여 3면이 바다로 접해 있으므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위도상 같은 위치에 있는 동해안 지역보다 오히려 추운 편이다.

그러나 4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철에는 춥고 여름철은 몹시 더운 대륙성 기후에 가깝다. 그런가 하면 지리적 지형적 영향을 받아 한서(寒暑)의 차가 심하지 않은 해양성 기후의 현상도 나타난다.

태안군의 지난 10년간(89~98)의 기상 상태를 살펴보면 맑은 날수가 95.6일, 흐린 날수가 106.4일, 강우일수가 108.9일, 서리일수 93.9일, 안개일수 38.2일, 눈내린일수가 25.3일 그리고 폭풍일수가 4.4일이었다.

태안군의 연평균 기온은 12℃로 우리나라 평균기온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기후인 1월의 최저온도는 1994년 영하 17.2℃이며, 난기후인 8월의 최고온도는 역시 1994년도로 37.3℃로 가장 높아 대륙성 기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습도는 대기중의 수증기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온, 구름 분포도, 바람 등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태안군의 연평균 습도는 73.2%로 해안가 특유의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연중 가장 높은 8월의 평균 습도는 89%나 되지만 겨울철에는 12월이 11%로 가장 낮은 습도를 나타내고 있다.

태안지역의 최근 10년간(89~98)의 평균 강수량은 1,244mm인데 6~9월 4개월간 평균 강수량이 808.6mm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월 최다 강수량은 1995년 8월의 992.8mm이고 일일 최다 강수량은 1995년 8월 23일의 236.1mm이다.

눈 내리는 일수는 중서부지방과 비슷한 24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눈오는 날이 줄어드는 편이다. 최심 적설은 1996년도의 17.6cm와 97년도의 17.2cm로 비교적 최근에 높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태안지역의 역사

어떤 한 지역에 남아 있는 유물·유적이나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그러한 유물·유적이 남아 있으며, 또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는가를 역동적이면서도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지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과정을 유기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매우 단편적인 사실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태안지역도 이러한 경우에서 예외는 아니다. 태안지역의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본래 백제의 성대해현(省大兮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에 소태(蘇泰)로 고쳐 부성군(富城郡)의 속현(屬縣)으로 하였고, 고려 현종(顯宗) 9년에는 운주(運州)로 붙였으며, 충렬왕(忠烈王) 때에 본군(本郡)의 환자(宦者) 이 대순(李大順)이 원(元)나라의 은총을 입었으므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한 것을 본조(本朝)에서 그대로 따랐다” 라고 되어 있다. 태안지역의 역사적 변천을 어느 정도나마 짐작

해 볼 수 있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태안지역의 연혁을 다 살펴보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그저 백제시대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명칭의 변화만을 열거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태안지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물론, 자료의 한계로 어려운 작업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사·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태안지역의 연혁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구석기시대의 태안지역

최초로 인류가 등장한 구석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에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전에도 동관진 유적이 보고된 적이 있지만, 식민지 시대라는 특수한 입장으로 인하여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후, 1963년에 함북 웅기군 굴포리에서 신석기시대 패총을 발굴하다가 우연히 아래층에서 구석기 문화층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어서 1964년에는 충남 공주군 석장리에서 또 다시 구석기 유적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구석기 문화의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해방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구석기 문화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는 발굴 조사로 이제는 실제 유적의 수가 20여 군데에 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기·중기·후기 구석기인들의 유물·유적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구석기 문화에 대한 연구도 유적의 편년에 그쳤던 초기의 모습과는 달리 구석기인들의 주거 형태, 의식의 방법, 사유 체계 및 유적에서 출토된 꽃가루 분석, 숯 분석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당시의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구석기인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구석기시대

에 대한 연구는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태안지역에서는 정식으로 발굴 조사된 구석기 유적이 없기 때문에 구석기시대에 있어서의 이 지역의 문화 성격이나 시대적인 특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공주대, 한양대 박물관 팀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몇몇 유적이 있어서 단편적으로나마 구석기시대의 태안지역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이 시기의 유물이 발견된 유적지로는 안면읍 창기리, 신야리, 고남면 고남리 등이 있다. 창기리 유적은 바다가 옆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팎 날 찌개와 굽개, 주먹 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석기와 둥근 모양의 돌에 구멍을 파서 소로 추정되는 형체 예술품을 만든 것이 수습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형체 예술품은 충북 제천의 점말 용굴, 청원 두루봉동굴 등지의 구석기 예술품과 견줄 만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삶에 동물과 예술이 차지하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아울러 안면읍 신야리 출발머리 마을에서 발견된 신야리 유적은 표고 25m 정도의 구릉 위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망치의 기능을 가진 타제석기가 1점 수습되었다. 이러한 유물은 공주 석장리와 화순 대전 유적지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신야리유적의 연대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남리에서는 옷점 부락과 감나무골 부락에서 각각 구석기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 옷점유적은 표고 18m 정도 되는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김새와 무게로 볼 때 어른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둥근 모양의 사냥돌이 수습되었다. 이러한 사냥돌은 다른 구석기인들의 사냥행위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감나무골 유적은 표고 30m의 구릉에 형성된 패총의 아래쪽에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5각형 형태의 흙날 연모가 수습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 지역에는 이미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해안가의 낮은 구릉지대에 살고 있었으며, 돌로 사냥을 하고, 그러한 사냥과 관련하여 주술적 의미의 예술적 감각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태안지역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석기시대는 지금부터 만년 전 쯤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먼저 기후가 따뜻해져서 8천년 전쯤까지는 지금과 비슷하다가 5천년 전까지는 현재보다 2-3도 정도 높은 기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기온의 변화와 더불어 해안선의 높이에도 변화가 일게 되었는데, 8천년 전까지는 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낮다가 기온이 따뜻해짐에 따라 수면도 높아져서 5천년 전까지는 현재보다도 바다 수면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연환경의 변화와 짝하여 인류의 생활방식, 사용 도구가 크게 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인류는 전시대와는 달리 돌을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수렵과 채집에 머물렀던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농경생활을 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150여 개소의 유적 중 서해안의 궁산리와 지탑리 유적에서만 농경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아직은 농경이 신석기시대 후기의 지역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러한 농경생활을 함에 따라 인류는 이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고, 토기와 같은 새로운 생활용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신석기인들은 구석기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법과 문화를 향유하였던 것이다.

현재까지는 태안지역에서 이 시기의 유물이 발견된 곳은 안면도에 위치한 고남면 고남리의 「감나무골」과 「발화지」이다. 그러나 태안지역에서는 앞으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고남리에서만도 이들 「감나무골」과 「발화지」 이외에 영목, 옷점 등 여러 지역에서 패총이 발견되고 있고, 누동리 등지에서도 패총의 존재가 찾아지

고 있기 때문이다.

감나무골에서는 패총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원래 이 감나무골에서는 5개의 패총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제2호 패총과 3,4호 패총에서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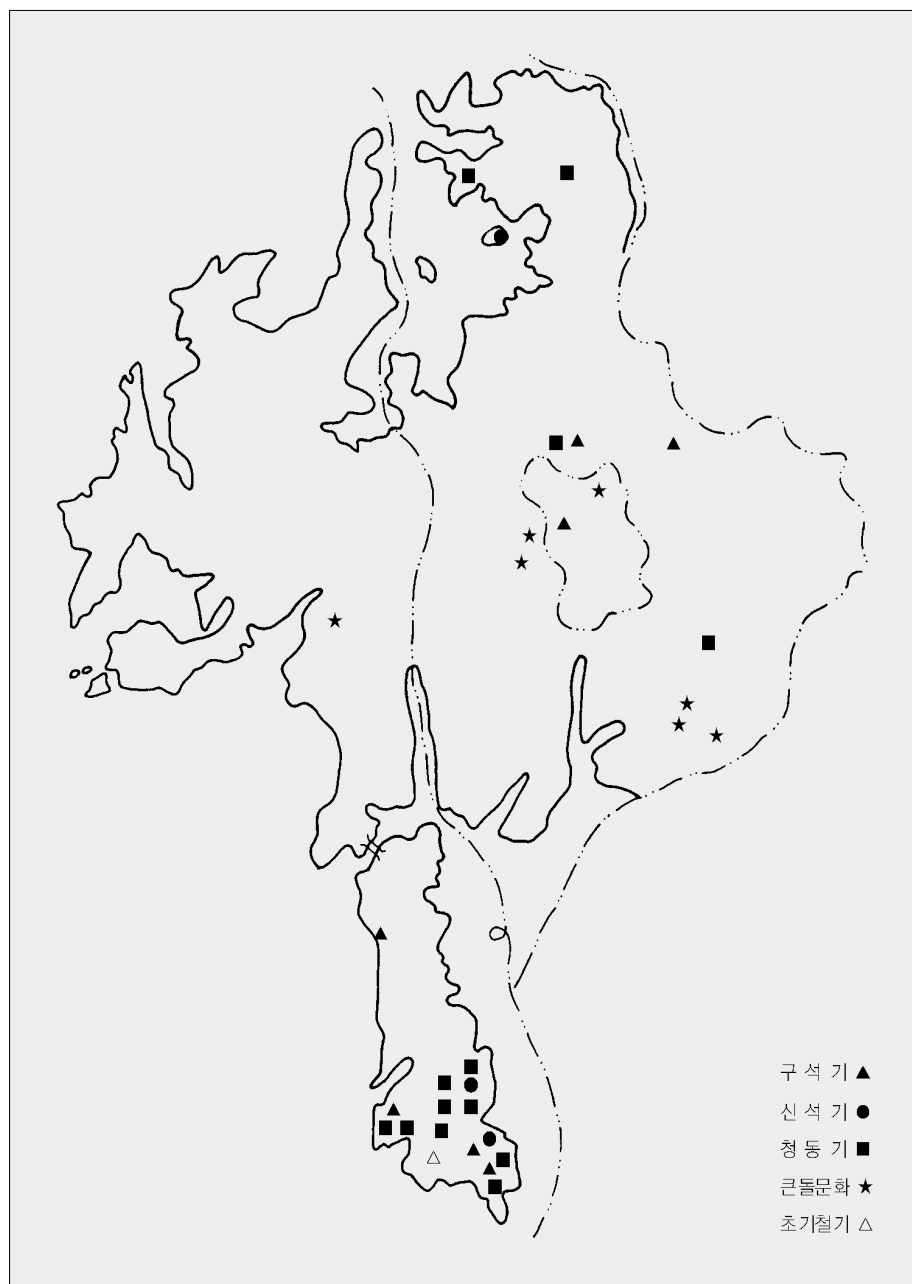
2호 패총에서는 구록부편(口緣部片) 2점과 기복편(器腹片) 2점 등 모두 4점의 빗살무늬계 토기편이 현재까지 발견되었다.

3, 4호 패총에서도 1점의 토기 기복편이 발견되었는데 표면에 어골문(魚骨文)이 시문되어 있다. 한편 발화지에서도 구록부편 1점과 기복부편 3점 등 4점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지금까지 수습되었는데 제작 방법은 앞의 감나무골에서 수습된 토기편과 큰 차이가 없어 문화적 바탕이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이 태안지역에는 수는 적지만 매우 다양하고 특이한 빗살무늬계 토기편이 수습되는데,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의 출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또한 수습된 지점이 도서지역(島嶼地域)이 바다로 돌출된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조사를 통하여 주변지역과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청동기시대의 태안지역

청동기시대는 앞 시대와는 달리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던 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청동기시대의 개시 시기와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남아 있어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체로 서력기원전 10C.경 부터는 우리 나라의 청동기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인류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도면 1. 태안·서산지역 선사유적 분포도 (출처·안흥진성)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가 사용하는 도구가 석기에서 청동기로 바뀔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는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됨에 따라 인류는 집단으로 한곳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격적인 농경생활은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때 생기게 된 잉여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많이 차지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생겨나게 되면서 집단간의 불균형한 발전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한 강력한 집단은 주변의 약소한 집단을 병합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사서(史書)에 보이는 삼한(三韓)의 소국들도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였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등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 태안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서남부지역에는 <마한>이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마한에는 50여 개의 소국(小國)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마한은 이러한 소국들의 연맹체로 이해되고 있었는데, 마한을 구성한 소국들은 수천가(數千家)에서 만여가(萬餘家)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였으며, 총 10여 만호(萬戶)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태안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뚜렷한 유적으로는 태안읍 장산리 지석묘(支石墓)를 들 수 있다. 물론 근흥면 신진도리의 마섬(馬島) 패총을 비롯한 몇몇 패총에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무문토기편을 수습하기는 하였지만, 장산리 지석묘(고인돌) 이외에는 이 시기의 뚜렷한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농경의 실시와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 시대에 비해 많은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의 주거지는 전 시대와는 달리 큰 취락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신석기시대보다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들이 남긴 주거지나 무덤은 전국 어디에서나 구석기·신석기시대의 유적보다 쉽게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사용하였던 도구들도 전

시대의 유물보다 훨씬 많이 발견되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태안지역에서 아직까지 이 시기에 해당되는 뚜렷한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을 준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상 앞으로 보다 정밀하게 이 지역을 조사한다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많은 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견되리라고 기대된다.

장산리 지석묘(고인돌)는 태안을 장산 1리 밖에 위치해 있다. 지석묘는 2개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원 위치에서 150m정도 옮겨진 지점에 있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서 북으로 80m 거리에 있었다.

이들 지석묘는 둘 다 개석식(蓋石式)으로 축조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크기는 태안문화원 옆으로 옮겨진 것이 $290 \times 195 \times 82\text{cm}$ 이며, 다른 하나는 $227 \times 207 \times 38\text{cm}$ 였다. 지석묘 주변에서는 마제석부 1점이 수습되었으며 석부(石斧·돌도끼)는 단면이 장방형으로, 매우 거칠게 만들어져 있어 의기(儀器)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태안지역에서 이 시기의 뚜렷한 유적으로 조사된 것은 장산리 지석묘 뿐이지만, 인접한 서산지역의 지석묘와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이미 이 시기에는 태안-서산지역에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미면 휴암리의 주거지와 대산면 대로리의 주거지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휴암리에서 발견된 타원형의 주거지는 아직까지는 부여 송국리, 광주 송암동, 승주 대곡리 등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형태로 유적들이 발견되는 위치에 주목하여 이들을 마한형(馬韓形) 주거지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가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변모해진 이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태안지역 일대에는 커다란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삼한의 소국들이란 이렇게 청동기시대 이래로 형성된 세력 집단들이

자기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점에서 마한의 54개국 중 신소도국(臣蘇途國)이 오늘날의 태안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던 소국(小國)이라고 하는 견해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소도국의 형성시기, 내부구조, 그리고 발전 모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백제시대의 태안지역

기록에 의하면 백제는 서력기원전(B.C. 18) 지금의 한강 하류에서 고구려 유이민들에 의해 발흥한 나라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강 유역을 비롯한 오늘날의 한반도 중서부 지방에는 백제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54국으로 구성된 마한이 자리잡고 있었다. 백제 역시 처음에는 마한을 구성하는 다른 소국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소국으로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초기에는 마한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가 점점 주위의 소국을 병탄(併呑)하여 세력을 키운 다음 마침내는 마한을 멸하고 마한지역의 소국을 완전히 통일하여 하나의 왕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백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태안지역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조사 역시 이 시기가 공백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한이 백제에 의해 멸해진 이후에 태안지역 역시 백제에 속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마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직산(稷山), 예산(禮山), 홍성(洪城), 익산(益山) 등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모두가 태안과는 가까운 거리라고 볼 때 마한의 멸망과 더불어 태안지역 역시 백제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백제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태안지역

에 위치해 있던 소국(小國)은 그후에도 얼마간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줄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 발견된 바 없지만, 여기에서 가까운 서산 대산반도에서 수습된 선사시대 유물과 백제 토기를 통해서 볼 때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의 전통이 백제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은 대산면의 명지(明智)에서 발견된 토광묘와 거기에서 출토된 환두대도(環頭大刀)를 통해서 볼 때 이들은 백제의 중앙세력인 한강 유역의 묘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안지역이 언제 백제의 영역권에 들게 되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백제 건국 후 상당 시기가 지나도록 이 지역에는 백제의 중앙세력과 문화 계통을 달리하는 집단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추정을 하자면 이 지역이 실제로 백제의 영역권내로 흡수되는 것은 4세기 이후가 아닌가 한다. 물론 삼국사기(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보이는 분국 내민호위남북부(分國內民戶爲南北部)와 가치동서이부(加置東西二部)의 기사라든지, 6좌평 16관등제의 실시 기사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체제(部體制)의 성립과 관등제의 정비는 소국 수장들을 중앙귀족화의 길로 들어서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국의 자치적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체제의 재편이 어느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관등체제의 정비 역시 구체적인 실상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본서기(日本書紀) 인덕기(仁德紀) 41년조의 기사를 인용하여 근초고왕 8년에는 백제가 지방 통치조직을 마련하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의 시행 여부, 범위 등은 앞으로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것은 청주 「신봉동고적군」의 존재라든지 천안 「화성리고적군」, 그리고 동진(東晉) 청자(靑磁)가 출토된 화성리의 토광묘(土壙墓)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4세기 중엽까지는 오늘날의 충남지역에 백제의 중앙세력과 문화 계통을 달리

하는 집단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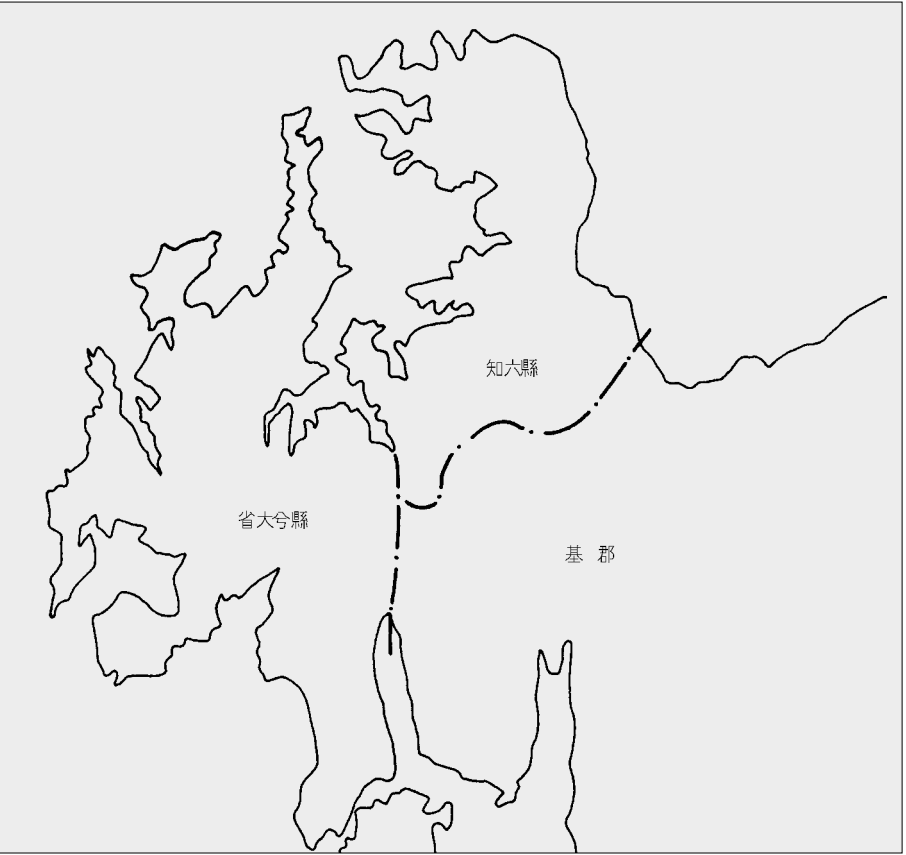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고구려의 남진세력에 밀려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함에 따라 크게 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웅진으로 천도 후에 백제는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접하였던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로 인해 태안지역은 대 고구려(對 高句麗) 전초기지로써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인 특성상 이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었을 것이다. 이 지역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백제의 중앙세력들은 이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관심은 이 지역에 백제의 중앙 관료를 지방관으로 파견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줄만한 기록이나 유적이 발견된 바는 없다. 다만 단편적으로나마 그 당시 백제의 지방 통제 방식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양서(梁書) 백제전(百濟傳)에 기록되어 있는 담노에 대한 기사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담노의 성격과 거기에 파견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담노제도가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까지 실시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뒷받침해줄 만한 고고학적 자료가 조사되거나 연구된 것도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은 담노체제를 중심으로 그 당시 태안지역의 모습을 살펴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태안과 가까운 홍성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당시의 태안지역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991년 홍성지역에서는 10여 기의 고분이 발견·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백제의 횡혈식 석실분과 제 1호분과 제 5호분의 석실내부에는 백회가 발라져 있었다. 따라서 보고자들은 이러한 석실 내부에의 백회 바름이 웅진 도읍기의 축조된 고분들의 특징임을 들어 이들을 웅진 도읍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지역에서 발견된 이들 14기의 백제고분을 제외하고는 충남 서

북부지역에서 아직까지 백제 석실분이 조사된 예가 없어 다소 미흡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서 볼 때 적어도 이 지역은 백제의 웅진 도읍기에는 중앙 세력의 직접 지배권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고분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사비 도읍기까지 계속되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홍성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태안지역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웅진도읍기에는 백제의 직접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웅진 도읍후 63년이 지난 성왕(星王) 16년에 백제는 다시 사비로의 천도를



도면 2. 백제시대의 태안지역 군현 위치도 (출처 · 안흥진성)

단행한다. 사비 천도 후에는 백제의 지방통치 조직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서(周書)의 기록에 의하면 사비시대의 지방통치 체제는 5방(方)과 군(郡)·성(城)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볼 때 백제는 사비시대에 들어와서 방(方)–군(郡)–성(城)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지방통치 체제를 성립시켰음을 알 수 있다. 방–군–성 체제란 전국을 방(方)으로 나눈 다음 그 중심에는 방성(方城)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方에는 다시 10개 내지 6·7개의 郡을 소속시켰다.

따라서 태안지역에도 당연히 이러한 편제속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주목된다. 즉 「삼국사기」의 「지리」편에는 태안지역의 지리와 관련하여 “부성군(富城郡) 본백제기군(本百濟基郡) 경덕왕개명(景德王改名) 금인지(今因之) 영현이(領縣二) 소태현(蘇泰縣) 본백제성대혜현(本百濟省大兮縣) 경덕왕개명(景德王改名) 금인지(今因之) 지육현(地育縣) 본백제지육현(本百濟知六縣) 경덕왕개명(景德王改名) 금북곡현(今北谷縣)” 이라고 되어 있다.

〈표 1〉 泰安地域 및 附近의 百濟 郡縣表

百濟時代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現在의 位置
基 郡	富 城 郡	富 城 郡	瑞山市一帶
省 大 兮 縣	蘇 泰 縣	蘇 泰 縣	泰安郡地域
知 六 縣	地 育 縣	北 谷 縣	瑞山市地谷面一帶

그리고 「지리」 4, 백제, 웅천조(熊川條)에도 “기군(基君) 성대혜현(省大兮縣) 지육현(知六縣)” 등의 기사가 보인다. 「삼국사기」의 지리관계 기사를 보면 주(州) 밑에 몇 개의 군·현(郡·縣)을 나열하고 있어서 그 영속관계(領屬關係)를 보여주고 있거니와 위의 기사를 통해서 태안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관계

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오늘날의 태안지역은 백제시대에 성대해현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이 성대해현은 지육현(知六縣)과 더불어 이웃한 기군(基郡)〈서산시지역〉의 영현(領縣)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도면2〉와 〈표 1〉은 불안전하게나마 당시의 모습을 정리해 본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태안지역 모습이 도면과 같이 정리된다 하더라도 관계 자료의 미비로 더 이상 구체적인 실상은 살펴볼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에는 방-군-성 체제라는 지방통치 방식이 있었고, 태안지역 역시 이러한 통치방식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태안지역이 어떠한 체제 속에서 어떻게 문화를 영위해 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줄만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주변에서 발견되는 몇가지 자료를 통하여 당시에 태안지역이 차지했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당시의 태안지역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태안지역과 인접한 서산 지역에서 발견된 불교관련 유적·유물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는 태안 마애삼존불과 서산 마애삼존불, 그리고 운산면 용현리에서 발견된 금동여래입상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가 서기 550년 경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조상(造像) 양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제작 시기로 보아 백제 불상이며 마애불의 선구자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처럼 제작 시기가 가장 앞서고, 양식적으로 우수한 불상과 마애불이 이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바로 백제시대에 이 지역이 차지했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삼국은 서로 경쟁하면서 삼한일통(三韓一統) 의지를 다지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선진 지역이었던 중국과의 왕래가 필수적이었다. 한강유역을 상실한 백제로서는 영토의 축소도 문제였지만, 더불어 대중국(對中國) 교통로가 봉쇄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다. 따라서 남천(南遷) 후에도 백제는 대중국 교통로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태안지역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었으리라는 추정은 쉽게 이해가 간다. 앞에서 예로 든 불교관계 유적이나 유물은 당시 대중국 교통로의 중심이요, 관문(關門)의 위치에 있었던 이 지역이 점했던 그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주는 좋은 실례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태안지역은 사비 도읍 시기에 들어서서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대중국 교통로의 관문이 되었으며, 중국의 선진 문물이 도입되는 초입지로서 선진 문화가 꽃피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九州 五小京의 名稱과 區域

區分 地域	九 州			管轄郡縣		五 小 京	
	文武王 神文	景德王 改稱	現地名	郡	縣	名 稱	現地名
新羅地域	沙代州	尙州	尙州	10	30	金官京	金海
	軟良州	良州	梁山	12	34		
	靑州	康州	晋州	11	27		
百濟地域	熊川州	熊州	公州	13	29	西原京	清州
	完山州	全州	全州	10	21		
	武珍州	武州	光州	14	44		
高句麗地域	漢山州	漢州	廣州	27	46	中原京	忠州
	首若州	朔州	春川	11	27		
	河西州	溟州	江陵	9	25		

통일신라시대의 태안지역

서기 660년에 신라군과 연합하여 백제의 사비 도성을 함락시킨 당(唐)은 그들의 원래 목표였던 한반도 전체 복속(服屬)이라는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백제지역을 웅진(熊津), 마한(馬韓), 동명(東明), 금련(金蓮), 덕안(德安)등 5도

독부(五都督府)로 나누어 백제의 주현(州縣)을 통할(統轄)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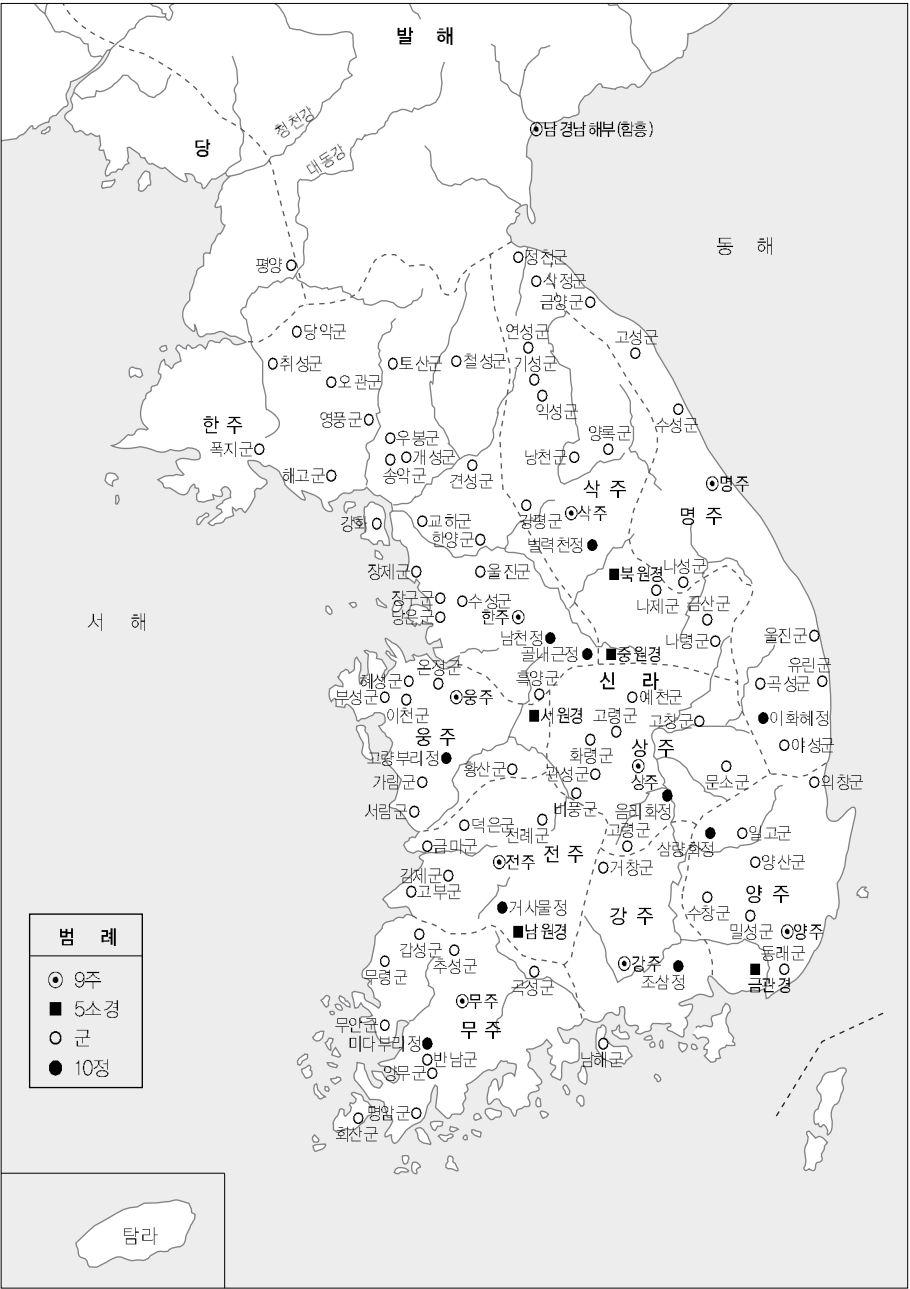
이는 대체로 백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5방제도를 토대로 하여 명칭만 바꾼 임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얼마 뒤 당(唐)은 다시 이 5도독부체제(五都督府體制)를 개편하게 되는데, 웅진 도독부를 최고 치소(治所)로 하여 동명(東明), 지심(支尋), 노산(魯山), 고사(古四), 사반(沙津), 대방(帶方), 분차(分嵯) 등이 7개 州와 52현(縣) 체제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나라의 야욕은 670년을 전후하여 전개된 신라의 대당(對唐) 축출 작전이 성공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군(唐軍)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한 후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의 재편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흔히 9주 5소경제(九州 五小京制)로 설명되는 이러한 행정구역의 재편 작업은 문무왕 17, 18년(677~678)경부터 신문왕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신문왕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조)

- ① 5년 春 復置完山州
- ② 5년 挺居列州以置菁州 始備九州
- ③ 5년 3月 置西原小京
- ④ 5년 3月 置南原小京
- ⑤ 5년 2月 以泗比州爲郡 能川郡爲州
- ⑥ 6년 2月 發羅州爲郡 武珍郡爲州

위의 기사를 통해서 구주(九州)의 근간은 이미 신문왕 5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9주 중에서 백제의 고지(故地)에는 웅천주(熊川州), 완산주(完山州), 무진주(武珍州) 등이 설치되었음도 알 수 있다.



도면 3. 9주 5소경 구역도 (출처 · 안흥진성)

그 뒤 경덕왕 16년(757)에 대대적인 행정제도의 개편과 함께 한화정책(漢化政策)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군과 현의 명칭이 한자표기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웅천주는 웅주(熊州)로 완산주는 전주(全州)로, 그리고 무진주는 무주(武州)로 개칭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삼국 통일과 더불어 새로운 지방제도가 생겨남에 따라 태안지역도 자연히 웅주(熊州)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웅주는 13개의 군과 29개의 현을 관할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백제 때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경덕왕 16년에 단행된 한화작업(漢化作業)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이 개칭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백제 때 「성대해현」이었던 태안지역은 소태현(蘇泰縣)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오늘날 서산시 주변에 해당되는 기군(基郡)은 부성군이 되었다. 그리고 기군 북쪽에 있던 지육현(知六縣)은 〈地育縣〉으로 바뀌게 되었고, 기군의 동쪽에 있었던 여촌현(餘村縣)은 여읍현(餘邑縣)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에 이러한 명칭의 변화만 발견될 뿐 태안지역의 행정구역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군현(郡縣) 명칭의 변경 작업에는 어느 정도 행정구역의 재편 작업이 뒤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현(縣)지역이 군(郡)으로 승격된다든지, 혹은 반대로 군지역이 현으로 강등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태안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시기에 들어서서도 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태안지역은 이웃한 부성군의 영현(領縣)으로 남아 있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변한 것은 없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줄 만한 자료는 없지만, 이러한 이유를 이 지역이 갖는 지리적인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태안지역은 백제시대부터 대 중국(對 中國) 교통로의 중심이자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태안지역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통일신라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은 백

제시대 이래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태안지역

고려의 건국은 신라 하대부터 각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던 호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려 왕조가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이 통일 왕국을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처음부터 지방 구석에까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후백제를 마지막으로 공략하여 통일을 완성한 후 각 지방에 웅거해 있던 호족들을 새 왕조의 지배체제 속으로 흡수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안지역에서 가까운 해미지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해현(貞海縣)의 설치는 당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에는 각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이들 호족들을 지배체제내로 흡수하여 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광종-성종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지방 호족들을 국가적인 통제 속으로 편제하려는 노력은 지방제도의 정립으로 나타났는데, 고려의 건국으로부터 1세기가 경과한 현종 9년(1018)에 이러한 지방통치 조직은 대체로 확립된다. 그리하여 이때에 전국의 4대(大) 도호부(都護府), 8목(牧), 56지주군(知州郡), 28진(鎭), 20현(縣)에 중앙으로부터 수령을 파견하였다. 이 당시 태안지역에는 소태현(蘇泰縣)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소태현이 된 것은 신라 경덕왕 때부터다. 따라서 고려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별 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때에는 소태현이 이웃한 부성군의 관할하에 있었으나, 이 시기에는 운주(運州)〈홍성〉에 소속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운주라는 명칭은 「고려태조실록」10년 3월조에 보이고 있어 고려 태조대의 지명임을 알 수 있는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 지역이 갑자기 부상하게 되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하나는 고려 태조가 운주를 공략할 때 성주(城主) 경준(競俊)이 항복한 결과이며, 다른 하나는 태조의 후비(后妃)인 흥복원부인(興福院夫人)이 바로 홍주(洪州)출신 이라는 사실이다. 대체로 고려초에 주로 개명된 요인에는 내항(來降)·협조(協助)와 혼인관계가 있는데, 고려조에 들어서의 「운주」의 급부상도 이와 같은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이 시기에 들어와서 태안지역은 약간의 변화를 겪게 되지만, 이러한 변화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 지역이 역사의 전면에 크게 부상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 때문이었다. 즉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조운제도(漕運制度)의 정비와 더불어 이 지역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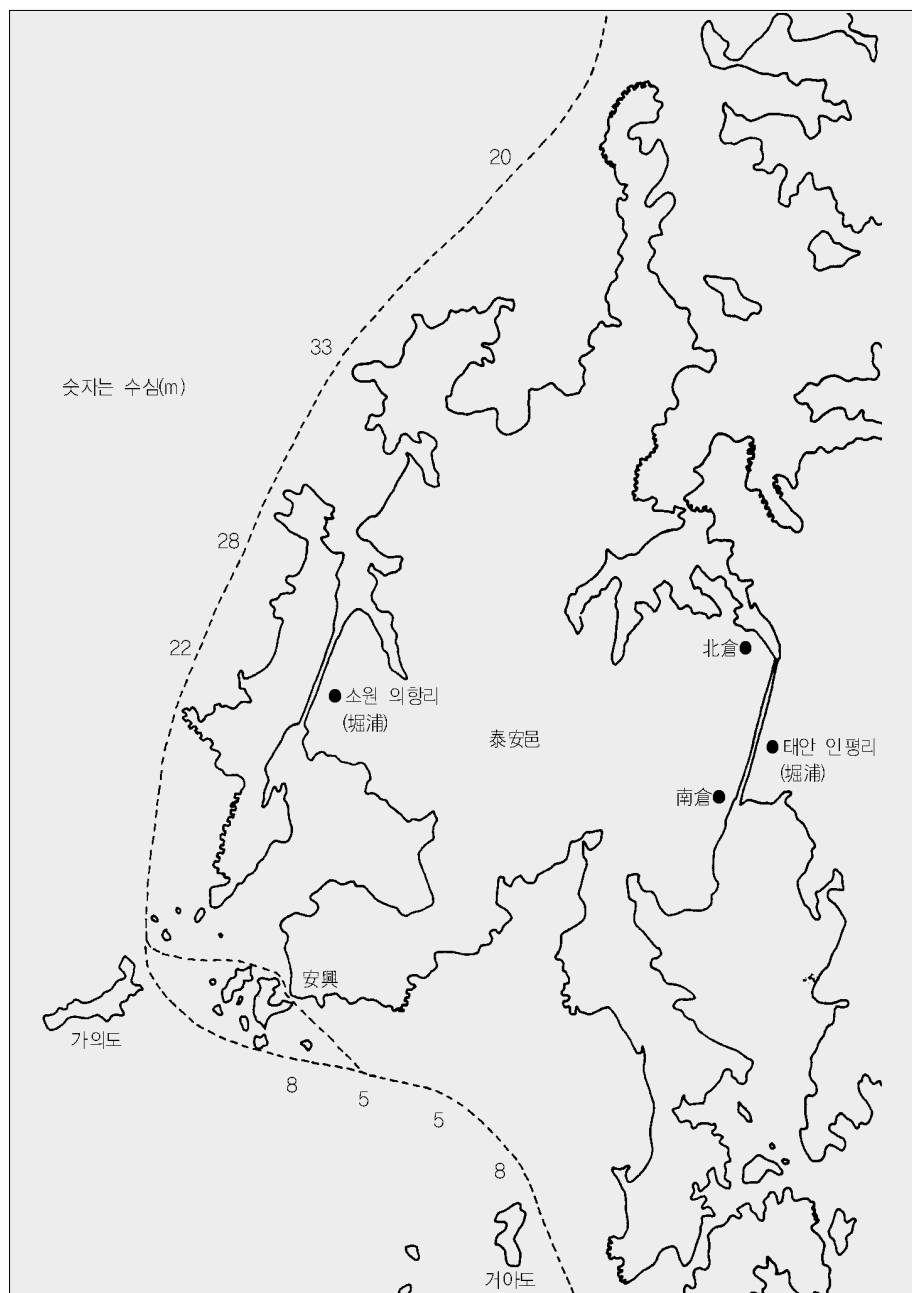
조운이란 지방에서 수납된 조세를 선박을 이용하여 하천이나 해안을 따라 왕도(王都)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 내륙의 수로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수운(水運), 또는 참운(站運)이라고 하였으며, 해로를 이용하는 것을 해운(海運)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운은 국가 재정상 매우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세곡(稅穀)의 운송에는 지대한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군현제(郡縣制)의 정비와 같은 왕조의 지배력 강화와 더불어 조운제도의 틀도 완성되어 갔다. 즉 지방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세곡의 수송체제도 완비해 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변에는 수운창(水運倉), 해변에는 해운창(海運倉)을 설치하는 등 세곡의 안전운송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런데 태안지역은 지정학적인 위치상 경도(京都)로 수송되는 조운의 가장 중요한 운송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충청도 이남의 세곡이 경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령 앞바다-태안의 안흥량-당진 난지도 서쪽을 경유하여

야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안흥량은 현재의 안흥항 앞바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진도와 마도를 거쳐 관수각(官首角)과 가의도(賈誼島)에 이르는 해역을 말하는 것인데, 신진도를 사이에 두고 그 안쪽을 내양(內洋), 그리고 바깥쪽을 외양(外洋)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안흥량은 전남의 울돌목(鳴梁), 강화의 손돌목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험조처(險阻處)로, 빈번한 해난사고의 현상이 되어왔다. 즉 이곳은 지형적으로 연안지역에 크고 작은 도서(島嶼)가 산재하는 대표적인 침강 해안지대로 해안의 기복이 심하고, 특히 관수각과 가의도 사이는 해저구릉(海底丘陵), 해저산지(海底山地) 등의 곡장지형(曲狀地形)이 발달한 해역으로서 지형의 변화가 심한 데다가 서해의 외양에 접한 수로(水路)이기 때문에 조류(潮流)가 빨라 항해를 어렵게 하였고, 조석 간만(潮汐干滿)의 차가 큰데다가 계절풍 등 기상의 영향을 받기 쉬워 조선(漕船)의 운항에는 더 많은 위험이 있었다. 조선의 피해는 곧 국가 재정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운하라고 할 수 있는 조거(漕渠)의 개착(開鑿)이 시도되게 되었다. 즉 태안반도는 바다로 돌출한 좁고 긴 반도인데, 그 중간쯤에 남쪽 천수만과 북쪽 가로림만 사이의 폭이 좁은 요부(腰部)가 있다. 현재의 지명으로는 태안을 인평리와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와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 지점은 육지의 길이가 불과 10여리 미만의 아주 좁은 지역이며, 늪지까지를 포함하더라도 20여 리에 불과하여 가장 쉽게 해류를 관통시킬 수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폭이 좁은 이 요부를 인력으로 관통시켜 안흥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북상할 수 있는 수로를 개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안흥량의 통과 대안으로써 조거 개착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고려 인종(仁宗) 12년(1134)의 일이었다. 이때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공양왕 3년(1391)에 이 조거 개착은 다시 논의되기에 이른다. 인종대



도면 4. 태안지역의 지형도 (출처 · 안흥진성)

(仁宗代)에 시도되었다가 실패한 조거 개착 공사가 이 시기에 다시 논의된 것은 고려말에 있어서의 조운 기능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의 조운제도는 13세기 이후 몽고의 침입과 농장(農莊)의 확대, 그리고 왜구의 창궐 등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그 기능이 크게 동요·쇠퇴되었다. 특히 왜구의 창궐은 조운제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이 때의 태안지역의 상황을 남 수문이 기록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수령이 한 두 명의 아전을 인솔하고 임시로 서산군에 붙어 있을 정도로 조운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당시의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법제상 조운이 혁파(革罷)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양왕 때의 태안 조거 개착 공사는 신진 사대부들이 전제개혁(田制改革)을 단행하기에 앞서 세곡 수송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한 것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논의에 의하면 인종대(仁宗代)의 공사는 10여 리의 거리를 굴착하여 불과 7리 정도만을 남겨 놓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7리 정도에 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거 개착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번째의 시도에서도 역시 실패를 거두고 말았다. 그것은 지하에 암반층이 깔려 있고, 뽕흙을 개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려온 조수에 의해 파는 대로 조거가 다시 막혀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하여 고려시대에 있었던 두 차례에 걸친 조거 개착 공사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조거 개착에 대한 노력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한편 고려시대의 태안지역 연혁을 살펴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태현에서 지군사(知郡事)로의 승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안지역은 백제시대 이래로 현(縣)으로 내려왔다. 백제 때에는 성대해현이었고, 통일신라 때는 소태현이었으며,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행정구역명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러던 것이 고려 후기에 지군사로 승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행정구역

의 설정이 전정(田丁)의 다과(多寡)에 의하지 않고, 군공(軍功), 왕실 종친관계, 호족세력(豪族勢力), 반역(叛逆) 등등의 정치적·사회적인 면에서의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때 여기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승격의 이유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충렬왕(忠烈王) 때에 이 지역의 환자(宦者) 이 대순(李 大順)이 원(元)나라의 은총을 입어 지군사로 승격됨과 동시에 지명도 지금과 같은 태안으로 바꾸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충렬왕 당시는 고려왕조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원세력(附元勢力)들에 의한 군현의 승격이 늘어났는데, 태안지역도 이러한 경우였던 것이다. 이로써 태안이라는 지명은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태안지역

조선은 고려 말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제반 모순을 시정해 보려던 유교적 소양을 갖춘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 건국되었던 만큼 초기부터 많은 개혁의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는 초기의 집권자들에 의해 정력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개창과 더불어 지방 행정구역이 개편을 본 것은 없었다. 오히려 태조 즉위년 8월에 왕실의 관향이라는 이유로 전주를 완산부로 승격시키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 말의 폐습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다.

그 뒤 조선 왕조의 지방제도가 일단락되는 것은 태종 13년에 이르러서였다. 이때의 지방제도 개편은 고려시대에 진행되었던 행정구역 승격에 의한 혼란을 수습하고, 호구수에 기준을 두고 승격을 행함으로써 행정구역이 단순히 호족(豪族) 세력에 의해 마구 승격됨으로써 일어나는 사회적인 폐단을 극복하여 국가의 행정구역을 일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때에 전국을 8도

(道)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군(郡), 현(縣)을 두는 체제로 지방제도가 개편되었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편제는 인구의 다과(多寡)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의 군현제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한층 진전된 지방통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적인 지방 편제방식은 곧바로 지방민들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그리하여 곧 개편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 성립된 이러한 지방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지방제도가 새롭게 개편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진행된 이러한 대대적인 지방 행정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태안지역은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안과 바로 이웃한 서산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시기에 들어와서 약간의 변화를 겪는다.

〈표 3〉 朝鮮 8道 行政區域 一覽表

道 別	計	府 從二品	大都護府 正三品	府 正三品	郡 從二品	郡 從四品	縣 從五品	縣 從六品
計	330	5	5	20	75	77	26	122
京畿道	33			3	8	10	4	8
忠清道	54			4	1	14	1	34
慶尙道	71	1	2	3	14	13	5	33
全羅道	56	1		4	7	13	5	26
黃海道	23			2	6	7	2	6
江原道	26		1	1	7	6	3	8
咸鏡道	25	25	1	1	18	2		2
平安道	42	42	2	1	14	12	6	5

즉 서산군의 서산이라는 명칭은 이미 고려 후기인 충렬왕 때에 등장하고 있

어 오늘날의 명칭이 이때에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조선 태종 7년(1413)에는 서산군과 인접해 있던 정미(貞美), 여미(餘美)의 양현(兩縣)이 해미현(海美縣)으로 통합됨으로써 오늘날의 지명인 해미가 탄생함과 동시에 서산군과 해미현의 체제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인접한 서산지역만 하더라도 이 시기에 들어와서 행정구역상의 약간의 변화를 겪지만, 태안지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군수가 1인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태안지역에 독립적인 지방관이 파견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개창 이후 태안지역은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았는데, 조정에서 조운과 관련하여 조거 개착이 논의되면서 다시 이 지역이 역사의 전면 에 부상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개착 공사는 조선(朝鮮)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태조 4년 5월에 있었던 경상도 조선(漕船) 16척의 난파(難破)를 계기로 조거 개착의 문제는 다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건국 직후인 태조 4년과 6년에 두 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으며, 최 유경(崔 有慶)과 남 은(南 閔) 등이 실제로 현지에 파견되어 사안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지중에 암반층이 있어 개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지되고 말았다.

그런데 안흥량에서의 사고는 그 뒤에도 계속 일어났다. 먼저 태종 3년 5월에는 경상도 조선(漕船) 34척이 패몰(敗沒)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6월에도 조선(漕船)이 패몰하여 사람 1천여 명과 쌀 1만 석이 수장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자 태종 12년에 하륜(河 崙)의 발의(發議)로 다시 조거 개착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런데 앞서서 이미 여러 차례의 실패가 있었으므로 이때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갑문식(閘門式)과 유사한 형태의 조거를 개착하기로 하고, 이듬해 정월부터 착공하여 2월에 일단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때 완공된 태안 조거는 공사의 난관이 되었던 3리 가량의 고지대 안부(鞍部)를 일종의 갑문식

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안부(鞍部)를 중심으로 남쪽 3개 처와 북쪽 2개 처에 저수지를 만들어 물길을 열 결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실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나고 말았다. 저수지의 규모가 작아 소규모의 배 1척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하여 실제 통선(通船) 가능 일수가 며칠 되지도 않았다.

또한 조거의 구조상 조운선(漕運船)이 태안반도를 곧바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적재된 세곡만을 몇차례 배로 옮겨 싣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 대선(大船)→평저선(平底船)→소선(小船), 다시 소선→평저선→대선으로 전재(轉載)이운(移運)하기를 6번이나 되풀이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태종 때의 준공에도 불구하고 이 조거는 전혀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태종은 태안지방에 2회 순행하는 등 조거의 개축 문제에 고심 하였으나 더 이상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그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다가 중종대(中宗代)에 와서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공사는 삼도관찰사(三道觀察使) 고 형산(高 荊山)의 건의에 의해 중종 1년(1522)에 시작되었는데, 이때에는 그 위치를 바꾸어 지금의 소원면 의항리 일대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공사도 착공 4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중종(中宗) 32년에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는데, 부역승(赴役僧) 5천여 명이 동원되어 착공 6개월만에 준공되었다. (중종실록 권 제 83, 32년 2월 정사조〈丁巳條〉 및 32년 7월 갑오조〈甲午條〉) 그러나 대사헌(大司憲) 황 헌(黃 憲)의 보고에 의하면 통조(通朝)가 불가능하여 이 의항리 조거는 실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이 의항리의 조거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태안 조거와는 달리 공사가 계속 시도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이 의항리의 조거가 태안 조거보다 기대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태안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조선의 통행로가 되면

서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위정자들의 주된 관심지역이 되어왔다. 한편 조선시대에 태안지역과 인접지역과의 경계와 태안지역 내에서의 행정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조선시대 후기에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지도서」에 기록된 태안지역의 면리(面里)편성 내용은 이런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된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표 4〉 18世紀 泰安郡의 面里 編成

面 名	里 名	官署로부터의 距離
郡 內 面	東門外里, 獄下里, 南門外里, 西門外里, 正果實里, 巨林浦里, 川月里, 霜谷里, 沙店里, 新垞里, 所串里, 黑店里, 桶川里(13)	東 1里, 西 1里 南 1~10里
南 面	榛我里, 東山里, 夢垞里, 楊內里, 遠串里, 垞山里, 外潛里, 其亥里, 內潛里, 元青里, 堂山里, 大岩里, 申城里, 擧溫里, 熊島里, 安眠倉垞里, 孤島里, 居兒島里(18)	南 10~50里
近 西 面	漆汚里, 楸洞里, 瓦也洞里, 馬川里, 倉谷里, 龍腰里, 要峴里, 浪金里, 磨金洞里, 宮機里, 新垞里, 都莊洞里, 申基里, 安波里, 漆浦里, 山城里(15)	西 3~40里
遠一 導面	正伊里, 法山里, 高佐頭里, 中方里, 新德兄里, 波濤只里, 大小山里, 松峴里, 幕洞里, 踰三間里, 水踰洞里, 茅項里, 登垞山里(13)	西 5~40里
遠二 導面	石峴里, 柿木里, 三峯里, 道路乃里, 石門里, 內洞里, 中味里, 令田里, 加也項里, 所斤里, 高峴里, 陽山里, 葛頭里, 保平里, 巨光洞里, 大基洞里, 楮谷里, 楓川里, 葛峴里(19)	西 7~40里
北一 導面	古波島里, 馬方里, 山浚里, 萬垞里, 官洞里, 棠下里, 社倉里, 甕店里, 中狸里, 二作里, 黑店里(11)	北 15~70里
北二 導面	實松里, 蒲洞里, 堀杏里, 酸梨里, 上溪里, 磻溪里, 水鐵店里, 東海幕里, 薪串里(9)	北 20~40里
東一 導面	朔善洞里, 北浦里, 山浚里, 魚隱洞里, 恙楊里, 島內里, 北倉里, 古驛里, 上倉里(9)	東 5~20里
東二 導面	古一里, 勿金山里, 平薪里, 興仁里, 堀浦里, 驛里, 項洞里(7)	東 7~12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태안지역에는 9개 면에 114개의 리가 편성되어 있었다. 아울러 면의 명칭이 매우 획일적으로 명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면명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고려말·조선초 왜구의 창궐과 이로 인한 지방사회 혼란 이후 면리제(面里制)의 시행에 따른 행정조치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면리의 편성 내역에서 보면 당시의 면리와 오늘날의 면리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예컨대 안면면의 경우 오늘날의 태안군에 속해있으나, 이 당시에는 태안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서산군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동여지도」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지방세력의 세력권과 관련시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도에서 보면 당시의 안면도지역은 섬의 중·남부가 서산에 속해 있고, 북서부 일부와 창기리지역은 태안에, 그리고 북동부 일부지역은 홍주목(洪州牧)에 각각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지도는 조선 왕조 말기인 고종년간(高宗年間)에 제작된 것이지만, (7페이지 대동여지도 참조) 그 내용은 조선조 전기(前期)와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안면도지역이 세 부분으로 관할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즉 언뜻 보기에는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는 당시의 지방세력권과 관련시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근대이후의 태안지역

1894년에 있었던 동학 농민군의 봉기는 지방제도 개편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농민군의 봉기 당시 태안·서산지역에서도 농민군과 관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특히 서산지역은 동학의 2대 교주인 최 시형의 종친들이

있었던 관계로 동학교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봉기는 그만큼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안흥진성, 소근진성, 태안읍성도 이때에 폐성(廢城)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농민군의 봉기를 계기로 조선정부는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지방제도의 개편 작업은 이듬 해인 1895년에 있었던 을미개혁 때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루어진 개편작업의 중요 사항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종래의 8도 체제를 23부(府)체제로 고치고, 부(府)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였으며, 둘째, 종래의 류수부(留守府), 부(府), 목(牧), 대도호부(大都護府),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으로 되어 있던 고을을 일률적으로 군으로 하고, 군에는 군수를 두었다. 이때에 태안군은 인접한 서산, 해미, 당진, 면천 등과 더불어 홍주부(洪州府) 산하에 있던 22개군 중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작업은 곧바로 거센 반발을 초래하여 결국 1년 만에 또 다시 새로운 지방제도의 개편을 보게 되었다. 이때의 개편 작업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8도 중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5개 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13도로 하고 각 도에는 관찰사를 두었던 점과 종래에 류수부(留守府), 부(府), 목(牧), 대도호부(大都護府),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으로 되어 있던 각 고을을 일률적으로 군으로 통일하고, 각 군을 다시 5등급으로 나눔으로써 군수의 대우를 달리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여 대체로 오늘날과 같은 13도제(道制)가 탄생하였다. 이 당시 충청남도는 공주지역을 치소(治所)로 하여 37개 군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서산군은 3등군에, 그리고 태안군과 해미군은 4등군에 속해 있었다.

그 후 한말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태안지역의 비중은 점점 더 약화되었다. 특히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지방행정의 통일을 꾀하여 일사불란하고 효과적인 식민지 지배체제를 수립하고자 지방제도의 개편에 착수하게 되면서부터 종래의 서산·태안·해미군이 서산군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태안지

역의 위치는 더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통폐합 조치는 백제시대 이후 계속된 행정제도의 변천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에 면과 리의 조직도 크게 변하였다. 그리하여 옛 태안군(舊 泰安郡)의 군내(郡內), 동일(東一), 동이(東二)면이 합쳐져서 태안면이 되었으며, 원일(遠一), 소근(所斤), 원이(遠二)면이 소원면으로 개칭·통합되었다. 또한, 북이면(北二面)과 원이면(遠二面)의 일부를 합하여 원북면이 되었으며, 근서면(近西面)과 안흥면(安興面)을 합쳐 근흥면이라 하였다. 북일면(北一面)과 이원면(梨園面)은 이북면으로 통합되었고, 안상면(安上面)과 안하면(安下面)은 안면면이 되었다. 현재 태안지역의 면과 리의 체계는 이때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1973년에 태안면이 태안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뒤이어 1980년에는 안면면이 안면읍으로 승격되었고, 또한 이북면이던 지명을 1987년 1월 1일 이원면으로 개칭하였으며, 고남면은 안면읍에서 고남지구를 분리하여 1986년 4월 1일부로 고남면으로 부르게 되었다. 아울러 1989년에는 태안지역이 서산군(市)으로부터 분리 복군되면서 泰安郡으로 독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안읍(泰安邑)

태안읍은 본래 부내면(府內面)으로서 동문외리(東門外里)·옥하리(獄下里)·남문외리(南門外里)·서문외리(西門外里)·정과실리(正果實里)·거림포리(巨林浦里)·천월리(川月里)·상곡리(霜谷里)·사점리(沙店里)·신대리(新垓里)·소곶리(所串里)·흑점리(黑店里)·통천리(桶川里) 등을 관할하였으나, 뒤에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改稱)됨에 따라 리명(里名)을 다시 조정하고 정비해서 동문리·옥하리·남문리·서문리·천월리·신곡리(新谷里)·반곡리(盤谷里)·왕산리(旺山里)·신대리·대평리(大坪里)·소곶리·송암리(松岩里)·흑

점리·정과리(正果里)·귀실리(貴實里)·금산리(錦山里)·산남리(山南里)·남산리(南山里)·통천리·원동리(院洞里) 등을 관할해 오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의해 동일면(東一面)의 상창리(上倉里)·도내리(島內里)·북창리(北倉里)·창평리(倉坪里)·탄동리(炭洞里)·어은리(漁隱里)·고장리(羔場里)·산후리(山後里)·금암리(錦岩里)·오곡리(烏谷里)·오룡리(五龍里)·해창리(海倉里)·우평리(羽坪里)·삭선리(朔善里)·동이면(東二面)의 물중리(勿中里)·고일리(古日里)·옥항리(玉項里)·물상리(勿上里)·흥인리(興仁里)·항동리(項洞里)·역리(驛里)·고굴리(古掘里)·평신리(平新里)·하창리(下倉里)·평촌리(平村里), 그리고 근서면(近西面)의 삼한리(森汗里)·장산리(長山里) 등의 일부를 병합하여 면명(面名)을 다시 태안면(泰安面)이라 개칭하고 서산군에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리명(里名)이 다시 남문리·동문리·장산리·남산리·송암리·반곡리·평천리·인평리·상옥리·도내리·어은리·산후리·삭선리 등의 13개 리로 개편되어 내려오다 지난 1973년 7월 1일부로 대통령령 제 6543호에 따라 읍(邑)으로 승격(昇格)되었는데, 지난 1989년 1월 1일 태안군이 복군되므로써 태안읍은 다시 태안군의 관할하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매각 반대 투쟁으로 태안군청 터 확보

1988년 지금의 태안군 청사 터(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번지 9,700여평)가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을 때 서산군이 매각 처분하려 할 무렵 태안지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태안민주동지회(박 규웅, 한 병수, 홍 재표, 최 진환, 김 영규) 등과 뜻을 같이하여 몸을 던져 싸워 이 땅을 지켜냈다. 그 결과 오늘날 태안군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보는 웅장한 태안군의 청사가 들어서게 되었다.

태안군은 일제 강점기(1914) 조선총독부가 태안군을 강제로 서산군에 합병하여 75년이라는 세월동안 통치하였다.

그 후 태안군민들은 잃었던 태안군을 되찾기 위해 태안군복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여명의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복군추진운동을 하던 중 그 투쟁결과로 1989년 1월 1일 법률제4050호에 의거 75년 만에 감격스러운 태안군을 되찾는데 성공하였다.

○ 태안군의회 역대의원

구 분	제 1 대		제 2 대		제 3 대		제 4 대		제 5 대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의 장	김 순환	이 만선	문 제동	이 상열	조 한무	박 남규	조 한무	가 기순 박 인복	이 용희
부의장	이 만선	문 제동	최 진환	박 남규	박 남규	김 영우	이 영수	이 용희	정 광섭
의 원	최 경섭	김 순환	유 익환	유 익환	유 익환	유 익환	김 진묵	이 영수	최 경환
〃	정 지근	최 경섭	이 상열	최 진환	이 상열	이 상열	이 용희	정 지근	이 영수
〃	이 상열	정 지근	김 영우	문 제동	김 영우	김 상호	정 지근	조 한무	조 한무
〃	박 상엽	이 상열	이 만선	김 영우	김 상호	조 한무	박 종민	김 진묵	박 남규
〃	문 제동	박 상엽	박 남규	이 만선	이 만선	이 만선	가 기순	김 광모	박 인복
〃	조 항설	조 항설	조 한무	조 한무	조 신호	조 신호	박 인복	박 종민	최 우평
〃	이 용복	이 용복	김 원대	김 원대					



○ 태안군청 실·과 현황

군수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부군수	주민지원과	해양수산과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건설도시과	환경관리사업소
종합민원실	재난안전관리과	의회사무과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재무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 태안읍·면장 재직현황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1대(1대·4대, 3년 8월)	김 응제	1945. 8. 15.~1946. 12. 31. 1948. 3. 1.~1950. 6. 25.
2대(6월)	조 태호	1947. 1. 1.~1947. 6. 30.
3대(8월)	이 기대	1947. 7. 1.~1948. 2. 28.
5대(6년)	김 동열	1950. 6. 26.~1956. 7. 12.
6대(6대·9대, 4년)	한 기수	1956. 7. 13.~1959. 8. 7 1960. 12. 1.~1961. 10. 30.
7대(10월)	안 홍백	1959. 8. 8.~1960. 6. 19.
8대(5월)	최 동기	1960. 6. 20.~1960. 11. 30.
10대(10대·12대, 4년 5월)	장 동기	1961. 11. 1.~1962. 7. 6. 1967. 11. 26.~1971. 9. 7.
11대(5년 5월)	한 상대	1962. 7. 7.~1967. 11. 25.
13대(3년 1월)(초대읍장)	최 인환	1971. 9. 8.~1974. 10. 8.
14대(7년 8월)	김 낙영	1974. 10. 9.~1981. 11. 30.
15대(1년)	김 동민	1981. 12. 1.~1982. 12. 1.
16대(3년 7월)	조 명호	1982. 12. 2.~1986. 6. 30.
17대(17대·19대, 3년 1월)	유 병철	1986. 7. 6.~1987. 12. 1. 1991. 1. 5.~1993. 6. 30.
18대(4년 1월)	이 강호	1987. 12. 1.~1991. 1. 5.
20대(1년 9월)	이 재필	1993. 7. 1.~1995. 4. 30.
21대(3년 1월)	정 우영	1995. 5. 1.~1998. 6. 30.
22대(2년 6월)	문 호석	1998. 7. 1.~2001. 1. 1.
23대(2년)	이 상무	2001. 1. 1.~2003. 1. 14.
24대(1년)	조 달현	2003. 1. 15.~2004. 1. 19.
25대(2년 2월)	한 상복	2004. 1. ~2006. 3. 22.
26대	이 기재	2006. 3. 22.~현재

① 남문리(南門里)

남문리는 본래 부내면·군내면 그리고 태안면의 관할 지역으로서 태안읍성의 남문 근처에 형성되었으므로 남문거리 또는 남문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1914년의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서문리·옥하리 그리고 동문리와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남문리라 부르고 서산군 태안면에 편입시켰다. 그후 지난 1973년 7월 1일부로 태안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다시 태안읍의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지난 1989년 1월 1일 태안군이 복군되므로서 남문리는 다시 태안군의 태안읍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남문(南門) [마을]

태안읍성의 남문쪽에 이루어진 마을이므로 편의상 남문마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남문리, 서문리 보다는 남박끼, 습박끼로 많이 불리었다.

◇ 서문리(西門里) [마을]

태안읍성(泰安邑城)의 서문밖에 형성된 마을인데, 지금은 남문리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서문리란 명칭이 쓰여지지 않고 있으며, 남문리와 구분없는 동일 관할구역이었다.

◇ 성뒤 [마을]

구시장의 북쪽에 이루어진 마을인데, 위치가 성뒤쪽이 되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 탑골(塔洞) [마을]

이 탑골은 태안여고의 남쪽 약 200



성뒤 마을 (동에서 서북)



1975년 남문리 (부분)



2006년 남문리 (부분)

미터 지점인 외곽 도로 양지 바른쪽에 형성된 마을인데, 이곳에 탑(5층석탑)이 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여기에는 큰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15 해방전 까지도 좌석불 2좌가 있었으나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

◇ 환동(環洞) [마을]

탑골의 남쪽인 삼성아파트 앞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의 지형이 마치 문고리처럼 둥글게 생겼다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 구시장(舊市場) [마을]

태안읍사무소와 경이정(憬夷亭) 중간에 있는 동네. 옛날 이곳에 시장이 열렸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며, 옛집이 아직도 남아 있다.

◇ 밤골(栗谷) [마을]

남문 3리에 있는 마을을 일컬음인데, 송암리와 접하고 있으며 태안군청 뒷편에 있다. 이 동네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명칭인데, 남문리 진흥회에서 밤나무 묘목을 심어서 조성한 것이다.



탑골 마을 (동에서 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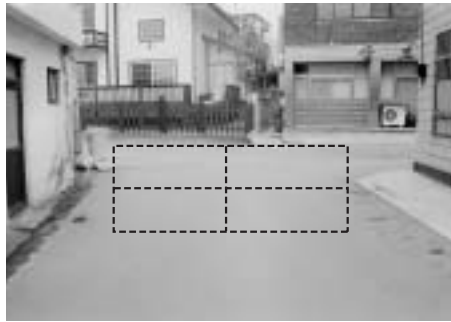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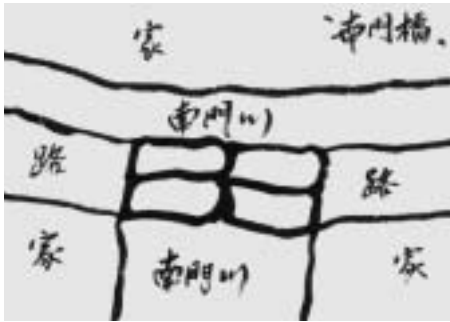
환동 마을 (동에서 서)



구시장 터 (서에서 동)



밤골 마을 (동에서 서남)



남문다리 터 (남에서 북)

◇ 남문교(南門橋) [다리]

남문천에 있던 다섯개의 다리중 규모가 가장 크고 웅장했던 남문다리이다. 상판에 가로 1.5m, 세로 90cm 정도의 화강암을 두개씩 이어 놓았던 것인데, 1980년대 복개되어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 모래기재(砂嶺) [고개]

남문 1리의 구시장에서 삭선리로 넘어가는 백화산 기슭에 있는 고개를 일컬음인데, 이곳에 모래(특히 왕모래)가 많았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이면 이곳에서 내려오는 복사(覆沙)로 인하여 주변의 농경지(農耕地)에 큰 피해를 주곤 하였다.



모래기재 (남에서 북)

◇ 마례기재(馬力峙) [고개]

남문 2리에서 장산리로 넘어가는 즉 태안여자고등학교와 소방대 사이에 있는 고개를 지칭(指稱)하는 것인데, 지금은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고개도 무

척 낮아졌고 또한 길도 훨씬 넓혀져서 보행이 편리해졌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고개가 높고 길어서 사람은 물론 말도 이곳을 넘으려면 힘이 빠진다 하여 「마력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이 마력재가 마례기재 또는 마루기재로 와전되어 굳어지고 말았다.

◇ 아맹이재(衙望峙) [고개]

환동, 삼성아파트 앞에서 남면(南面)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일컫는 것인데, 옛날 남면 방면에서 걸어오다 이 고개에 이르러 태안읍내를 내려다 보았을때, 관아(官衙)가 한 눈에 바라다 보인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그런데 이 「아망재」가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아맹이재로 와전되어 굳어지고 말았다.

◇ 탑골고개 [고개]

이 탑골고개는 남문리의 탑골에서 장산리로 넘어가는 서쪽에 있는 고개를 이름인데, 탑골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붙인 명칭이다.

◇ 빙고재(氷庫峙) [고개]

남문리의 아맹이재 옆에 있는 고개를 일컬음인데, 옛날 이곳에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으므로 여기서 연유된 명칭이다.



마례기재 (동에서 서)



아맹이재 (북에서 남)



탑골고개 (동에서 서)



빙고재 (북에서 서남)



낙조봉 (배바위)



방죽샘 터 (서에서 동)



동문샘 (동남에서 북)



남문샘 터 (서에서 동)

◇ 탑산(塔山) [산]

탑골에 있는 야산(野山)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곳에 탑이 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 낙조봉(落照峰) [산]

백화산(白華山)의 한 봉우리를 일컬음인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시적이고 너무 아름답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방죽샘(防築井) [우물]

태안프라자 동쪽 조석시장 안 남면행 도로옆에 있던 커다란 우물이었다. 남문리와 동문리 주민 다수의 식수원으로서 상징적 우물이었다.

◇ 동문샘(東門井) [우물]

태안읍성 동쪽 성벽 아래에 있는 우물인데 지금껏 남아 명맥을 유지한다. 위치상으로는 남문리에 있으나 동문리 주민들이 이용하였기에 동문샘으로 불리었다.

◇ 남문샘(南門井) [우물]

남문리 구시장, 즉 태안읍성 내에 있던 우물인데 30여년 전까지 사용하였으나 개발에 밀려 사라졌다.

◇ 능샘(陵泉) [샘]

이 능샘은 탑산 기슭의 외곽도로 옆에 있는 샘을 일컫는 것인데, 능처럼 생긴 지형 밑에 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이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또한 물맛이 좋기로 널리 알려져서 이곳을 왕래하던 태종, 광해군, 정조 등이 봄 사냥차 다니다가 반드시 이 샘물을 마셨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폐천(廢泉)되어 보이지 않는다.

◇ 서낭당 [당]

남문리의 모래기재(沙峴)에 있었던 서낭당을 일컬음인데, 길 옆에 있는 돌무덤 서낭당이 아니고 고개 북쪽 당재별이라는 평지에 당집을 짓고 당각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지금은 흔적도 없으나 堂直이라는 여인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까지 있었다.

◇ 탑골탑(塔洞塔) [탑]

남문리에 있으므로, 편의상 그 지명을 붙이어 탑골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5층석탑인데, 이 5층석탑은 충청남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20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사장터(射場址) [터]

남문리의 모래기재 앞에 있었던 옛터를 일컬음



능샘 터 (동에서 서)



서낭당 터 (서에서 동)



탑골탑 (서에서 동)

인데, 지난날 이곳에서 활을 쏘았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가로 변하여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학교앞 집터에 있던 관덕사 락정의 계승으로서 현재의 교육청 자리에 관덕정(觀德亭)을 세우고 군사들이 국궁무예를 수련하던 곳이었다. 동쪽 건너편 솔밭동산에 과녁판이 있었다.



사직단 터 (동에서 서북)

◇ 사직단(社稷壇) 터

사직단이란 곡물신(穀物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서 사(社)는 토지(土地)의 신을 뜻하고 직(稷)은 곡신(穀神)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 태안에 서도 이와 같은 사직단에서 매년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정성껏 지냈으며 가뭄이 극심할 때는 기우제도 이 곳에서 지냈다.

태안의 사직단은 각종 문헌상에는 “在郡西三里”(郡으로부터 서쪽으로 3리지점)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 남문리 2리 지역인 태안여고의 정문 부근에 있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이 곳에는 토단의 형태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태안여고가 들어서면서 멸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성황단 터 (남에서 서북)

◇ 성황단(城隍壇) 터

성황단이란 해자(垓子)에서 죽은 병사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제사터를 말하는데 해자란 성(城) 밖으로 돌려판 못을 말한다.

태안읍성은 밖으로 시냇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못을 조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지만 시냇물이 없었더라면 태안읍성에도 못을 조성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태안의 성황단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직단과 함께 제사터로서 신성시 되고 있었는데 각종 문헌상에는 “在郡北二里”(郡으로부터 북쪽으로 2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 남문리 지역인 태안초등학교 후문에서 백화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동학혁명 위령탑 중간지점인 산밑에 돌단이 쌓여진 집터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곳이 바로 성황단 터이다.

태안군이 폐군되면서 일제는 성황단터마저도 개인에게 불하하여 안타깝게도 집터로 변해버린 것이다.

남문리의 위치 및 유래

1. 남문리(南門里) 마을은 동문리(東門里) 마을과 마찬가지로 태안읍(泰安邑)에서 가장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안군청과 읍사무소, 태안여고, 태안초등학교, 교육청 등이 모여있는 태안군(泰安郡)의 군청소재지로서의 중심적인 마을이다. 이렇게 태안군 행정의 중심지이고 교육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산업의 중심지 마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은 동문리와 마찬가지로 농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상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비농림어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도시형의 집단화 마을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남문리 마을의 동쪽으로는 백화산(白華山)으로부터 시작되어 태안초등학교 옆의 골목을 지나 경이정(憬夷亭) 앞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어가며 흐르는 태안천(泰安川) 상류의 세천을 따라 내려오다가 경이정 앞을 지나는 도로를 따라 사거리에 이르는 지역까지를 동문리 마을과 접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동문 3리의 마을회관 앞까지 이어지는 태안천으로부터 이어받아 여우고개에 이르는 지역까지의 도로를 경계로 하여 동문리 마을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여우고개에서 시작하여 환동 뒷산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어지는 나즈막한 야산 줄기의 능선을 경계로 하여 송암리(松岩里) 마을, 남산리(南山里) 마을과 접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백화산 정상에서 시작하여 모래기고개에 이르는 지역까지의 산맥을 경계로 하여 3리의 마을회관 앞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어지며 시내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태안천의 중간 지점을 경계로 하여 동문리 마을과 접하고 있다.

아울러 서쪽으로는 태안여고의 뒷산에서 시작하여 탑골 뒷산을 거쳐 환동 뒷산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어지는 야산들의 능선을 경계로 하여 장산리(長山里) 마을과 접하고 있다.

이러한 남문리 마을의 역사적 유래에 대하여는 조선조 태종 17년인 1417년에 쌓아진 태안읍성(泰安邑城)의 축성 당시에는 동문(東門), 서문(西門), 남문(南門), 북문(北門) 등 4개의 대문이 있었음과 아울러 우물도 4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북문과 서문은 백화산에 가로막혀 별로 사용 가치가 없어지자 폐쇄되어 없어져 버렸고, 동문과 남문에는 3간(三間)씩의 문루(門樓)가 있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그러한 문루가 동문에는 단층으로 되어 있었으나 경이정 앞에 위치하였던 남문에는 특이하게도 2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되자 성문(城門)의 밖에는 자연적으로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으므로 경이정 앞에 위치하여 있던 남문 밖에도 집들이 들어서게 되어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었으므로 이 마을을 남문거리 또는 남문리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남문리 마을은 군청(郡廳) 소재지에 위치한 마을이었으므로 군청소재지의 읍(邑)에 해당하는 군내면(郡內面)에 의하여 크나큰 변화를 맞

게 되었다. 당시 태안군의 모든 객사(客舍)들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면서 태안읍성(泰安邑城)도 허물어지게 되었고, 남문 위에 세워져 있던 2층 짜리 3간 문루(三間 門樓)도 불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문 밖에 위치하여 있던 남문리 마을도 크나큰 수모를 당했으며 성곽(城郭)이 무너지자 마을의 규모도 달라지게 되고 말았다.

이때 군내면 내의 정확한 가구 및 인구 통계는 보존되고 있는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태안읍지(泰安邑誌) 등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면 남문리가 편호 80호, 남 147구, 여 136구이며, 서문리(西門里)가 편호 74호, 남 131구, 여 121구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910년 조선을 강제 합병시켜 버린 일제는 우리 나라를 영구적인 자기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대규모의 토지조사(土地調査)를 전개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를 통한 토지의 수탈을 시작하더니 1914년에는 대대적인 행정구역의 통폐합 작업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몇 백년 동안을 지속하면서 내려오던 태안군(泰安郡)을 폐군시켜버린 일제는 군내면과 동일면(東一面) 또는 동이면(東二面)을 통폐합하여 태안을 하나의 면(面)으로 격하시켜, 서산군(瑞山郡)에 포함시켜 버렸음은 물론 남문리 마을 이외에 서북 쪽에 위치하면서 옛날의 서문(西門)밖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서문리 또는 옥하리(獄下里) 마을의 일부와 동문리 마을의 일부를 포함하여 남문리라는 하나의 마을을 만들고는 서산군의 태안면(泰安面)에 편입시키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태안면에 속하게 되었던 남문리 마을도 1973년 7월 1일 태안면이 읍(邑)으로 승격하게 되자 태안읍에 소속되기에 이르렀고 1989년 1월 1일 태안군이 서산군으로부터 복군되자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마을에서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마을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 남문리는 부자가 많이 거주했다. 만석군이 있었고, 천석군도 여럿 있었다. 주민들도 보편적으로 살림을 잘하고 살았기에 부자동리라고 불리어졌다. 당시 서산에 진출하여 권력과 부력을 누리던 사람들은 태안의 남문리 사람들이 많았다. 남문리는 리 재산이 많아 약 300석 정도 추수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후엔 태안중학교 설립기금으로 전액 기부한 바도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리장에게 봄 가을 나누어 주던 모조(牟租)도 받지 않았다. 어려운 주민의 세금도 대납해 주었으며, 자금 융통도 해 주었다. 한여름 삼복 더위에는 소를 잡아 동리 경노잔치도 하였으며, 경이정에서 야학하는 일체 시설과 비용을 담당하여 청년단체인 일품회(一品會)의 활동을 도와 주었고, 유치원도 경영하였다.

남문리는 리장과 문서를 다루는 서기와 아래 소임으로는 동리의 일을 챙겨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문리와 서문리에 한 사람씩 있었다. 또한 두레라는 농악대는 농사일을 할 때에 함께 다니며 위로와 힘이 되어 주고 보름날이면 동리 마당에서 주민과 함께 즐기며 흥취를 돋구어 주었다.

가끔은 50여명의 남사당 무악단체가 와서 농악 꽃나비(무등) 줄타기 등 온갖 재주를 펼쳤으며 옛 구시장터 광장이 방죽이었는데, 이 곳도 태안읍성 성돌로 메웠다. 그 당시에 사방 1개 정도의 돌주추가 나왔는데, 이것이 태안읍성 남문의 주춧돌로 추측된다.

유명했던 동양척식도 태안에서는 감히 침범을 못했는데, 부자들이 많아 땅을 챙기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리장 시대는 라 창영, 박 동권이었다.



남문리의 행정 및 단체

역대 이장(歷代 里長)

그 동안 남문리 마을을 대표하면서 리행정(里行政) 업무(業務)를 책임지고 추진하였던 역대 이장들의 명단은 유감스럽게도 일제시대 것은 남아있는 자료가 부분적이어서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인 1945년 8·15 이후부터 6·25 한국전쟁이 발생하였던 1950년도 또는 1951년도까지도 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의 일이다. 다만 6·25전쟁 이후인 1952년 11월 11일 이후부터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뿐이다. 더구나 남문리는 점점 세대가 급증하여 행정리(行政里)가 계속 분구되어 오늘날에는 4개 리의 마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태안읍사무소에 보관중인 인사발령 대장에 등재된 남문리 마을의 역대 이장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문1리 이장(南門一里 里長)			
성명	임명년월일	성명	임명년월일
이성능(李成能)	52. 11. 11.	신의균(申義均)	71. 12. 1.
이석만(李錫萬)	56. 10. 20.	가흥로(賈興魯)	72. 1. 1.
이봉의(李奉儀)	58. 5. 1.	나상배(羅相培)	73. 3. 7.
박국환(朴國煥)	60. 3. 1.	김중회(金鍾會)	88. 11. 20.
류상희(柳相禧)	62. 1. 9.	김용식(金瑑植)	95. 1. 12.
가흥로(賈興魯)	68. 5. 1.		

남문2리 이장(南門二里 里長)		박 동주(朴 東柱)	80. 5. 16.
성 명	임명년월일	조 규철(曹 奎哲)	80. 9. 5.
손 창호(孫 昌浩)	52. 11. 11.	박 동주(朴 東柱)	83. 1. 28.
지 병준(池 秉俊)	55. 5. 1.	오 병익(吳 炳翼)	98. 2. 16.
안 광식(安 光植)	62. 1. 9.	남문4리 이장(南門四里 里長)	
안 만순(安 萬淳)	84. 1. 14.	성 명	임명년월일
조 정남(趙 正男)	84. 3. 22.	문 병습(文 秉習)	91. 9. 2.
남문3리 이장(南門三里 里長)		김 영부(金 英夫)	95. 10. 26.
성 명	임명년월일	구 승서(具 承瑞)	02. 11. 19.

태안청년회의소

○ 사무소 위치 : 태안읍 남문리

○ 연혁

1975. 5. 28. 서산JC 스폰에 의거 태안청년회의소 창립준비위원장에 문
덕호 선출

1975. 6. 14. 가칭 태안청년회의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유
영대 선출

1975. 8. 3. 한국청년회의소 제38차 임시총회에서 한국청년회의소 지방
회의소를 정식 인준받음(인준번호 180 호)

○ 역대 회장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초대	류 영대	75. 6. 14.	5대	안 광량	78. 11. 12.
2대	류 영대	75. 12. 12.	6대	유 병권	79. 7. 1.
3대	박 규웅	77. 1. 10.	7대	이 정웅	79. 10. 30.
4대	문 덕호	78. 1. 12.	8대	윤 철상	81. 10. 12.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9대	최 경섭	81.	22대	최 상호	94. 1. 26.
10대	가 길현	82. 1. 12.	23대	홍 순권	95. 1. 24.
11대	김 세호	83.	24대	이 상충	96. 1. 17.
12대	이 은상	84. 7. 9.	25대	이 훈복	97. 1. 17.
13대	이 은상	85. 7.	26대	이 훈복	98. 1. 17.
14대	류 승균	86. 1. 16.	27대	한 상규	99. 1. 17.
15대	김 은태	87. 1. 27.	28대	김 용	00. 1. 17.
16대	강 을환	88. 1. 12.	29대	지 영수	01. 1. 17.
17대	이 천복	89. 12. 26.	30대	이 도영	02. 1. 17.
18대	류 익환	90. 1. 10.	31대	최 경환	03. 1. 17.
19대	이 윤희	91. 1. 25.	32대	조 한승	04. 1. 17.
20대	이 종귀	92. 1. 14.	33대	윤 지환	05. 1. 17.
21대	정 연국	93. 1. 18.	34대	오 석근	06. 1. 17.

태안신문사

1990. 5. 14. 창간호 발행, 발행인 신 현배, 사장 신 현범

1990. 7. 23. 백혈병어린이 신 성아양돕기 운동 펼쳐 새생명 찾아줌

1990. 11. 12. 안면도 핵폐기장설치반대투쟁관련 호위를 발행, 주민의사 대변

1991. 5. 1. 창간 1주년 기념식, 소년소녀가장 5명에게 장학금 50만원 전
달 영인본1호 발간

1992. 6. 24. 제100호 발행

1992. 7. 8. 제102호 발간후 2개월 휴간(1차)

1992. 9. 9. 복간, 제103호 발행

1992. 11. 25. 제114호 발간후 1개월 휴간(2차)

1992. 12. 30. 복간, 제115호 발행

1993. 3. 1. 최 상린 대표이사 외 6명의 이사진 선임

1993. 4. 21. 발행인을 신 현배에서 최 상린으로 변경하고, 태안신문사 2대
사장에 최 상린 대표이사 취임, 지면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

1993. 5. 15. 창간 3주년 기념식 및 영인본 2호 발행

1994. 5. 6. 제175호부터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경

1994. 5. 7. 창간 4주년 기념식 및 지역인사초청 토론회 개최, 영인본 3호 발간

1994. 6. 28. 편집용 컴퓨터 도입

1994. 7. 8. 183호부터 본사 자체 편집

1995. 6. 25. 영인본 4호 발간

1995. 11. 6. 태안 재래시장 화재와 관련 성금 모금, 179만원 대책본부에 전달

1996. 10. 1. 태안신문후원회 추진위원회 결성

1996. 10. 28. 영인본 5호 발간

1997. 1. 16. 태안신문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에 김 순환씨 취임

1997. 3. 17.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는 개인 및 단체에 시상하는 자랑스런
태안인상 제정

1997. 5. 28. 창간 7주년 기념식 및 제1회 자랑스런 태안인상 시상. 영인본
6호 발간. 태안반도 태안청년회와 자매결연

1997. 8. 1. 태안반도 안면청년회와 자매결연

1998. 5. 14. 창간 8주년 기념식 및 제2회 자랑스런 태안인상 시상. 영인본
7호 발간

1999. 1. 28. 태안신문후원회 정기총회 개최. 제2대 회장에 정 동협 회장 취임

1999. 5. 28. 창간 9주년 기념식 및 제3회 자랑스런 태안인상 시상. 영인본
8호 발간

2000. 5. 24. 창간 10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자랑스런 태안인상 시상, 영인본
9호 발간

2001. 5. 17. 창간 11주년 기념식 및 제5회 자랑스런 태안인상 시상, 영인본
10호 발간

2001. 9. 13.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2002. 5. 29. 창간 12주년 기념식 및 제6회 자랑스런 태안인상 시상, 영인본
11호 발간

2003. 5. 22. 창간 13주년 기념식 및 제7회 자랑스런 태안인상 시상, 영인본
12호 발간

2004. 5. 21. 창간 14주년 기념식 및 제8회 자랑스런 태안인상 시상, 영인본
13호 발간

2005. 5. 27. 창간 15주년 기념식 및 제9회 자랑스런 태안인상 시상, 영인본
14호 발간

2006. 6. 23. 창간 16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자랑스런 태안인상 시상, 영인
본 15호 발간

2006. 7. 5. 발행인을 최 상린에서 문 제모로 변경

■ 역대 발행인 ■

초대	신 현배(申 鉉培)	1990. 5. 14. ~ 1993. 4. 20.
2대	최 상린(崔 相燐)	1993. 4. 21. ~ 2006. 6. 21.
3대	문 제모(文 濟模)	2006. 7. 5. ~ 현재

■ 지역 언론사 주재기자 ■

언론사	기 자	지국장	전 화	언론사	기 자	지국장	전 화
대전일보	정 명영	이 종진	673-9393	중앙매일	신 현교		675-9595
충도일보	김 준환	이 은우	674-0234	충남일보	최 병민	이 후철	674-7484
충청투데이	박 기명	이 천복	673-2525	태안신문	문 제모	최 상린	673-7762
동양일보	장 인철		675-5508		신 문웅		673-7763

■ 남문리 주재 언론사 ■

언론사명	기 자 명	휴 대 폰
중앙매일	신 현교	017-291-4444
대전일보	정 명영	011-401-8586
동양일보	장 인철	011-409-0977
충남일보	최 병민	010-6355-7942

태안로타리클럽

○ 사무소 위치 : 태안읍 남문리 576

○ 연혁

1979. 5. 16. 창립을 위한 1차모임(예산회원 참석)

1979. 5. 20. 초대회장에 청파 박 장근 회장 추대(FY 79~80)

1979. 6. 26. 창립총회(회원수 26명, 스폰서 예산클럽)

1979. 12. 22. 현장 전수식(신 필수 총재)

1982. 9. 20. 본 클럽 영부인회 결성

1987. 2. 13. 368지구 7지역 대표로 본 클럽 박 장근 전회장 임명

1989. 12. 20. 창간호 해송 발간(발행자 박 병찬)

1994. 5. 26. 14지역 지역대표 이 돈형씨 지명됨

1998. 6. 1. 중국어 강좌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개강
강사 : 주 경희 교사 대상 : 여상학생 50명

1998. 12. 19. 불우시설 노아의 집 위문(여고 인터랙터 클럽 참석)
인터랙터회원 300,000원 상당 위문품 전달

본 클럽에서 성금 400,000원 전달함

1999. 6. 26. 국제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전달(100만원)

2004. 4. 5. 초아의 봉사정신과 회원 성금으로 태안로타리탑 제막식 거행

장소 : 평천육교 아래 가로공원 제막경비 6,500,000원

2005. 6. 26. 신·구회장 이·취임식(취임회장 김 기수)

○ 역대 회장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초대	박 장근	1979.	15대	권 수용	1993.
2대	박 장근	1980.	16대	강 병상	1994.
3대	조 병준	1981.	17대	김 상길	1995.
4대	이 정선	1982.	18대	서 정곤	1996.
5대	이 돈형	1983.	19대	권 영관	1997.
6대	심 상천	1984.	20대	강 건식	1998.
7대	주 홍철	1985.	21대	최 병렬	1999.
8대	김 종희	1986.	22대	가 종인	2000.
9대	박 태진	1987.	23대	가 종인	2001.
10대	김 종평	1988.	24대	구 교춘	2002.
11대	박 병찬	1989.	25대	한 상복	2003.
12대	윤 필준	1990.	26대	가 재식	2004.
13대	이 차량	1991.	27대	김 채순	2005.
14대	최 수남	1992.	28대	김 기수	2006.

소성로타리클럽

○ 사무소 위치 : 태안읍 남문리 204-1

○ 연혁

1991. 11. 3. 금호가든에서 창립총회 개최

1991. 12. 26 국제로타리 본부로부터 가입 승인 받음

- 1992. 1. 7. 태안읍 남문리 204-1에 회관을 마련하고 현판식 거행
- 1992. 4. 12. 가입증서 전수식

○ 역대 회장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초대	이 국형	1991.	10대	박 종헌	2000.
2대	이 국형	1992.	11대	조 양호	2001.
3대	이 길상	1993.	12대	이 인행	2002.
4대	방 성능	1994.	13대	최 중환	2003.
5대	김 신준	1995.	14대	이 광환	2004.
6대	이 원재	1996.	15대	조 성달	2005.
7대	김 종철	1997.	16대	황 원식	2006.
8대	박 홍관	1998.	17대	김 민식	2007.
9대	최 부록	1999.			

백화산로타리클럽

- 사무소 위치 : 태안읍 남문리 3-7

○ 연혁

- 1996. 7. 13. 창립을 위한 1차 모임
- 1996. 9. 6. (가칭)태안 백화산로타리라 칭하고 준비위원회 구성
- 1997. 1. 18. 화림관광농원에서 창립총회 개최
- 1997. 4. 9. 가입증서 전수식(클럽회관)

○ 역대회장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초대	최 상엽	1997.	3대	신 경수	1999.
2대	최 상엽	1998.	4대	최 병모	2000.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대수	성 명	취임년월일
5대	이 승규	2001.	8대	류 홍진	2004.
6대	김 중우	2002.	9대	박 봉근	2005.
7대	김 중환	2003.	10대	이 헌구	2006.

(사)태안반도 태안청년회

○ 연혁

- 1976. 2. 19. 본회 창립 준비위원회 발족 창립 준비위원장 최 화섭 창립준비위원
- 1976. 3. 10. 명예회장 추대 및 초대회장 선출
 - 명예회장 : 이 의형 • 초대회장 : 지 재하
- 1976. 4. 13. 사회 직장팀 배구대회에서 우승
- 1976. 4. 15. 청소의 날을 맞이하여 시내 일원 도로변과 거리청소 57명 참가
- 1976. 4. 19. 태안반도 청년회 회관 현판식

태안읍 동문 2리 483-2번지 회원 59명 참석
- 1976. 4. 25. 읍민 대항 축구대회 출전 준우승 회원 53명 참가
- 1976. 5. 6. 경로의 날, 경로정에 아치를 세우고 노인 위문(위문금 20,000원 전달)
- 1976. 5. 16. 제1차 회원단합대회(냉천골) 회원 56명 참가
- 1976. 5. 17. 거리 정화 사업으로 화단 30개소 설치

위치 : 시내 도로변 회원 45명 동원
- 1976. 6. 9. 대민지원 사업으로(모내기 지원) 태안읍 평천 2리(조 한석씨 댁 외 4가구) 3,800평에 모내기 회원 55명 참가

1976. 6. 16. 지 재하 회장 태안읍 의용소방대장 인준으로 인하여 사퇴
제2대 회장 선출(제2대 회장 : 강 인희)

1976. 6. 17. 불우이웃돕기 대민지원 태안읍 동문리 김 동수씨택
보리베기 작업 2,000평 회원 50명 참가

1976. 7. 4. 우리고장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고장 발전상을 소개
하기 위해 만리포 해수욕장에 임해 방송실을 설치 무료 안내
방송을하기로 결정(방송 기재 구입비 : 18만원)

1976. 7. 5. 만리포 해수욕장내 하수도 복개 공사 인력지원 회원 52명 참가

1976. 7. 6~8, 16~30 임해 방송 실시(업무내용)

1. 국기강하식
2. 청소년 선도 방송
3. 수상안전 수칙 방송
4. 질서 확립 사회 정화 새마을 방송
5. 미아 찾기 36건
6. 습득물 43건
7. 무단기출자 귀향조치 8건
8. 각 기관의뢰 안내 방송



○ 역대회장단

대수	성 명	년 도	대수	성 명	년 도
초대	지 재하	'76.4.11~'76.6.20	8대	최 복항	1982.
2대	강 인희	'76.6.21~'77.4.20	9대	최 병렬	1983.
3대	강 인희	'77.4.21~77.12.31	10대	윤 재홍	1984.
4대	최 화섭	1978.	11대	가 중국	1985.
5대	강 병상	1979.	12대	박 흥렬	1986.
6대	강 일환	1980.	13대	최 종환	1987.
7대	이 정호	1981.	14대	가 종인	1988.

대수	성 명	년 도	대수	성 명	년 도
15대	장 명진	1989.	24대	임 종관	1998.
16대	김 광식	1990.	25대	류 광준	1999.
17대	안 평순	1991.	26대	최 진호	2000.
18대	정 한문	1992.	27대	전 창균	2001.
19대	명 제국	1993.	28대	전 창균	2002.
20대	함 성한	1994.	29대	김 영후	2003.
21대	김 기일	1995.	30대	박 승환	2004.
22대	백 정흠	1996.	31대	조 덕현	2005.
23대	이 인목	1997.	32대	최 기선	2006.

(사)동학농민혁명 태안군 기념사업회

○ 사무소 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4리 318-2

○ 연혁 : 1965년~2006년

1965. 충남 태안의 원암 문 원덕 선생께서 갑오동학혁명 북접기포지역(태안,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아산)의 사료발굴 활동 및 유족회를 결성

1969. 충남 태안극장에서 혁명참전자 유족회를 모시고 제1회 갑오동학혁명 순국선열위령제 봉행

1972. 갑오동학혁명 당시 북접기포발상지인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서 위령제 봉행

1974. 충남 예산산업대 강당에서 제3회 예산, 홍성, 아산전투, 순국선열 위령제 봉행

1977.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 건립 추진위원회 결성

1979.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을 태안 백화산록에 건립 제막식 및 제4회 위

령제, 역사 강연회 개최

1991. 제5회 순국선열 위령제 및 역사 강연회 개최

1994. 제6회 순국선열 위령제 및 추모국악 예술 공연 개최

1997. 태안군청 강당에서 우리고장 역사바로알기 강연회 및 향토국악 행사 개최

1997. 제7회 순국선열 위령제 및 국악예술 공연 개최

1997. 4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발기인 모임

1998. 동학혁명 태안군 기념사업회 창립

1998. 제8회 순국선열 위령제를 태안지역 동학혁명 추모대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

1999. 5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태안군지부 설립 허가 받음

1999. 9월 30일 현판식 거행

1999. 10월 9일 제9회 동학농민혁명 추모대제 국악공연 개최

2000. 4월 23일 정읍 백산봉기 106회 기념대회 회원 참석 학생 백일장 입선

2000. 10월 갑오동학혁명군 위령탑 확장(군지원)

2000. 제10회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 추모대제 한국 민속문화행사 개최

2001. 4월 5일 동학혁명발상지 기념 표식 요구 회원 37명(원북 화력발전소)

2001. 4월 29일 군민의 날 동학농민혁명 가장행렬 원이중 학생 참여

2001. 6월 31일~7월 3일 전주 국제학술발표회 참여

2001. 11월 제11회 추모대제 민속문화 행사

2001. 태안여중학생 강연회

2001. 11월 10일 공주 우금티 추모 대제 참석

2001. 11월 13일 충북 보은 동학혁명 유적지 세미나 참석

2001. 12월 4일 국회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과 서훈, 학술 세미나 회원 38명 참여

2002. 3월 10일 공주 감사 전국실무자 워크숍 참여

2002. 3월 18일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및 학술세미나 참여

2002. 4월 19일 태안의 『천도교와 동학혁명』 태안중학교 학생 강의

2002. 5월 24일 전주 역사박물관 개관 기념학술대회 참석

2002. 7월 18일 공주시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우금치 동학혁명전적지 훼손 반대. 형질변경 신청 기자 회견 참석

2002. 8월 2일 「동학혁명과 태안」 편저 구입 중앙국립도서관을 비롯 지역 도서관 배포

2002. 9월 4일 태안 서부발전소 5, 6호기 준공식 축시

2002. 9월 6일 미국 버클리 대학, 남가주 대학, 동학혁명 편저 요청

2002. 10월 29일 제12회 동학혁명 추모대제

2002. 11월 9일 충남발전연구회 내포연구단 동학혁명군 유적지 답사

2002. 12월 10일 제2차 명예회복 특별법 대책위원회 참석

2003. 1월 11일 대전유성 제3차 동학혁명군의 명예회복 대책위원회 참석

2003. 4월 10일 『보은집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전사였다!』 심포지움 참석

2003. 5월 1일 근흥면 수룡리 토성산 제1회 동학농민혁명군 진혼제 거행

2003. 5월 4일 태안군민의 날 동학혁명가장행렬 참여

2003. 8월 27일 전주, 정읍, 역사 순례 교육

2003. 10월 동학혁명위령탑 주변정비 사업(군지원)

2003. 10월 29일 추모대제

2003. 11월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추진 모금 바자회 개최

2004. 2월 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2004. 6월 10일 KBS 동학농민혁명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2004.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기념 학생 백일장 개최

2005. 3월 30일 동학농민혁명사 SBS 방영

2005. 4월 28일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자료전시회 개최

200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등록 신청

2005. 10월 29일 추모대제

2006. 2월 9일 「동학농민혁명과 교장바위」 출판 기념회

2006. 10월 27일 추모대제

장애인(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

심신장애자 복지사업은 주로 보호장애대상자에 대한 시설구호사업만 실시하였을 뿐이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1988년 장애자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자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고 장애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장애자 스스로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의 시각이 어둡고 장애자 자신과 가족들이 그 사실을 숨기는 탓에 그 성과가 크지 못하다.

태안군에서는 1989~1998년의 10년간 31명의 장애자에게 장애인보호장구장착을 위해 7,55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89~1998년 10년간 308세대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02,727,000원을 지급하였다.

○ 장애인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주 소	전 화	회원수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지회	조 해상	태안읍 남문리 281-1	674-5278	680명
충남맹인복지연합회 태안군지회	송 길동	태안읍 남문리 505-1	672-1604	80명
충남농아인협회 태안군지회	강 해룡	태안읍 남문리 265-2	672-0208	150명

○ 장애인 등록현황

연 도	계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1989	198	144	19	7	18
1990	327	204	33	60	30
1991	357	223	36	64	34
1992	387	245	38	66	38
1993	415	263	39	70	43
1994	468	291	40	82	55
1995	510	316	41	88	65
1996	580	631	48	95	76
1997	682	425	54	98	105
1998	809	511	61	111	126
1999	1,143	738	85	179	140
2000	1,699	1,052	158	198	200
2001	2,021	1,203	215	215	230
2002	1,992	1,329	246	232	185
2003	2,117	1,441	253	224	199
2004	2,368	1,615	289	252	212
2005	2,690	1,806	331	319	234
2006	2,982	2,018	357	364	243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

태안지역에 여성단체가 결성된 것은 복군시점인 1989년부터다. 초대 심 갑순 회장을 시작으로 6명의 회장단이 이어져 왔는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용희 회장으로부터 이 단체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① 청소년들의 용돈기입장을 생활화 하였으며, ②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선정하여 여름방학에 선진지 견학을 통한 인성을 보호하였고, ③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 자매결연을 맺고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④ “행복은 가정으로부터”란 슬로건을 내걸고 꾸준히



의식교육을 펼치고, ⑤ 혼자 사는 노인들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목욕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자체 및 사회단체에 여성단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는 일인데 ① 각종 운영위원회 등의 여성참여 확대를 전제로 한 의견을 건의하고, ②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여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세 번째는 여성지도자 육성과정인데, ① 회원단체 간부를 위한 리더십 교육을 들 수 있다. 여성이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그것도 리더로써 활동해야 할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4대 군의원이었던 이 용희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유일한 여성 군의원 이었으며, 5대에는 태안군의회 의장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여성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여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② 또한 활동단체간에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권익 신장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성폭력 예방활동을 들 수 있는데, 날로 난폭해지는 사회에 ① 아동 및 여성의 성폭력 피해로부터 예방과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② 인접한 해수욕장과 학교 등 지역사회 성폭력 문제의 피해를 줄이고 관심유발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

- 대표 : 이 용희
- 사무실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77
- 연락처 : 041-674-2342, 673-1817 FAX. 041-674-0794
- 설립년월일 : 1989년 4월 28일 • 회원수 : 908명
- 설립목적 -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

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활동

• 주요사업 - 여성의식 함양 및 능력개발 사회교육 추진

- 여성단체간 업무협의 및 추진

- 지역사회개발 및 어려운 이웃돕기 및 일손돕기 전개

- 소비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 각종 여성관련 행사추진 및 참여 등

○ 역대회장

구분	성 명	재임기간	주 소	전화번호
1	심 갑순	89~90	태안읍 남문리 300-8	674-3077
2	김 경자	91~92	태안읍 남문리 465-15	674-4100
3~4	이 용희	93~94	태안읍 남문리 477	674-2342
5	심 갑순	95~96	태안읍 남문리 300-8	674-3077
6	정 송원	96~97	태안읍 남문리 455-23	674-2283
7~11	이 용희	98~현재	태안읍 남문리 477	674-2342

○ 현재 임원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회장	이 용희	태안읍 남문리 477	374-2342
부회장	조 영자	태안읍 동문리 273	675-2405
총무	조 미경	태안읍 동문리 주공A 106-303	675-9598

○ 회원 단체(태안군지회)

단 체 명	회원수	대 표	주 소	전화번호
계	908	8		
한국부인회	30	이 용희	태안읍 남문리 477	673-1817
대한어머니회	20	조 영자	태안읍 동문리 273	
한국걸스카우트	25	조 미경	태안읍 동문리 주공A 106-303	672-1262
대한적십자사	135	이 순례	안면읍 승언리 1273-3	673-4108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0	김 경자	태안읍 남문리 465-15	674-2770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32	김 순례	태안읍 삭선리 726-4	674-4695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5	송 옥자	태안읍 남문리 575-6	
태안군생활개선회	621	조 규숙	고남면 고남리 1654-12	673-2407

(사)한국서예협회 태안군지부

○ 사무소 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65-4 BJ-305

○ 창립취지

(사)한국서예협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충남 태안군의 서예 활성화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며 군민의 정서적인 함양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각종 서예공모전에 출품하고 서로 보완해 주며 태안지역에서 서예에 관련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한다.

○ 회원의 구성

회원 자격은 충청남북도 서예공모전에서 입상한 자로 한하며, 예비회원을 둘 수도 있음.

○ 연혁

1990. 2월 6일 창립

1990. 4월 25일 립 성만 지부장 취임

1990. 10월 안전미술제 우수상(명 정식)

1990. 11월 이목회서예전(태안문화원 전시실)

1994. 7월 제7회 대한민국서화예술대전 입선(가 숙진, 이 석창)

1994. 11월 국제서화예술 초대전 초대작가상 교육공로상(립 성만)

1995. 10월 이목회서예전(태안신협 전시실)

1996. 6월 제9회 대한민국서화예술대전 은상(성 혜경), 동상(김 송숙), 가작(성 영은, 유 현희, 이 순희), 입선(신 미란, 서 행심)

1997. 12월 제12회 '97 국제서화작가초대전 특별상(이 중면)

1997. 12월 제4회 대전·충남서예대전 입선(이 석창)

1998. 10월 '98 충청남도 문화부문 도지사상(립 성만)



1998. 12월 대전·충청남도서예대전 초대작가(립 성만)

1999. 9월 제6회 충청남도서예대전 입선(김 재훈, 이 석창, 김 형환, 신 미란, 서 행심)

2000. 11월 제7회 충청남도서예대전 특선(신 미란), 입선(서 행심)

2001. 9월 태안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충남서예가협회전 주관

2001. 11월 제8회 충청남도서예대전 특선(신 미란), 입선(김 근정, 김 재훈, 김 형환, 박 병은, 류 정환, 이 상목)

2002. 6월 제2회 충청미술전람회 입선(신 미란, 김 근정, 김 형환, 류 정환, 성 혜경, 이 상웅)

2002. 11월 제9회 충청남도서예대전 우수상(신 미란), 입선(성 혜경, 임 지연, 김 근정, 김 재훈, 류 정환, 이 상목, 이 상웅)

2003. 6월 제3회 충청미술전람회 입선(류 정환, 이 상목, 이 상웅, 임 지연, 신 미란)

2003. 12월 제10회 충청남도서예대전 입선(임 지연, 이 상목, 이 상웅, 류 정환)

2003. 12월 충청남도서예대전 초대작가(신 미란)

2004. 8월 제11회 충청남도서예대전 특선(임 지연), 입선(이 선, 김 상현, 이 미경, 이 상목)

2005. 5월 제5회 충청미술전람회 특선(홍 명진), 입선(조 재만)

2005. 7월 제12회 충청남도서예대전 특선(임 지연), 입선(조 재만, 이 상월, 홍 명진, 윤 영숙, 윤 정원)

2006. 5월 제13회 충청남도서예대전 특선(임 지연), 입선(유 병란, 윤 정원, 윤 영숙, 조 재만)

2006. 6월 제6회 충청미술전람회 특선(임 지연), 입선(이 상목)

2006. 10월 동아국제미술대전 특선(임 지연)

2007. 7월 충청남도서예대전 초대작가(임 지연)

태안건축사회

건축사명	사무실명	주 소	전 화	팩 스
윤 계환	아람건축사 사무소	태안읍 남문리 704-1	675-9012	675-9014
이 용수	태산건축사 사무소	태안읍 남문리 110-4	675-0567	675-0565
장 세춘	서림건축사 사무소	태안읍 남문리 91	674-3733	675-7602
한 만중	한솔건축사 사무소	태안읍 남문리 703-3	675-8815	675-8816
정 선구	희랑건축사 사무소	태안읍 남문리 704-7	675-9115	

(사)한국국악협회 태안군지부

○ 사무소 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 3리 53-11

○ 연혁

- 1994. 2. 4. 창립총회
- 1996. 5. 문화원 개관 축하공연
- 1997.~현재 태안군 풍물무료강습 실시
- 1998.~현재 민요 분과설립, 민요지도
- 1994. 4. 충청남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차상
- 1999.~현재 무용 분과 설립, 전통무용 지도
- 2000. 5. 충청남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장원
- 2000.~현재 태안 초·중학교 풍물지도
- 2001. 5. 충청남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장원
- 2001. 9. 문화예술회관 개관축하공연
- 2002. 5.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축하공연
- 2004. 11. 제1회 태안군수기 전통 민속 읍·면 풍물대회 개최



- 2005. 5. 제2회 태안군수기 전통 민속 읍·면 풍물대회 개최
- 2005. 10. 충청남도지사기 일반인 풍물경연대회 차하
- 2006. 4. 충청남도지부 최초 가야금교실 개설

대 수	지 부 장	재 임 기 간
1대~3대	문 제원	1994년~2004년 8월
4대	이 복희	2005년~현재

○ 각 분과

- 부지부장 : 허 옥희, 최 경익
- 사무국장 : 이 영옥
- 풍물분과위원장 : 신 현금 • 민요분과위원장 : 박 명희
- 무용분과위원장 : 강 용숙 • 현악분과위원장 : 이 상순

(사)서산장학재단 태안지회

○ 사무소 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78-6

○ 지회장 : 김 성환

○ 창립준비 : 1990. 10.

○ 법인등기 : 1991. 4.

○ 이사장 : 성 완중(경남기업 회장)

○ 설립 취지

힘차게 도약하는 고향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이다. 조상이 물려준

향토를 더 살기 좋게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사명이다. 우리는 고향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믿음 아래 후진을 양성하고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이에 지역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뜻 있는 인사들이 모여 서산장학재단을 설립한다.

○ 주요 사업

- 장학사업 : 학자금, 장학금, 교육훈련비, 포상지원비, 연구비 등 지원
- 문화·학술사업 : 문화·학술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 지원
- 복지사업 :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학자금 지원
- 기타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사업 실적(1991~2007년) : 207억 7천만 원

노인회

노인복지

산업발달과 의료수준의 성장으로 노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어 노인 복지 대책을 위한 법적 기초를 세우고 1982년 2월 10일 이후에는 경로우대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우대업종도 8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업종을 넓혀줌으로써 노인들에게 편의 제공의 기회를 늘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 분야라 할 수 있는 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실효를 보는 듯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시행이 유보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로현장

전통적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노후생활 보호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노인봉양 자세와 책무를 규정한 경로현장을 제정하여 1982년 5월 8일 ‘아버이 날’을 기하여 공포하였다.

경로현장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여 국가의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한다.

1.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2.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1982년 5월 8일

노인복지 시책

과거 전통적 가족제도하에서 노인들은 자손들의 극진한 봉양으로 걱정없이 생활하여 왔으며, 오직 무의탁 노인만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가족제도의 변화와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노인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문제 해결시책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 첫째, 전통적 윤리덕목의 창달과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 둘째,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
-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경로효친사상이 사회지면에 파급 확산되도록 주력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

노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관리 및 노인복지 증진 등 사회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족된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는 복군과 더불어 발족되어 현재 95개 경로당에 4,35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 노인회관 ■

시설명	위 치	규 모		소유자	구입 년월일	구 조	현 황
		대 지	연면적				
태안군 노인회관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84-1	175㎡	190.08㎡	태안군	1992. 10. 23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층)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 경로당 현황 ■

경로당명	대 표	주 소	회 원 수			전 화
			계	남	여	
연수경로당	가 홍로	남문 3리 126	60	50	10	674-4249
화락경로당	조 의호	남문 1리	27	27		673-9139
원태촌경로당	김 덕기	남문 3리 576	38	19	19	674-7988
남문2리경로당	박 기준	남문 2리 363-25	70	34	36	673-9977
성뒤경로당	이 영자	남문리 366-5	20		20	672-2960

태안군 노인복지회관

○ 일반현황

- 명칭 : 태안군노인복지회관
- 위치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12-13번지
- 시설장 : 류 정훈
- 운영법인 :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356㎡
- 주요설비 : 엘리베이터, 중앙집중식 난방, 개별실 냉방



■ 주요 시설 개요 ■

층 별	면 적 (㎡)	주 요 시 설
합계	1,356	
지하1층	343	식당, 오락실(2실), 기계실
지상1층	346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휴게실
지상2층	347	사회교육실(2실), 체력단련실, 관장실
지상3층	248	대강당, 창고
옥상	72	물탱크실

※ 2006년 8월 4일 개관

○ 직원 현황

(단위 : 명)

총원	관 장	과 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건물관리사	운전기사	취사원
8	1	1	1	1	1	1	1	1

○ 업무분장 사무

- 총무과 : 회계, 재산, 시설물 관리 등 총괄
- 복지과 : 각종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등 총괄

○ 이용자 현황

- 등록회원 : 720명(2006. 8월 현재)

- 1일 평균 이용인원 : 약 250명(실버학당, 경로식당, 자체시설 이용)

○ 이용 현황

- 휴게실 • 컴퓨터실 54명 • 한자 15명 • 한글 30명 • 서예 24명
- 바둑 20명 • 장기 20명 • 스포츠댄스 40명 • 당구 30명 • 탁구 30명
- 물리치료실 40명 • 체력단련실 30명 • 식당 130 명

태안군 약사회·의사회

1989년 복군으로 대한약사회 충남지부 서산군분회에서 분리 독립하여 태안군분회로 설립되었으며 사회복지증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약사(藥事) 및 약학에 관한 연구, 개선, 발전을 도모하여 약사의 권익옹호와 윤리확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역대회장

대 수	회 장	기 간	대 수	회 장	기 간
초대	김 정제	1989~1994	3대	윤 도희	2001~2004
2대	정 한문	1995~2001	4대	김 휴석	2004~현재

○ 주요사업

- ①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의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
- ② 약사윤리의 창달과 약권신장에 관한 사항
- ③ 약학발전과 약학교육 개선에 관한 사항
- ④ 고령자 불우이웃 무료투약
- ⑤ 복지시설의 위문

■ 약국 현황 ■

명칭(상호)	성 명	소 재 지	등록년월일
신 생 약 국	강 용구	태안 남문 172-14	1970. 1. 20.
피 보 약 국	이 금순	태안 남문 576	1984. 6. 5.
유 명 약 국	윤 도희	태안 남문 576-77	
천 사 약 국	남 상덕	태안 남문 574-9	
정 성 약 국	이 길호	태안 남문 475-15	
차 부 약 국	김 윤철	태안 남문 576-32	

■ 태안군 의사회 회원 ■

성 명	병 원	주 소	전화번호
심 윤오	가 정 의 원	태안 남문 576-79	673-9171
김 기훈	김 내 과 의 원	태안 남문 700-10	675-1777
김 석현	김 이 비 인 후 과	태안 남문 574-1	675-0990
송 현준	반 도 정 형 외 과	태안 남문 575-15	674-1122
김 태봉	보람소아과의원	태안 남문 880-12	675-0024
김 병국	연 세 의 원	태안 남문 575-13	673-8575
주 명선	주 내 과 의 원	태안 남문 702-6	675-8522
류 재신	태 안 성 모 의 원	태안 남문 576-31	674-2219
허 홍근	허 내 과 의 원	태안 남문 157-2	674-2150
김 형규	태 안 신 경 외 과	태안 남문 465-15	675-6900

■ 치과의원 현황 ■

명칭(상호)	성 명	소 재 지	등록년월일
안 치 과 의 원	박 현식	태안 남문 576-20	1985. 12. 16.
이 치 과 의 원	이 인행	태안 남문 701	1986. 3. 17.
한 성 치 과 의 원	한 만조	태안 남문 172-32	1986. 8. 25.
이재준치과의원	이 재준	태안 남문 192	1995. 5. 30.
황 치 과 의 원	황 현철	태안 남문 576-81	1996. 4. 26.
서 울 치 과 의 원	심 동욱	태안 남문 576-39	1998. 3. 11.
태 안 치 과 의 원	박 응호	태안 남문 462-17	1998. 10. 19.
민 치 과 의 원	박 상민	태안 남문 700-10	2003. 10. 26.

■ 한의원 현황 ■

명칭(상호)	성 명	소 재 지	등록년월일
경 희 한 의 원	유 중섭	태안 남문 701	1993. 10. 5.
서 울 한 의 원	심 영섭	태안 남문 578-5	1995. 10. 6.

부동산

현재 태안군의 중개업자는 적정업소가 총 49개 업소인데 그 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업소가 22개 업소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 ■

허가번호	소 재 지	상 호	성 명	허 가 일
제3호	태안읍 남문리 504-22	부 흥 부 동 산	이 현규	1984. 6. 1.
제6호	태안읍 남문리 278-15	은 파 부 동 산	윤 귀선	1984. 6. 1.
제9호	태안읍 남문리 172-12	삼 일 부 동 산	이 세기	1986. 1. 7.

허가번호	소 재 지	상 호	성 명	허 가 일
제11호	태안읍 남문리 587-4	정 인 부 동 산	김 진희	1986. 3. 28.
제12호	태안읍 남문리 402-7	반 도 부 동 산	박 영환	1986. 5. 13.
제13호	태안읍 남문리 637-9	남 진 부 동 산	성 기명	1986. 5. 30.
제14호	태안읍 남문리 149-2	천 일 부 동 산	정 동철	1986. 7. 16.
제15호	태안읍 남문리 637-9	현 재 부 동 산	김 세기	1986. 10. 6.
제18호	태안읍 남문리 231	태 흥 부 동 산	김 시정	1987. 2. 11.
제19호	태안읍 남문리 402-4	신 용 부 동 산	문 승관	1987. 2. 16.
제20호	태안읍 남문리 160	웅 지 부 동 산	김 덕래	1987. 11. 10.
제43호	태안읍 남문리 407-4	삼우공인중개사	심 홍택	1997. 4. 16.
제58호	태안읍 남문리 636-2	금호공인중개사무소	석 정국	1998. 3. 25.
제62호	태안읍 남문리 91-2	삼진공인중개사무소	김 철우	1998. 9. 21.

운송사업

시외버스

태안군에 소재하는 시외버스 운송업체는 없다. 다만 서울, 대전, 인천 등으로 향하는 통과 차량으로 많은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태안에서 출발하는 1일 시외버스의 운행횟수는 다음과 같다.

■ 시외노선별 운행횟수 현황 ■

방향별	서울	동서울	대전	수원	인천	성남	부천	청주	안양	군산	원주	송탄
거리	1749㎞	206.5	172.6	129.3	155.4	195.9	161.7	173.2	150.4	159	237	110
운행횟수	47	4	34	16	27	6	10	1	7	4	2	2
회사별	충남고속, 한양고속, 금남여객											

전세버스

국민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레저산업 등 관광수요가 급증하여 일단의 유망사업으로 등장하면서 북군과 더불어 태안관광을 설립하고 버스 16대를 보유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1994. 1. 4 태안장의사가 설립되어 버스 2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 전세 및 장의버스회사 현황 ■

업체명	보유대수	사무실 위치	대 표	허 가 일
태안관광	16	태안읍 남문리 175-1	정 낙훈	1989. 12. 7.

택시

태안군의 택시회사는 북군 이전에 설립되어 있었다. 즉 1975. 10. 5. 태안운수, 1981. 2. 28. 이화택시, 1979. 6. 8. 안면택시회사가 각각 자리를 잡고 있었다. 또한 1998년말 현재 개인택시도 6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승용차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력의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편안함과 고급화를 선택한 결과라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 택시운송업 현황 ■

업체명	보유대수	사무실 위치	대 표	설립일시
(주)이화택시	23	태안읍 남문리 260	권 수용	1981. 2. 28.
개인택시	68	태안읍 남문리 627-3	권 춘식	

■ 특수자동차 현황 ■

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최초등록	비 고
태안특수레카	태안 남문 653-3	김 동철	1998. 5. 20.	구난형
태안추레라	태안 남문 637-9	이 형동	1997. 1. 14.	추레라

자동차 관리업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 매매, 정비 등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다. 태안군이 관할하는 이러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 ■

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최초등록	비 고
반도자동차공업	태안읍 남문리 653-3	유 권수	1994. 10. 11.	부지 1,108㎡ (건물 473㎡)

건설업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나누고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 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 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등 29개업으로 나눈다.

태안군의 경우 1989년 북군 당시 건설회사는 소수였으나 현재 태안군에는

73개사로 늘어났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건설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 화	업종	면허번호	도급한도액
대웅건설산업(주)	정 원웅	태안 남문 501-1	673-9151~4	토건	1945	7,494
				토목		4,987
				건축		5,398
전광건설산업(주)	전 길수	태안 남문 154	675-5257	토목	40049	918
한동종합건설(주)	조 동호	태안 남문 582-2	673-1101	토목	50186	1,645
				건축	40096	2,253
해성종합건설(주)	심 향숙	태안 남문 356-6	667-7051	건축	40094	1,373
(주)영호건설	조 형식	태안 남문 638-6	673-3939	토건	1678	5,564
				토목		3,833
				건축		5,072
영성종합건설(주)	이 장학	태안 남문 155		토건	130004	토건 4,044
						토목 4,044
						건축 3,744
웅비건설산업(주)	최 선애	태안 남문 570-8		토목	13-0033	

■ 전문건설업 현황 ■ (단위 : 천원)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 화	업 종	면허번호	도급한도액
(합)신용건설	문 영진	태안 남문 467-10	674-3532	석공 충남태안	98-04-03	409,591
				철콘 충남	94-10-83	507,071
				상하 충남	96-13-19	265,202
(주)태흥건설	노 진용	태안 남문 462-10	675-2275	석공 충남태안	98-04-21	422,000
			674-5496	철콘 충남	94-10-88	607,680
(주)덕인	김 기호 전 길수	태안 남문 154	675-5257	토공 충남	95-02-32	539,288
				철콘 충남	95-10-54	676,704
				석공 충남태안	99-04-04	841,000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 화	업 종	면허번호	도급한도액
(주)거성실업	최 선애	태안 남문 570-8	674-4458	석공 충남태안	98-04-19	486,000
			674-4459	철콘 충남	96-10-97	300,937
				상하 충남태안	98-13-02	645,813
(주)신우건설	조 신호	태안 남문 630-2	675-2877	석공 충남태안	98-04-09	421,000
				철콘 충남	96-10-99	519,947
(합)동천건설	조 동호	태안 남문 582-2	673-1101	상하 충남	96-13-21	342,466
				토공 충남	97-02-06	678,220
				석공 충남태안	97-04-03	665,970
				철콘 충남	97-10-18	878,722
(합)동아엔지니어링	임 만순	태안 남문 407-4	674-3643	철콘 충남태안	98-10-08	401,000
				설비 충남태안	97-12-01	180,000
				상하 충남태안	98-13-01	235,286
				석공 충남태안	99-04-07	735,000
(주)재경건설	서 혜숙	태안 남문 204-2	674-1711	토공 충남태안	97-02-01	809,227
				석공 충남태안	98-04-16	587,000
			674-1710	철콘 충남태안	97-10-05	576,131
(주)세원건설	명 제형	태안 남문 91-2	675-5200	상하 충남태안	97-13-03	482,431
				석공 충남태안	97-04-04	162,950
(합)서한개발	박 한서 이 훈복	태안 남문 582-2	673-1101	석공 충남태안	98-04-07	487,376
				철콘 충남	96-10-95	300,676
(주)애향건설	백 정흠	태안 남문 155	673-0708	토공 경기	98-02-35	725,481
			673-0706	철콘 경기	98-10-31	725,481
(합)대림토건	나 홍완	태안 남문 160	675-7300	토공 충남서산	97-02-04	487,981
			675-8300	철콘 충남서산	97-10-05	420,765
(합)제일건설	조 향현	태안 남문 401-7	675-8388 675-8389	철콘 충남태안	98-10-02	303,320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 화	업 증	면허번호	도급한도액
(주)동명건설	김 원배	태안 남문 501-1	673-9191	토공 대전	98-02-13	334,256
			673-9195	석공 충남태안	98-04-15	489,000
				철콘 대전	98-10-22	334,256
(주)거송건설	최 문환	태안 남문 77	675-8188	토공 충남태안	98-02-02	524,000
			675-8189	석공 충남태안	98-04-10	524,000
				철콘 강원	97-10-26	100,000
(주)대한건설	김 옥순	태안 남문 3-7	675-3914	철콘 충남태안	99-10-02	224,000
(주)성은	전 정애	태안 남문 570-8	674-4488	석공 충남태안	98-04-22	404,000
				철콘 충남태안	98-10-07	404,000
(합)자성산업	김 선창	태안 남문 575-18	675-1104	철콘 충남홍성	98-10-01	428,681
				철물 충남홍성	98-11-01	428,681
(주)덕진건설	최 주환	태안 남문 77	672-3601	철콘 충남공주	98-10-10	330,000
				석공 충남공주	98-04-07	330,000
서부건설(주)	이 상일	태안 남문 3-7	673-0488	철콘 충남태안	99-10-03	404,000
				상하 충남태안	99-13-02	404,000
				석공 충남태안	99-04-02	404,000
(합)다성건설	김 기상	태안 남문 575-18	675-6996	철콘 충남태안	99-10-04	229,000
(주)서창개발	국 응창	태안 남문 340-13	674-7666	철콘 충남태안	99-10-05	202,000
				석공 충남태안	99-04-10	305,000
(주)통일	김 종석 신 상욱	태안 남문 582-2 한밭빌딩 402호	675-5886	철콘 충남태안	99-10-06	330,000
				석공 충남	99-04-03	330,000
은화건설(주)	장 은숙	태안 남문 3-7	672-0428	토공 충남태안	99-02-03	550,000
				석공 충남태안	99-04-08	550,000
				철콘 충남태안	99-10-08	550,000
광성건설(주)	정 진규	태안 남문 460-1		토공 경북	97-02-6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는 대전지방법원의 직속기관으로 지금부터 69년 전인 1937년 11월 1일 공주지방법원 태안출장소로 개소하였는데, 초창기엔 현 태안읍사무소 청사가 있는 곳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9년까지 업무를 마치고 현재의 청사로 이전하였는데, 등기소청사 2층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과 함께 태안군내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가 하는 일(674-2012)
 - 태안군관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 태안군관내에 본점을 둔 상법상 및 특별법상의 법인등기
 - 기타 사문서의 확정일부에 관한 일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이 하는 일(672-6744)
 - 소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사건
 - 피보전금액 2,000만원 이하의 부동산가압류사건
 - 지급명령사건(소가제한 없음)
 - 민사조정사건(소가제한 없음) 등

○ 연혁

- 1937. 11. 1. 공주지방법원 태안출장소(개소)
- 1947. 6. 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명칭 변경)
- 1987.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순회심판소(개소)
- 1995.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개원)
- 1999. 11. 20. 현청사이전(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71)

○ 1980년 이후 역대 태안등기소장 일람표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서승오	1980.8. 1~1981.2.23.	문용민	1996.1.21.~1997.1.20.
김동현	1981.2.24.~1982.7.23.	박성순	1997.1.21.~1998.6.30.
정재준	1982.7.24.~1986.8.31.	오광석	1998.7. 1.~1999.6.30.
오시창	1986.9. 1.~1988.1.20.	이남윤	1999.7. 1.~2001.6.30.
유봉성	1988.1.21.~1990.1.20.	이병배	2001.7. 1.~2003.1.10.
김완호	1990.1.21.~1992.6.30.	박성순	2003.1.11.~2003.7.10.
최헌수	1992.7. 1.~1993.6.30.	소의섭	2003.7.11.~2005.5.10.
김영철	1993.7. 1.~1995.1.20.	박윤선	2005.5.11.~2006.7.10.
박병호	1995.1.21.~1995.6.30.	이행용	2006.7.11.~현재
성기권	1995.7. 1.~1996.1.20.		

○ 대전지방법무사회 태안군지부

- 지부장 법무사 김기석(675-5294)
- 총무 법무사 유한선(675-9902) 법무사 이래승(675-3600)
- 법무사 박용수(675-9700) 법무사 정창재(675-2666)
- 법무사 차석길(674-9822) 법무사 김종부(674-3652)

우체국



초기 우체국 건물

근대우정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전망

근대우정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884년 우정국의 개국으로 국가의 발전과정과 함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형적인 조직의 변모를 살펴보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체신부가 발족되었다가, 1994년 12월 23일 정보통신부로 개칭되었고, 우정사업의 획기적인 개선과 경영혁신을 꾀하고자 지난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가 정보통신부 하부조직으로 출범하여 올해로 6년이 되었다.

우체국 업무는 크게 우편과 금융으로 나뉘는데 우편업무 중에서도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 배달업무로서 국민의 발이 되는 우체국의 상징적인 업무이다. 시대와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배달업무도 많은 변화와

정을 거쳐 왔는데, 변화의 방향과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120여년의 우체국 역사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상징적인 우편물 배달에 관한 주요 사안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 농어촌지역의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의 추진으로 전국 1면 1우체국 설치가 1966년 12월 20일 완료됨으로써 우체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의 혈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1968년 4월 10일 우편물 매일배달제가 시행되었는데, 당시에는 ‘근대우정이래 일대혁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었다.

▶ 우편번호제도가 197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초기에는 5자리 체계였다가 1988년 2월 1일 현재의 6자리 체계로 개편되었다.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6자리 우편번호체계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들이 주민/고객주소의 DB화관리 기반을 마련해 주며 정보의 혁명으로 평가되었다.

▶ 물류기반의 확보를 위하여 ‘전국 우편집중국 건설 종합계획’에 의거 1990년 3월 서울우편집중국이 최초로 개국하였고, 이후 2002년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 22개 우편집중국 건설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국내 최대의 현대화된 물류처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편물 운송시간의 단축과 최적의 물류관리를 실현하였다.

▶ 우편집중국 건설이 하드웨어적인 물류망의 구축이었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물류네트워크로서 우편물류시스템(Post Net)이 2001년 12월에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실시간 종적정보 제공으로 고객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최근에는 고객맞춤형 서비스로서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제도, 등기우편물 희망일 재배달서비스, 주소이전신고서비스, 야간배달제, 특급우편물 취급

지역의 확대, 대리배달결과 SMS 서비스 등을 시행하며 달라진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맞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의 우편배달 환경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도 IT산업의 발달과 함께 우체국 배달환경은 계속 발전·변천하며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와 같은 내부적인 발전과 함께 외부적 요인으로서 이용고객이 같이 협력하여 줄 사항으로는 ▷규격봉투 및 올바른 우편번호의 사용, ▷수취인 주소 및 연락처의 정확한 기재, ▷내용품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포장, ▷내용품목에 대한 정확한 신고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우편물 운송 및 배달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 연혁

- 1911. 5. 26. 태안우편소 개소
- 1940. 1. 31. 태안우편국으로 개칭(고시 제109호)
- 1949. 2. 22. 태안우체국으로 개칭
- 1962. 7. 10. 만리포 해수욕장 임시출장소 설치(소원면 의항리 산16번지)
- 1970. 8. 29. 신축청사 이전(태안읍 남문리 505-6번지)
- 1972. 11. 1. 만리포 해수욕장 임시출장소를 만리포분국으로 개칭
- 1976. 12. 4. 태안전신전화분실 설치
- 1982. 1. 1. 태안전신전화분실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
- 1991. 1. 21. 6급 주사국에서 5급 사무관국(감독국)으로 승격
태안군 관내 10개국 관할, 감독
- 1996. 12. 12. 신축청사 이전(남문리 160-3번지) - 지하1층, 지상3층
- 1999. 1. 1. 연포우체국 폐국

○ 기구 및 직원 현황(2006. 1. 현재)

• 기구

- 총괄국 : 2과 1실(영업과, 우편물류과, 경영지도실)
- 관내국 : 8국 1출장소(안면우체국, 근흥우체국, 고남우체국, 만리포우체국, 소원우체국, 원북우체국, 남면우체국, 이원우체국, 안흥출장소)

• 직원 현황

- 태안우체국 : 33명(일반직 10, 기능직 23)
- 관할국 : 54명(일반직 12, 기능직 42)

○ 역대 우체국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윤 필	1946. 5. 25.~1946. 10. 24.	15대	김 영조	1990. 7. 1.~1991. 1. 20.
2대	이 규설	1946. 10. 25.~1947. 1. 25.	16대	김 재휘	1991. 1. 21.~1992. 3. 30.
3대	박 노부	1950. 2. 7.~1953. 3. 31.	17대	조 수행	1992. 4. 27.~1992. 11. 2.
4대	방 순영	1953. 10. 2.~1961. 4. 19.	18대	김 홍조	1992. 11. 10.~1994. 2. 17.
5대	홍 기환	1961. 4. 20.~1961. 7. 19.	19대	서 윤석	1994. 2. 21.~1995. 4. 16.
6대	최 동휘	1961. 7. 20.~1962. 2. 11.	20대	조 재옥	1995. 4. 17.~1996. 1. 20.
7대	이 한섭	1962. 2. 12.~1970. 1. 14.	21대	오 재홍	1996. 1. 25.~1996. 8. 12.
8대	최 진섭	1970. 1. 15.~1978. 7. 18.	22대	황 규성	1996. 8. 12.~1997. 8. 15.
9대	이 좌현	1978. 7. 19.~1979. 3. 8.	23대	배 중섭	1997. 8. 16.~2000. 3. 31.
10대	최 진섭	1979. 3. 9.~1982. 1. 10.	24대	설 광수	2000. 4. 1.~2000. 12. 30.
11대	최 향연	1982. 1. 11.~1983. 12. 31.	25대	민 승기	2000. 12. 31.~2003. 10. 5.
12대	최 진섭	1984. 1. 1.~1987. 1. 28.	26대	홍 석원	2003. 10. 6.~2006. 10. 15.
13대	정 사학	1987. 1. 29.~1988. 1. 19.	27대	김 중찬	2006. 10. 16.~현재
14대	최 진섭	1988. 1. 20.~1990. 6. 30.			

한국전력공사 태안지점

○ 연혁

- 1967. 7. 예산영업소 태안출장소 개소
- 1977. 7. 서산영업소 태안출장소로 소속 변경
- 1985. 7. 서산지점 태안출장소(Ⅰ급출장소로 승격)
- 1991. 10. 태안지점(Ⅳ급)으로 독립
- 1997. 1. Ⅲ급 지점으로 승격



○ 역대 지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장 운래	1997. 1. 31.~1998. 1. 31.	6대	서 남석	2002. 2. 2.~2003. 4. 7.
2대	이 현주	1998. 2. 1.~1999. 1. 15.	7대	우 현중	2003. 4. 8.~2004. 9. 8.
3대	송 능권	1999. 1. 16.~2000. 2. 23.	8대	성 기룡	2004. 9. 9.~2005. 1. 27.
4대	이 강록	2000. 2. 24.~2000. 4. 22.	9대	강 신권	2005. 1. 28.~현재
5대	성 삼용	2000. 4. 23.~2002. 2. 1.			

○ 관할 구역

- 태안군 전역(2개읍 6개면), 보령시 일부(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효자도리)
- 공급구역 : 502.85㎢

한국통신(KT)



- 연혁
 - 19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산사업소로 개소
 - 1984. 7. 1. 서산전신전화국 태안분국으로 개칭
 - 1989. 1. 1. 태안전신전화국으로 개국
 - 1990. 1. 5. 태안전화국으로 개칭
 - 1999. 1. 7. 흥성지사 태안지점으로 개칭

○ 역대 국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김 준호	1989. 1. 4.~1992. 7.12.	6대	권 병두	1997. 1. 1.~1997.10. 5.
2대	권 호선	1992. 7.13.~1994. 2.18.	7대	정 기영	1997.10. 6.~1998. 8.18.
3대	김 준호	1994. 2.19.~1994.12.31.	8대	조 재익	1998. 8.19.~1999. 7. 7.
4대	송 덕현	1995. 1. 1.~1996. 4.15.	9대	박 주영	2004.12. 9.~2005.12. 9.
5대	정 역래	1996. 4.16.~1996.12.31.	10대	문 승희	2005.12.10.~현재

대한지적공사 태안군지사



- 연혁
 - 1985. 4. 1. 대한지적공사 서산군 제 2출장소 개소
 - 1989. 1. 1. 태안군 북군과 함께 태안군출장소로 개칭
 - 1997. 8. 1. 청사 신축 이전(태안읍 남문리 452)
 - 2004. 1. 1.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 태안군지사로 개칭

○ 역대 지사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김 만기	1985. 4. 1.~1986. 3.31.	8대	성 태수	1998.11. 1.~1999.10. 6.
2대	김 기원	1986. 4. 1.~1988.12.31.	9대	김 천근	1999.10. 7.~2002.12.31.
3대	이 승규	1989. 1. 1.~1990.11.24.	10대	전 성호	2003. 1. 1.~2003.12.31.
4대	백 건현	1990.11.25.~1994.12.31.	11대	윤 창모	2004. 1. 1.~2004.12.31.
5대	김 천근	1995. 1. 1.~1996.11.24.	12대	백 학영	2005. 1. 1.~2005.12.31.
6대	노 정섭	1996.11.25.~1998. 2.24.	13대	이 상중	2006. 1. 1.~현재
7대	백 건현	1998. 2.25.~1998. 7.20.			

한국농촌공사 서산·태안지사 태안지소



○ 연혁

- 1961. 2. 태안토지개량조합 설립
- 1971. 1. 태안농지개량조합 개칭
- 1973. 4. 태안농지개량조합, 해미농지개량조합, 안면농지개량조합, 서산농지개량조합, 4개 조합을 해미농지개량조합으로 합병 태안지소 명칭 부여
- 1976. 4. 서산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
- 2000. 1.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기관 통합농업기반공사 서산지사 태안지소로 명칭 부여
- 2006. 8. 한국농촌공사 서산·태안지사 태안지소로 개칭

○ 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0-5

○ 관할구역 및 직원현황(2006. 1. 현재)

- 관리구역 : 14개지구(18개 저수지 보유)

- 면 적 : 1,450ha
- 직 원 : 지소장 외 7인

○ 역대 지소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장 학성	1973. 1. 1.~1973. 12. 31.	11대	이 윤희	2000. 1. 1.~2000. 4. 30.
2대	이 세준	1974. 1. 1.~1978. 12. 31.	12대	황 선중	2000. 5. 1.~2000. 12. 31.
3대	윤 동섭	1979. 1. 1.~1980. 12. 31.	13대	조 응호	2001. 1. 1.~2001. 5. 31.
4대	이 석택	1981. 1. 1.~1982. 12. 31.	14대	구 자승	2001. 6. 1.~2002. 1. 31.
5대	김 동규	1983. 1. 1.~1983. 12. 31.	15대	양 석근	2002. 2. 1.~2003. 1. 31.
6대	이 세준	1984. 1. 1.~1986. 6. 30.	16대	조 병초	2003. 2. 1.~2004. 2. 28.
7대	류 상희	1986. 7. 1.~1992. 12. 31.	17대	홍 형표	2004. 3. 1.~2004. 12. 31.
8대	박 봉원	1993. 1. 1.~1993. 6. 30.	18대	진 광재	2005. 1. 1.~2005. 12. 31.
9대	안 홍득	1993. 7. 1.~1999. 5. 31.	19대	강 인규	2006. 1. 1.~현재
10대	고 정섭	1999. 6. 1.~1999. 12. 31.			

태안군 수의사회

○ 연혁

1990. 1. 15. 태안수의사회 충남지회 태안분회를 태안수의사회로 독립

○ 회원명단

직책	성 명	직 업	전화번호	직책	성 명	직 업	전화번호
회장	최 기중	최가축병원	672-0346	회원	김 문배	가축위생시험소태안지소 방역계장	675-4349
총무	김 성곤	선동물병원	672-0679	〃	김 인순	가축위생시험소태안지소 검사계장	675-4349
회원	명 수남	명가축병원	673-9177	〃	유 재용	가축위생시험소태안지소 수의사	675-4349
〃	이 봉식	현대동물병원	673-9177	〃	홍 영훈	가축위생시험소태안지소 수의사	675-4349
〃	유 재신	성모의원	674-2219	〃	박 수진	가축위생시험소태안지소 수의사	675-4349
〃	이 택희	근흥목장	673-0120	〃	정 영식	가축위생시험소태안지소 수의사	675-4349
〃	김 영훈	두산유업	673-3510	〃	박 정옥	가축위생시험소태안지소 수의사	675-4349
〃	김 재천	가축위생시험소태안지소 소장	675-4349				

유도회(儒道會) 태안지부

○ 태안읍 남문리

유도회는 유동정신에 입각하여 도의의 천명과 윤리의 부식을 실천하며 치세 치평의 대도를 선양하며, 사회질서를 순화함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영위한다.

- ① 향교 및 유림기관의 발전 육성에 관한 사항
- ②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 ③ 전통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 ④ 경전 및 학술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 유도회 태안군지부장 역대명단

성 명	재임기간	주 소	성 명	재임기간	주 소
윤 우상	1971~1974	원북면 장대리	정 성태	1998~2001	남면 신장리
문 재배	1974~1988	남면 몽산리	한 갑동	2001~2004	태안읍 인평리
조 의호	1988~1991	태안읍 동문리	윤 길상	2004~2005	근흥면 마금리
김 임중	1991~1995	태안읍 동문리	김 성래	2005~	원북면 반계리
조 용호	1995~1998	태안읍 동문리			

○ 유도회 태안군지부 임원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위	성 명	주 소
고문	김 임중(金 壬中)	태안읍 동문리	고문	한 갑동(韓 甲童)	태안읍 인평리
〃	조 용호(趙 龍鎬)	태안읍 동문리	〃	조 인호(趙 仁鎬)	이원면 포지리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위	성 명	주 소
고문	이 익근(李 益根)	이원면 이곡리	태안읍지회장	정 동협(鄭 東協)	태안읍 동문리
〃	윤 태의(尹 泰儀)	소원면 송현리	안면읍지회장	이 희생(李 羲生)	안면읍 승언리
〃	윤 길상(尹 吉相)	근흥면 마금리	남 면지회장	정 동수(鄭 東洙)	남면 양잠리
지부장	김 성래(金 星來)	원북면 반계리	근흥면지회장	오 병돈(吳 炳墩)	근흥면 도황리
부지부장	지 재근(池 載斤)	소원면 의항리	소원면지회장	이 병옥(李 炳玉)	소원면 송현리
감사	문 천위(文 千緯)	근흥면 용신리	원북면지회장	이 명용(李 命鎔)	원북면 이곡리
〃	김 송래(金 松來)	원북면 이곡리	이원면지회장	송 한유(宋 漢郁)	이원면 당산리
총무부장	문 병숙(文 炳淑)	태안읍 동문리	여성유도회장	한 상옥(韓 相玉)	안면읍 승언리

태안군보훈단체

단 체 명	회 장	회 원 수	전 화
상이군경회	강 희범	120	675-6722
무공수훈자회	조 향설	38	674-0701
6.25참전유공자회	이 현규	615	675-6256
전몰군경유족회	한 석주	64	675-6722
전몰군경미망인회	김 순례	20	675-6722
월남참전회	유 영대	270	675-2282



태안군 교육삼락회

태안군 삼락회는 교직을 정년퇴임한 분들이 모여 친목과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단체이며, 현재 회원수는 54명이다.

○ 역대회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가 재설	1989. ~1993.12. 31.
2대	이 각	1994. 1. 1.~1995. 6. 30.
3대	가 재설	1995. 7. 1.~2000.12 31.
4대	문 우석	2001. 1. 1.~2003. 6. 30.
5대	최 치열	2003. 7. 1.~2006.12 31.
6대	정 동열	2007. 1. 1.~현재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

○ 설립일자 : 1969. 1. 1. 중앙선관위 규칙 제68호로

서산군위원회에서 분리 독립

○ 위치 : 태안읍 남문리 364-3번지

○ 역대위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박 춘석	1969. 1. 30.~1989. 3 16.	8대	한 동수	2001. 2 27.~2002. 2 22.
2대	김 명재	1989. 3 17.~1991. 3 4.	9대	황 진구	2002. 2 22.~2003. 7. 29.
3대	손 왕석	1991. 3 5.~1993. 3. 9.	10대	심 답	2003. 7. 29.~2006. 3. 3.
4대	박 순성	1993. 3 9.~1995. 8. 25.	11대	이 영창	2006. 3 3.~2006. 9. 12.
5대	성 지호	1995. 8 25.~1997. 3 10.	12대	이 재석	2006. 9. 12.~2007. 3 13.
6대	이 성구	1997. 3 10.~1999. 3 2.	13대	김 형석	2007. 3 13.~현재
7대	석 동규	1999. 3 2.~2001. 2. 27.			



남문리의 문화유적

白華山

白華山은 泰安邑에 있다. 그 山脈은 八峰面 金光山에서 뻗어 泰安邑 島內里 漁隱里에 가서 오소山을 꾸미고 두 갈래가 되어 한 갈래는 東으로 가서 上玉里, 仁坪里의 우수山이 되고 또 한 갈래는 南으로 뻗쳐 上玉里에 가서 玉女峰이 되고 이어서 興主山을 이루었다. 그리고 泰安邑으로 치달려 白華山을 이루었으니 이 山이 泰安의 鎮山이 되었다. 이 山은 全部가 岩石으로 되어 있으나 사이 사이로 흙이 있어 巨木이 鬱蒼한 푸른 山이었으나 解放後 간벌로 因하여 岩石만 보일 程度이다. 이 山脈은 두 갈래로 갈라져 한 줄기는 開大峙坪과 平川里로 뻗쳐서 泰安邑을 멀리 쌓아주고 또 한 가지는 낙조峰을 이루고 돌아간 줄기가 中峰峙가 되어 如意川에 그리고 泰安邑을 감사주고 있다. 西쪽으로 돌아간 줄기가 馬草峙가 되어 屈曲을 이루며 가지가지로 나누어졌는데

가. 한 가지는 南門里 衙望峙가 되고 곧장 나가 南面을 지나 安眠島에 들어갔다.

나. 한 가지는 盤谷里로 휘감아 돌아 泰安邑을 감싸고 있으며

다. 또 한 가지는 長山里 朔善里 사이에서 金掘山을 이루고 이 山에서 다시 가지쳐서 西쪽으로는 近興面으로 北쪽으로는 梨北面으로 들어 갔다.

가. 옛날 風水家들은 泰安邑 形像이 金鷄抱卵形이라 했다.
나. 興住山에는 興住寺가 있고 冷泉이 有名하다.
다. 興住山과 白華山 골짜기를 막아서 石間水를 모아 작은 瀑布를 이루었고
(李 基升氏 事業)
라. 華林農場도 이 近處에 있다.
마. 山마루에는 白華山城과 敵의 侵入을 알리는 烽火臺와 永思臺 御風臺 等
古跡이 있다.
바. 山허리에는 太乙庵이 있고 庵子 後便에 磨崖佛이 있다.
사. 太乙庵 前面에는 1923年 泰安邑 金 圭恒氏가 돌을 깎아 感慕臺를 세웠
고 또 金海 金氏의 보책을 돌절벽 속에 넣어 保存하고 있으며
아. 望洋臺와 落照岩도 있다(서산군지, 1975.)

조 존항(趙 存恒) 선생이 쓴 석계유고(石溪遺稿)에 나오는 시문

화저익등백화산운(和諸益登白華山韻)
“백화산에 오르면 모두가 화답한다”
一抹華岑世外高酒朋幾箇伴詩豪洗迴塵慮臨晴瀑畫到風光信彩毫遊屐憑空雲
畔立短節扶醉柳陰拋隣君
일말화잠세외고주붕기개반시호세회진려임청폭화도풍광신채호유극빙공운
반입단절질취유음포린군
今日風流席倘念西海月下舫
금일풍류석당염서주월하도

화산구일운(華山九日韻)
“백화산”

勝會差池恨不相滿筵白雪盡仙郎黃花方綻楓兼好西日雖傾月亦當聚散無過多
慷慨平生細數半踈狂惜乎
승회차지한불상만연백설진선랑황화방탄풍겸호서일수경월역당취산무천다
강개평생세수반소광석호
第一華南景只許夫君獨主張
제일화남경지허부군독주장

티은집(睡隱集)에 나오는 시문

등백화산(登白華山)
“백화산에 오르다”
登登絕頂立大界盡西浮羣籟無時歇懶雲起處幽山對相忘客日窮競度舟回頭驚
一笑吟得戲天遊
등등절정입대계진서부군뢰무시혈뢰운기쳐유산대상망객일궁경도주회두경
일소금득희천유

소성추우서회(蘇城秋雨書懷)
落日蘇城館秋風送雨飛衆葉連聲下孤禽劍翼歸路窮須停轍天寒未授衣梢然抱
膝嘯回首故人稀
낙일소성관추풍송우비중엽연성하고금검익귀로궁수정철천한미수의초연포
슬숙회수고인희

백화사결하(白華寺結夏)
特來結夏華山東寶筏輕浮海島中早棄鈞書留壯志却隨和尚做家風單傳蜜契誰
人會運水搬柴與子同眠了飯餘無個事倦磨瓦磚任磨工

특래결하화산동보별경부해도중조기균서유장지각수화상주가풍단전밀계수
인회운수반시여자동면료반여무개사권마와전임마공

太一殿

여지승람과 태안구지에 의하면 A.D. 1403年 성종 10年 己亥에 慶尙道 義城에서 太一殿을 泰安 白華山으로 이안 하였다 하였으며 A.D. 1927年에 편찬된 瑞山郡誌에는 그 유적을 알 수 없다 하였으나 A.D. 1930年에 爲堂 鄭寅普가 安興의 泰國寺 법당에 太一殿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음을 發見하였으니 泰安 白華山の 太一殿이 安興 泰國寺로 移案되었음이 分明함으로 생각된다.

太一殿은 우리 말로 하늘집을 漢文글자로 記錄하니 太一殿이요 하늘집은 하느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 겨레는 國祖 檀君을 하느님으로 믿고



백화산 태일전 터

있었기에 단군이 계시는 집을 태일전이라 한 것이다. 즉 단군의 영정을 모시는 집이 태일전인 것이다. 義城에 있는 太一殿을 泰安으로 移案한 理由를 추측하건대 이조에 있어서 國家的으로 제일 큰 행사는 명나라 사신의 送迎인 바 명나라와의 왕래는 水路로 安興을 通過하여야 하기로 명나라 사신의 왕래에 수로의 안전을 기원하여 명나라 사신의 기분을 쾌락케 함은 우리나라의 큰 의무이었기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의 영험을 빌기 위하여 국조 단군의 영정을 奉安한 太一殿을 泰安의 白華山으로 移案하였으나 泰安 白華山과 배가 떠나는 安興과는 16키로의 원거리이기로 배가 떠나는 海邊에 있는 泰國寺의 법당으로 이안하고 법당을 太一殿이라고 부른 모양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명나라 사신이 떠날 때에는 바다물을 떠다 太一殿에 놓고 수로의 安全을 비는데 바닷물을 떠올 때에는 물을 가지고 밭을 옮기지 않고 사람들이 열을 지어 손에서 손으로 이동하여 太一殿에 놓고 성대한 축원을 올렸단 한다(서산군지, 1975.)

태안읍성(泰安邑城)

- ㄱ. 소재지 : 태안읍 남문리
- ㄴ. 시대 : 조선(朝鮮)
- ㄷ. 유적현황 : 태안읍성은 현재의 태안읍 중심부에 자리잡은 평지성으로,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타원형을 하고 있다. 이 성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

泰安邑 石城은 둘레가 4백26보로, 성내에 우물이 2개 있는데, 거울이나 여름이나 마르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매우 이른 시기에 읍성이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泰安邑城은 둘레가 1천5백61척에 높이는 12척이며, 그 안에 4개의 우물이 있다.

고 하였다. 또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泰安邑城은 태종 17년에 축성하였는데, 둘레가 1천5백61척이며, 성 안에는 4개의 우물이 있다.

고 하였다. 한편,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邑城은 둘레가 장(丈)으로 계산하면 390丈이요, 척(尺)으로 계산하면 1천5백61척이고, 보(步)로 계산하면 520步다. 여장(女牆)은 171첩(堞)이요, 높이가 12척이다. 동문과 남문에는 웅성(甕城)이 있으며, 동문 문루(門樓)는 3간, 남문 문루도 3간인데, 2층으로 되어 있다.

태안읍성 화남문(華南門)

호서읍지 제14책 〈태안(泰安)〉 성지(城池)조에 보면 태안읍성의 동문 문루는 3간이고, 남문 문루도 3간인데 (모두) 2층이다. 최근에 남은 상태를 보면 읍성의 남문은 화남문(華南門)이고, 북문은 웅성(甕城)으로 가려져 쓰지 않았으며, 동문과 서문은 문틀만 만들어 놓고 문은 설치하지 않았다.

망월루(望月樓)

태안읍성 동문 안에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고 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현재의 태안읍성은 조선 태종 17년에 축성하였으며, 그 둘레는 1,561척이고, 높이는 12척이며, 동문과 남문에는 웅성이 있고, 성첩(城堞)이 171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음에는 성안에 우물이 2개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는 4개가 되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는 이와는 약간 다른 기사가 실려 있다. 즉 동국여지지 태안군조(泰安郡條)에 의하면 석축주일천오백육십일척남개일문내유사정영락병신아태종가신춘수석기타황급복치군고치명우성지(石築周一千五百六十一尺南開一門內有四井 永樂丙申我太宗駕辛春蒐惜基他荒及復置郡古治明又城之)라고 하여 읍성이 태종 16년에 축성되었으며, 태종이 이 지역에 행차하여 이 지역의 참상을 목격한 후 복원 차원에서 성이 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말하는 태종의 행차는 고려 말의 왜구 출현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말에 왜구가 창궐하면서 태안지역은 그 피해가 자못 심각하였다. 수령이 아전 한 명을 데리고 서산으로, 그리고 다시 예산으로 피신하였다니 그 참상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때 태안지역은 전체가 황폐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참상은 시대가 바뀐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태종은 집권 후 국정 쇄신에 진력하였고, 그러한 노력은 대대적인 행정 제도의 개편과 함께 지방 순행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예산지역과 해미지역에 행차하여 덕산현(德山縣)에 있던 이산진(伊山鎭)을 해미현(海美縣)으로 옮겼거니와 고려시대부터 계속되어온 염전사업의 진행경과를 보기 위해서 두 차례나 태안에 행차하였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태종은 해안지역의 실태를 목격하게 되었고, 폐허가 된 이 지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읍성의 축조와 복군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현재 읍성은 동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붕괴되어 전체적으로 윤곽을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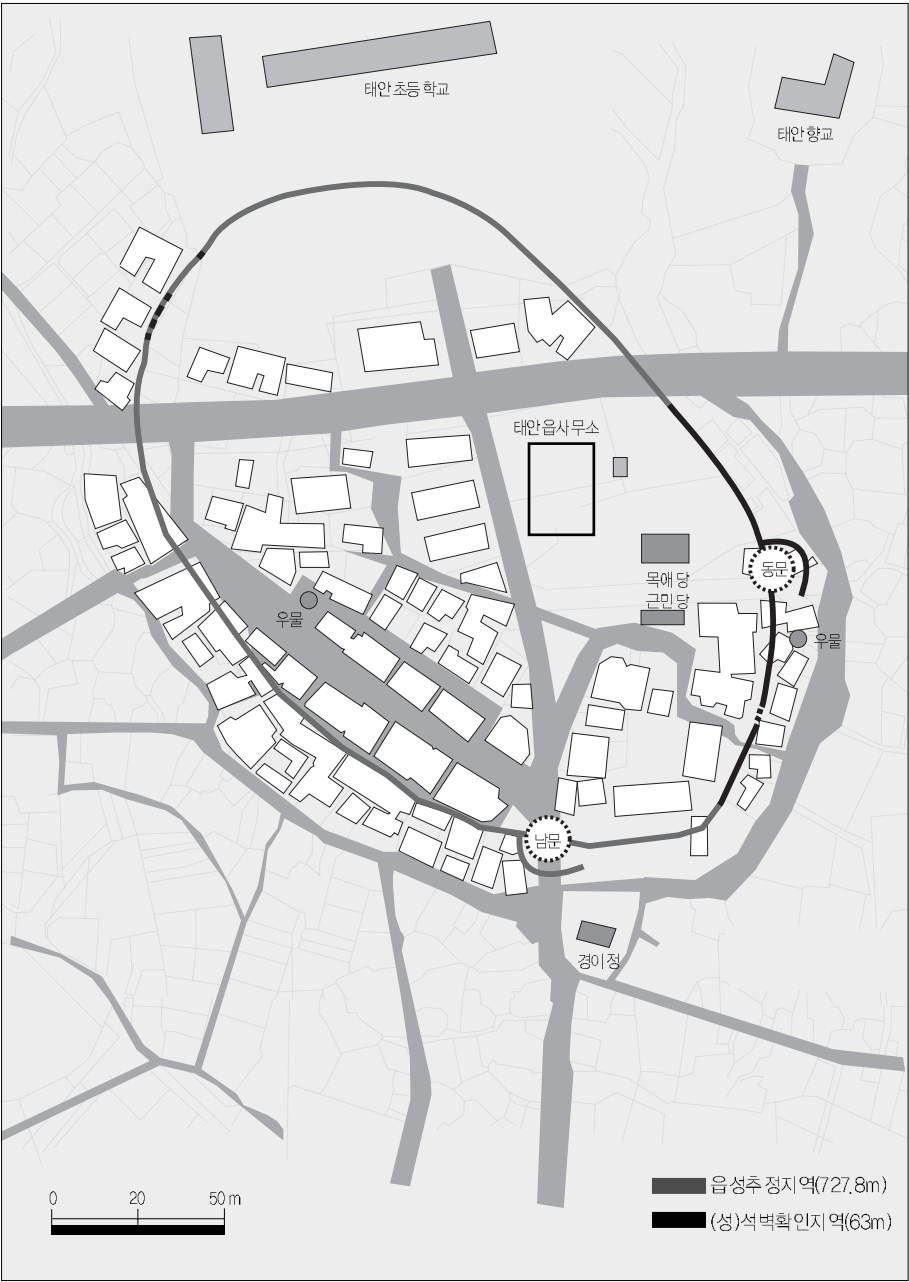
태안읍성 동벽(1990. 7.)



태안읍성 동벽에서 본 동문1리 마을 (중봉고개)



태안읍성 지적도 (출처 · 안흥진성)



태안읍성 현황도 (출처 · 태안읍성)



태안읍성 고지도 (해동지도)



태안읍성 고지도 (호서지도)

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태안읍사무소가 동쪽 담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동벽만이 약 200m 정도가 남아 있어서 당시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성벽은 화강암을 가공하여 정교하게 축성하고 있다. 가장 양호한 성벽의 높이는 4m에 이르고 있다.

성벽은 맨밑에서 정상부까지를 거의 같은 크기의 성돌로 축성하였다. 성돌의 크기는 60×80cm, 110×40cm, 80×80, 54×60m등 일정하지 않지만 다듬은 돌을 이용하여 거의 수직에 가깝게 정연하게 축성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점은 성벽을 맨 밑단에서부터 수직에 가깝게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벽의 맨밑에 단에 해당되는 성기석(城基石)에 서 10~20cm쯤 들어온 지점에서부터 제 2단의 성벽이 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벽의 정상부는 태안읍사무소의 동쪽 담장이 돌아가고 있다. 담장의 높이는 120cm이며, 너비는 60cm인데, 화강암을 이용하여 쌓아올린 다음 그 위를 암기와와 수기로 덮어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담장위에 올린 기와들은 모두가 청해파문(靑海波文)이나 복합문(複合文)으로 된 조선시대 기와라는 사실이다. 성벽의 위쪽에 있다는 사실과 높이, 너비등으로 볼 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록에 보이는 171첩(堞)에 이른다는 여장(女牆)의 흔적이 아닌가 여겨진다.

태안읍성 내외의 시설물로는 경이정(憬夷亭)과 목애당(牧愛堂)이 남아있다.

※ 참고로 태안읍성에 관해 1926년 서산군지에 실렸던 글을 소개한다.

동헌(東軒)은 내외(內外) 10간-『태안구지』-으로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원래는 기와지붕 1동(棟)으로 12간 이었는데 고종 31년 갑오(甲午)년(1894) 동학난에 의해 소실되었다. 고종 광무(光武) 5년 신축(辛丑)년(1910)에 안흥진 첨절제사영(安興鎭僉節制使營)을 헐어서 그 와재(瓦材)로 작청(作廳)과 함께 신축하였다. 건평이 31평 4홉이다. 대정 3년(1914) 군이 폐합된 후로 태안면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대정 13년(1924) 12월 17일에 부지 9827평 6홉 2작

가운데 298평 6홉을 태안면에 양여하였다. 대정 13년 12월 17일에 태안면에 3020평 1홉 5작을 양여하였고 태안면에 599평 2홉 4작을 매각하였고 태안금융조합에 매각하였다.

문간(門間)은 동헌 남쪽에 있다. 본래 기와지붕 3간으로 또한 지난 갑오(甲午)년(1894)에 소실되었다. 고종 광무(光武) 5년(1901)에 안흥진(安興鎭) 청사(廳舍)를 옮기어 그 와재(瓦材)로 신축하였다. 건평이 13평 4홉 3작이다. 대정 13년(1924) 12월 17일에 태안면에 양여하였다.

책실(冊室) 3간-『태안구지』-은 본래 기와지붕 5간으로 또한 지난 갑오(甲午)년에 소실되었다. 고종 광무(光武) 5년(1901)에 태안면 남문리(南門里)에 새로 지었다. 건평이 21평 1홉 8작이다. 대정 12년(1923) 7월 19일에 태안면에 양여하였고 지금은 면(面) 소사실(小使室)로 사용되고 있다.

형리청(刑吏廳)-추청(秋廳)이라고도 한다-은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조선 기와지붕으로 건평이 11평 7홉 6작으로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졌다. 대정 12년(1923) 7월 19일 부지를 태안면에 양여하였고 면사무소 동쪽 구내(構內)에 있다.

장청(將廳)은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조선 기와지붕으로 건평이 11평 4홉 2작이다. 대정 12년(1923) 7월 19일에 태안면에 양여하여 병원과 떨어진 곳에 옮겨지었다. 부지는 대정 14년(1925) 태안면에 매각하였다.

사령청(使令廳)은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조선 기와지붕으로 건평이 19평 7홉 4작이다. 대정 3년(1914) 10월 15일에 태안우체국에 대부하였고 대부 기간을 3회 연장해서 지금 이후로 대부 기한은 소화(昭和) 3년(1928) 6월 8일까지이다.

작청(作廳) 9간-『태안구지』-은 갑오년(1894)에 소실되었다. 후에 고종 광무 5년(1901)에 안흥진 건물을 옮기어 동헌과 함께 새로 지었다. 태안군 남문리에 있고 조선 기와지붕으로 건평이 20여편이고 현재는 태안 경찰관주재소

로 사용하고 있다.

아관청(亞官廳) 10칸-『태안구지』-은 태안면 남문리 710번지에 있다. 대정 5년 병진(丙辰)년(1916)에 무너졌다. 남은 터는 107평으로 향교 소유이다.

고자실(庫子室)은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조선 기와지붕으로 건평이 11평 3홉 4작이다. 대정 10년(1911) 1월 31일에 무너졌다.

객관(客館)은 정청(正廳) 6칸, 동헌(東軒) 12칸, 서헌(西軒) 10칸, 낭청방(郎廳房) 8칸, 중대청(中大廳) 8칸, 하마대(下馬臺) 5칸-『태안구지』-등으로 지금은 무너져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정청이 남아 있는데, 건평이 18평 7홉이다. 대정 8년(1919) 8월 2일 태안보통학교에 매각하였다.

내아(內衙) 15칸-『태안구지』-은 태안면 남문리 군청사-지금은 면사무소이다-뒤 북쪽에 있다. 고종 31년(1894) 동학난에 소실되었고 광무(光武) 원년 정유(丁酉)년(1897)에 재건되었다. 융희(隆熙) 2년(1908)에 최학래(崔鶴來) 군수 때의 화재로 지금은 터만 태안면사무소 구내(構內)에 남아 있다.

관청(官廳) 9칸-『태안구지』-은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고종 31년 갑오년(1894) 동학난에 의해 소실되었다.

공수(公須) 30칸-『태안구지』-은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고조 31년 갑오년 동학난에 의해 소실되었다.

관노청(官奴廳)은 조선 기와지붕으로 11평이고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대정 11년(1922) 9월에 무너졌다.

변소(便所)는 조선 기와지붕으로 4홉 9작이고 대정 13년(1924) 2월 17일에 태안면에 양여하였다.

장대(將臺), 교련청(教練廳)은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대정 5년(1916) 병진(丙辰)년에 무너졌다.

경이정(憬夷亭)은 군의 남쪽 1리에 있다.-『태안구지』-현재는 태안면 동문리에 있고 부지가 86평 6홉 7작이며 조선 기와지붕으로 건평이 12평 5홉 2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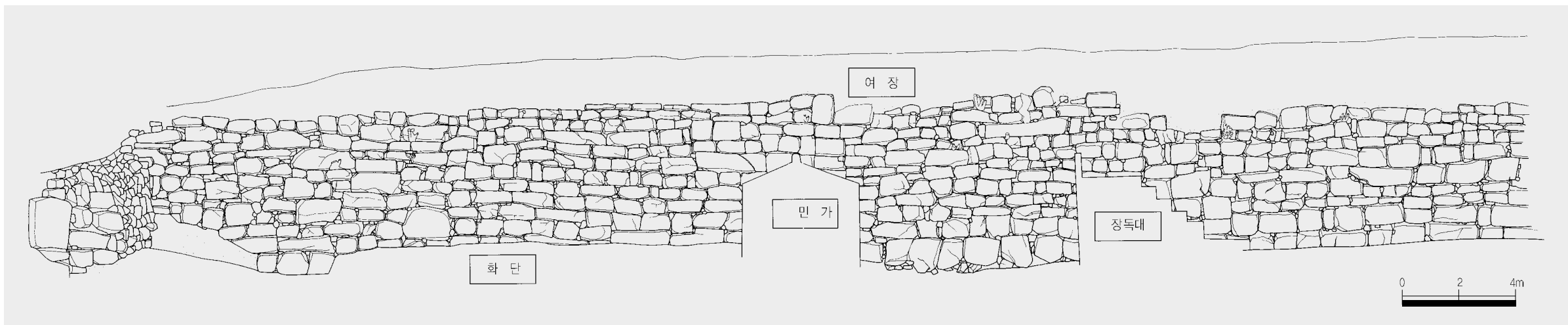
이다-지난 날 중국 남경척사(南京勅使)가 왕래하며 쉬던 곳이고 방어사(防禦使)가 군사 명령을 낼 때 사무를 보던 곳이다. 매년 정월 15일에 저녁에 읍내 사람들이 모여 소를 잡아 노신(老神)에게 제사를 지냈고 방어사가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제사에 참관하였다. 융희(隆熙) 원년(1907) 경에 폐하여 행하지 않는다-. 대정 14년(1925) 7월 1일로부터 소화 2년(1927) 6월 30일까지 태안면 남문리 진흥회 부설 노동야학(勞働夜學)에 대부하였다.

사락정(思樂亭)은 군의 남쪽 2리에 있다-『태안구지』-. 지금은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지난 날 태안부(泰安府) 군민이 쉬며 잔치를 베풀고 활을 쏘던 곳이다. 정자의 남쪽에 연지(蓮池)가 있었으나 지금은 국유답(國有畓)이 되었다. 대한제국 1905년에 정자를 태안보통학교에 주었고 대정 11년(1922)에 남문리에 사는 이 시우(李時雨)에게 매각하여 개인 소유가 되었다.

1. 조사경위(調查經緯)

태안읍성(泰安邑城)은 현재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읍청사를 비롯해 태안초등학교 운동장, 구도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태안읍성은 조선 태종 17년(1417)에 축조된 읍성으로 조선시대 축조된 읍성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어 그 역사성이 매우 큰 읍성으로 알려져 왔다. 태안읍성은 해안방어를 위해 축조된 읍성이지만 조선시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의 중심을 담당해 왔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읍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읍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비롯한 학술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읍성의 규모나 잔존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읍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도시화가 진행되어 성곽과 관련



태안읍성 동벽 전체 실측도 (출처·태안읍성)

시설의 대부분이 망실된 상태이며, 그나마 남아있는 유적의 경우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태안읍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성의 현황과 관련 부대시설의 잔존현황을 확인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아울러 태안읍성의 역사(歷史)·고고성(考古性)을 파악함으로써 읍성의 학술적·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태안읍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복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읍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태안읍성에 대한 조사를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실시되었다. 우선, 성의 잔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를 포함하여 읍성에 대한 기초적인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획득된 자료를 토대로 태안읍성에 대한 기초적인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함

으로써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① 기초조사

가. 태안및 태안읍성과 관련된 역사서 및 지리지 등의 문헌조사.

–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하여 조선시대의 지리지 등에 언급되어 있는 태안읍성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여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나. 태안지역에 대한 역사지리적 위치에 대한 검토.

– 태안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환경에 대한 성격을 규명.

다. 태안읍성 주변의 역사적·고고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

– 태안읍성 주변에 남아 있는 다른 문화유적들에 대한 체계적 정리·검토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파악.

② 현장조사

- 가. 태안읍성에 대한 정확한 측량과 정밀답사를 통한 잔존유구의 파악.
- 나. 조사된 유적에 대한 정확한 현상파악 및 사진촬영.
- 다. 성벽에 대한 실측과 수습유물에 대한 실측 및 설명, 사진촬영을 통한 학술자료화.
- 라. 태안읍성 주변의 유적·유물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정리.

③ 보고서 작성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 태안지역의 역사·지리적 성격
- 태안 및 태안읍성 관련 자료의 검토
- 조사내용(역사·고고학적 지표조사)에 대한 정리 및 분석
- 조사결과에 대한 고찰
- 조서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정비기본계획 수립

태안읍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태안읍성의 학술적·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태안의 역사상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안읍성에 대한 축조방법과 잔존현황, 출토유물의 양상 등을 밝힘으로써 읍성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학계에 제공하며, 태안읍성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 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획득 및 성벽 복원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향후 문화관광자원 및 군민을 위한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표조사가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태안군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의해 가능했으며, 아울러 관광태안을 지향하는 군정방침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II. 역사(歷史)·고고학적(考古學的) 環境

1. 역사적(歷史的) 環境(環境)

태안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을 유적·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남리패총을 비롯해 태안읍 장산리지석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유적은 신석기·청동기시대에 해당된다. 아직 구석기유적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들 지역에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태안지역에는 선사인들이 남긴 패총유적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안가를 중심으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 태안지역은 마한에 속하였는데, 마한 54국 가운데 신소도국(臣蘇塗國)과 고랍국(古臘國)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들 소국은 큰 것은 1만여가, 작은 것은 수천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신소도국은 태안읍 일대, 고랍국은 고남면 일대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시기 태안지역의 역사적 성격은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태안지역의 역사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백제시대에 들어오면서 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태안 백화산에 남아있는 백제 시대에 조성된 마애삼존석불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태안지역이 언제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충남지역이 백제에 편제되는 시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충남지역이 백제에 편제되는 시기는 백제가 체제의 정비를 갖추는 고이왕대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분명하지 않으며, 4세기 근초고왕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백제의 영역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러나 백제시대에 태안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475년 웅진천도

이후이다. 고구려의 남진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한 백제로서는 북방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내포지역을 중시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태안지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중국교통의 창구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백화산에 조성된 마애삼존불은 서산 운산의 마애삼존불과 함께 이들 지역이 문화적으로 매우 선진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백제는 사비시대에 들어와 지방을 방-군-성으로 나누어 통치를 하였는데, 당시 예산지역이 서방에 편제되었다. 따라서 태안지역도 백제 서방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앙의 직접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사기』지리지에 의하면, 태안지역은 성대해현(省大兮縣)으로 기군의 속현이었음이 기록되어 있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백제는 660년 신라에 의해 왕도가 함락되었는데, 이후 3년여에 걸친 부흥운동이 실패함으로써 결국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이후 경덕왕대에 와서 기군이 부성군으로 개칭되었으며, 태안지역은 소태현(蘇泰縣)으로 변경되어 부성군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 와서도 태안지역은 여전히 소태현으로 불리었으며, 현종 9년에는 운주현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후기인 충렬왕대에 환관 이 대순(李大順)이 원나라의 총애를 받아 이 곳 출신지인 소태현을 군으로 승격시켰으며, 지명도 태안(泰安)으로 변경하였다. 태안지역은 해운로상 중요한 교통로에 해당되어 조운(漕運)의 발달과 함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안흥 해역은 험로에 해당되어 인종 12년(1391)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에 운하의 개착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하였으며, 그 뒤 공양왕 3년(1391)에 다시 운하 개착이 재개되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고려말기에 태안지역은 왜구의 침탈이 잦았는데, 공민왕 22년(1373) 왜구의 참화로 인해 치소를 서산군으로 옮겼으며, 우왕 9년(1383)에는 다시 예산현으로 옮겼다. 공양왕 2년(1390) 왜구의 침탈이 잦아지자 다시 서산군의 순

제(尊堤)로 돌아왔다. 그 후 태종 16년(1416)에 와서야 다시 복군되었는데, 1417년에는 태안읍성이 축조되었다. 세조 12년(1466)에는 소근진에 소근포진을 설치하여 좌도수군첨절제사를 두었다. 성종 10년(1479)에는 경상도 의성현에 있던 태일전(太一殿)을 태안으로 옮겨 백화산 정상에 안치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이전의 행정체제가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이후 태안지역의 행정구역은 큰 변동없이 조선시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태안에서 이제까지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라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을 10월 1일 태안 관아를 공격하여 동학군의 지도자들을 구출하고 안무사와 서산·태안 군수를 타살하였다. 이 사건 후에 동학군은 그 세력을 한동안 유지하다가 10월 11일 홍성군수가 이끄는 관군·유회군·일본군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패배함으로써 소산되었다. 그후 10월 15일 태안을 비롯한 서산·해미 지역에서 다시 기포하여 서산·해미 등을 거쳐 홍주에서 관군과 충돌하였으나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동학군들은 해산되고 말았다.

1914년에는 태안과 해미가 서산군에 통합되었는데, 태안군의 군내·동일·동이면이 합쳐져서 태안면이 되었으며, 원일·소근·원이면이 소원면, 북이면과 원이면의 일부가 원북면, 근서면과 안흥면을 합쳐 근흥면, 북이면과 이원면이 이북면, 안상면과 안하면이 안면면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 태안면이 태안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0년에는 안면면이 안면읍 이후 1989년 태안지역이 서산군으로부터 분리되어 태안군이 되었다. 현재 태안군은 2읍 6면 66개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2읍·6면은 태안읍·안면읍·고남면·근흥면·남면·소원면·이원면·원북면 등이다.

2. 고고학적(考古學的) 환경(環境)

앞서 태안지역의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태안지역은 군내(郡內) 전체가 100m 이하의 나즈막한 구릉, 내지는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해안선이 발달해 있어 문화 형서엔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태안지역에서는 이렇다할 역사시대 유적이 조사된 바 없다. 따라서, 태안지역에 어떻게 해서 백화산성(白華山城)이 축성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백화산성(白華山城)의 축성 시기를 확인할 만한 다른 문헌기록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태안지역에서 확인된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백화산성(白華山城)의 축성 시기 및 축성 배경에 한발 다가서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부정되어 왔지만 1963년에 함북 굴포리에서, 그리고 뒤이어 1964년에는 충남 공주 석장리에서 구석기유적이 조사되면서 구석기문화의 존재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해안가나 내륙에 관계없이 구석기유적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태안지역 역시 구석기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태안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된 바는 없다. 다만, 안면읍 창기리와 신야리, 고남면 고남리 등지에서 구석시대 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

창기리유적(倉基里遺蹟)은 바닷가 옆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팎날 찌개와 굽개, 주먹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석기와 둥근 모양의 돌에 구멍을 파서 소로 추정되는 형체 예술품을 만든 것이 수습되었다. 여기에서 보이는 형체 예술품은 충북 제원의 점말동굴, 청원 두루

봉동굴 등지의 구석기 예술품과 견줄만한 것으로, 당시인들의 삶에 동물과 예술이 차지하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신야리유적(新野里遺蹟)은 해발 25m 정도의 구릉 위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망치의 기능을 가진 타제석기가 1점 수습되었다. 이러한 유물은 석장리와 화순 대전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는 것으로, 신야리유적의 연대 추정에는 좋은 단서가 된다.

고남리(古南里)에서는 ‘옷점’ 마을과 ‘감나무골’에서 각각 구석기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

옷점유적은 해발 18m 정도 되는 나즈막한 구릉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는 생김새와 무게로 볼 때 어른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둥근 모양의 사냥돌이 수습되었다. 이러한 사냥돌은 다른 구석기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중기 구석기시대의 특징적인 유물로 꼽힌다. 그런 점에서 옷점유적은 그 시기도 중기 구석기시대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가 하면 구석기인들의 사냥행위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감나무골유적은 해발 30m의 구릉에 형성된 패총의 아래쪽에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5각형 형태의 흙날 연모가 수습되었다.

이렇게 볼 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태안지역 역시 중기(中期) 구석기시대부터 인류의 문명활동이 확인된다. 이들은 주로 해안가의 낮은 구릉지대에 살면서 사냥을 주로 하고, 그러한 사냥과 관련된 주술적 의미의 예술적 감각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태안지역도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가 끝나고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로 진입하였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고남면 2개소, 남면 1개소 등 모두 3개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유적은 고남리 감나무골유적이다.

감나무골유적은 고남면 고남리 1538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패총유적이

다. 이 유적에 대해서는 1988년에 1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조사를 통해 이 유적이 신석기~청동기시대의 패총유적임이 확인되었다. 그중 신석기시대 패총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빗살무늬토기편과 같은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때 확인된 빗살무늬토기편은 두께 7mm 정도 되는 구연편(口緣片)이었는데, 3개의 이(齒)가 달린 시문구(施文具)로 그어내린 듯한 3선의 지그재그 무늬가 표면에 음각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이나 점열문(點列文)이 시문(施文)된 토기편도 확인되었다.

고남리 1499, 1504번지 일대에도 패총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패총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차~7차에 이르는 연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중 4차 조사는 고남리 1499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패총에 대한 조사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패총과 겹쳐 있는 신석기시대 패총이 확인되었다. 이 신석기시대 패총은 동서 17m, 남북 6m 규모의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곧게 선 구연부(口緣部) 참저형(尖底形)의 빗살무늬토기와 점열문(點列文), 집선문(集線紋)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었다.

‘발화지’에서도 동일한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발화지’ 유적은 고남면 고남리의 ‘감나무골’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는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출토되는 패총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찾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발화지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토기편은 감나무골에서 수습된 빗살무늬토기와 태토나 무늬가 별 차이가 없어 거의 같은 문화라고 보아도 큰 잘못은 아니다.

신석기시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청동기시대의 유적도 태안군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어느 지역이나 청동기시대 유적은 신석기시대보다 종류와 수량이 많은 것이 보통인데, 그런 점에서 태안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태안 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관련 유적은 모두 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전체

면적에 비해 대단히 많은 수의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태안 지역이 긴 해안서를 끼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태안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무덤, 패총, 유물 산포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태안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무덤으로는 장산리(長山里) 고인돌을 들 수 있다. 장산리 고인돌은 태안읍 장산1리의 야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원래 7기의 고인돌이 완만한 구릉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석(支石)이 없는 상태로 개석(蓋石)만 약 1/3 정도가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한다. 고인돌은 현재 태안문화원 옆으로 이전되어 있는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전되어 자세한 사향은 알 수 없다. 다만, 그 중 1호 고인돌은 130×125×30cm의 크기이고, 2호 고인돌은 155×95cm의 크기를 하고 있다.

한편, 이 장산리 고인돌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발굴조사를 하였고, 당시에 출토유물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고인돌 주변에서 10cm 정도 크기의 돌도끼 1점은 수습하기도 하였다.

태안지역에서 패총이 발견된 곳은 27개소에 이르고 있다. 태안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남리 패총(貝塚)이다. 이 패총은 고남면 고남리 1499, 1504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데, 당산(堂山)에서 서쪽으로 길게 흘러내린 해발 20~30m 높이의 나즈막한 구릉상에 해당된다. 패총의 존재를 확인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전후 7차례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패총의 형성시기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패총이 형성되었으며, 3개소의 주거지와 2개소의 야외 화덕자리, 1개소의 원형 구덩이, 그리고 생활유적으로 보이는 석열유구(石列遺構) 등이 조사되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무문토기(無紋土器), 홍도(紅陶) 등과 같은 토기들과 석촉(石鏃), 석부(石斧), 대패날, 석검편(石劍片), 유구석부

(有溝石斧) 등과 같은 석기, 갈판, 낚시비늘, 뼈칼 등과 같은 생활용구들도 발견되었다. 이밖에 출토된 유물 중에는 곡옥(曲玉)이나 관옥(管玉), 조개장신구 등과 같은 당시의 장신구들도 끼어 있었다.

같은 고남리 ‘작은고장’ 마을에서도 패총이 조사된 바 있는데, 상당량의 토기편과 석기편이 출토되었다. 특히 출토된 무문토기는 표면에 타날문(打捺文)이 시문(施文)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토기편은 서천 오석리, 보령 진죽리 등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이 지역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석기는 석촉(石鏃), 석도(石刀), 석부편(石斧片) 등이 출토되었다.

이렇게 고남리 일대에는 청동기시대의 패총이 특히 밀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마도 해안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경보다 어로·수렵에 의한 생활방식이 특히 발달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청동유물은 발견된 바 없지만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폭증하는 유적의 수나 다양한 토기와 석기의 존재, 그리고 곡옥(曲玉)·관옥(管玉)과 같은 장신구의 등장은 청동기시대에 이 지역이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마한(馬韓) 소국중 신소도국(臣蘇塗國)을 이 지역에 비정하려는 견해는 그래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

백제시대의 유적으로 아직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구조와 성격이 밝혀진 유적이 없다. 다만, 백화산성 서벽에서 아래쪽으로 1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리하고 있는 태안마애삼존불(泰安磨崖三尊佛)이 있을 뿐이다. 이 마애불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서기 600년 경에는 태안 인근 지역이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窓口)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애불이 자리하고 있는 산이 백화산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이곳이 바로 백제 관음신앙(觀音信仰)의 상징적인 관음도장(觀音道場)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태안마애삼존불 이외에는 이렇다할 백제 유적이 조사된 바 없다. 따

라서 지금으로서는 백화산성(白華山城)의 축성 시기, 축성 목적 등을 마애삼존불과의 관련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1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 인접한 곳에 두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양자의 관련성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백화산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비록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기는 하지만 태안지역에 존재하는 백제 고분이 몇 군데서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남면(南面) 양잠리(兩潛里)에서는 농로(農路)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단면 4각형 형태의 석실분이 노출된 바 있다. 이 석실분은 이미 도굴된 상태였지만 길이 252cm, 너비 112cm, 높이 110cm 정도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변에서는 또 다른 석실분의 석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근흥면(近興面) 수룡리(水龍里)와 두야리(斗也里)에서도 백제고분이 확인된 바 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의 전언(傳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삼족토기(三足土器)와 장경호(長頸壺)와 같은 백제의 특징적인 토기들이 출토된 바 있어 백제석실분으로 보아도 큰 잘못은 아닐 듯하다.

이렇게 태안지역 곳곳에서 백제고분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과 함께 산성도 10여 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 산성의 축성 시기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수룡리산성과 양잠리산성, 달산리산성 등지에서는 고식(古式)의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어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축성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태안과 서산의 경계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조운(遭運) 관련 운하유적(運河遺蹟)이다. 이 운하유적은 천수만(淺水灣)과 접해 있는 태안읍(泰安邑) 인평리(仁坪里)와 가로림만(加露林灣)에 접해 있는 팔봉면 어송리 사이의 약 7km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인공운하(人工運河)의 흔적

인데, 일부 구간은 현재도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운하는 세곡선(稅穀船)이 안흥량(安興梁)을 거치지 않고 한양(漢陽)에까지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개착(開鑿)을 시작한 것인데, 고려 인종 12년(1134)에 시작되어 조선 현종 10년(1669)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친 시도가 있었으나 지하의 암반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당시 개착한 운하(運河) 일부와 관련 성곽이 지금도 남아 있다.

태안지역은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해적왕래지(海賊往來之)’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해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방시설(關防施設)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태안읍성도 그러한 방비책의 일환이지만 백화산 성 내의 봉수(烽燧)도 이 시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설치된 것이다. 소근진성(所斤鎭城)과 안흥진성(安興鎭城) 역시 조선시대에 들어와 해방(海防)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통과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난행량(難行梁)이라 불릴 만큼 항해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던 만큼 조운선(漕運船)에 대한 안전 운항의 책임도 지도 있었다. 태안지역 해안가에 많은 진성(鎭城)이 설치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태안지역은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특히 청동기시대가 되면 인구수가 급증하면서 곳곳에 패총과 유물산포지, 무덤 등을 남기고 있다. 백제시대에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입하는 창구(窓口)가 되어 웅진(熊津)과 사비(泗沘)로 통하는 첫 관문(關門)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것은 해안지역을 끼고 있는 지형적인 여건 때문인데, 반대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해로(海路)를 이용한 해적 출몰의 요충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방지하기 위한 관방시설(關防施設)이 집중 설치되기도 하였다.

태안읍성(泰安邑城)의 현황(現況)

1. 읍성의 현황

1) 전체적인 현황

태안읍성은 태안의 진산인 백화산 남단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읍성의 형태는 남동~북서를 축으로 장타원형을 한 평지성이며, 현재 태안읍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내부를 비롯해 주변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읍성 북편 약 1/4 지점으로 2차선 도로가 성체를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다. 성벽은 시가지의 형성으로 대부분 훼손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잔존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성 내부의 전체적인 지형은 남서쪽이 낮고 동북쪽이 높으며, 북으로 가면 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읍성의 둘레에 동·서·남 도면에 해자로 이용되었던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현재는 이를 모두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동벽은 299번지 대지부터 292번지 대지까지 성벽의 일부가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어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편이다. 이 부분은 성벽 동편으로 민가가 들어차 있으며, 성벽은 대부분 이들 민가의 뒷담 역할을 하고 있다.

남벽은 남문을 기준으로 볼 때 동편의 성벽은 외관상 확인되지 않는데, 도로 및 건물의 개선 등으로 지상의 유적은 모두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서편의 서역은 역시 민가 등의 조성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성돌을 이용하여 민가의 축대 또는 담장 등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벽은 읍성이 타원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남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가가 들어 차 있어 외견상으로는 잔존상태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 특히 동서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의 주변은 모두 훼손되어 성선조차도 확인되지 않으며, 서벽에서 북벽으로 굽어지는 300-49번지 민가 북편과 300-11번지 학교운동

장 서편 담장의 외부에서 성벽의 기초석 일부가 확인되었다.

북벽 부분은 태안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외견상 보이지 않으나 지대가 높은 것으로 보아 부분적으로는 지하에 매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탐색트렌치를 넣어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여건상 학교부지 서편 즉, 읍성의 서북편에 해당되는 지점 1개소에 확인 트렌치를 넣었으나 성벽은 남아있지 않았다.

2. 인문사회환경

1) 태안군 연혁

○ 태안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남리패총을 비롯해 태안읍 장산리지 석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안지역에는 선사인들이 남긴 패총유적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안가를 중심으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원삼국시대에 태안지역은 마한에 속하였는데, 마한 54국 가운데 신소도국(臣蘇塗國)과 고랍국(古臘國)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 태안지역의 역사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백제시대에 들어오면서 부터였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시대에 태안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475년 웅진천도 이후이다. 고구려의 남진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한 백제로서는 북방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내포지역을 중시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또한, 태안지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중국교통의 창구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지리지에 의하면 태안지역은 성대해현(省大兮縣)으로 기군의 속현이었음이 기록되어 있을 뿐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다.

○ 백제는 660년 신라에 의한 왕도가 함락되었는데, 이후 3년여에 걸친 부흥운동이 실패함으로써 결국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이후 경덕왕대에 와서 기군이 부성군으로 개칭되었으며, 태안지역은 소태현(蘇泰縣)으로 변경되어 부성군의 속현이 되었다.

○ 고려시대에 와서도 태안지역은 여전히 소태현으로 불리었으며, 현종 9년에는 운주현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후기인 충렬왕대 환관 이 대순이 원나라의 총애를 받아 그 출신지인 소태현을 군으로 승격시켰으며, 지명도 태안으로 변경하였다.

○ 고려말기에 태안지역은 왜구의 침탈이 잦아는데, 공민왕 22년(1373) 왜구의 참화로 인해 치소를 서산군으로 옮겼으며 우왕 9년(1383)에는 다시 예산현으로 옮겼다. 공양왕 2년(1390) 왜구의 침탈이 잦아지자 다시 서산군의 순제(尊堤)로 돌아왔다.

○ 그 후 태종 16년(1416)에 와서야 다시 복군되었는데, 1417년에는 태안읍성이 축조되었다. 세조 12년(1466)에는 소근진에 소근포진을 설치하여 좌도수군첨절제사를 두었다.

○ 태안에서 이제까지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라고 할 수 있다. 태안지역에서는 10월 1일 태안 관아를 공격하여 동학군의 지도자들을 구출하고 안무사와 서산·태안 군수를 타살하였던 것이다.

○ 1914년에는 태안과 해미가 서산군에 통합되었는데, 태안군의 군내·동일·동이면이 합쳐져서 태안면이 되었으며 원일·소근·월이면이 소원면, 북이면과 월이면의 일부가 원북면, 근서면과 안흥면을 합쳐 근흥면, 북이면과 이원면이 이북면, 안상면과 안하면이 안면면으로 재편되었다.

○ 1973년에 태안면이 태안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0년에는 안면면이 안면읍 이후 1989년 태안지역이 서산군으로부터 분리되어 태안군이 되었다.

○ 현재, 태안군은 2읍 6면 65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읍면은 태안읍·안면읍·고남면·근흥면·남면·소원면·이원면·원북면 등이며, 179개 행정리에 792개의 반, 그리고 585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3. 태안읍성 현황

○ 태안읍성은 백화산 남단 태안읍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읍성의 형태는 남동~북서를 축으로 한 장타원형 평지성으로, 전체적인 지형은 남서쪽이 낮고 동북쪽이 높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태안읍성 북쪽에 태안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성벽을 침범하여 운동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운동장 서쪽경계 지역에서 성벽 기반부가 확인되었는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운동장 지하에 성벽유구가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태안읍성 남쪽에 있는 경이정 좌측 도로가 태안초등학교까지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읍성의 약 3분의 2 지역에는 태안읍성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왕복2차선 15m도로가 최근 개통되어 사용되고 있다.

○ 현재, 태안읍성 내부 동쪽지역에는 태안읍사무소 및 부속건물들이 위치해 있는데, 경내에 동헌(현 목애당)과 내삼문(현 근민당)이 자리잡고 있으며, 읍성내부 서쪽지역 278-13번지에서 우물터가 확인되었다.

○ 읍사무소 주변을 비롯한 태안읍성 내·외부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읍사무소 동쪽 대지경계지역에는 성벽을 비롯한 옹성, 우물 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성벽 및 옹성은 이 지역 민가들의 뒷담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남문의 위치는 현재 유적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경이정 좌측 남북으로

뻗어있는 도로와 지적선이 성벽과 만나는 지점으로 추정된다.

○ 그리고, 태안읍성을 동~남~서로 에워싼 외곽지역으로 백화산에서 발원되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현재는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목애당(牧愛堂)과 근민당(近民堂)

목애당(牧愛堂)은 태안읍 남문리 300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태안읍성, 현재의 태안읍사무소의 경내에 있다.

목애당은 남 수문(南 秀文) 「객관기(客館記)」와 신 숙주(申 叔舟) 「객관기」에 의하면 세종21년인 1439년에 시작하여 2년 뒤인 1441년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 태안의 객관(客館)은 영(楹)으로 해어서 83개가 된다고 하였고 영조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여지도서』에 의하면 태안의 객사(客舍)내에는 정청(政廳) 6칸 동헌(東軒) 12칸, 서헌(西軒) 10칸, 청방(廳房) 8칸, 중대청(中大廳) 8칸, 하마대(下馬臺) 5칸이었고, 아사(衙舍)에는 동헌내외(內外) 10칸, 아사(衙舍) 15칸, 책방(冊房) 3칸, 공수(公須) 10칸, 향청(鄉廳) 10칸, 관청(官廳) 9칸, 작청(作廳) 9칸 등의 많은 건물명과 간수(間數)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멸실되어 없어지고 그 당시 동헌(東軒)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목애당과 맞은편에 서 있는 근민당(近民堂)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아문(衙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객관(客館)들이 멸실된 것은 1894년인 갑오년에 발생한 동학(東學)혁명군에 의해 불타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목애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때에 불타 없어졌다가 7년 후인 1901년에 안흥성(安興城)내에서 불타고 남은 목재 일부와 소근진성(所斤鎭城)내에 목재 일부를 가져다

가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다시 신축한 목애당의 구조는 장대석(長臺石)을 갖고 2벌대로 쌓은 기단 위에 네모뿔형 주초석을 놓아 방형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일제 때인 1914년에 태안군이 폐군되어 태안면으로 격하됨에 따라 태안면사무소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사무실 구조에 편리하게 측면으로 덧달아 내는 등 구조의 변경을 일부 가져오면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태안면사무소의 청사로 사용되어 내려오던 목애당은 1970년 여름 태안읍사무소가 신축되어 이전하게 되자 농촌지도소의 사무실과 읍사무소의 민원실, 서산군 서부출장소의 청사와 태안군청의 민원실 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등 계속적으로 행정관청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내려왔으며, 1997년 9월부터 전면 해체 복원하였다.

현재 목애당은 문화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2년 8월 17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8호로 지정되어 현재는 태안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

또한 이러한 목애당의 내삼문(內三門) 정도로 추측되고 있는 아문(衙門)에 근민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근민당중건기(近民堂重建記)」도 걸려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위치로 보아도 목애당의 전면에 있고 건물의 형태로 보아도 솟을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로 보아도 정면 6칸, 측면 1칸의 정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등 근민당이라는 관아(官衙)의 한 건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관아의 내삼문(內三門)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근민당중건기에 의하면 이 기석(李 基奭) 군수는 광무5년인 1901년 4월 불타버린 목애당을 중건하고자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에서 근민당이라는 현판을 솟을대문에 달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목애당보다는 백성을 가까이 하겠다는 뜻에서 새로 신축한 건물은 목애당이 아닌 근민당으로 바꾸어 현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민당(近民堂)은 오늘날의 목애당(牧愛堂) 내삼문의 이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기석(李 基奭) 군수가 지어 쓴 「근민당중건기(近民堂重建記)」를 해제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근민당중건기(近民堂重建記)

泰安邑之堂曰近民近民之義豈徒然哉謚民者可近而不也間因昇平日久爲字牧
 泰安읍지당왈근민근민지의기도 연재우민자가근이불야간인승평일구위자목
 者不知近民之義貧墨成風誅求爲事釀成甲午東擾民怨既結雖有善後者卒難解
 자불지근민지의빈묵성풍주구위사양성갑오동요민원기결수유선후자졸난해
 其紓矣本郡時爲防禦營故尤先嬰鋒城陷之日本使申公百熙曉諭使金公慶濟倪
 기서의본군시위방어영고우선영봉성함지일본사신공백희효유사김공경제현
 以忠節同時遇害堂亦爲其所燒民之可畏者亦有是也夫亂旣平繼而爲治者至今
 이충절동시우해당역위기소소민지가외자역유시아부란기평게이위치자지금
 八載守凡累易李候熙重之莅任也慨邑治之無所勤干政而和干民課所以重建之
 팔재수범루이이후희중지리임야개읍치지무소근간정이화간민첩소이중건지
 經遞而未果張候駿遠亦以重建爲己任思其方便旋又內除民多惜去後亦不以已
 經遞而貳其志左右宣言至蒙裁可自度支下金五千兩許撤安興所斤二鎮廢癯而新
 체이이기지좌우선언지몽체가자도지하금오천량히철안흥소근이진폐해이신
 之時則李候範紹到郡之日也方課興作既有所需不憚勞苦躬自董工役幾有成纔
 지시즉이후범소도군지일야방첩흥작기유소수불탄노고궁자동공역기유성재
 五月而遞歸翌年正月余以不材擢承後撫巧負嗣葺之責一遵規畫而復修前功至
 오월이체귀익년정월여이불재외승후척교부시즙지책일준규화이복수전공지
 是年四月而始告成棟楹依舊華楣維新余乃始得安居挂笏而默思之人之安危堂
 시년사월이시고성동영의구화미유신여내시득안거주홀이묵사지인지안위당

之興廢雖苦自有其數機其機則已兆於幾年之先矣方是堂之廢也承弊則雖以二
 지흥폐수고자유기수기기기즉사조어기년지선의방시당지폐야승폐즉수이이
 公之賢猶不能於免禍反是堂之興也籍力則積其三候之勤余易得以享安由其事
 공지현유불능어면화반시당지흥야적력즉적기삼후지근여이득이향안유기사
 而究其故必欲愼之於漸其有不近民而能之者乎余感古人命名之義復題其扁而
 이구기고필욕신지어점기유불근민이능지자호여감고인명명지의복제기편이
 揭之以寓余朝夕警省之意也
 계지이우여조석경성지의야

光武五年四月瀚郡守李基奭記
 광무오년사월한군수이기석기

근민당중건기(해제)
 태안읍에 소재한 이 집은 백성을 먼저 생각함을 뜻한 집이다.
 가히 백성을 가까이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동안 태평한 날이 옳다고 해서 前
 에 牧字로 한 것은 백성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도 모르고 부른 것이
 다. 글씨만 탐하고 풍속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탐구하는 일만 삼아서 그 때문
 에 甲午에 민란이 백성의 민원이 한이 맺히어 비록 잘 다스리는 耆가 있으나
 마침내 그 분란을 풀지 못해 本郡이 이때 방어령이 있는 고로 우선 칼날을 맞
 이하고 城이 함락한 날에 본군의 방어사 신 백희와 효유사 김 경재가 그때 당
 시 충절로서 동시에 시해당했다. 또한 牧愛堂도 이때 불살라졌으니 백성들한
 데 가히 두려운 자가 여기 있다.

난리로 이 고을이 평정되고 이어서 군정을 하는 자가 지금까지 이르도록 부
 임하는 군수마다 옛 그대로 집무하여서 여러 번 바뀌었다. 이 회중 군수가 임
 관되었으나 읍을 다스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어서 개탄하였다. 군정에 부지

런하고 백성에 和해서 불탄 목애당을 중건하려고 꾀하였으나 성과가 없고 또
 그뒤 장 준원 군수가 중건하겠다고 책임을 졌으나 중건하지 못하고 또한 대치
 하지도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서 좌우로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탁지부에
 서 하사한 五千兩에 힘입어서 첫째, 안흥진과 소근진을 철폐하고 관청까지 폐
 지해서 새롭게 했다.

바로 이때가 이 범소 군수가 부임한 날이다. 바야흐로 목애당을 중수하려고
 피할제 이미 탁지부에서 하사금이 내려왔기에 스스로 공사일을 거둬해서 거
 의 낙성이 가까워졌으나 그 해 오월에 군수가 다른 곳으로 전임되었다. 내가
 재목감도 못되는데 후임으로 왔으나 이 일을 수행치 못할까 두려워해서 먼저
 하던 계획을 따라 전과 같이 이 功을 닦아서 그 해 사월에 비로소 낙성하였으
 니 동영의구(東楹依舊)하고 빛나는 대들보가 오직 새로워서 내가 평안케 삶을
 얻었다. 가만히 홀(笏)을 잡고 생각하니 인생의 위안과 난세와 이 집의 흥폐가
 그리고 그 운수가 기회라면 나한테 돌아왔으며, 몇대의 빛이 시작됐다.

다시 이어져 전임 군수들의 어짐으로서 능히 화를 면치 못하고 지금 이 집
 이 복구됨에 자력이 힘을 모으고 그 옛 것을 연구하여 반드시 점점 나아지리
 라 생각하여 어찌 백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能하겠느냐, 옛분들의 이치를 생
 각해서 다시 근민당 현판을 써서 솟을대문에 달았으니 아침과 저녁으로 이깨
 고 살피는 뜻을 부치었다.

광무 5년(1901) 4월 군수 이 기석 기록하다.

*이 기석은 고향인 태안으로 부임해서 군수로 집무 하였는데 근민당 중건기
 외에도 백화산 상봉에 나무를 심고 자연바위에 기념으로 표한 쌍괴대(雙槐臺)
 글씨가 남아 있다.



목애당 전경



목애당 편액 화옹(晦翁) 신 숙주(申叔舟)의 글씨다.



근민당 편액 석운(石雲) 권 동수(權東壽)의 글씨다.



작청(作廳)

「태안읍성 작청(作廳)」은 겹집 7칸으로 되어 있다. 상량문(上樑文)에는 대한광무(大韓光武) 5년 신축(辛丑) 3월 초십일(初十日) 신시상량(辛時上樑) 자작오향(子坐五向)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1901년 3월 10일에 상량한 것이다(1991.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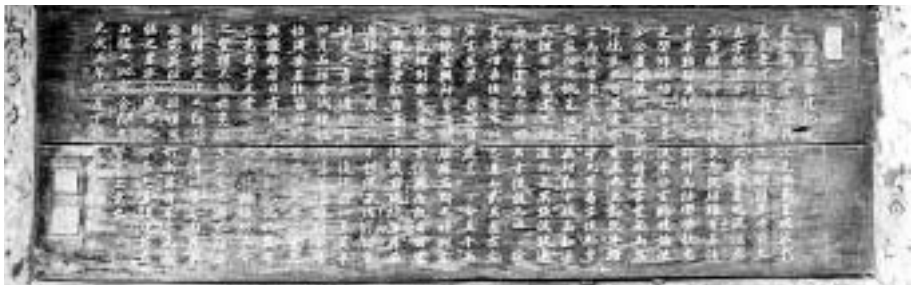


안목헌(鴈鷺軒) 편액

초서(草書)체로 쓴 이 현판은 태안읍성내 작청(作廳)의 대들보 중앙에 있던 현판이다. 안(鴈)자는 기러기를 가리키며, 목(鷺)자는 따오기를, 헌(軒)자는 마루를 뜻한다. 즉, 겨울철새 기러기와 여름철새 따오기가 마루 주위에서 땀돈다는 뜻이다. 옛 선인들은 상서로운 새(吉鳥)가 항상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조선).



근민당



근민당 중건기 편액

권 동수(權 東壽 1842~?) : 조선 시대의 문신 · 서예가. 본관 안동. 자 치영(致永). 호 석운(石雲). 벼슬은 영사(領事)에 이르렀다. 1892년(고종29) 일본 망명 중에 고종의 밀령을 받고 간 이 일직(李 逸植)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 와 있던 김 옥균(金 玉均) · 박 영효(朴 泳孝)를 암살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일본 주재 조선공사관에 숨었으나 일본 관헌에 체포되었다. 이듬해 김 용원(金 鏞元)과 함께 러시아 황제에게 전하는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왔다고 하나, 이것은 충포구입차 다녀온 사실이 과장된 것으로 추측된다. 글씨를 잘 썼으며, 행서(行書) · 전서(篆書)에 능하였다.

「객관기(客官記)」-태안(泰安)-

태안군은 옛날 신라의 소태현(蘇泰縣)이다.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五穀)을 재배하기에 알맞고, 또 어물과 소금을 생산하는 이익이 있어 백성들이 모두 즐겨 이 땅에 살아왔다. 그러나 이 고을의 읍내가 멀리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니 이는 곧 해상의 구적(寇賊)들이 왕래 출몰하는 요충이다. 고려 말기에 무비(武備)가 허술하고 왜적이 강성하여, 홍무(洪武) 계축년에 본군에서 입은 화란이란 몹시 참옥한 것이어서 수령이 겨우 한두 명의 아전을 인솔하고, 임시 서산군(瑞山)에 붙이고 있더니, 계해년에는 다시 예산현(禮山縣)으로 옮겼었다. 경오년에 이르러 도적들의 흉악한 노략질이 차츰 지식됨에 다시 서산에 성보(堡)를 쌓고 순제(尊堤)라 이름하고는 일면 해적의 방어에 대비하며 겸하여 군의 행정을 맡아 다스렸다. 그러나 사방으로 흩어져 나간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므로 온 경재가 가시덤불 속에 황무(荒蕪)한 채 짐승의 소굴로 화하여 버려두었고, 국가에서는 여기에 강무장(講武場)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영락(永樂) 병신년에 우리 태종께서 춘렵(春獵)에 임행하셨다가 그 일대의 황폐한 것을 애석히 여기시고, 이에 본군의 옛 군을 복구하라 제하셨고, 다음해에는 또 성을 쌓았다. 그러나 바야흐로 인민을 불러 모아서 안집(安集)시키는데 급급하고 관해(官廩)를 구축할 겨를이 없어 대충 별실(別室) 4간을 얹어 사객(使客)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낮고 험소하여 바람과 이슬을 가리기에 바뻐으나 그대로 수축하지 않고 지난 것이 20여 년이었다. 정통(正統) 기미년 2월에 나의 동년(同年)인 김 혼지(金 僰之)가 무재(武才)가 있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데 능하다는 것으로 선발되어 이 고을의 군수가 되니, 군사를 쓰는 기요(機要)와 백성을 다스리는 선무(先務)를 여유작작하게 조처하고, 개연히 다시 폐허한 것을 부흥하려는 뜻을 두고 드디어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고 새 공관(公館)을 지으니, 읍 사람 이 회(李 懷) · 이 지(李 地) 등 약간 명이 모금에 응하여 경

비를 보조하여, 재목도 견고하고 기와도 좋았으며, 노는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드디어 대청(大廳) 5가(架)를 세우니 무릇 3영(櫺)이며, 좌우의 중방(中房)은 5가에 각각 5명이며, 남청(南廳)은 5가에 3명이며, 동서의 머름(軒)은 5가에 각각 4명이며, 좌우의 중방은 5가에 각각 3명이었고, 주방(廚房)·곳간·욕실 등이 모두 그 자리를 갖추니 영으로 헤아리면 83개가 되는 셈이다. 기미년 겨울 10월에 역사를 시작하여 신유년 가을 8월에 일을 마쳤는데, 규모와 제도가 정대하고, 단청 또한 선제하여 울연히 한 고을의 장관(壯觀)을 이루었다. 김 후가 나에게 글을 보내어 그 일의 시말을 기술해 달라고 청해 왔다. 내 지금 사관(史官)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으니, 흥작(興作)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은 나의 직책이다. 하물며, 그 세도(世道)와 관계있는 것이라! 이 고을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던 끝에 드디어 태평한 성대(聖代)를 만나고 어진 수령을 얻어서 가시밭을 다듬고 성곽과 군 모습을 복구하였으며, 조잡하고 험박한 것을 헐어버리고 높고 화려한 집을 지어 인습해 오던 누습(陋習)을 깨끗이 씻고 장엄한 담장을 꾸몄으니, 어찌 세도를 위하여 기뻐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기록할 만할 것이다. 증남풍(曾南豐)의 말에 ‘무릇 고을에서 수령을 잘 얻어 만나기가 어렵고, 다행히 수령을 잘 얻어 만났다 하더라도 일을 일으켜 이루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며, 다행히 일을 일으켜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뒷사람을 잘 얻어서 황폐에 이르지 않기란 또 한층 더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지금 이 고을에서 다행하게도 그 얻기 어려운 것을 얻었으나, 다만 뒷사람이 능히 김 후의 뜻을 잘 이어나갈 것인지는 알지 못한 일이다. 이 또한 이 말을 기록하여 뒤에 오는 자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나온다. -남 수문 기(南 秀文 記) (서산군지, 1926.)

태안초등학교 남쪽 밑으로 객사라고 불리어지던 경이정 규모의 건물이 한

채 있었다. 그 서쪽으로는 방죽이 있었고 그 서쪽옆 독에 5~6칸 되는 기와집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일본 강점기에 헐리었다. 이 객사는 객관(客館)이라고도 하였다.

이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전패(殿牌), 궐패(闕牌)라고 하는 위패 모양의 나무에 궐자(闕字)를 써 놓은 것을 객사에 모셔놓고 삭망(朔望)으로 망궐례(望闕禮)를 하던 곳이다. 방어사는 물론 왕명으로 내려온 관원도 참례를 하던 곳이었다.

현재 태안읍사무소 안의 목애당과 근민당 등은 동헌으로 군수의 집무실이었지만 이 객사의 부속건물이었던 것이다. 일본강점기때 태안의 청년단체인 일품회가 이 객사를 수리하고 청소년에게 20세기의 새로운 문명지식을 함양하고자 도서관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 당시 불리워졌던 태안 새자랑가에도 “문화기관에 간이도서관 질질이 쌓인 서적”이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일본 경찰이 뇌둘리가 없었다.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되고 말았다.

태안초등학교 정문 아래에는 전매소가 있었는데, 사무실은 물론 대형 창고도 있었다. 당시 태안 7개면에 출매하기 위하여 노새(말) 5필이 있었는데, 마굿간은 헐려버린 객사 자리였다. 전매소 아래 50m쯤에는 조선농촌 재금(財金) 착취기관인 금융조합이 신식으로 화려한 건물에 음흉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표자의 멋진 집도 있었으며 바로 앞에는 태안초등학교 교장관사가 있었다.

그 아래쪽에 1930년쯤 등기소가 지어졌는데, 이상의 모든 것은 전부가 객사와 부속건물이 들어섰던 땅이었다.

남문리의 유적현황

口유 적 명：泰安 牧愛堂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00번지

□시 대 : 조선

□종 류 : 관아건물

□유적개요 : 태안읍 남문리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위치한 牧愛堂은 문화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2년 8월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8호로 지정되어 태안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輿地圖書』에 의하면 태안의 客舍 내에는 東軒, 西軒, 廳房, 中大廳, 下馬臺 등 많은 건물명과 間數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건물들이 없어지고, 그 당시 東軒으로 사용하였던 목애당과 맞은 편에 서 있는 ‘近民堂’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衙門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客館들이 멸실된 것은 1894년에 발생한 東學때 동학군에 의해 불타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목애당 건물도 당시 불타버렸다가 7년 후인 1901년에 安興鎭城 내에 불타고 남은 목재 일부와 所斤鎭城 내의 목재 일부를 가져다가 신축한 것이다. 1914년에 태안군이 廢郡되어 태안면으로 격하됨에 따라 태안면사무소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다가 1997년 9월 전면 해체 복원되었다. 목애당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사랑한다는 뜻에 기초한 것이다.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평면을 구성하고 있다. 2벌대로 쌓은 장대석기단 위에 네모뿔형 柱礎石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拱包는 無出目初翼工系로 翼工은 柱頭와 덧물려 외부로 돌출되었고 柱礎의 급단면은 직선으로 사절되어 있으며, 내부는 양봉으로 되어 대량의 단부를 받치고 있는데 익공 끝을 길게 돌출시키지 않고 둥글게 마감하여 놓았다. 가구는 전방토주와 후방평주 사이에 內高柱를 세운 후 退樑과 大樑을 걸구한 一高柱 五樑 집이며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비 고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8호(1992. 8. 17.)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近民堂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00번지

□시 대 : 조선

□종 류 : 관아건물

□유적개요 : 태안읍 남문리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있다. 牧愛堂 앞에 위치하는데, 정면 6칸, 측면 1칸의 평면 형태를 갖고 있다. 솟을 지붕 모양의 정문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어간 상단에는 ‘近民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더불어 ‘近民堂 重建記’도 남아 있다.

근민당 중건기에 의하면 1901년(광무 5) 4월에 불타버린 牧愛堂을 중수하고 솟을 대문에 달았다고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近民堂은 옛날 목애당의 내삼문으로 보여진다.

□일제강점기부터 목애당은 태안군이 복군되기까지 면사무소로 사용하였으며 뒷면에 부속건물(면장실)로 사용하던 목조 기와집인데, 건축양식은 일본식으로 되어 있다.

□목애당 뒷편에 있는 건물로 1952년 태안면의회 회관으로 사용하던 석조건물이다. 건축양식은 고딕 서양식을 따랐으며, 벽채는 변한 것이 없지만 나무창틀이 알루미늄 샷시로 바뀌고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었으나 20여년 전 기와를 걷어내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속건물 (면장실)



태안면의회 회관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落羽松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21번지
 □시 대 : 조선
 □종 류 : 기타(나무)
 □유적개요 : 태안읍 로터리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400m쯤 가다가 서쪽으로 나 있는 작은 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면 휘미리빌라 주차장 입구에 落羽松이 위치한다.
 현재 높이가 23m, 나무 둘레는 약 3.4m 정도이며, 樹冠 직경이 약 14.5m 정도 되는 풍치목으로서 태안읍 남문리 607번지에 살고 있는 이 건상씨가 관리하고 있다.

落羽松은 樹勢 및 樹高生長이 양호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落羽松 중 최고 수령의 입목으로 稀貴樹임과 아울러 大形木으로 1982년 11월 1일에 마을나무로 지정되었다. 이 나

무는 조선조 말엽에 治山綠化 사업에 헌신적이었던 이 기승씨가 외교차 일본에 건너가 당시 日王으로부터 하사받은 나무라 한다. 우리나라 落羽松 중에서 최고 수령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느티나무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시 대 : 조선
 □종 류 : 기타(나무)
 □유적개요 : 태안읍사무소 옆 근민당(내삼문) 앞에 자리하고 있다. 이 느티나

무는 높이가 10m 정도 되며, 그 둘레는 약 4.1m, 樹冠 직경이 약 20m 정도 되는 정자목으로 태안읍장이 관리하고 있다.

마을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나무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살고 있어 가지 하나라도 해치게 되며 마을에 病死者가 속출하는 등 끊이지 않는 재앙을 받는 반면에, 극진히 보호하게 되면 마을이 태평해진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명절 때가 되면 이 나무에 無事를 기원하는 祭를 지내는 사람이 많다. 1982년 11월 1일 마을나무로 지정되었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望月樓터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시 대 : 조선
 □종 류 : 누정
 □유적개요 : 망월루는 泰安邑城內 동문 옆에 세웠던 樓閣이었다. ‘望月樓’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보름날 저녁이면 선비들이 이 누각에 올라 滿月을 바라보며 景勝을 논하고 시름을 달랬다고 한다. 이 망월루는 1894년 東學때 불타 버렸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알 수 없이 모두 주택가로 변모하고 말았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鄭 碩賓(정 식빈)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711년) 사진①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鄭 碩賓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 石碑는 방형의 臺座와 碑身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비신과 螭首를 1매석으로 만들었다. 螭首의 앞면에는 陽刻된 문양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마모된 상태이므로 정확한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碑身의 규모는 높이 177cm, 가로 56cm, 폭 27cm이며, 재질은 화강석이다. 비신의 앞면에 “府使鄭公碩賓 愛民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康熙五十年 辛卯 五月 日”이라고 음각되어 있어서 이 비가 康熙 50년인 1711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朴 纘新(박 찬신)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716년) 사진②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朴 纘新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화강석재의 비석으로, 방형의 대좌 위에 비신이 세워져 있다. 화강석재로 제작한 대좌의 일부분이 이미 훼손된 상태이나, 비교적 잔존상태는 양호하다. 비신의 상단 면은 평평하게 깎아서 마무리 하였다.

비의 규모는 높이 183cm, 가로 64cm, 폭 29cm이다. 비신의 앞면에는 “郡守 朴公纘新清德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뒷면에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三月 日立”이라 새겨져 있다. 康熙는 청나라 聖祖의 연호로, 강희 55년 丙申은 1716년이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申 櫓(신 억)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745년) 사진③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申 櫓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방형의 臺座와 碑身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碑身은 상면에 양옆으로 약하게 돌출시켜서 螭首형태를 성형하였다. 螭首의 형태는 반원형으로 표면은 마모되어 정확한 문양이나 형태는 알 수 없다. 비신은 화강석재로, 높이 175cm, 가로 50cm, 폭 21cm의 규모이다. 비신의 前面에는 觀察使申公櫓 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다. 뒷면 立碑 年月日에 대하여는 “乾隆 乙丑年 十月 日 立”이라고 하고 있어 1745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朴 洞(박 형)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788년) 사진④

□종 류 : 선정비





④

□유적개요 : 朴 洞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石碑는 방형의 臺座와 碑身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신의 상면에는 양옆으로 약하게 돌출시켜서 반원형의 螭首형태를 만들고 있다. 碑石의 규모는 높이 168cm, 가로 57cm, 폭 19cm이며, 재질은 화강석이다. 비신의 앞면에 “行縣監朴公洞清德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다. 뒷면에는 乾隆 53년(1788)에 비를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宋 觀和(송 관화)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849년) 사진⑤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宋 觀和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화강석재로 만들어진 碑로, 방형의 臺座와 碑身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은 상단의 일부를 돌출시켜 반원형으로 螭首 형태를 模刻한 것이다. 상면에는 별다른 문양이 시문 되어 있지는 않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43cm, 가로 48cm, 폭 19cm이다.

비신의 앞면에는 “郡守宋公觀和愛民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좌우에 공적과 관련 기록이 음각되어 있으나, 대부분 마모되어 판독할 수 없다. 비신의 뒷면에는 “道光 二十九年 月 日”이라

새겨져 있는데, 道光은 淸나라 宜宗의 연호이다. 따라서 비석이 세워진 연대는 도광 29년인 1849년임을 알 수 있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閔 永世(민 영세) 不忘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870년) 사진⑥

□종 류 : 불망비

□유적개요 : 閔 永世 不忘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방형의 화강석재로 이루어진 대좌 위에 비신을 세운 것으로, 비신과 螭首는 1매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비신의 상단에서 양옆으로 돌출시켜 螭首의 형태를 모각하였는데, 상면은 반원형을 이룬다. 螭首에는 별다른 문양이 시문되어 있지 않다.

비신의 앞면에는 “觀察使閔公永世不忘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뒷면에 “同治九年”이라고 음각한 立碑 年月日이 확인된다. 同治는 청나라 穆宗의 연호로, 동치 9년은 1870년이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李 熙訥(이 희눌)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873년) 사진⑦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李 熙訥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⑥



號牌形 비석으로 방형의 화강석 臺座 위에 비신이 세워져 있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17cm, 가로 45cm, 폭 18cm이며, 상단면이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비신의 앞면에는 “行府使兼防禦使李公熙訥愛民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다. 나머지 부분에는 “殘浦漁監 軫弊一報 有何口文 優恤衆民 無窮之澤 所願成碑 不忘之恩 於千萬年”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 비의 설립 연월일이 새겨져 있는데, 細字로 “同治十二年八月日立”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同治는 청나라 穆宗의 연호로, 동치 12년은 1873년이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李 熙訥(이 희눌)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881년) 사진⑧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李 熙訥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石碑는 화강석재의 臺座 위에 烏石의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屋蓋形의 螭首를 올려놓은 형태이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가 127cm, 가로 45cm, 너비 20cm이고, 屋蓋形 螭首의 규모는 높이 40cm, 너비 75cm, 폭 51cm이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167cm이다. 비신의 앞면에 “行府使兼防禦使李公熙訥清德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주변에도 細字로 비문이

음각되어 있으나 마모되어 정확하게 판독할 수는 없다. 역시 뒷면에는 비를 세운 立碑 年月日이 同治二十年八月이므로 1881년이 된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李 範叙(이 범서)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888년) 사진⑨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李 範叙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 비는 碑身과 방형의 臺座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비신 형태는 호패형으로 頭部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비신의 재질은 화강석재이고, 규모는 높이 128cm, 가로 52cm, 두께 25cm이다. 비신 앞면에 “行府使兼防禦使李公範叙愛民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뒷면에 “光緒十四年戊子二月日立 刻金崙河”라고 새겨져 있다. 중국 청나라 德宗의 연호로 광서 14년은 1888이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閔 泳商(민 영상)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889년) 사진⑩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閔 泳商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화강석재의 지대석 위에 비신과 屋蓋形의 螭首를 올려서 만든 것이





다. 비신은 烏石을 이용하였으며, 높이가 128cm, 가로 44cm, 폭 13cm의 규모이다. 屋蓋形의 螭首는 화강석재이며, 비교적 단순화시켜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屋蓋形 螭首의 규모는 높이 33cm, 가로 70cm, 폭 48cm이다. 비신의 총 높이는 161cm이다.

비신의 앞면에는 “觀察使閔公泳商清德愛民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光緒十五年乙丑七月日”이라 새겨져 있다. 光緒는 중국 청나라 德宗의 연호로 15년은 1889년이다.

-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李 熙重(이 희중) 善政碑
-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 시 대 : 조선(1889년) 사진⑩
-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李 熙重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방형의 臺座 위에 비신과 螭首를 올린 형태이다, 대좌는 화강석재를 이용한 것으로 방형이다. 비신은 烏石材를 이용하였는데, 높이 157cm, 가로 54cm, 폭 23cm의 규모이다. 화강석재로 만든 屋蓋形의 螭首는 높이 38cm, 가로 84cm, 폭 55cm의 규모이며, 비교적 그 형태가 단순화되어 있다. 碑石의 총 높이는 195cm이다.

비신의 앞면 중앙에 “水軍防禦使兼都護府使李公熙重清白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白公下車 德宇鄭重 匪類屏跡 刷馬漁贖 陽春藹然 仁表周施 民瘼快痊 各廳防錢 直麥洞布 或謀榮減 遂條五六 恩與石壽 ——蕩蠲 每惠廩捐 計葉七千 不朽千年”이라고 적혀 있다. 비의 뒷면에는 비를 세운 시기로서 “丙申 三月 日 立”이라 새겨져 있다.

-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閔 致一(민 치일) 不忘碑
-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 시 대 : 조선(1889년) 사진⑪
- 종 류 : 불망비

□유적개요 : 閔 致一 不忘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화강석재의 방형 대좌 위에 烏石材의 비신을 세웠으며, 그 위에 다시 屋蓋形의 螭首를 올려 놓았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38cm, 가로 44cm, 폭 12cm이고, 화강석재로 제작된 屋蓋形의 螭首는 높이 32cm, 가로 68cm, 폭 48cm의 규모이다. 비석의 총 높이는 170cm이다.

비신의 앞면에는 “行府使兼防禦使閔公致一永世愛民不忘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하단 양측면에는 공덕을 기리는 題詠으로 “四境咸頌 揖俸萬貫 百弊隨消 蠲賦十條 訟簡糴精 德政恒施 賑優災地 戶皆陽春”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신 뒷면에 “光緒十五年己丑七月日”이라고 立碑 年月日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1889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13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李 鳳鎬(이 봉호) 不忘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895년) 사진13

□종 류 : 불망비

□유적개요 : 李 鳳鎬 不忘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화강석재의 방형 대좌 위에 비신을 세워 놓은 것으로, 비신의 상면에는 반원형으로 螭首를 模刻하였다. 대좌의 상면에는 복련을 도드라지게 조각하였고, 螭首에는 雲紋이 陽刻되어 비교적 화려하게 보인다.

비신은 화강석재로 제작되었는데, 높이 103cm, 가로 48cm, 폭 17cm이다. 비신의 표면은 상당부분 마모된 상태인데, 앞면에 “行府使李公鳳鎬不忘碑”라고 음각되어 있다. 비석의 立碑 年月日은 “乙未十二月 日 立”이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鄭 洛鉉(정 낙현)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898년) 사진14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鄭 洛鉉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방형의 화강석 臺座 위에 비신을 세운 선정비로, 비신의 상단에는 屋蓋形의 螭首가 올려져 있다. 비



14

신은 烏石으로 제작한 것으로, 높이 130cm, 가로 45cm, 폭 23cm의 규모이다.

屋蓋形의 螭首는 화강석재로 높이 43cm, 가로 79cm, 폭 53cm의 크기이다. 대좌와 이수를 포함한 비석의 총 높이는 173cm이다.

비신의 앞면에는 “行府使兼防禦使鄭公洛鉉善政碑”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立碑 年月日이 戊戌 七月이므로 1898년이 된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沈 宣臣(심 의신)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898년) 사진15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沈 宣臣 善政碑는 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방형의 화강석 대좌 위에 비신과 屋蓋形의 螭首를 올렸다. 비신은 화강석재로 만들었는데 높이 156cm, 가로 60cm, 폭 20cm의 규모이다. 屋蓋形의 螭首는 높이 58cm, 가로 107cm, 폭 71cm이며, 碑의 총 높이는 214cm가 된다. 屋蓋形의 螭首는 서까래의 형태까지도 세밀하게 표현한 것으로 비교적 정교하다.

비신의 앞면에는 “觀察使沈公宣臣淸德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戊戌 六月 日”이라고 비를 세운 연월일이 있어 1898년으로 볼 수 있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洪 承憲(홍 승헌) 善政碑



15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904년) 사진⑯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洪 承憲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방형의 臺座위에 비신과 屋蓋形의 螭首를 올려 놓았는데, 모두 화강석재를 이용하여 비를 꾸몄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36cm, 가로 50cm, 폭 20cm이고, 屋蓋形 螭首는 높이 45cm, 가로 87cm, 폭 56cm의 크기이다. 따라서 비의 총 높이는 181cm이다.

비신 앞면에는 “觀察使洪公承憲清德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주변에 작은 글자로 追悼 題詠이 음각되어 있다. 비를 세운 연월일에 관하여는 “甲辰 九月 日 立”이라 하였으므로 1904년이 된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俞 致稷(유 치직)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조선(1904년) 사진⑰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俞 致稷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화강석재의 방형 臺座 위에 비신과 屋蓋形의 螭首를 올린 형태이다.

碑身은 화강석재를 이용하였으며, 높이 135cm, 가로 51cm, 폭 41cm의 규모이다. 屋蓋形의 螭首도 역시 화강석재로 높이 41cm, 가로 82cm, 폭 50cm의 규모이다.

비신 앞면에는 “行郡守俞公致稷愛民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災減少而施普 開詞場勸學 還棒精而分厚 捐俸孺而廩布 謂萬口而成碑 倚公德子勒石 環四面而安堵 鳳百世而不朽”, 뒷면에는 “甲辰 九月 日”이라고 새겨 있다. 그러나 연호가 없어 정확한 立碑 연대를 알 수 없으나, “環四面而安堵”라는 내용으로 보아 1904년으로 판단된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李 存植(이 존식) 善政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일제(1919년) 사진⑱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李 存植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방형 대좌 위에 비신을 세워 놓은 것으로, 비신의 상면에 螭首를 모각하여 놓았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53cm, 가로 42cm, 폭 17cm이다.

비신의 앞면에 “郡守李公存植愛民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乙未 十二月 日立”이라고 立碑 年月日이 있어 1919년이 된다.





⑲

□종 류 : 선정비

□유적개요 : 金 應根 善政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화강석재의 지대석 위에 비신을 올린 형태이다. 비신은 화강석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단의 양옆을 약간 돌출시켜서 반원형의 螭首를 모각하였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11cm, 가로 50cm, 폭 19cm이고, 앞면에 “都巡察使金公應根淸德善政碑”라고 깊게 음각되어 있다. 뒷면에는 立碑 年月日이 己未 十月이므로 1919년이 된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金 圭恒(김 규항) 頌德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일제(1923년) 사진⑳

□종 류 : 송덕비

□유적개요 : 金 圭恒 頌德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방형의 화강석 대좌 위에 비신과 屋蓋形의 螭首를 올린 것이다. 碑身도 역시 화강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높이는 140cm, 가로 50cm, 폭 19cm의

규모이다. 屋蓋形의 螭首는 간략하게 模刻되었는데 높이 43cm, 가로 77cm, 폭 57cm이며 화강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신의 앞면에는 “前主事金公圭恒頌德碑”라 새겨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 “華岳金精 永思追孝 鍾爲苦人 好施恤貧 養生遯苑 卓乎善哉 捐義推恩 无與等倫”라고 적혀 있다. 뒷면에는 “泰安有志 癸亥 七月日”이라 새겨져 있어 1923년에 태안 유지 일동이 제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李 應雨(이 응우) 贊成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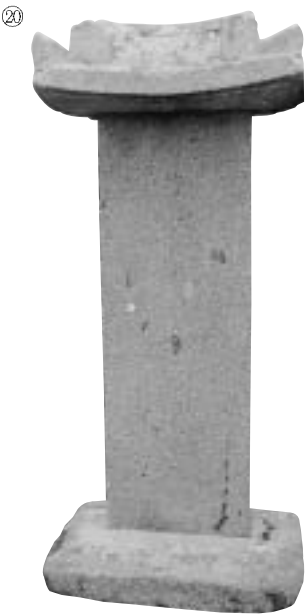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일제(1924년) 사진㉑

□종 류 : 찬성비

□유적개요 : 李 應雨 贊成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비는 동문리 여의교 옆에 주민들이 1924년에 세웠던 것이다.

號牌形의 비석으로 방형의 臺座위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 형태이다. 비신의 상단 면은 뾰족하게 각을 이루게 다듬어져 있다. 화강석재로 제작된 비신의 규모는 높이 108cm, 가로 45cm, 폭 15cm이다. 碑身의 앞면에는 “士人李應雨孝德贊成碑”라 새겨져 있고, 양측 면에 공덕을 기리는 내용으로 “肇成此功 孝德兼全 克繼其志 騎步便利 經始如意 萬口咸頌 美



⑲



㉑



②②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金 炳善(김 병선) 讚頌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일제(1928년) 사진②③
 □종 류 : 찬송비
 □유적개요 : 金 炳善 讚頌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방형의 화강석 대좌 위에 屋蓋形 螭首를 올린 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은 화강석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신의 높이는 134cm, 가로 46cm, 폭 22cm의 규모이다. 屋蓋形의 螭首는 1매석의 화강석재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높이 46cm, 가로 80cm, 폭 50cm이다. 碑身의 앞면에는 “前主事金公炳善德行讚頌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그 측면에는 공덕을 기리는

題詠이 각서 되어 있다. 비를 세운 시기는 昭和 3年(1928) 3月이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崔 東基(최 동기) 追慕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현대(1983년) 사진②③
 □종 류 : 추모비
 □유적개요 : 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 건립된 것으로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비는 화강석재의 방형 臺座 위에 烏石의 비신을 세우고 화강석재로 만든 屋蓋形의 螭首는 높이 46cm, 가로 75cm, 세로 47cm의 크기다. 비신의 앞면에는 “前面長會長崔公東基追慕碑”라 새겨져 있고, 그 건립 시기는 1983년 10월 2일이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韓 相大(한 상대) 贊頌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현대(1985년) 사진②③
 □종 류 : 찬송비
 □유적개요 : 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 건립된 것으로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비의 형태는 화강석재의 방형 臺座 위에 烏石의 비신을 세우고 屋蓋形의 螭首를 올리고 있다. 대좌의 외곽에 복련을 양각하여 한층 더 장식적 효과를 내고 있다. 비신의 높이는 130cm, 가로 43cm, 폭 20cm 규모이고, 屋蓋形 螭首는 높이 44cm, 가로 74cm, 세로 48cm이다. 비신의 앞면에 “前面長韓公相大清政贊頌碑”라 새겨져 있고, 그 좌우에 공적을 찬양하는 題詠이 음각되어 있다. 비를 세운 시기는 1985년이고, 淸政碑推進委員會가 건립하였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李 相禧(이 상희) 功績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②③



②④

□시 대 : 현대(1988년) 사진②

□종 류 : 공적비

□유적개요 : 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1988년에 세워진 것이다. 비의 형태는 화강석재를 이용하여 2단의 대좌를 만들고 그 위에 屋蓋形의 螭首를 올린 碑身을 세웠다. 대좌는 가로 84cm, 세로 54cm, 높이 42cm의 크기이다. 비신은 烏石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높이 153cm, 가로 54cm, 폭 25cm의 규모이다. 屋蓋形의 螭首는 1매의 화강석재로 제작하였는데, 높이 50cm, 가로 91cm, 세로 61cm의 크기이다. 비는 비신만 烏石으로 되어 있고, 그 외는 화강석이다. 비신의 앞면에는 “國會議員瑞巖李相禧功績碑”라 음각되어 있다.

李 相禧는 태안 출생으로 6~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에 공을 세웠는데, 그 중 안면도를 연결하는 다리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공이 컸다. 이에 서산군 유지들과 忍苦同友會 회원 등이 중심이 되어 공적을 기리는 비를 세운 것이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金 應濟(김 응제) 追慕碑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읍사무소 경내

□시 대 : 현대(1990년) 사진③

□종 류 : 추모비

□유적개요 : 碑는 태안읍사무소 경내에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석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은 화강석재를 깎아서 만든 이중 기단에 屋蓋形의 螭首를 올린 碑身을 세워 놓은 형태이다. 비신은 烏石으로 製作하였으며, 높이 141cm, 가로 55cm, 폭 24cm의 규모이다. 이중으로 제작한 基壇은 상층이 가로 79cm, 세로 49cm, 높이 22cm의 크기이고, 하층은 가로 98cm, 세로 67cm, 높이 25cm이다. 屋蓋形의 螭首는 간략하게 모각한 것으로 높이 63cm, 가로 71cm, 세로 45cm의 규모이다. 비신만이 烏石이고 모두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 비의 앞면에는 “前面長鶴汀金應濟追慕碑”라고 쓰여졌다. 비를 건립한 연월일은 1990년 5월 8일이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思樂亭터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시 대 : 대한제국

□종 류 : 누정

□유적개요 : 태안읍 남문리의 로터리에서 읍내 방향으로 1km쯤 가면 옛터미널 자리(현재 태안프라자)가 있고, 이 곳에 思樂亭이 있었다.

思樂亭이 태안읍 남문리에 위치하였다는 기록은 『朝鮮實輿勝覽』, 『瑞山郡誌』 등의 많은 문헌에 나타나고 있지만 남문리의 어느 지점에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단지 확인된 문헌 기록과 전언을 바탕으로 지금의 옛터미널 주변이라고 전하고 있어 思樂亭터를 추정할 수 있었다. 옛 터미널 주차장에서 동쪽 편으로 약간 떨어진 신영게임장 건물과 LG전자 건물 주변의





사략정(思樂亭)이 있던 터에 부속 건물로 보이는 기와집이 남아 있었으나 다른 건물에 둘러싸여 지붕 상단만 촬영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건물도 2004년 해체되었다. <1998년 촬영>

부지가 옛날의 학교터와 학교 집의 일부 건물이었다. 도시개발로 인하여 현재 思樂亭터와 관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思樂亭은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思樂亭改作學校記’에 의하면 崔 益秀 군수가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략정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 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활쏘는 장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大韓帝國 1905년에 태안초등학교 전신으로 이 건물을 화양의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후 1922년에 個人에게 넘기고 말았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사유물이 된 이 思樂亭은 그 후에 폐허되어 지금은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터만 추정할 뿐이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寺址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탑골

□시 대 : 고려

□종 류 : 사지

□유적개요 : 태안읍 로터리에서 안면도 방향으로 약 200m 쯤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소로를 따라 150m쯤 들어오면 탑골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에 5층석탑이 세워져 있는데, 寺址로 전하는 곳은 5층석탑 뒤의 비닐하우스 자리

이다.

현재 밭으로 개간되고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상당한 지형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사역을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인근 지역에 5층석탑이 있고, 주변지역에서 약간의 기와편이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寺址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옛날 이곳에 대규모의 절이 있었다고 오랫동안 전해져 왔으며, 5층석탑의 서북쪽에 있는 民家の 앞쪽 나무 밑에서 小型 石佛이 발견되었다고도 한다. 현재 석불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다. 석탑의 형태로 미루어 볼 때, 高麗時代의 寺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五層石塔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35-1번지

□시 대 : 고려

□종 류 : 석탑

□유적개요 : 태안읍 로터리에서 안면도 방향으로 200m 쯤에서 서쪽으로 개설된 작은 길을 따라 150m쯤 들어가면 탑골 마을이 있다. 塔은 이 마을 안쪽에 위치한다.

탑은 화강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5층 탑신을 가지고 있다. 3단의 지대석 위에 기단을 올린 후에 탑신석을 올렸는데, 기단석은 4매의 面石을 조합하였으며, 네 모서리에 隅柱를 陽刻하였다. 갑석은 수매의 석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塔身石은 1매의 화강석재를 이용하였다. 옥개석의 옥개 받침은 1층에서 3층까지는 4단으로 양각하였으나, 4층과 5층은 3단으로 한 단을 줄여서 자연스러운 체감효과를 냈다. 1매석으로 이루어진 탑신석은 모서리 부분에 隅柱를 模刻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탑의 상단에는 노반과 복발형태의 상륜 장식이 남아 있으나, 후대에 일부 보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탑의 높이는 4.4m, 기단 폭은 2.2m로, 기단부에 비하여 탑신부가 급격히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단부의 높이가 2.93m이고 기단의 上臺中石의 가로 길이가 1.19m, 屋身의 가로 길이는 57.5cm로 가로 길이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있어, 아래가 묵직하고 위가 細長한 형태가 되어 안정감을 준다.

□유 적 명 : 泰安 南門里 甲午東學革命軍追慕塔

□소 재 지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시 대 : 현대(1978년)

□종 류 : 기념탑

□유적개요 : 東學革命軍追慕塔은 태안읍 남문리 태안초등학교 뒤편에 마련된 체육공원 白華山麓에 우뚝 세워져 있다. 1978년에 축조된 것으로 시멘트 기단 위에 대리석재로 높은 단을 築石하고, 碑身을 세웠다.

이 탑의 규모는 높이 663cm, 아래 층 가로 212cm, 세로 214cm이다. 비신은 號牌形으로 기단석에 비하여 그 규모가 疏略하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94cm이고, 앞면에 “甲午東學革命追慕塔”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비는 서산·당진·예산·홍성·아산지역 일대의 東學革命記念塔 建立委員會가 주최가 되어서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이 곳의 중앙부에 한문으로 甲午東學革命追慕塔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그리고 이 탑의 중앙부 오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탑문이 세로로 새겨져 있다.



오호(嗚呼)! 부양천지(俯仰天地)

님들의 대의(大義)는 일월(日月)마저 관천(貫穿)하고 그 대지(大志)는 청사(靑史)에 영원하게 광휘(光輝)할 것이외다. 도즉천도(道卽天道)요 학즉동학(學卽東學)이라 창명(創明)하신 최 제우 교조(崔 濟愚 敎祖)의 심법(心法)을 전수(傳受)한 해월 최 시형(海月 崔 時亨) 제2세 교조(敎祖)는 탐관오리(貪官汚吏)의 횡포(橫暴)와 가림주구(苛斂誅求)로 인하여 도탄(塗炭)에 빠진 민생고(民生苦) 그리고 열강(列強)의 와중(渦中) 속에 풍전등화격(風前燈火格)이 된 국운(國運)을 보국안민(輔國安民)코자 결심하고 그 영도하(領導下)에 님들은 갑오동학혁명(甲午東學革命)을 일으켰던 것이다.

해월교조(海月敎祖)는 시역천운(是亦天運)이라 하고 춘암 박 인호(春菴 朴 寅浩) 선생을 충덕포 대접주(忠德包大接主), 상암 박 현인(湘庵 朴 賢寅) =

德七) 선생을 예포대접주(禮包大接主)로 임명하고 천불변 도불변(天不變道不變)이란 친필(親筆)의 영기(領旗)를 박 인호(朴 寅浩) 선생에게 내리었다.

이때 님들은 분연(奮然)히 일어나 혁명군(革命軍)으로 무장(武裝)하고 갑오(甲午) 9월 그믐날에 예산본포(禮山本包)으로부터 선타철성신희(先打鐵聲信號)로 각포 상응하(各包相應下)에 일제(一齊)히 기포(起包)하였다.

이 때 예포(禮包)는 이원면 포지리(梨園面 浦地里)와 원북면 방갈리(遠北面 防葛里)에서 혁명기(革命旗)를 높이들고 총궐기(總蹕起)하여 태안(泰安)을 점거(占據)한 것이 갑오(甲午) 10월 1일이었다.

그 대세충천(大勢衝天)하니, 10월 1일 홍주 관군(洪州 官軍)과 왜병(倭兵)이 합세(合勢)하여 수 천(數千)이 태안(泰安)을 공격하여 옴으로 혁명군(革命軍)과 대도소 목소리(大都所 木巢里)에서 일대 접전(一大接戰)이 벌어졌다.

또한 덕포(德包)는 10월초에 아산 신창(牙山 新昌)에서 기포(起包)하여 해미 여미(海美 餘美)에 집결하고 아(我)와 합세하니 그 기세 당당하여 당진 승전곡(勝戰谷)에 이르렀을 때 왜병(倭兵)이 복병 돌격(伏兵突擊)하여와 일대 접전이 벌어졌으나 결국 혁명군(革命軍)의 승전(勝戰)으로 끝났다.

승승장구(乘勝長驅)한 동학 혁명군(東學 革命軍)은 동월(同月) 26일 예산 역탑리 본포(禮山 驛塔里 本包)에 결진(結陣)하고 관작리(觀爵里)에 유진(留陣)한 왜병(倭兵) 및 관유군(官儒軍) 수 천명을 대파(大破)하였다.

그러나 동월 28일 혁명군(革命軍)은 홍주 교동(洪州校洞)에서 관군(官軍)과 대혈전(大血戰)하니 폭우(暴雨)같은 시탄(矢彈) 속에 피차 고성대질(高聲大叱)하는 소리 천지 진동(天地振動)하고 일광(日光)이 무색한 중 혁명군(革命軍)은 악전고투(惡戰苦鬪)하였다.

그러나 오호(嗚呼)라 구국(救國)의 진충갈력(盡忠竭力)도 시리(時利)를 얻지 못했으니 어찌하여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 시산 혈하(屍山血河)의

사투(死鬪)도 보람없이 수연(愁然)히 옥쇄(玉碎)되고 말았으며, 민족대망(民族大望)의 혁명과업(革命課業)은 좌절(挫折)되고, 님들의 위국단심(爲國丹心)은 초로(草露)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님들이 가신 지 80여년 5·16혁명 이후 제3공화국(共和國)은 동학혁명의 순국정신(殉國精神)을 되살림에 이어 이 땅에 잠든 님들의 영령(英靈)을 영원히 신원(伸冤)하고자 석탑(石塔)을 세우노니 온 겨레여 우리들은 이 거룩한 보국안민(輔國安民) 정신을 자자손손(子子孫孫) 이어받아 길이 선양(宣揚)할 것을 다짐하여 삼가 님의 고혼(孤魂) 앞에 묵념(默念)을 올립니다.

포덕(布德) 119년(1978)

무오(戊午) 10월 2일

서산·당진·예산·홍성·아산지역

동학혁명기념탑 건립위원회 일동

태안복군기념탑(泰安復郡紀念塔)

이 「태안복군기념탑」은 현재 태안을 남문리에 자리한 태안군청 경내에 세워졌다.

이 기념탑의 구조를 살펴보면 탑기부, 탑신부, 탑두부로 이루어졌는데, 기단부의 지대석에서 탑두부의 상단까지 높이가 300cm이고, 기단부 상대층석의 표면에는 복군추진위원의 명단과 그 이면에는 군 연혁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탑신은 8각형으로되어 있는데, 각 면에는 각각 8개 읍면의 명칭과 읍면기가 새겨져 있고, 또 탑두부의 화강석에는 가로로 泰安復郡紀念塔이란 글씨가 크게 음각되어 있다.

이 탑은 4층으로 조형미를 갖춘 보기드문 아름다운 탑으로서 태안군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 설계와 글씨를 림 성만이 책임졌다.

상대중석의 이면에 음각된 태안군 연혁만을 소개한다.



泰安郡 沿革

우리 삶의 터전 태안군은 일찍 馬韓 50여 국 중 하나인 臣蘇塗國이란 部族國家로 발전해오다 4세기 중엽에 百濟의 古代國家 완성과 더불어 마한이 백제에 의해 정복됨으로써 신소도국이 백제 영토에 편입되어 省大兮로 개칭되었다.

이같이 백제의 영토에 예속되어 290여 년간 내려오던 성대혜는 新羅의

三國統一로 다시 統一新羅에 편입되면서 그 명칭이 蘇泰 또는 蘇州로 개칭되어 270여 년간 내려왔으나 신라가 패망하고 高麗가 등장하므로써 소태는 고려의 영역에 편입되고 따라서 忠烈王 24년(1298)에 태안으로 개칭되어 행정상 郡으로 승격되었다.

그후 태안은 500여 년의 朝鮮王朝와 大韓帝國을 거쳐 日本強點期에 그들이 정치적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1914)을 단행하면서 태안군을 瑞山郡에 폐합시켰다.

日帝에 의해 서산군으로 불려오던 이곳은 주민들의 끊임없는 復郡推進運動에 따라 마침내 1989년 1월 1일 법률 제 4059호에 의해 복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복군에 희망찬 태안군민은 명실상부한 福地泰安 건설에 한마음으로 전진하고 있다.

천도교도정청암김학서공송덕비(天道敎道正淸菴金鶴瑞公頌德碑)

이 「천도교도정청암김학서공송덕비」는 현재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자리하고 있는 태안초등학교 뒤편 체육공원 위에 세워져 있는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석비의 규모를 살펴보면 농대석에 비신과 가침석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신의 높이가 117cm, 가로 40cm, 폭 16cm에 가침석의 높이 41cm, 가로 74cm, 세로 52cm 그리고 농대석 높이 14cm, 가로 65cm, 세로 44cm로서 비신만 오석으로 되어 있고 그 외는 화강석이다. 그리고 이 석비의 표면 중앙부에는 한문으로 天道敎道正淸菴金鶴瑞公頌德碑라고 음각되어 있고, 또한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세로로 새겨져 있다.

三國統一로 다시 統一新羅에 편입되면서 그 명칭이 蘇泰 또는 蘇州로 개칭되어 270여 년간 내려왔으나 신라가 패망하고 高麗가 등장하므로써 소태는 고려의 영역에 편입되고 따라서 忠烈王 24년(1298)에 태안으로 개칭되어 행정상 郡으로 승격되었다.

그후 태안은 500여 년의 朝鮮王朝와 大韓帝國을 거쳐 日本強點期에 그들이 정치적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1914)을 단행하면서 태안군을 瑞山郡에 폐합시켰다.

日帝에 의해 서산군으로 불려오던 이곳은 주민들의 끊임없는 復郡推進運動에 따라 마침내 1989년 1월 1일 법률 제 4059호에 의해 복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복군에 희망찬 태안군민은 명실상부한 福地泰安 건설에 한마음으로 전진하고 있다.

천도교도정청암김학서공송덕비(天道敎道正淸菴金鶴瑞公頌德碑)

이 「천도교도정청암김학서공송덕비」는 현재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자리하고 있는 태안초등학교 뒤편 체육공원 위에 세워져 있는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석비의 규모를 살펴보면 농대석에 비신과 가침석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신의 높이가 117cm, 가로 40cm, 폭 16cm에 가침석의 높이 41cm, 가로 74cm, 세로 52cm 그리고 농대석 높이 14cm, 가로 65cm, 세로 44cm로서 비신만 오석으로 되어 있고 그 외는 화강석이다. 그리고 이 석비의 표면 중앙부에는 한문으로 天道敎道正淸菴金鶴瑞公頌德碑라고 음각되어 있고, 또한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세로로 새겨져 있다.

淸菴 金公은 布德三五年 東學革命義舉當時 禮包隊長 朴 德七公의 指揮로
蜂起하여 이곳에서 集團殉國하신 數 많은 先烈들의 英靈을 追慕하여 合同
慰靈祭를 올리도록 篤志를 베풀어 오늘에 이르므로 우리 遺族一同은 淸菴
金公의 높은 德을 崇仰하여 이에 短碣을 세워 이 뜻을 길이 後世에 傳함

布德百十一年十月二十七日

殉國先烈遺族一同 建立

泰安代表 文 源德 · 梨北面代表 孫 仁泰 · 遠北面代表 文 禮冠



남문리의 종교, 문화, 교육, 체육

종교

개신교

개신교의 전래

우리 나라에 개신교가 전래되게 된 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와 한국인 자신의 구도(求道)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양 선교사는 1832년, 1866년에 각각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단기 체류가 순교로 인하여 지속적인 선교활동에는 임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후 한국인 자신의 구도 노력으로 182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 간행되었으며, 1855년에는 언해(諺解) 마가복음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개신교는 우리 나라에서 성서의 우리말 번역으로 시작하여 민족역사와 기독교와의 연결을 확고히 할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태안 지역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시작하게 된 것은 1913. 1. 1. 정 명안 사관이 목조건물의 구세군 교회에 정식으로 부임하여 활동한 때부터이다.

현재 군 관내에는 교세가 계속 확장되어, 109개소의 교회가 있고 신도수는 9,190명에 이른다. 남문리에는 31개소의 교회가 있고 신도수는 4,241명에 이른다.

■ 남문리 교회현황 ■

구 분	계	남 문 리
교회수	109	31
신도수	9,190	4,241

천도교

천도교의 전래

천도교의 태안 전래와 그 전개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천도교의 창도(創道) 동기와 그 과정을 대략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근세 조선의 500년을 통해 볼 때 가장 굴욕적이고 처절했던 사건은 선조(宣祖) 26년(1592)의 임진왜란과 인조(仁祖) 14년(1636)의 병자호란을 우선 들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병자호란 때 인조대왕께서 삼전도의 수항단에 올라 청태종 앞에 3배9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올린 것은 우리 5,000년의 민족사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굴욕적이고 잔인한 이민족의 침략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爲政者)들은 각성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니, 사회는 혼탁해지고 따라서 민족적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 무렵 외래 종교인 천주교(天主敎)가 전래 되는데, 이에 최초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일부의 실학자(實學者)들이었다.

이 수광·이 익 등의 실학자들이 이 천주교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여 이를 학문의 측면에서 서학(西學)이라 호칭하였다. 이렇게 서학이 점점 확산되어감에 따라, 인심이 각박해지고 사회가 혼탁해져서 사상적 개혁이 요청되고 있을 때, 수운 최 제우(崔濟愚)가 분연히 일어나 사회를 개혁하고자

그의 사상과 신념을 대중 앞에 선포하니 이를 동학(東學)이라 불렀다. 이렇게 최 제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천주교인 서학에 반대하여 일으킨 일종의 우리의 민족 종교인 것이다. 동학은 노도와 같이 삼시간에 서민층으로 전파되어 하나의 사회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갔다. 이런 실세를 보고 있던 조정에서는 당황하여 마침내 고종(高宗) 원년(1864) 3월에 이르러 최 제우를 흑세무민의 죄를 씌워 사형에 처했다.

교조(敎祖)인 최 제우를 처형함으로서 동학이 근절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동학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조직이 강화되고 더욱 결속되어 지하로 숨어든 뒤에, 드디어 1894년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학도들이 봉기하니 이를 동학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동학혁명은 동학당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농민의 혁명이었으나, 정부의 힘만으로 진압하지 못하고 결국 중국과 일본의 군대의 힘을 빌어 진압되었다. 이렇게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그 후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었다.

1897년 2세 교조인 최 시형으로부터 제3세 교조의 교통을 이어받은 손 병희(孫秉熙)는 이 무렵 동학을 천도교(天道敎)라 개칭하고 교세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같은 포교의 노력으로 인하여 교세는 점점 부흥되어 마침내 1919년 기미 3·1운동의 추진력으로 계승되어 천도교는 급기야 민족 종교로서의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천도교와 태안

천도교가 태안 지역에 전래된 것을 19세기 말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는 천도교가 창도된지 30여년 뒤로써, 그 전래과정을 살펴보면 서산군 지곡면에 살고 있던 최 형순이 고종 27년(1890) 3월 16일 당시 제2세 교조로 있던 최 시형을 심방하여 천도교에 입교할 뜻을 밝히니, 교조가 즉석에서 쾌히 수락하고 간략한 입교 절차를 마친 뒤, 충청남북도 전지역에 걸쳐 전교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1890년 3월 서산 지역에 처음으로 천도교가 전래된 것이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과 명령을 받고 지곡에 돌아온 최 형순은 치밀한 지하조직을 짜면서 전교에 동분서주하였으니, 이 무렵에 태안지역에서도 천도교가 전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지하경로를 통해 1890년 태안 지역에 포교되었고 제일 먼저 천도교가 전래된 곳은 이원면 포지리인데, 여기서 다시 원북면 방갈리로 전교되어, 그 세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군내 전지역으로 파급되어 갔던 것이다. 특히 동학혁명 직전인 1894년경에는 농민들이 앞다투어 동학교단에 입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태안 지역에는 예포(禮砲), 서산 지역에는 덕포(德包)를 설치하고 각각 대접주(大接主)를 임명했는데, 예포의 대접주가 된 상암 박덕칠은 원북면과 이원면의 동학교인을 규합하여 혁명군으로 무장시키고 분연히 일어나 1894. 10. 1. 태안군아를 점령하였다.

그 후 예포, 덕포 등이 합세한 북접의 동학혁명군은 해미의 승전곡 전투를 비롯하여 예산 신례원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서 사기충천하였으나, 결국은 동년 10월 28일 홍주 전투에서 참패하여 동학군은 사방으로 흩어진채 재기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마침내 지하로 잠적하고 말았다.

동학혁명 후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되고 또한 정당한 민족종교로서의 공인을 받게되자, 1921년 태안에 천도교 교구가 설치되어 합법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東學農民革命 南門里遺跡地

1. 태안읍성(泰安邑城)

구한말(韓末) 태안지역은 정치·문화 면에서 뒤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산자수명하고 삼면이 바다로 풍부한 해산물이 나오고 비옥한 농토가 있어 다른 지방에 비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경관에 도취되어 조정에서 퇴임한 고관대작들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하여 태안으로 낙향하였다.

그러나 태안지역은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다른 지방보다 더욱 심했다. 양반들은 관가와 공모하여 무고한 농민들을 불효(不孝)·상피(相避)등의 죄목을 씌워 옥에 가두고 토지와 재물을 갈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과중한 세금도 부과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주들은 흉년이 들어도 소작료를 조금도 감해주지 않고 그대로 받고 춘궁기가 되면 고리대금으로 고혈을 빨았다.

이러한 가렴주구와 인권유린의 고통 받는 농민들의 참담한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생지옥이었다. 농민을 인간이하로 취급하는 관리들의 무지막지한 수탈이 농민을 전면적 봉기로 몰아넣었다. 당시 고관대작이라는 권귀들은 민중을 오직 착취대상으로 간주해 치부에 눈이 먼 지배세력이었다. 그러나 은퇴한 양반 및 양식 있는 선비들과 농민들은 관리들의 횡포와 특히 토호(土豪)들의 발호에 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국정의 혼란과 극에 달한 지배세력의 부패를 보며 대응준비를 하고 기회만 있으면 후천개벽의 세상이 올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걸고 있었다.

마침 1894년 9월 그믐날 밤 동학농민군들은 태안읍 삭선리(陣坪)에서 징과 북을 치며 장대 끝에 동학의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광제창생(廣濟蒼生)의 깃발을 꽂아 놓고 함성을 올렸다. 이곳에서 원북면 방갈리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과 근흥면 수룡리 토성산(吐城山) 및 소원·이원·남

면·안면도 등 일원에서 모여든 일반 교도까지 합쳐 수만 여명이 모여 작전계획을 세우고 대오를 편성하였다.

10월 1일 아침 태안 군아를 에워싼 동학농민군들은 태안 군아에 투옥된 동학 두목 30여명을 처형 직전에 무사히 구출하고, 「목애당(牧愛堂)」에서 태안 부사 신 백희(申 百熙)와 순무사 김 경제(金 景濟)를 결박하여 「경이정(憬夷亭)」 아래에서 타살하였다.

이렇게 삼시간에 운명이 바뀌고 그 동안 농민의 고혈을 빨고 가렴주구를 하던 포악한 관료의 학대에 그 원한이 쌓이고 누적되어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이같이 태안성이 함락되는 것을 지켜본 류 순택(柳 舜澤)은 동학농민군의 난을 그대로 볼 수 없다며 태안성을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우선 가족들을 피신시킨 다음 동지를 찾으니 마침 김 익모(金 益模)·강 홍린(姜 洪麟)·손 상초(孫 相楚) 등이 호응하여 태안성 탈환을 위하여 굳은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모두 동학농민군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그리고 포수 김 위연(金 偉然)은 맨 먼저 달려 들어와 변이 일어났음을 알리고 나서 서리 김 계현(金 季賢)과 함께 곧 바로 총을 들고 대항하다가 마침내 죽었다. 한량 박 신근(朴 信勤)이 또한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마땅히 죽을 것이다 하고 총을 가지고 나가더니 동학농민군에게 사살되었다.

이렇게 태안성이 함락되어 동학농민군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급보를 들은 홍주(홍성)에서 영병(營兵) 5백여 명이 급파되어 태안성을 수복하고 민심을 수습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폭정에 시달리고 기아선상에서 고통 받던 백성들의 민심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 후 관군과 일본군이 평정한다는 구실로 동학농민군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비인도적인 악행을 자행하였다.

또한 동학의 두목은 물론 일반 교도와 동학인의 가족들에게도 잔인한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고 심지어 집에 불을 지르고 동학과 무관한 농민까지 가리지

않고 잡히는대로 살해했다. 얼마나 가혹했던지 다섯 사람을 한데 묶어 이엉으로 말아서 불을 지르는가 하면, 세 사람을 생매장하기도 했다.

이 참혹한 수모를 참다못해 일반 동학인과 농민들은 다시 일어나 싸우지 않으면 살길이 없고, 또한 이 길만이 후회를 남기지 않은 길이니 다시 일어나자고 부르짖었다. 이에 동의한 동학농민군들은 경이정에 모여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드디어 10월 15일 태안에서 재 기포하기에 이르렀다.

參考文獻

1. 추담별집.곤(秋潭別集.坤) 발문(跋文) 태안충절록(泰安忠節錄)에 이르기를 “갑오년(1894년) 10월 1일(음력)에 동적(東賊)이 태안부를 함락 시켰다. 이때에 태안부의 부사 신 백희와 별유사 김 경제는 좌우로 하여금 적을 막도록 하였다. 그런데 관리들 중의 일부는 태도를 바꾸어 적에게 붙어 적을 옹립하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포수 김 위연은 맨 먼저 달려 들어와 변이 일어났음을 알리고 나서 곧 바로 혼자서 총을 들고 ‘내가 의를 위하여 적에게 죽을지언정 적에게 붙지 않겠다.’ 하고 마침내 죽었다. 한량 박 신근이 또한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마땅히 죽을 것이다.’ 하고 총을 갖고 나가 총 쏘려 하였는데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적도가 뒤로부터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때려 부쉘 죽었다. 본부사와 별유사는 사로잡혀 경이정 아래에서 함께 살해되었다. 죽음에 임하여 적도를 꾸짖기를, ‘나는 죽지만 충신이고 너희들은 살아 있지만 역적이다.’라고 하였다.

태안부 사람 심 창희(沈 昌熙)의 처 류씨가 혼자되어 자식도 없었으므로 딸 내외와 함께 기거하고 있었는데 변이 일어남에 탄식하며 말하기를 ‘지아버가 죽었는데 따라 죽지 못한 것 또한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이제 오늘날 강상(綱常)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실로 구구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또한 부끄럽기 그

지없고나, 하고 곡기를 끊은 지 4일째 되던 날에 약을 마시고 죽었다.

한편 유생 이 명숙(李 明淑)이 사로잡혀 적의 성루(城壘)로 끌려갔는데 적이 항복하라고 위협하자 눈을 부릅뜨고 적을 꾸짖었다. ‘나는 당당한 대장부다. 죽어도 당당하게 죽겠다. 어찌 역류들이 하는 짓을 본받겠는가!’ 하니 적이 이 명숙에게 말했다. ‘천지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시운을 따르는 것이 역사(逆邪)냐, 천시(天時)에 어두워 천시를 어기는 것이 역사(逆邪)냐?’ 하니, 이에 명숙이 웃으며 말하기를, ‘왕화(王化)를 따르지 않고서 조정의 명을 받은 관리를 죽이고, 감히 불궐(不軌)한 일을 꾸미는 것이 역(逆)이 아니고 무엇이 란 말이나?’ 라고 하였다. 이에 적이 명숙에게 혹형을 가하여 명숙의 다리 살이 문드러졌다. 이때 혹자가 명숙을 놓아주자고 하여 명숙에게 도망가라고 하였으나 명숙은 이를 거부하며 말했다. ‘도적의 소굴에 들어왔는데, 죽지 않으면 의(義)가 없다.’

이에 적이 대노하여 몽둥이를 들어 명숙의 머리를 치니 두골이 깨졌다. 명숙이 황급히 양손으로 그의 머리를 감싸 쥐며 말하기를 ‘허는 아직 살아 있으니 너희들을 꾸짖을 수 있다.’ 하고서 꾸짖기를 마저 하고 말을 마치자 죽었다.

서리 김 계현이 적이 성을 함락시키려 한다는 것을 듣고서, 즉시 들어와 고하고, 포수 김 위연과 함께 죽었다.”

「甲午十月一日, 東賊陷泰安府, 時本府使申百熙, 別諭使金慶濟, 令左右禦敵, 갑오시월일일, 동적함태안부, 시본부사신백희, 별유사김경제, 영좌우어적 官吏之附賊者環而擁立, 不者皆散去, 砲手金偉然先入告變, 且以雙身裝銃而 관리지부적자환이옹립, 불자개산거, 포수김위연선입고변, 차이쌍신장총이 出曰, 寧死於賊義不附逆遂死之, 閑良朴信勤亦曰, 義當死賊, 持銃未及放丸, 출왈, 영사어적의불부역수사지, 한량박신근역왈, 의당사적, 지총미급방환, 賊徒從後椎碎其腦而殺之, 本府使與別諭使俱被執, 至愷夷亭下同時遇害, 臨 적도종후추쇄기뇌이살지, 본부사어별유사구피집, 지경이정하동시우해, 임

死罵曰, 我死死亦忠臣, 爾生生且逆賊, 郡人沈昌熙妻柳氏, 寡而無子如女婿 사매왈, 아사사역충신, 이생생차역적, 군인심창희처류씨, 과이무자여여서 居, 變起嘆曰, 夫死不從亦已愧矣, 今見綱常已滅, 苟求生活不亦恥乎, 絕粒 거, 변기탄왈, 부사불종역기괴의, 금견상강이멸, 구구생활불역치호, 절입 第四日飲藥自斃, 儒生李明淑被劫詣賊壘, 賊欲脅降, 明淑瞋目叱曰, 堂堂丈 제사일음독자괘, 유생이명숙피겁예적루, 적욕협강, 명숙진목질왈, 당당장 夫死亦堂堂死, 豈效爾逆類爲賊曰, 敬天地孝父母順時運者逆邪, 昧天時而違 부사역당당사, 기효이역류위적왈, 경천지효부모순시운자역사, 매천시이위 之者逆邪, 明淑笑曰, 不遵王化, 賊殺命官, 敢謀不軌者非逆而何, 賊施以酷 지자역사, 명숙소왈, 불준왕화, 적살관명, 감모불궐자비역이하, 적시이혹 刑脛肉皆爛, 或欲放之使逃, 明淑不肯曰, 旣入逆屈不死無義, 賊大怒舉椎擊 형성육개난, 혹욕방지사도, 명숙불궁왈, 개입역굴불사무의, 적대노거추격 首頭骨破開, 明淑遽以兩手合, 其頭曰, 舌尚存亦罵, 言訖而死, 下吏金季賢 수두골파개, 명숙거이양수합, 기두왈, 설상존역매, 언홀이사, 하리김계현 聞賊欲陷城, 卽入告急與偉然同死」 문적욕함성, 즉입고급여위연동사

2. 북접일지(北接日誌)

① 조 석헌.역사 (曹 錫憲.歷史)

포덕 35년 갑오년 3월 19일에 박 희인(朴 熙寅)을 쫓아 동학에 입도(入道)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 태안 접주(接主)로 피임(被任)되었다. 같은 해 9월 14일에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이때 정부에서 안무사(按撫使) 김 경제(金 景濟)를 내려 보내, 해미·서산·태안 등지의 동학 도중(道衆)을 개화하고자 할 때, 태안군수 신 백희(申 伯禧)와 몰래 상의하고 근방 두령(頭領) 30여 인을 몰래 체포하여 엄형·하옥하였다.

이때 도중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하여 일어나 예산 본포(本包)에 사람을 보내 통지하고 회신을 고대하였다. 며칠 후에 사람이 돌아와 보고하여 말하기를, “사태가 심각한즉 범연(凡然)히 관과(觀過)할 수 없으니 즉시 기포(起包)하여 잡힌 도인(道人)을 구제하고 동시에 이 같이 무도(無道)한 무리를 마땅히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하였으니 때는 가을 9월 그믐이었다.

각지의 두목에게 통지하여 기포하게 하니 각포에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호응하여 즉시 기포하니 불과 하루 만에 도중이 무려 수만에 달하였다. 이날 해당 읍에 이르러 갇힌 도중을 구원하고 도중에 해를 입힌 자에게 벌을 주었다. 이 때 속인(俗人)이 도중(道衆)이라 빙자하고 횡포 하는 자가 많았다.……

② 문 장준 역사(文章峻 歷史)

태안군수 신 백희(申 伯禧)요 김 경제(金 景濟)라는 사람은 본시 태안 사람으로 정부의 편을 들어 안무사를 자원하여 태안에 내려 와서 9월에 태안군수 신 백희 등으로 협력하여 태안, 서산, 해미 세 고을 동학교도를 한꺼번에 귀화시킬 작정이더라. 만약 이 계획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두목을 다수 참살하면 어찌 진압되지 않으리오. 하고 주의하고 병정과 관군을 곳곳에 배치하고 그 가운데 큰 두목으로 이곳 괴수라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엄형에 처하리라. 이때 적세가 크기가 구름일 듯 하더라.

이때 사항이 초조(焦燥) 망조(罔措)함으로 3읍(邑) 관내 접주는 위난에 봉착했다. 이렇게 되므로 오교(吾敎) 시각으로 위급할 때 본포(本包) 박 희인(朴 熙寅)씨가 명을 내려 일반 두령의 생사가 시급한 경우와 우리 동학도를 금명간 공격할 계책이 있는 고로 불가피 기포(起包)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본포에서 ‘징’을 올리면 그 소리를 듣고 단번에 응성(應聲)하며 일제히 오포 관내는 일시에 번개(電光)처럼 회집하고 한편으로 각처에 갇힌 두목을 일일이 구출하기로 약속하니 9월 그믐날이라.

그때 원북면 방갈리 문 장로(文章魯)집을 위시하여 밤으로 각처 두목 수인이 모의하던 중 급보를 접한 접주 장 성국(張 聖國)은 이원면 포지리에서 밤에 횃불을 들고 10리 깃벌을 달려 원북면 방갈리 접주 문장준 집에 와서 사방에서 치보(馳報)하여 모인 교도들은 접주(接主) 장 성국(張 聖國)·문 장로(文章魯)·김 군집(金 君執)·최 맹춘(崔 孟春)·접사(接司) 조 응칠(曹 應七)·문 재석(文 在錫)·문 구석(文 龜錫)·도집(都執) 문 장준(文章峻)·이 광우(李 廣于) 이하(以下) 문 장권(文章權) 문 준보(文 俊甫)·문 성열(文 聖烈)·강 인성(姜 仁成)·안 인묵(安 仁默)·안 현묵(安 玄默)·김 성칠(金 成七)·김 공필(金 公弼)·강 운재(姜 雲在)·김 가열(金 可烈)·문 장의(文章儀) 외 수10인이 회집한 가운데, 이 치봉(李 致奉)으로 북부대장(北部隊長), 기수대장(旗手隊長)에 안 현묵(安 玄默)으로 정하고 기치를 들고 행진하니 각처 도인이 함세 운집하니 그 익일은 10월 1일이라.

안무사와 서산·태안 양 군수에게 민권 옹호의 기치아래 투옥된 여러 두목들을 일제히 참살할 상황을 보고 불기이회(不期而會)로 도중(道衆) 수백만인이 집합하여 민권의 대세를 몰아 크게 떨치고, 한편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을 석방하였다.……

3.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① 김 경제

자(字)는 성회(聖會)요, 경주김씨(慶州金氏)다.

고종때 문과(文科) 교리(校理：홍문관 정5품)에 오르고, 성품이 온순하고 후덕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문과 무예(武藝)도 겸비하여 경향각지에서 칭송이 나 있었다. 갑오 동학란이 일어나자 별유사가 되어 태안에 와서 태안부사 신 백희와 더불어 난리를 방어하다가 순국하였다.

金 慶濟

김 경제

「字聖會, 號菊史, 慶州人, 鶴洲弘郁后, 高宗朝, 文科校理, 稟性純厚, 孝悌敦睦, 자성회, 호국사, 경주인, 학주홍옥후, 고종조, 문과교리, 품성순후, 효제돈목, 文藝兼備, 京鄉咸稱, 甲午東學亂, 以別諭使至, 泰安與府使申百熙, 同禦賊而殉」
문예겸비, 경향함칭, 갑오동학란, 이별유사지, 태안여부사신백희, 동어적이순

② 신 백희

평산신씨(平山申氏)다. 고종 갑오 동학란때 태안부사로 난리를 방어하다가 죽었는데, 죽음에 임하여 말하기를 나는 죽으면 충신이지만 너희들은 또한 역적이다.

申 百熙

신 백희

「平山人, 高宗甲午東亂時, 以泰安府使, 防賊而死, 臨死曰, 我死亦忠, 爾生亦亦」
평산인, 고종갑오동란시, 이태안부사, 방적이사, 임사왈, 아사역충, 이생역역

③ 박 신근

갑오년에 동학란이 일어나 태안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적과 싸우다가 의(義)를 위하여 마땅히 죽을 것이다 하고 즉시 총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다가 뒤로부터 추격을 받고 타살되었다.

朴 信勤

박 신근

「甲午東亂, 見泰安城陷, 義當死於賊, 卽擔銃而出賊, 自後擊殺之」
갑오동란, 견태안성함, 의당사어적, 즉담총이출적, 자후격살지

4. 교장(絞杖：백화산)바위

태안 백화산은 태안군의 진산이며, 성스러운 관음도량(觀音道場)으로 국보 제307호인 마애삼존불(磨崖三尊佛)이 모셔져 있는 영산이고, 이 산은 태안팔경 가운데 제1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참혹하고 비극적인 현장이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로 남문리 백화산 기슭에 수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무참하게 학살되어 천추의 한이 서린 유서 깊은 교장바위다.

관군과 일본군이 극악무도하게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동학농민군들은 대오를 편성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출전준비를 완료하고, 1894년 10월 15일 경이정에 모여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드디어 태안에서 재 기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덕포 박 인호(朴寅浩) 예포 박 희인(朴熙寅) 대접주가 인솔하는 동학농민군에 합류하여 여미 벌에서 집결하여 작전계획을 세워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고 10월 24일 당진 승전곡(勝戰谷) 전투에서 동학혁명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대승을 거둔 후 26일에 예산군 신례원 관작리 빙현(氷峴)에서 승전하여, 동학농민군은 이곳을 떠나 27일 예산군 역촌 뒷들에서 하루 밤을 쉬고, 다음 10월 28일은 대신사 탄신 기도일이라 덕산군 역촌 뒷 고개에서 머물러 기도를 드리고 곧 홍주성으로 향하여 홍주성 공격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신식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작전에 의해 무려 1천



교장(絞杖)바위

여명의 동학농민군이 무참히 희생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홍주성에서 대패하여 관군과 일본군에 쫓긴 동학농민군은 11월 7일 해미성(海美城) 전투와 다음날 8일 매현(梅峴)전투에서 또 다시 패전하여 재기할 여력을 잃은 채 최후로 11월 13일 경에 백화산에 집결하였고 동짓달 설한풍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 끝까지 항전하였다.

그러나 비록 진퇴양난으로 궁지에 몰렸을망정 동학농민군들은 관군과 일본군들에게 잡혀 죽으면 죽었지 구차하게 살기위하여 아첨하거나 투항하지 않고 의연하게 항전하다가 순국하셨다고 전한다.

특히 백화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에서는 김 원회(金 遠回)·문 중운(文 鍾云)·정 손권(鄭 孫權) 등 동학농민혁명군 수백 명을 붙잡아다 놓고 목을 졸라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목이 잘린 시체가 쌓이거나 여기 저기 흩어졌으며, 특히 일본군들은 시체를 일일이 헤쳐 보면서 산 사람이 있으면 확인 사살했다고 하며, 작두로 목을 잘라 효수(梟首)하여 시장거리를 행진하였다고 한다.

얼마나 가혹했는지 근흥면 안기리 김 한길(金 漢吉)의 조부 3형제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태안 백화산 계곡에 생매장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겨우 피신한 동학군농민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 산 북쪽 “모래기재(砂峴)에서도 일본군의 복병(伏兵)들에 의해 동학농민군 수 백명이 학살되었고, 이 밖에도 태안여고 개울, 샘골마을, 남문리 냇가, 정주내(碇舟川) 등 여러 곳에서 잔인하게 살육하였으며, 부녀자를 강간하고 민가에 방화하였다고 한다.

이 교장바위의 비극은 애석하게도 별다른 자체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모든 사실은 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구전조차 여의치 못했다.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다가 죽은 사람에게는 제사조차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살아야 했던 천대와 감시하는 상황에서 구전도 철저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분명한 기록도 없고 구전조차 공공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보니 우리 고장의 경우 백화산 교장바위의 연유에 대하여 구전 단절 현상이 빚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백화산에서 동학농민군 수괴 다섯 사람을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했다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기록이 나왔다.

순무선봉진기록(巡撫先鋒陣膽錄)에 의하면

…“서산에 주재하는 순무영(巡撫營) 선봉진(先鋒陣) 별군관(別軍官) 첩보(牒報)에 10월 13일 태안 백화산에 비류(匪類：동학농민군)들이 모여 있다는 치보(馳報)가 와서 거괴(巨魁) 유 규희(兪 圭熙)·최 성서(崔 聖西)·최 성일(崔 聖一)·안 순칠(安 順七)·피 만석(皮 萬石) 등 다섯 사람을 체포하여 죄상을 밝혀 서울로 압송하였거니와……

巡撫先鋒陣膽錄

순무선봉진등록

「瑞山留在巡撫營先鋒陣別軍官爲牒報事, 今月十三日以 泰安白華山匪類屯聚事馳報時, 巨魁兪圭熙, 崔聖西, 崔聖一, 安順七, 皮萬石等五漢, 臚列罪狀, 취사치보시, 거괴유규희, 최성서, 최성일, 안순칠, 피만석등오한, 여열죄상, 捉付押上爲有在果, ……」

착부압상위유재과, ……」

이곳 동학교도들과 뜻있는 사람들은 11월 보름날이 되면 교장바위에 올라가서 순국하신 영령들의 진혼제를 지냈다고 한다. 위령탑을 교장바위 아래에 정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이곳이 동학농민군 최후의 항전지이고 학살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위령탑 건립을 추진할 때 유족들은 살육의 현장인 교장바위에다 위령탑을 세우고자 했으나 그 당시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교장바위 아래에 위령탑을 세웠다고 한다.

유족들이 북접 동학농민군의 최후의 결전 장소요, 일본군에 의한 학살의 장소였던 백화산 기슭에 추모탑을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 태안읍은 관아를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백화산 교장바위는 상징적인 바위이고, 또한 지리적 여건상 중심적인 장소였다.

특히 교장바위는 피로 물들고 글자 그대로 시산혈해였다고 전한다. 이 교장바위 부근은 도살장을 방불할 정도로 처참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즉 목을 졸라 죽인다는 교살(絞殺)과 몽둥이로 때려죽인다는 장살(杖殺)을 줄여서 교장(絞杖)이라 하여 이 바위를 태안 사람들은 「絞杖바위」라고 부르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태안은 충청지방 동학농민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태안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태안문화원

○ 연혁

- 1990. 5. 15. 태안문화원 이 갑춘 설립총회 만장일치 지명 취임
- 1990. 5. 15. 태안문화원 설립총회 이 갑춘외 18명 참석
- 1990. 6. 5. 사단법인 태안문화원 설립인가(문교부장관)
- 1990. 7. 28. 사단법인 태안문화원 인가(문교부장관)
- 1990. 9. 5. 사단법인 태안문화원 등기필(태안등기소)
- 1990. 9. 28. 사단법인 태안문화원 개원
- 1990. 10. 10. 태안문화원 이사 13명, 감사 2명 취임
- 1990. 11. 27. 초·중·고교 농악지도학교 선정 기초강좌 실습

1993. 8. 22.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문화체육부장관)

1994. 4. 23. 태안문화원 농악분과위원

1994. 9. 30. 시범문화원 지정(문화체육부장관)

1994. 10. 5. 충청남도 농악경연대회 출전 2위 수상

1995. 6. 29. 태안군내 희망국교 농악대회 개최

태안문화원 부녀 농악회원 농악대회 개최

1995. 8. 11. 태안문화원 자체건물 신축 착공

1995. 12. 6. 문화가족 위촉장 수여 223명(읍·면 추천, 사회단체)

1996. 6. 4. 태안문화원 청사 준공

1996. 8. 24. 문화학교 지정(문화체육부장관)

1998. 9. 14. 2대 이 갑춘 원장 연임

2001. 5. 20. 전국 최초로 ‘자염’ 재현 성공

2002. 1. 1. 태안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2002. 9. 14. 3대 정 우영 원장 취임

2002. 12. 27. 문화관광부 ‘우리문화역사마을만들기’ 반도의 역사소금마을 선정

2003. 7. 4. 태안마애삼존불 국보추진위원회 발족(국보승격 2004. 8. 31.)

2004. 1. 28. 태안문화원 정관 변경

2004. 2. 17. 우운 문 양목 선생 추모사업회 발족

2005. 1. 31. 전국지방문화원관리운영평가 특별상 수상

2005. 4. 15. 의왕문화원 자매결연 체결(의왕문화원장 박 용하)

2005. 12. 7. 태안교육문화유공송덕비 건립(문화예술회관 앞)

2006. 9. 14. 4대 명 수남 원장 취임

○ 역대 문화원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이 갑춘	1990. 6. 5.~2002. 9. 13.
2대	이 갑춘	
3대	정 우영	2002. 9. 14.~2006. 9. 13.
4대	명 수남	2006. 9. 14.~현재
〈이사〉 강 인식, 윤 계동, 가 덕소, 강 찬익, 문 연식, 배 광모, 백 정흠, 유 익환, 이 복희, 이 재영, 정 낙추, 한 원석, 모 종인, 한 상기, 이 용희, 이 종면, 김 생우, 문 영식, 정 상복 〈감사〉 권 오철, 이 용복		

태안문학회

태안문학회는 1998년 6월 29일 구 갑회, 가 덕현, 림 성만, 명 수남, 박 중식, 손 명환, 이 경복, 이 만규, 정 우영, 지 요하 등 10명이 태안읍 동문리 샘골가든에서 창립회의를 갖고 1998년 11월 태안문학 1집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17집까지 발간하였다.



(사진출처 · 태안문학 창간호)

○ 역대 회장단

대수	성 명	년 도
초대	지 요하	1998~2003.
2대	명 수남	2003~2004.
3대	손 명환	2004~2006.
4대	변 학수	2006~
〈회원〉 가 명현, 강 태현, 구 갑회, 김 기식, 김 봉철, 김 영곤, 김 은자, 김 원태, 라 일운, 문 영식, 문 제풍, 박 경숙, 박 국환, 박 성훈, 방 승기, 배 광모, 배 선옥, 변 학수, 손 명환, 송 낙인, 심 은형, 윤 선아, 이 경복, 이 사형, 이 상화, 이 태호, 이 현주, 조 구자, 조 규훈, 조 우상, 지 요하, 진 태구, 최 기훈, 최 영숙, 최 장희		

흙빛문학회

태안군은 오랜 역사가 있고 기름진 농토에 3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곡물과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천혜의 입지적 조건을 구비하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고장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제반 조건은 갖춰져 있었으나 정신적인 문학을 공유하는 휴식공간이 없어 마음으로 고뇌하던 중

1980년 3월 뜻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문학의 불모지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기 위하여 김 영규, 이 원국, 최 주연, 지 요하 4명이 태안읍 남문리 희다방에서 여러 차례 회동하고, 명칭을 〈흙빛문학동인회〉로 정하였다.

1981년 8월 태안읍 남문리 동아서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김 영규, 이 원



국, 최 주연, 명 제성, 방 동엽, 신 상호, 심 영섭, 이 만규, 이 선자, 김 향순, 조 선란, 지 요하, 한 충원 등 13명이 참여하였다.

1982년 1월 김 영규, 최 주연, 이 원국, 문 미옥, 조 항심, 오 형근, 김 향순, 이 만규, 조 선란, 지 요하, 한 충원, 명예회원 지 동환, 이 내수의 작품 계재로 〈흙빛문학〉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총 45집을 발간하여 지역문학 발전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 역대 회장단

대수	성 명	년 도	대수	성 명	년 도
초대	최 주연	1981. 8.	6대	정 낙추	1998. 2.
2대	이 원국	1983. 9.	7대	노 경수	2002. 10.
3대	지 요하	1985. 3.	8대	김 영열	2005. 7.
4대	박 만진	1989. 7.	9대	심 응섭	2006. 9.~
5대	이 원국	1991. 7.			
〈회원〉 고 윤부, 김 수화, 김 영규, 김 영열, 김 영환, 김 은정, 김 인옥, 김 향숙, 노 경수, 문 태준, 박 정미, 서 중춘, 신 영대, 심 응섭, 안 정옥, 유 경애, 윤 철수, 이 명봉, 이 사형, 이 용복, 이 원국, 이 은건, 이 형순, 임 명희, 임 현순, 전 승진, 정 낙추, 정 연희, 정 홍순, 조 교성, 조 규선, 최 영희, 한 수, 한 영현					

태안교육청과 전신 학교

태안교육청(泰安教育廳)

태안교육청은 태안읍 남문리 417-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태안교육청은 1989년 1월 1일 태안군(泰安郡)이 서산군(瑞山郡)으로부터 분리, 복군됨과 함께 서산교육청으로부터 분리되어 태안군내의 교육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태안교육청은 교육장 밑에 학무과(學務課)와 관리과(管理課) 등의 2개 과와 7개 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안교육청의 연혁 및 교육장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 연혁

- 1989. 1. 1. 충청남도 태안교육청 개청(임시 사무실, 태안여중교사)
- 1990. 10. 15. 현 청사로 신축 이전(태안읍 남문리 417-1번지)

○ 교육장 일람표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국 중락	1989.1.1.~1992.9. 1.	7대	오 복영	2000.3. 1.~2001.9. 1.
2대	김 광섭	1992.9.1.~1994.3. 1.	8대	이 익창	2001.9. 1.~2003.9. 1.
3대	이 무	1994.3.1.~1995.3. 1.	9대	정 현극	2003.9. 1.~2004.6. 22.
4대	강 희길	1995.3.1.~1996.8. 31.	10대	임 양택	2004.6. 22.~2006.3. 1.
5대	고 성환	1996.9.1.~1998.9. 1.	11대	오 창근	2006.3. 1.~현재
6대	박 창배	1998.9.1.~2000.3. 1.			



화양의숙(출처·태안국민학교 80년사)

화양의숙(華陽義塾)

화양의숙(華陽義塾)은 구학문에 의존하던 향교교육(鄕校敎育)이나 서당교육(書堂敎育)에서 탈피하여 근대교육으로 바뀌게 된 최초의 교육기관이었다. 화양의숙은 광무(光武) 9년인 1905년 9월 태안군 군내면의 환동(環洞)에 거주하던 이 희열(李 希烈) 선생이 군내면 옥하리에 있는 15칸짜리 건물을 매입하여 세우고 한 규석(韓 圭錫), 김 령제(金 寧濟), 황 희성(黃 羲性), 이 순택(李 淳鐸) 등의 교사를 초빙하여 신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을 무료로 주고 학비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교육과목은 윤리, 지리, 역사, 산술, 영어, 일어 등이었는데 2년 뒤에는 지역의 실용성을 감안하여 3개월 간의 속성 측량과를 부설하고 손 성진(孫 誠鎭)을 교사로 초빙하여 가르쳤으며 뒤이어 5개월 간의 속성 조림과를 부설하고는 최 태현(崔 泰鉉)을 교사로 초빙하여 가르치기에 이른다. 또한 화양의숙은 김 병선 숙감(金 炳善 塾監)을 비롯한 6명의 교사들이 열심히 지도하여 81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는데 졸업생 대표자들을 보면 이 태진(李 台鎭), 김 규항(金 圭恒), 손 창목(孫 昌穆), 김 동욱(金 東旭), 김 성모(金 聲模), 강 홍열(姜 洪烈), 이 철우(李 喆雨), 전 영표(全 泳杓), 림 병두(林 炳斗) 등이었고 그 외로 72명이 졸업하였다고 『원려당유사(遠慮堂遺事)』는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양의숙은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 교사가 협소하게 되자 1910년 본 교사를 매각처분하고 사정(射亭)을 인수하여 교실로 개조하고 그 북쪽에 2개의 교실을 증축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정(射亭)이란 사락정(思樂亭)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난사(蘭史) 조 희천(趙 羲天) 선생이 쓴 「사락정개작학교기(思樂亭改作學校記)」에서도 화양의숙이 나오기 때문이다.

화양의숙이 사정(射亭)을 인수하기까지는 원려당(遠慮堂) 이 희열 선생의 헌신적인 투자와 여러 독지가들의 희사금, 태안읍내의 동문리(東門里), 옥하리

(獄下里), 남문리(南門里) 주민들의 특별찬조, 그리고 최 학래(崔 鶴來) 태안군수와 김 병선(金 炳善) 군주사(郡主事) 등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하던 화양의숙도 신교육의 실시에 따라 1911년 마침내 문을 닫게 되었고 태안공립보통학교(泰安公立普通學校)로 개편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태안초등학교가 된 것이다.

난사 조 희천 선생의 『난사유고(蘭史遺稿)』에 기록된 「사락정개작학교기(思樂亭改作學校記)」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思樂亭改作學校記

사락정개작학교기

華山之陽宥泮官泮官之南有小亭名曰思樂蓋取魯頌思樂泮水之義也樂哉斯亭作

화산지양유반관반관지남유소정명왈사락개취노송사락반수지의아락재사정작

亭者誰伊昔崔侯益秀勗建而習射厥後宋後觀和重葺而興化武藝之桓桓文風之蔚

정자수이석최후익수창건이습사꺠후송후관화중즙이흥화무예지환환문풍지위

蔚迄今士吏之所口膾而耳雷者也積有年所成毀關數於焉敗尾鳶鳶飛而霜冷崑然

위홀금사리지소구회이이퇴자야적유년소성휘관수어언패미꺠앙비이상냉외연

空臺鳳凰去而江流往往詞豪文士之過斯亭者莫不躊躇興歎曰誰復嗣而葺之犀見

공대봉황거이강류왕왕사호문사지과사정자막불주저흥탄활수복사이즙지서건

前日之盛舉也云矣際茲敎育發明之時瑞山郡守李基祥特以專一之誠不惜鉅萬之

전일지성거야운의제자敎育발명지시서산군수이기상특이전일지성불석거만지

資亭之北築一舍扁以華陽義塾旁拾一鄉俊乂需用五年經費其偉功茂績足以風四

자정지북축일사편이화양의숙방십일향준예수용오년경비기위공무적족이풍사

方而芳百歲矣猶爲此舍不容恨不得廣廈而有材噫四里老成一時僉謀舉斯亭而重

방이방백세의유위차사불용한불득창하이육재희사리노성일시첨모거사정이중

修加彼塾而增廣是役也誰其監之李基升金圭恒羅潤光李種玉不違食飲而董督鉅
수가피숙이증광시역야수기감지이기승김규항라운광이종옥부황식음이동독거
彼斧彼之功不顧生産而勸相鑿斯築斯之勞且以義務言之李基奭之二千五百金李
피부피지공불고생산이권상착사축사지노차이의무언지이기석지이천오백금이
基洪之一千金金東熙之五百金白樂旻孫昌顯之各四百金李鍾玉之三百金李基顯
기홍지일천금김동희지오백금백낙민손창현지각사백금이종옥지삼백금이기현
金基善之各二百金朴鍾彦姜洪麟李順三各一百金合爲五千八百金也且沃下里祖
김기선지각이백금박종언강홍린이순삼각일백금합위오천팔백금야차옥하리조
四十石南門里祖六十石東門里租三十三石合爲一百三十三石也厥初一斗二斗之
사십석남문리조육십석동문리조삼십삼석합위일백삼십삼석야궐초일두이두지
利五年十年之殖沒數舉而納之學中以里仁而贊助之均市義而成就之於乎嘉哉騰
리오년십년지식물수거이납지학중이리인이천조지균시의이성취지어호가재귀
彼寰海利竇慾浪滔滔皆然而苟非好學之誠積於中而發於外者其輕財好施勤勤懇
피환해리두욕양도도개연이구비호학지성적어중이발어외자기경재호시근근간
懇能如是乎俾我蒙士樞衣升堂先以鄒傳魯傳思傳時以習之繼以語學農學律學月
간능여시호비아몽사추의승당선이추진노전사전시이습지계이어학농학률학월
斯征焉則將使貿貿之鄉司觀彬彬之文此豈非曠百世一大盛事乎伊時郡守崔鶴來
사정언직장사무무지향사관빈빈지문차두비광백세일대성사호이시군수최학래
悅心讚美撫掌歎賞曰此鄉此舉可傳不朽屬余記焉余以窺管之謏見覆瓶之蕪辭說
열심찬미무장탄상왈차향차거가전불오속여기언여이규관지소견복병지무사설
之不得强爲之記
지불득강위지기

사략정 개작학교기(해제)
백화산 남쪽에 반궁이 있고 반궁 남쪽에 소정이 있으니 사략이라 이름하였

음은 대개 노나라 사략반수의 뜻을 취함이로다. 이 정자를 지은 자 누구인고,
옛적에 최 익수 군수가 창건하여 활쏘기를 익히었고 그 뒤에 송 관화 군수가
중수하여 무예의 환환함과 문풍의 위위함을 일으키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매
와 아전에 이르기까지 앞에 회자하고 귀에 우레 같이 들려왔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퇴락하여 깨어진 기와엔 찬서리만이 냉랭하고 외연한 빈집에는 봉
황이 가고 강만이 유유히 흐르네. 왕왕 객가 문사가 이 정자 앞을 지나매 주
저하여 탄식하지 않는 이 없이 말하기를 뉘 다시 이어받아 중수하여 전일의 성
황을 회복할고 하였다. 이제 교육발명의 때를 당하여 서산군수 이 기상이 특별
한 정성으로 거액의 자금을 아끼지 않고 정자 북쪽에 한옥집을 지어 화양의숙
이라 현판하고 일향의 재사들을 모아 오년을 수용하였으니 그 위대한 공과 성
한 업적이 족히 사방을 풍화하고 백세를 아름답게 하였도다. 그러나 이 집이 협
소하여 많은 명재를 수용하여 가르치지 못함을 한탄하여 왔다. 사방마을 노인
과 소년들이 일시에 함께 모의하여 이 정자를 중수하고 그 집을 넓힐새 그 역사
를 누가 감독할꼬. 이 기승과 김 규항, 라 윤광, 이 종옥이 동독하여 톱질하고
도끼질하는 공이며 생업을 돌보지 않고 서로 권하여 파고 쌓는 수고를 의무로
여기고 또 이 기석이 이천오백량과 이 기홍의 일천금과 김 동희의 오백금과 백
락호 손 창현의 각각 삼백금과 이 종옥의 사백금 김 기현, 김 기선이 각각 이백
량과 박 종언, 강 홍린, 이 순삼이 각각 일백량 합하여 오천팔백냥이며 또 옥하
리 조 삼십석과 남문리 조 육십석과 동문리 조 삼십석을 합하여 일백이십석이
라 처음에 일두일두의 이자와 오년십년의 이식을 몰수하여 받아들였다. 오호라
사람마다 이권과 물욕이 도도한 이때에 진실로 배우기 좋아하는 정성이 아니면
어찌 재물을 가벼이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부지런하고 정성스름이 어찌 이같
으리요. 우리 어린 선비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고 당에 올라 시전 추전과 중전과
사전을 익히고 이어서 어학과 율학을 배워 일취월장한즉 장차 이 무식한 시골
이 가히 빛나고 빛나는 문향이 되리니 먼 백세에 일대 성사가 아니리요. 이때

군수 최 학래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여 손을 어루만져 탄식하여 말하되 이 시
골의 이 성사를 길이 전하여 잊혀짐 없이 나에게 기록을 청하거늘 내 관류의 앞
은 소견과 병마에 지친 글 솜씨를 사양치 못하고 이에 힘써 기록하노라.

화양의숙창설회(華陽義塾創設會)
五載三登此一堂天荒打破頌聲長黃華酌酒人情洽白日歌詩士價香四里捐金先買
오재삼등차일당천황타파송성장황화작주인정흠백일가시사가향사리연김선매
義十年啄玉乃成章前期正在勤然後須惜窓西轉夕陽
의십년탁옥내성장전기정재근연후수석창서전석양

조 존항(趙 存恒) 선생의 석계유고(石溪遺稿) 시문(부분)

관사사락정(觀射思樂亭)
海郡多豪俊相逢泮水亭看花皆勝日碎柳又芳齡競中紅箭仍呼大白醺半酣聯袂去
해군다호준상봉반수정간화개승일쇄유우방령정중홍전잉호대백령반감련양거
大道一樓靑
대도일루청

사락정(思樂亭)터

사락정(思樂亭)이 태안읍의 남문리에 위치하였다는 기록은 『서산군지(瑞山
郡誌)』, 『환여승람』 등의 많은 문헌에 나타나고 있지만 태안읍 남문리의 어느
지점에 있었다는 기록은 아무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아울러 사락정에 관한 기록도 『난사유고
(蘭史遺稿)』에 나오는 “사락정개작학교기
(思樂亭改作學校記)”, 옛 『서산군지』에 나
오는 “사락정기(思樂亭記)”, 『석계유고』에
나오는 “관사사락정(觀射思樂亭)”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기록들이 모
두 정확한 창건연대 또는 크기 및 규모, 그
리고 어느 자리에 있었다는 정확한 위치에
대한 기록은 유감스럽게도 찾아볼 수가 없
다.

다행스럽게도 1982년에 발행된 『서산군
지』 등에 남문리 옛 터미널 주변이라고 기
록되어 있어 천만다행한 일이다.

당시의 학교집은 목조와가 건물들과 목
조초가 건물들도 있었으나 목조초가를 비
롯하여 대부분의 건물들은 멸실되어 없어
졌고 개인의 저택이었던 지금의 건물만이 외롭게 남아 있는데 지금의 건물이
사락정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려당유사(遠慮堂遺事)』에 의하면 화양의숙이 사정(射亭：사락정)을 인수
하여 6간의 교실을 개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학교집은 하나의 건물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 건물은 지금은 개인들의 소유물로 비록 찾아
보기조차 어려운 처량한 건물이 되고 말았지만,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임은 물론 이 지역의 신학문의 시초이며 태안초등학교의 전신이었던 화양
의숙의 일부 건물로 하루빨리 재정비되어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사락정은 화
양의숙으로 변한 후, 1911년에 이르러 태안초등학교가 개교되므로 말미암아



遠慮堂 李 希烈(1831~1918) (출처 · 태안국민학교 80년사)

자연적으로 폐교되어 쓸모없게 되자 개인의 소유물로 변하여 버린 것 같다.

「사락정기(思樂亭記)」-살펴보니, 이 정자는 태안면 남문리(南門里)에 있었는데 중간에 학교가 되었고, 현재는 이 시우(李時雨)가 사는 집으로 되었다. 정자 앞에 예전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것도 경작해서 전답을 만들었다. -바닷가를 삼년 동안 살펴다 보니 진실로 백성을 다스리며 한 지방을 맡은 일이 부끄럽다. 연못을 마주하고 몇 시렁 얹은 정자를 세웠더니 어언간 선비들이 모여 바라보며 덕으로 여겼다. 이에 노진(魯津)에서 의를 취하여 들보를 다스리는 일을 돕도록 했다.

듣자하니, 변방을 공고히 하는 계책은 군비(軍備)를 오로지 숭상하는 데만 있지 않고, 먼 지방 사람을 복속시키는 계책으로는 오직 문치(文致)를 우선시 하여 귀히 여긴다. 이로써 묘족(苗族)은 우계(虞階)의 전쟁에서 바로잡아졌고, 한나라 군대는 노성(魯城)의 학업을 송독하는 소리에 물러갔다. 오직 충신(忠信)을 갑주로 삼고 예의를 창과 방패로 삼으니, 이미 수족이 머리에 달린 것처럼 공고한 기본을 세웠고, 마치 자제가 부형가 맺는 관계처럼 절로 방위하는 공이 있었다. 이에 노인(魯人)은 재반(在津)의 시편을 읊고 회(淮)땅을 정복한 공을 칭송하네. 난기(鸞旗)는 온화한 얼굴 기쁜 낮빛의 교화를 넉넉히 지니고, 사악한 효음(梟音)으로는 절로 죄수를 바치고 왼쪽 귀를 바치는 체를 거두어 들이네.

오직 이 소태군(蘇泰郡)은 해로를 건너는 요충지요 경기도 부근 지방의 율타리라네. 중국과 마주했고 화악(華岳)을 등지고서 호남과 영남을 이끄는 심도(沁都)를 방비하는 곳이네. 조운선과 상선이 왕래하는 곳으로, 다른 복색과 풍속은 살펴볼 바이지. 옛 고려 말에는 떨쳐지지 못했고, 이에 해구의 침략을 입었네. 소인이 한 지방에서 연기를 피워 여우와 토끼의 굴을 만들었고, 기읍(寄邑)이 다른 지경에서 다스려지니 부질없이 영락했다는 탄식이 일어나네. 성조(聖祖)때 이르러 용처럼 일어나 말을 화악(華岳)으로 돌이키시니, 이어 태

종의 어가가 뒤에 그것의 소생을 기다렸네.

이에 가시를 잘라내고 다시 성읍을 세우셨네. 이에 화려한 문루의 곁에 검열의 터를 열었네. 뽕나무 뿌리 얹히고 얹힌 것을 거두어다 음산한 비 내릴 시기를 위해 방비하네. 갈옷 입는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여 귀갑(龜甲)과 패각(貝殼)의 구슬을 가져오게 하네. 백년의 백성과 만물을 짓어들게 하고 천리의 봉토를 편안케 하네. 대대로 승평한 후대를 이어 아끼고 삼가는 풍속을 쉽게 만드네. 하물며 이 정자 저자에 임하였어도 말 타고 활쏘는 일에 거리낄 것 없네. 이로써 융정(戎政)이 폐지되고 해이해지니 오랫동안 변방의 방비에 근심이 없네.

다만 한 우활한 한 서생이 욕되게도 군의 일을 맡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장사들이 분발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했네. 저 성을 두른 네모난 연못을 보면, 옛날엔 연꽃 독에 지은 작은 건물이 있었네. 여러 물길에 휘돌아 삼면에 얹히니 참으로 반벽의 형상이 되고, 먼 호수를 끌어들이 평야를 바라다보니 오로지 한 구역의 승경이 될 수 있네.

이에 계획을 해서 터를 정하고 서까래를 모으고 재목을 모았네. 날랜 삽질을 하여 그 막힌 진흙을 소통시키고, 진흙을 모아 높은 길이를 더했네. 동쪽 벼랑 바위 절단하는 일에 어찌 진편(秦鞭)이 말 몰아 오길 기다리리오? 남쪽 섬에서 보내오는 재목은 바람신의 도움이 있는 것 같네. 편안히 큰 도끼 쓰는 기술을 부리고, 아름답구나! 외진 지역으로 가는 수레 볼만하네. 옛 정자를 둘러보며 감히 선인들이 명명한 뜻을 잊으리오? 새로운 편액 이에 환한데 맨 첫 머리의 사락(思樂)이란 명칭을 서술하네. 종소리 땡땡 울리는 소리를 듣노라니 오히려 사망을 순시하던 성스런 자취가 떠오르네. 물마름 같이 무성한 재학지사(才學之士)들, 재능 있는 이를 기르던 큰 법도를 드러내네.

이 정자에 올라 날마다 노인들, 고을 사람들과 함께 효제(孝悌)의 도를 논하고, 때로 장교와 응졸을 모아 결습(決拾)의 상을 익히네. 아래에서 마시고 읊을 하며 오르니 진실하구나! 그 다툼은 군자로세. 은혜를 점차 펼치고 의로 해

아리니 아! 선왕을 잊지 못하도다.

그런 뒤에 여러 사람의 마음으로 성을 만드니 거의 사방이 편안해지네. 마름과 연, 연밥과 꽃다지, 소나무 계수나무 우거져 침침하네. 무르익은 봄날 상쾌한 가을의 남다른 풍경, 달 뜨는 밤 안개 낀 아침의 유다른 기후. 벼를 데리고 술통을 끌고, 노래 부르고 투호놀이 하네. 높고 확 트인 조망을 지극히 하고, 문무의 이장(弛張)을 갖추었네. 그로써 애타는 가슴을 풀어내고 더러운 생각을 없애 버리고 또한 훌륭한 생각에 보탬이 되어 정치에 도움이 되네.

나와 같은 사람은 문장에 재주가 모자라고, 군대의 일에 대해서도 어둡하네.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쉬우나, 어찌 무성(武城)의 음악 소리에 비하리오? 백리고을의 읍제가 되어 군대의 일을 다스림에 계로(季路)의 정사를 매우 사모하네.

오직 이 폐지된 건물을 개수하는 일은 자문하고 도모하여 모두 의견을 같이 하는 것에 의지했네. 다행스럽게도 고인의 공적을 뒤쫓아 풍화(風化)에 만의 하나 정도 보충하리라 생각했네.

아! 성쇠(盛衰)에 운수가 있지만, 그래도 완성하고 무너짐은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네. 예전엔 일찍이 황야에 무성한 풀로 되어 있었건만, 그래도 벽 바른 이후론 깨진 기와 무너진 담이 되지 않겠지. 조금 문장의 거장을 머무르게 하여 일제히 파창(巴唱)을 듣네.

들보 동쪽으로 던지니, 화악(華岳)이 반공에 우뚝하게 솟았네. 이 땅에 머물러 길이 거두지 않으니 무성한 맑은 기운 응호함을 잉태했네.

들보 남쪽으로 던지니, 극포(極浦) 희미한 곳에 작은 섬 여러 개. 칠치(漆齒)와 조제(彫題)는 아직 공물을 바치지 않는데, 해 떠오르듯 성은이 미치네.

들보 서쪽으로 던지니, 멀리 봉래산을 가리키자 길 희미하지 않네. 천년의 지사(志士) 원대한 감개 일으키고 전횡(田橫)의 의열 청제(靑齋)에 빛나네.

들보 북쪽으로 던지니, 새로 공부하는 집을 화악 북쪽 기슭에 지었네. 고각

소리 밤새도록 울릴 필요 없으니 용단(戎壇)과 문원(文苑)이 서로 대적하네.

들보 위로 던지니, 한낮의 해 뜬 푸른 하늘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네. 태수는 화락한데 빈객은 따르고, 술 마시다 시 읊으며 함께 취해가네.

들보 아래로 던지니, 연못 물 가득 넘쳐 모종을 심네. 독 아래 좋은 밭 마르는 일 없는데, 아득히 펼쳐진 황운(黃雲) 평야에 가득하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후에 사람들은 지향할 바를 알고, 선비들은 모두 힘쓰고 연마하길. 칼을 갈고 창을 단련해 크게 태평하고 즐거운 습속을 떨치고, 옷사람을 친히 하고 어른을 섬김에 충애(忠愛)를 품은 마음을 든다. 확장되기를 공경히 기다려 제사올릴 때를 웃으며 이야기하고, 큰 물결 고요해지면 도서(島嶼) 간의 완악함을 교화시키네. 길이 우리 백성들의 삶을 보듬아 함께 성세의 함육을 입으리. 궁시(弓矢)를 노래하는 것이 어찌 노나라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는 일이라? 연비어약(鳶飛魚躍)의 문장으로 장차 다시 주아(周雅)를 계승하리. 그것을 위해 송축하며 다 펼쳐 말하지 않네.

연소(蓮巢) 조 존화(趙 存華). (서산군지, 1926.)

「사락정 개작학교기(思樂亭改作學校記)」-태안-

화산의 남쪽에 반궁(泮宮)이 있고, 반궁의 남쪽에 사락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으니, ‘즐거운 반수(泮水)’라는 노송(魯頌)의 의 뜻을 취한 것이다. 즐겁구나, 이 정자여! 정자를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옛날 최익수(崔 益秀) 군수가 창건해서 향사례(鄉射禮)를 익혔고, 그 후 송관화(宋 觀和) 공이 중수하여 무예의 군셈과 문풍의 율율함을 일으키셨으니, 지금에 이르러서도 선비들과 관리들이 회자하고 귀에 듣는 이야기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루어져 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어언 기와는 깨져 원앙이 날아가니 서리만 차갑게 내리고, 우뚝하니 빈 누대에 봉황은 가버리고 강물만 흘렀다. 왕왕이 정자를 들르는 문사(文士)들이 머뭇거리며 탄식하기를,

“누가 다시 이어서 수리하여 전날의 성대한 일을 보게 될까?”라고 하였다.

이즈음 교육이 발달할 때였는데, 서산군수 이 기상(李 基祥)이 전일한 정성으로 누만금의 자본을 아까와 하지 않고 정자의 북쪽에 한 건물을 지어 화양 의숙(華陽義塾)이라 편액하고 곁으로 일향의 뛰어난 사람들을 초치하고 5년의 경비를 구하여 썼다. 그의 위대한 공적은 족히 사방을 교화하고 백대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 집을 지었으니 너른 집에서 인재를 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아! 4리(里)의 노성한 사람들이 일시에 다 모의하여 이 정자를 일으켜 중수하기로 하고 저 의숙을 더욱 넓히기로 하였다. 누가 그 일을 감독하였는가? 김 규항(金 圭恒)·이 기승(李 基升)·나 윤광(羅 潤光)·이 종옥(李 鍾玉)이 음식을 먹고 마실 겨를도 없이 크게 하고 처내는 그 공을 감독하였고, 생산을 돌아보지도 않고 파고 쌓는 노역을 서로 권면하였다.

또 의연금으로 말하자면, 이 기석(李 基奭)의 2500금, 이 기홍(李 基洪)의 1000금, 김 동희(金 東熙)의 500금, 백 낙민(白 樂旻)과 손 창현(孫 昌顯)이 각각 400금, 이 종옥(李 鍾玉)의 300금, 이 기현(李 基顯)과 김 기선(金 基善)이 각각 200금, 박 종언(朴 鍾彦)과 강 홍린(姜 洪麟), 이 순삼(李 順三)이 각각 100금으로 합하여 5800금이었다. 또 옥하리(沃下里) 조(租) 40석, 남문리(南門里) 조 60석, 동문리(東門里) 조 33석으로 합하여 133석이었다.

그 초기에 한 말 두 말의 이익이나 오년 십년의 이자는 다 들어 학교로 들어 이인(里仁)의 뜻으로 찬조하였고, 시의(市義)를 고르게 하여 성취하였다. 아! 아름답다! 저 속세 사람들을 보면 모두들 이익에 대한 욕심이 도도하니, 진실로 호학의 정성이 마음에 쌓여 밖에 드러난 자들이 아니라면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기를 이처럼 부지런히 간절히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어린 선비들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고 당에 올라 먼저 『맹자』와 『중용』, 『대학』을 대로 익히게 하고 이어 어학과 농학, 율학을 다달이 익혀 나가게 한다

면 장차 어둑한 고을로 하여금 빈빈한 문채를 볼 수 있게 하리니, 이 어찌 천고에 다시없을 한 큰 성사가 아니리오? 전대의 최(崔) 후(侯)와 송(宋)공의 공적이 어찌 그 아름다움을 독차지할 수 있으리오? 또한 지금의 일도 아름다울 수 있다.

태수 최 학래(崔 鶴來)가 열심히 찬미하고 박수치며 탄상하여 말하기를, “이 고을의 이 일은 불후하게 전할 만하다.”하고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셨다. 나는 관통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좁은 견식과 향아리를 덮을 만한 거친 말을 지닌 사람이라며 사양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억지로 기문을 썼다.

융희 3년 기유(1909) 난사(蘭史) 조 희천(趙 羲天) (서산군지, 1926.)

태안공립 보통학교는 태안면 남문리에 있다.

연혁 : 융희 3년 최 학래(崔 鶴來)가 태안 군수였을 때, 이 기상(李 基祥)·당시 서산군수)이 한 고을의 준재의 교육을 위하여 먼저 거금을 기부하고 아울러 그 형 이 기석(李 基奭)과 유지 이 기홍(李 基洪) 김 동희(金 東熙) 백 락민(白 樂旻) 손 창현(孫 昌顯) 이 종규(李 鍾圭) 외 다섯 사람이 580원을 기부하여 동남문 양리에 벼 133가마를 재원으로 하여 사립 화양의숙(華陽義塾)을 설립하고 남문리 관소유 건물 사락정(思樂亭)에서 개교하였다. 명치 44년(1911) 9월 1일 공립 설립의 인가를 받아 위에서 기록한 의숙생도를 인수받아 개교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태안공립 보통학교로 개칭하였다. 당시에 2학급의 아동수가 불과 46명이었다. 같은 해 11월에 조선교육령 및 보통학교 규칙이 발표되어 폐교하고, 45년에 교실 1동 27평을 증축하였는데 이때 든 공사 경비가 999원이었다. 4월에 농업과를 가설하여 2학급을 편성하였다. 6월에 칩어등본이 내려졌다. 대정 2년 3월에 3학급을 설립하였고, 7월에는 4학급을 설립하고 교실 1동 27평을 증축하였는데 이때 든 경비는 830원이다. 대정 6년(1917) 3월에 1개의 교실을 증축하였는데 이때 든 경비는 976원이다. 같은 해 8월에 3학급으로 축소시켰고, 대정 9년 4월에는 4학급으로 다시 편성하였

다. -여자 1학급을 증성하였다. -같은 해 9월에 경비 14000원을 투자하여 백화산록(白華山麓)에 있는 현재 학교 교사 175평을 신축하였다. 11월 27일에 이전하였다. -구 교사 건물 사각정은 후에 태안 이 시우(李 時雨)에게 매각하였고, 해마다 증축하였던 새로운 교사 건물은 후에 서산여자 잠업 전습소에 매각하였다. -대정 10년(1921년) 4월 6학년제로 연장하였고, 같은 해 7월 5학급으로 편성하였다. 대정 12년 4월 6학급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해 10월 교실 2개 50평을 증축하였다. 대정 13년 4월 8학급을 설립하였고 14년 한 교실 25평을 증축하였다.

연 별	학 생 수	직 원 수				생 도 수								생 도 합 계	경 비			경상비		1 월 1 인 수 업 과
		성 별	내 지 인	조 선 인	계	성 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부 설 과		경 상	임 시	계	일 학 급 당	생 도 일 인 당	
대정 5년	4	남	1	4	5	남	3	35	30	28			127	142	원	원	원	원	원	200
		여				여	15		1				16							
대정 11년	5	남	1	3	5	남	84	47	46	3	27	14	248	287	7486		7486	1497	26	400
		여		1		여	15	10	12	3			39							
대정 12년	6	남	2	4	7	남	86	71	74	67	35	24	357	393	10340		10340	1723	26	400
		여		1		여		12	12	12			36							
대정 13년	8	남	2	4	8	남	76	73	76	70	82	51	428	514	12302	150	12452	1538	25	500
		여		2		여	30	26	10	12	8		86							
대정 14년	8	남	2	5	9	남	32	64	68	79	85	78	406	468	9541	2680	13221	1193	20	500
		여	1	1		여	8	14	19	8	9	4	62							
대정 15년	8	남	2	5	9	남	74	36	47	53	77	62	350	408	10324	3805	14129	1190	23	500
		여	1	1		여	12	5	13	12	7	9	58							

교과목 -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역사, 지리, 이과, 도화, 창가, 체조, 농업, 한문, 재봉-

교사 평수는 281평 2합 5작-교실 3동을 아울러 교사에 부속하였다.-

교지 평수는 1288평

학교 교정과 실습지 평수는 1255평

학교림의 면적은 64370 평

졸업자 수는 설립 이래로 대정 14년까지 남자 182명

생도 연령 최저 7세 최고 19세 기혼자 88명 미혼자 388명-14년 재적자-

-1926. 서산군지-

기록

「태안군신학기(泰安郡新學記)」

옛날에 학교를 세운 것이 하나가 아니었고 그 세운 곳 또한 한 군데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교를 부를 때 집에 있으면 숙(塾)이라고 하고, 당(黨)에 있으면 상(庠)이라 하여 이름은 비록 달랐지만 모두 윤리를 밝히고 인재를 키워 문치(文治)를 일으키는 곳이었다.

이 군은 삼한(三韓)에서 호주(湖州)의 서쪽 모퉁이에 있었고, 고려조 초기에 이르러 호주를 잘라 부성(富城)·지곡(地谷)·소태(蘇泰) 세 현을 만들었고, 부성에 수령을 두어 지곡과 소태현을 거기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부성을 승격시켜 서주(瑞州)로 만들었다. 원(元)나라를 섬길 때에 이르러 소태현 사람 이대순(李 大順) 공이 원 왕조를 도와 황제의 조칙을 구해 이 현을 승격시켜 태안부를 삼았으니, 학교를 세우는 뜻이 인륜을 밝히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지정(至正) 경인년(1350)으로부터 섬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하고 거의 다 흩어지고 빈관(賓館)과 관아가 무성한 풀로 가득

찾으니 학궁이 보존되기를 바랄 수 있었겠는가? 황명 홍무(洪武) 경오년(1390)에 이르러 진을 설치하고 독을 쌓아 살아남은 이민(吏民)을 모으고, 그 가운데 문무를 모두 갖춘 신하를 뽑아 그 진주(鎭主)로 삼아서 밖으로 막고 안으로 위무하게 한 뒤에야 백성들이 다스려져 토착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비록 초석 없는 초가집을 만들어 그 사이에서 가르치며 학궁을 삼았지만 옛 제도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니 군자들에게 유감이 없을 수 없었다.

지금 병마절도사 김 중구(金 仲鉤) 공은 전 왕조 세가(世家)의 자손으로 문재(文才)와 무략(武略)이 남보다 뛰어나 임금의 아낌을 받더니, 영락(永樂) 계사년(1413)에 대장군으로 이 군에 출진하여 위엄으로 군대를 위무하고 관용으로 백성을 다스리니, 군사와 이민(吏民)들이 즐거이 그의 명령을 따랐다. 공은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힐문하기를, “옛날 성대한 시절에는 집에도 오히려 숙(塾)이 있었는데, 하물며 큰 군으로써 학교가 옛 제도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게 가당합니까?” 하였다. 그러자 모두들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정업에 복무하지 않는 여유 일손을 모집하고 재목을 모아 마침내 성의 서북쪽에 승지를 정하였다. 먼저 문묘를 짓는데 3칸으로 나누어서 양무를 만들었으며 그 사이는 모두 묘(廟)처럼 진흙을 발랐다. 일을 마치자 생원(生員) 최 상운(崔尙沔)을 덕산(德山)에서 예로 맞아들여 학사(學師)로 삼고는 경서를 강명(講明)하여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 빠르게 문치의 흥함으로 나아가 폐해지 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 학교가 흥하는 것이 비록 기운의 성대함에 관계되지만, 또한 반드시 마땅한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경인년 이래로 6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천도가 이미 한 바퀴를 돌았고 기운의 수도 변하였으니, 비색한 운이 이미 잠식되고 형통한 운이 막 와서 학궁을 이루는 것도 마침 제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어찌 장담하랴? 남문을 일으키고 담장을 개축하며 기와를 굽고 띠풀을 바꾸어 불후하게 되길 도모하는 것은 장차 후에 올 군자들에게 달려 있다. 병신년 정월 8일

저정(樗亭) 유 백유(柳 伯濡)가 쓴다.

「향교에 쓰다(題鄉校)」

소학(小學)은 참으로 만세의 스승이니

정주(程朱) 일맥이 여기에 부쳐 있네

제생들은 애써 수행의 노력을 다해

함께 순정한 유자들이 성인을 보필하는 때를 만들어보세.

정덕(正德) 정축년(1517)에 관찰사 김 안국(金 安國)

위의 17년 정축년 선달 4일 후 공주목 유학 정 인채(鄭 仁采)와 청주목 유학 맹 흠호(孟 欽昊), 홍주목 유학 이 주한(李 柱漢) 등이 회덕(懷德)과 전의(全義) 등 좌우 도 13읍의 선비들과 함께 재계하고 재배하며 선화당(宣化堂)에 상서하기를, “우리 황명 정덕(正德) 정축년 모재(慕齋) 선생 김 안국(金 安國) 공께서 영남을 안찰하시며 소학(小學) 한 책으로 72주에 크게 유도의 덕화를 일으키시고, 소학을 읽으라고 권하는 시를 교궁에 두루 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그 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합하께서 안찰하시던 해도 마침 정축년을 당해서 한창 유도를 높이고 시교(詩敎)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선생께서 호서의 54읍에 소학을 유포하신 것으로 선생의 지극한 뜻을 체현하셨으니 예나 이제나 영남과 호서가 똑같다고 어찌 건주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경건히 답하기를 “제생들이 다시 일어나 재배하며 ‘합하께서 이미 많은 선비들의 청을 따라주시니 생들이 감히 밤낮으로 성실히 하지 않으리오?’라고 하였는데, 선생의 시는 이것을 가르친 것이니 마침내 그 말을 기록하고 또 경건히 김 안로 선생의 원시에 차운해서 다음과 같이 시를 쓴다. ‘수학의 글은 후학의 스승이 되니 / 선생의 시의는 이와 같기를 권하는 것이라네. // 정축년이 거듭 도니 / 유풍을 당겨 옛날에 건주려 하네. //’”

정덕 기원후 정축년, 관찰사 권 상신(權 常愼).

승정 기원후 다섯 번째 신미년-고종 8년(1871)-11월 일 중수 계편(揭扁).

재임 조 존주(趙 存周) · 이 문영(李 文榮) · 이 태진(李 泰鎭) · 윤 세환(尹 世煥)

「중수기(重修記)」

아! 세상을 보필하고 백성을 키우는 것으로 덕 있는 이를 높이는 것만 한 게 없다. 왜 그럴까? 성묘를 개수해서 준공하는 것은 촉후(蜀侯)의 성대한 일이고, 인사(仁祠)를 수리해 교화를 펴는 것은 변자(汧刺)의 아름다운 법규이다.

돌아보건대 이 태안읍은 우뚝한 높은 인장(仞牆)이니, 지난 신미년에 우리 선인께서 재궁(齋宮) 중수의 임무에 참여하셨는데 그 이래 31년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무너졌으니 일은 큰데 힘은 약했다. 온 고을의 뜻있는 선비들이 문을 잡고 존모하고 동우(棟宇)를 바라보며 길이 탄식했다.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수 이 기석(李 基奭) 공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셔서 이 곳이 바로 금의환향하는 곳으로 응당 이 영광보다 높은 게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 때마침 흉년이 들어 다른 것에 힘을 겨를이 없었는데도 공해(公廩)를 증진할 때는 기초를 닦는 데 크게 힘을 냈고, 성묘를 중수할 때는 재물을 모으는 데 공로를 드러냈다. 그래서 저것을 크게 하기도 하고 저것을 쳐내기도 하고, 옛 관습을 따르기도 하며 개작하기도 하였다.

크고도 환하구나. 새로운 공을 고하며 칭송한다. 전후로 녹봉을 기부한 것이 삼천 여금에 이르니, 봉공(奉公)의 절도와 존성(尊聖)의 정성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위대하구나! 촉후의 일과 변자의 법규가 어찌 옛적에 아름다운 명성을 독차지하겠는가? 지금에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할 만하다. 어질구나! 우리 군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碑)를 만들어 불후하게 전하였는데, 때로 유림들이 내게 글을 지어 기를 써 달라고 청하기에 감히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사양하지 못하고 그 대략을 모아 억지로 기문을 쓴다.

성상(聖上) 광무 오년(1901) 신축년 10월 상순, 조 희천(趙 羲天) 씀.

재임 조 도현(趙 道顯) · 윤 백선(尹 百善) · 이 두훈(李 斗薰) · 안 병선(安 炳善)

서재임 이 상현(李 商顯)

「계편(揭扁)」

본 군의 참봉 백 낙호(白 樂昊)는 본관이 수원이다. 본래 의로움을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정으로 가난하는 이들을 구휼하여 당시에 칭찬을 받았다. 세대는 내려오고 날은 변하는 때에 교공의 재산은 달리 남은 게 없는 처지여서 봄 가을 석전제의 절목을 점차 박하게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어찌 민망하고 절박하지 않겠는가? 이에 백공이 기미년에 특별히 돈 100원과 조(租) 한 포를 기부해서 제사의 경비를 도왔다. 그가 의로움을 내어 성인을 존송하는 정성은 전체 군 가운데서 독자적이라 이를 만하다. 아름답고 위대하구나! 온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편액으로 표제해서 영원히 불후할 이름을 전하기로 하였다.

공자 2472년 신미년 2월 일,

재장(齋長) 이 시우(李 時愚) · 조 희천(趙 羲天) · 윤 병두(尹 秉斗) · 직원 김 익범(金 翼範)

「중수문(重修文)」

도(道)는 천지에 있으면서 예(禮)로 인해 밝게 드러나고, 예가 세교(世敎)에 보탬이 됨에는 마땅한 사람을 기다려서 길이 전하여진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그것이 우리나라 향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지난 병진년 봄에 전 직원 조 수현(趙 壽顯)과 유생 윤 세휘(尹 世暉)가 공자님을 모신 전각이 무너지고 썩은 것에 개탄하고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모아 재물을 모으고 준공을 하였으니, 그 세교에 보탬이 되고 성인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한 지극한 것이었다. 내가

마침 외람되게도 재임의 직명을 입고서 군내의 많은 선비들에게 말을 듣고 대략 두렵지 못한 말로 감히 몇 자 기록한다. 그로써 두 유자의 애씀에 대해 찬미하고 고을 중의 기부금을 낸 여러 선비들을 치하한다.

갑자년 늦봄 상순, 직원 한 궁구(韓 兢履), 장의(掌議) 윤 세휘(尹 世暉) · 윤 향선(尹 恒善)

초등학교(初等學校)

태안읍내의 초등학교는 태안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백화, 화동, 송암 등 4개 교에 이르고 있다. 남문리에 위치한 학교와 연혁 및 학교장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태안초등학교(泰安初等學校)



1941년 태안초등 학교 (출처 · 태안국민학교 80년사)

1905년에 세워진 화양의숙(華陽義塾)은 우리 지역의 신교육에 대한 신기원이 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911년 9월 1일 태안공립보통학교가 개교 되면서 화양의숙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워지게 된 태안공립보통학교는 태안국민학교(泰安國民學校)라는 이름을 거쳐 태안초등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기에 이르렀는데 태안국민학교 80년사를 담은 통사(通史)에 의하면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에 의하여 설립된 태안공립보통학교는 일본의 식민 정책에 의하여 초대 교장에 내등순장(內騰順藏 : 재임기간 1911~1917)이 부임하게 된다.

당시의 보통학교는 군인(軍人)이 아닌 교원(敎員)까지도 군복을 입히고 허리에 칼을 차게 함으로써 배우는 학생들에게 무서움을 심어주었으며 식민지(植民地)인 조선백성들을 총검으로 위협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 후 1919년에 발생한 3·1운동의 영향으로 1922년 제1차로 교육령(敎育令)을 개정, 본격적인 일본화 교육을 피하게 되었으며, 1931년에 발생한 만주 사변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대륙침략의 아욕은 조선의 말살정책으로 이어져 급기야는 조선을 그들의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삼아 인적, 물적 수탈과 함께 조선인을 일본으로 만들려는 철저한 식민교육정책을 펴나가기에 이른다.

이러한 시기에 태안의 보통학교는 태안공립보통학교 1개교로서 교육은 철저하게 식민지 교육을 시행하였지만 태안반도의 대표적인 학교로서 1920년대에 광영신숙이 보통학교로 변하게 된 안면공립보통학교를 비롯하여 근흥, 소원, 이원, 남면 등의 5개 학교를 분리 설립하는데 모체의 역할을 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원북, 모항, 황도, 안흥, 안중(분교) 등의 5개교가, 1940년대에는 방갈 등의 보통학교가 설립되는 등 많은 변혁을 가져오다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보통학교 시대를 마치게 된다.

태안공립보통학교는 공립심상소학교와 공립국민학교를 거쳐 1949년 12월 31일 국민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다시 태안초등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혁을 가져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태안초등학교의 연혁 및 학교장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 연혁

- 1911. 9. 1. 태안공립보통학교로 개교
- 1933. 4. 1. 태안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 1941. 4. 1. 태안공립국민학교로 개칭
- 1949. 12. 31. 태안국민학교로 개칭
- 1996. 3. 1. 태안초등학교로 개칭
- 2006. 2. 16. 제93회 졸업(총 19,940명)
- 2006. 3. 1. 36학급 편성(특수학급 1, 유치원 2)

○ 역대 교장 일람표(광복 이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내등순장(內騰順藏)	1911~1917
2대	농전호지조(農田號之助)	1917~1920
3대	중미주태랑(中尾猪太郎)	1920~1924
4대	지 번보(池 邊保)	1925
5대	대우희행(大友喜幸)	1926
6대	림 병덕(林 炳惠)	1927
7대	소견상풍심(小見山豐心)	1928~1930
8대	유림영인(楢林榮人)	1931~1933
9대	길전직태(吉田直太)	1934~1937
10대	길전웅치(吉田熊治)	1938
11대	근등덕부(近藤德夫)	1939
12대	윤 창구(尹 昌求)	1940~1941
13대	삼원미시랑(杉原彌市郎)	1942
14대	사도철이(寺島鐵二)	1943~1945

○ 역대 교장 일람표(광복 이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안 명선(安 明善)	1945. 10. 2.~1947. 7. 31.
2대	정 성모(鄭 聖模)	1947. 8. 1.~1949. 4. 30.
3대	김 규식(金 奎植)	1949. 5. 1.~1954. 5. 7.
4대	김 병섭(金 炳燮)	1954. 5. 8.~1961. 3. 31.
5대	장 순화(張 淳化)	1961. 4. 1.~1964. 4. 30.
6대	박 성환(朴 性煥)	1964. 5. 1.~1971. 8. 31.
7대	문 권혁(文 權爌)	1971. 9. 1.~1976. 8. 31.
8대	이 기헌(李 起憲)	1976. 9. 1.~1980. 8. 31.
9대	가 재설(賈 在契)	1980. 9. 1.~1985. 8. 31.
10대	유 태영(柳 泰榮)	1985. 9. 1.~1988. 2. 28.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1대	명 용진(明 容鎭)	1988. 3. 1.~1991.8. 31.
12대	채 규태(蔡 奎台)	1991. 9. 1.~1993.8. 31.
13대	류 상동(柳 商東)	1993. 9. 1.~1997.3. 1.
14대	전 영석(全 泳奭)	1997. 3. 1.~1999.8. 31.
15대	조 원선(趙 元善)	1999. 9. 1.~2000.8. 31.
16대	정 동렬(鄭 東烈)	2000. 9. 1.~2004.4. 2.
17대	조 원선(趙 元善)	2004. 3. 1.~2006.8. 31.
18대	한 광수(韓 光洙)	2006. 9. 1.~현재

태안여자고등학교

태안여자고등학교는 태안을 남문리의 41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3년 7월 4일 박 채근 선생이 초대 이사장으로 학교법인 동양학원의 설립 인가를 받아 1974년 1월 5일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세우고 같은 해 3월 2일 개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박 채근 이사장이 별세하자 그의 아들인 박 상복 선생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1975년 1월 9일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정성을 쏟아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태안여자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① 민족의 긍지와 투철한 국가관을 지닌 애국인을 기른다. ② 협동 봉사하는 자주성과 교양있는 여성을 기른다. ③ 새로운 기능을 익혀 우수한 실무 능력을 갖춘 실업인을 기른다. ④슬기롭게 생각하고 학습하는 창조인을 기른다. ⑤ 명랑하고 진취적인 튼튼한 건강인을 기른다.” 등이고 교훈은 ‘지혜 · 성실 · 봉사’ 이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 교조는 ‘비둘기’ 이다.



태안여자고등학교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연혁

1973. 6. 20. 학교법인 동양학원 설립 인가

1973. 6. 27. 초대 이사장 박 채근 선생 취임

1974. 1. 5.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 인가(학년당 상업과 3학급)

1974. 1. 13. 초대 최 승렬 교장 취임

1974. 3. 1.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개교(개교기념일 4. 27)

1974. 10. 29. 학칙 변경 인가(학년당 상업과 5학급)

1975. 1. 9. 제2대 박 상복 이사장 취임

1975. 3. 1. 제2대 김 기풍 교장 취임

1975. 10. 27. 학칙 변경 인가(각 학년당 상업과 7학급)

1979. 10. 15. 학칙 변경 인가(각 학년당 상업과 9학급)

1981. 3. 1. 제3대 박 춘석 교장 취임

1983. 7. 20. 학칙 변경 인가(각 학년당 상업과 6학급, 회계과 2학급, 정보처리과 1학급)

1984. 10. 6. 학칙 변경 인가(각 학년당 상업과 5학급, 회계과 2학급, 정보처리과 2학급)

1986. 10. 10. 학칙 변경 인가(각 학년당 상업과 5학급, 정보처리과 5학급)

1987. 9. 10. 학칙 변경 인가(각 학년당 상업과 5학급, 정보처리과 5학급)

1996. 3. 1. 제4대 최 치열 교장 취임

1997. 3. 1. 제5대 김 문수 교장 취임

1997. 8. 14. 학칙 변경 인가(각 학년당 보통과 2학급, 상업과 3학급, 정보처리과 5학급)

1998. 8. 26. 학칙 변경 인가(교명 변경 : 태안여자고등학교)
(각 학년당 보통과 2학급, 사무자동화과 3학급, 정보처리과 5학급)

2001. 9. 1. 제6대 이 원국 교장 취임

2003. 6. 30. 학칙 변경 인가(각 학년당 보통과 2학급, 유통경영과 3학급, 정보처리과 5학급)

2005. 2. 12. 제29회 졸업식(314명), 총 졸업생 12,994명

2005. 3. 1. 제7대 김 동환 교장 취임

2005. 8. 22. 학칙 변경 인가(각 학년당 보통과 4학급, 정보처리과 6학급)

2006. 2. 10. 제30회 졸업 291명(연 13,285명)

○ 역대 교장 일람표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최 승렬	1974. 1. 13.~1975. 2. 28.	5대	김 문수	1997. 3. 1.~2001. 8. 31.
2대	김 기풍	1975. 3. 1.~1981. 2. 28.	6대	이 원국	2001. 9. 1.~2005. 2. 28.
3대	박 춘석	1981. 3. 2.~1996. 2. 28.	7대	김 동환	2005. 3. 1.~현재
4대	최 치열	1996. 3. 1.~1997. 3. 1.			

○ 태안교육청 남문리 학원 현황

순	학 원 명	학원장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1	세진컴퓨터학원	김 정일	태안읍 남문리 182	672-7121	1997. 6. 24.
2	태안요리학원	한 정선	태안읍 남문리 307	675-6799	2003. 1. 25.
3	열린입시학원	황 해영	태안읍 남문리 570-1	673-2327	1999. 1. 26.
4	스쿨존입시학원	성 기남	태안읍 남문리 212	675-0599	2004. 12. 17.
5	이덕영입시학원	이 덕영	태안읍 남문리 698-3	672-0259	2005. 4. 13.
6	열린외국어학원	황 해영	태안읍 남문리 570-1	673-2327	1990. 2. 28.
7	석씨스쿨영어학원	최 병권	태안읍 남문리 280-2	672-0304	2003. 12. 11.
8	바하음악학원	김 남숙	태안읍 남문리 481-7	673-1203	2001. 9. 10.
9	한소리피아노학원	김 은석	태안읍 남문리 276	674-0268	1999. 2. 25.
10	예쁜손피아노학원	김 선미	태안읍 남문리 570-1	673-2326	1999. 4. 24.
11	예원피아노학원	김 혜숙	태안읍 남문리 281-2	674-5477	2000. 3. 18.
12	선음악학원	백 일선	태안읍 남문리 495	675-3474	2000. 6. 15.
13	색동미술학원	최 미숙	태안읍 남문리 279-1	674-2248	1988. 6. 14.
14	박라정미술학원	박 라정	태안읍 남문리 276	675-4709	2002. 3. 11.

태안(泰安)면 남문(南門)리 진흥회 사적

대정5년(1916년) 9월에 조직됐고 회장은 김 병선(金 炳善), 회원은 151인이 다. 조장을 두어 매월 음력 15일에 회의 조장이 사향을 혐의하고 법령을 전달 했다. 대정11년(1922년) 이래로 노동 청소년을 모집해서 야학을 세웠는데 그 경비가 한 해 약 400원이 들었다. 이 화학(李 華鶴)이 담임교수였는데 성적이 매우 좋았으며 신문이나 월보를 윤회했다. 대정10년 이래로 1인당 다섯 되의 모조(牟租)를 모아 저축해서 저리로 가난한 사람들의 농자금으로 융통했다. 대정12년(1923년) 이래로 또 아침저녁으로 씻을 쌀에서 한수저씩 아낀 쌀을 모아서 현재 적립된 금액이 400원이 되었다. 남면(南面)의 선로와 교량이 갖

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본 회에서 320원을 투자하고 394명을 모아 일을 해 석교를 가설하고 완공하여 통행하게 했다. 매년 경로회를 열어 술과 고기, 차와 과일을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접했다. 묘포 2만보를 설치해 소나무 씨앗 2말을 심었다. 또 동문리 진흥회와 연합해서 백화산(白華山)에 숲을 조성해 뽕나무 묘목 500그루를 심어 뽕나무밭의 본보기가 되었다. 회원들의 아내를 모집해서 치잠을 공동으로 사육했으며 납세 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장려했다.

진흥회 실행사항을 덧붙임-회 규약 준칙을 골라서 뽑음-

1. 법령의 전달 철저
2. 취학 아동의 취학 권유
3. 국어의 보급
4. 관공서 학교의 연락을 긴밀하게 할 일
5. 강연회, 연구회의 개최
6. 강연회, 품평회 등에 역원의 출석
7. 신간, 구적(舊籍), 신문 잡지 등의 구입
8. 근검 저축의 장려
9. 납세준비금 적립 권장
10. 도로제방 등의 공동 개수
11. 도로병목의 식수 및 보호
12. 기타 진흥회 회원의 실행사항 독려

제1 덕업상권(德業相勸)

- 1) 충효를 소중히 하고 선행을 높일 일
- 2)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아낄 일
- 3) 내선인의 융화를 도모하고 화충협동의 미풍을 일으킬 일
- 4) 근검하는 일에 정려하고 게으름이나 사치를 경계할 일

제2 과실상규(過失相規)

- 1) 도박, 잡기를 금하고 오락을 개선할 일
- 2) 관혼상제를 질박하게 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할 일
- 3) 문묘를 존중하고 미신, 음사의 누습을 타파할 일
- 4) 조혼의 폐를 바로잡고 소년의 흡연과 음주를 금지할 일

제3 예속상교(禮俗相交)

- 1) 관혼상제에는 경조의 예를 차릴 일
- 2) 축제일에는 국기를 게양할 일
- 3) 총회에는 반드시 출석할 일

제4 환난상구(患難相救)

- 1) 재난을 구하고 빈궁을 구휼해서 이웃간에 서로 돕는 미풍을 조성할 일

제5 산업개량

- 1) 부업에 힘쓰고 저축을 할 일
- 2) 소작인을 애호할 일
- 3) 농작물은 개량종을 재배할 일
- 4) 개량농구를 사용할 일
- 5) 퇴비제조법을 개량할 일
- 6) 추경을 실행할 일
- 7) 숲을 조성을 신속하게 이룰 일
- 8) 축산을 개량할 일

제6 위생

- 1) 종두에 힘쓸 일
- 2)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예방주사를 맞을 일
- 3) 변소의 설비를 위할 일
- 4) 음료수의 개량을 위할 일
- 5) 가택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일
- 6) 파리의 구제에 힘쓸 일

－ 1926. 서산군지 －

태안체육회

‘체력은 국력이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체력에 깃든다’ 서양운동이 들어오면서 서양인에 의해 전해진 격언이다. 우리 태안지역에 체육이 들어온 것은 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동의 시작은 1918년쯤으로 봐야한다. 그 당시에 불러졌던 ‘태안 새자랑가’에 ‘뽕뽕뛰는 테니스볼’이란 내용을 참작하면 약 90여년 전에 테니스를 열심히 했다는 정경이다.

당시 테니스장은 읍사무소 남쪽인 경이정 중간 넓은 마당이었다. 경남여객이 차고를 짓느라고 테니스코트를 없앤 것인데, 그 후 태안초등학교로 옮겼다. 체육단체가 시작된 것은 약 70년전 태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교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활동사항은 미미했으나 원래 태안사람이 운동에 소질이



있고 좋아했기에 1933년쯤 서산군내 초등학교 대연합 운동회에서 태안학교가 종합 1등을 하여 우승기를 차지하기도 했다.

청년들도 육상(릴레이)이 주종목이지만 어느 대회든 출전하면 우승하였다. 대전을 위시하여 외지에 군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는 태안선수가 우승은 따놓은 상태였다. 1938년에 태안 서산간 왕복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선수는 30명이었다. 물론 우승자는 남문리 김 명환이었다. 이분은 만능 운동선수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남과 북) 육상경기대회에 단독 출전하여 100m에 2등을 하였다.

이 당시 지역에서의 운동종목은 몇 가지 안되었으며, 육상 단거리, 릴레이, 마라톤, 씨름, 간혹 철봉(평행봉), 역기(역도) 등은 김 병준, 김 용기가 우수했다. 정구 종목은 비교적 보급이 잘되어 신사운동이라는 소문때문에 부러움도 받았었지만, 지금이야 각 학교마다 테니스 코트장이 갖춰져 있지 않은가.

당시에는 초등학교 코트장 하나에서 연습도 하고 외지 선수단을 초청하여 시합도 하였다. 재미있는 일은 소년들은 나무로 만든 정구채를 만들어 벽에 대고 혼자서 열심히었다. 코트장은 어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차례가 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축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경평전이었는데, 평양팀이 강팀으로 평가된 것 같다. 태안에도 축구바람은 불었으나 선수인원 충당 등 어려움이 많아서 활발한 움직임은 없었다. 8·15 해방후에 축구팀이 구성되어 활동한 것은 태안체육회 축구부가 활약한 보람이 있었다. 농구는 초등학교에 시설은 있었으나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격세지감이 있지만, 좀 늦게 야구바람이 불어 야구단을 조직하였으나, 이 운동은 장비가 많아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서로가 도와주며 어렵게 구성이 되었다. 면 소재지에 야구단을 만든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다. 지금 시대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합 대상팀 범위도 군청 소재지인 서산에 한

팀이 있어 우승기도 상품도 없는 시합이었다.

일본의 세계지배 야욕이 꺾어지고 자유민주와 함께 스포츠도 수용 확대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설립되고 사회적으로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태안사람의 본성인 운동소질이 다시 작동했던 것이다. 이에 태안의 체육인 각 기관 유지 출향인 선후배의 총의에 의하여 개인적인 체육활동에서 벗어나 단체적이고 계통 계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태안체육회를 조직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명예회장에 이 상희 의원, 회장에 남문리 이 주진, 부회장에 박 국환, 가 충로 등 기타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주진 회장의 적극적 활동으로 우선 브라스밴드를 구성한 것은 체육진흥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에 회장이 서울로 이사하여 2대 회장에 남문리 박 국환, 부회장에 김 홍덕, 이 용우가 하였다. 3대 회장에는 이 화형, 지 우하가 선임되었다.

박 국환은 서산군수로부터 체육진흥에 대한 공로패도 받은 바 있으며, 회장 임기중에는 씨름(난장)대회, 축구대회, 배구대회, 전국 여자정구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군민체전, 도민체전을 비롯하여 외지 출전도 활발히 하였다. 체육회의 기금조성 등의 사정에 의해서 서울에서 유명했던 성악가 문 일화를 초청하여 유료 음악콩클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바도 있었다.

그 시대엔 문명의 대변동 극심한 세대차이의 변환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수선한 사회상이었다. 태안지역도 그러한 분위기를 거부할 수만은 없었다. 그러므로 정화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기관이나 일반시민으로부터 칭송과 감사의 뜻을 받았다. 총무부장 이 석환, 축구부장 지 우하는 창립 당시부터 태안체육회와 지역발달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

지 우하는 체육업무가 행정자치 기관에 이관되면서 태안군체육회 2대 상임 부회장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태안체육의 발전에 봉헌한 바가 크다할 수 있으며, 그 공로로 태안군민 대상을 수상하였다.

○ 태안군 체육회 역대 회장 및 상임부회장, 부회장

구 분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회 장	초대	조 철행	1989. 1. 1.~1989.11. 8.
	2대	유 응상	1989.11. 9.~1991. 1. 13.
	3대	권 오창	1991. 1. 14.~1992 7. 3.
	4대	이 종은	1992. 7. 4.~1994. 1. 3.
	5대	송 성현	1994. 1. 4.~1994.10 6.
	6대	김 경년	1994.10. 7.~1995. 6.30.
	7대	윤 형상	1995. 7. 1.~1998. 6.31.
	8대	윤 형상	1998. 7. 1.~2002. 7. 1.
	9대	진 태구	2002. 7. 2.~2006. 5.31.
	10대	진 태구	2006. 6. 1.~현재
상 임 부회장	초대	박 태산	1989. 1. 1.~1989.12 31.
	2대	지 우하	1990. 1. 1.~1992.12 31.
	3대	최 동린	1993. 1. 1.~1994.12 31.
	4대	최 동린	1995. 1. 1.~1997. 1. 20.
	5대	노 인국	1997. 1. 21.~1999. 1. 26.
	6대	오 유안	1999. 1. 27.~2001. 1. 26.
	7대	신 남규	2001. 1. 27.~2004. 4. 30.
	8대	이 종국	2004. 5. ~2007. 1. 28.
	9대	김 병수	2007. 1. 30.~현재
부회장	초대	지 우하	1989. 1. 1.~1989.12 31.
	2대	최 동린, 노 인국	1990. 1. 1.~1992.12 31.
	3대	가 종국, 노 인국	1993. 1. 1.~1994.12 31.
	4대	노 인국, 오 유안	1995. 1. 1.~1997. 1. 20.
	5대	오 유안, 김 은태	1997. 1. 21.~1999. 1. 26.
	6대	김 은태, 신 남규, 노 진용	1999. 1. 27.~2001. 1. 26.
	7대	이 종국, 김 병수, 전 인목	2001. 1. 27.~2004. 4. 30.
	8대	전 인목, 김 병수, 강 은환	2004. 5. 1.~2007. 1. 28.
	9대	정 지선, 김 원대, 조 한승	2007. 2. 12.



남문리의 상업과 금융업

태안상업의 발달과정

상업의 발달에 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장소를 장시(場市) 또는 약하여 장(場)이라 불렀으며 경우에 따라 시장이라 불렀다. 이에 반하여 상설상점은 시전(市廛), 전포(廛鋪) 등으로 불렀다.

오늘날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정기시장 즉 5일장이라 불리는 재래시장은 조선시대부터 형성되었는데 경제발전으로 재래시장은 점차 상설시장에 밀리고 현대시장의 개념에서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든다.

태안시장 발달도 그렇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이 대부분 점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권은 일본인의 수중에 있었고 대부분의 자본이 일본인에 의해 탈취당하였다. 이어 8·15광복을 맞아 상업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축적된 자본이 없고 또 상품생산이 여의치 못하여 상업발전이 매우 부진하던 중 6·25 한국전쟁을 맞아 상가는 폐허가 되었다.

휴전 이후 상가는 점차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태안읍을 중심으로 읍·면마다 5일장이 서게 되었다. 현재는 태안읍과 안면읍이 5일장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상설시장과 5일장의 결합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태안읍은 종래의 남문리 시장에서 동문리로 옮겨져 신시장으로 발전하여 오다 1979년 2월 남문 576-81일대에 버스정유소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지는 등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남문리 재래시장이 1995년 10월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등 74개소가 전소하여 36억 2천 5백만원의 피해를 입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군에서는 기존 신시장에 비가림시설공사 등 시장환경 개선을 실시, 노점상의 분산 이주 등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 4천만원이다.

한편 1998년 5월부터 2001년까지 동남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2000년 1월부터 사업지구 내에 버스정유소(터미널)가 옮겨져 공영개시가 되어 이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의 형성 등 태안상업이 크게 변모하여 기대된다.

남문리 시장(구시장)은 1918년 3월 16일 개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문리 시장은 태안읍사무소 앞을 말하는 것인데, 태안시장은 처음엔 3일과 7일장이 서게 됨에 따라 원북, 이원, 소원, 근흥, 남면, 안면의 유일한 시장으로서 모든 상권이 여기에 집중되었다. 각 지역에도 5일장이 있었으나 버스운행과 농업이 성행하던 시절에 쌀 시세를 위주로 안면을 제외한 모든 장이 없어졌다.

그러나 이 때의 시장은 5일장으로서 낮에만 상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인구의 급증에 따라 태안면장은 1955년 3월 15일 지금의 위치인 동문리 상설시장(신시장) 부지로 이전을 요청 1955년 5월 14일 도지사가 허가하프로서 상설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후 버스터미널마저 태안읍사무소 앞에서 동문리 당시 서울식당 앞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장발전은 더욱 활기를 찾았다. 그러던 중 1970년 터미널 부지가 남문리(구 터미널, 현재 태안프라자)로 옮겨짐에 따라 터미널을 중심으로 시장에 이르는 길이 근거리가 되므로서 이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된 것이 현재의 조석시장을 일컬으며 이로 인하여 동

문리 상설시장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자 서산군청은 1982년 8월 18일에서 1983년 9월 5일까지 총 26동 129 점포에 해당하는 장옥을 상인들로부터 신축토록 유도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였다. 그 당시 조석시장은 상설시장의 어수선했던 틈을 이용하여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태안 금융업의 발달과정

금융업 개요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 및 공급을 행하는 영리사업이다.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은행이지만 그 밖에도 금고나 조합, 증권시장 등 금융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다.

근대적 금융업의 기원은 원격지무역이 발달한 이탈리아의 외국화폐를 교환해 주던 환전상(換錢商)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이 상인이 맡긴 화폐를 대출에 이용함으로써 근대적 금융형태가 생겨난 것이다.

우리 나라 금융의 효시는 객주(客主)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객주는 조선시대 상업, 금융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들은 화물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금을 융통하여 주었으며, 어음의 발행 및 인수, 지방의 금전재화에 대한 결제 대행, 환표발행, 예금취급 등 금융기관 역할을 하다가 병자수호조약 이후 외국상품이 들어오자 객주회, 박물관회 등 조합을 설립하여 자본을 축적하여 금융계를 형성하였다.

그 후 한일합병으로 난립되던 금융기관이 하나 둘 정리되고 1911년 조선은행, 1918년 조선식산은행, 1929년 조선저축은행, 그 외 금융조합, 무진회사,

신탁회사, 수형(어음)교환소 등이 생겨나 금융업을 영위하였다.

해방 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많은 국책은행, 시중은행, 협동조합, 금고, 증권회사 등이 설립되어 금융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안은 1989년도 복군 이후 1990. 3. 9. 충청은행(현재는 충청하나은행) 태안지점과 1992. 11. 20. 국민은행 태안지점 등 2개 은행이 복군과 더불어 늘어났다. 태안의 금융 규모로는 1989년도 예금총액이 1,335억원, 대출액이 1,144억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1998년도말 현재 예금총액은 4,587억원으로 243% 증가하였고 대출은 3,826억원으로 235% 증가하는 등 많은 신장세를 가져 왔다.

그리고 예금과 대출이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대출보다 예금보유액이 많으나 농업중앙회 태안군지부, 남면농업협동조합, 태안새마을금고, 남면새마을금고, 서산수산업협동조합 태안본점 등 5개 금융기관은 예금보다 대출액이 많음은 타지역의 자금이 태안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별 예금 및 대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별 예금 및 대출현황 ■

기 관 명	1989년 당시		2006. 12. 31. 현재	
	예 금	대 출	예 금	대 출
태안농업협동조합	7,318백만원	8,665백만원	100,763백만원	50,502백만원
반도신용협동조합	4,289백만원	3,243백만원	36,410백만원	25,670백만원

광동상회, 원범상회, 태안상회는 주단포목 등 피륙과 잡화, 석유, 비료 등을 취급 구판하는 대형 3대 상회로서 서산군적인 대형상회였다. 그 세력이 서산에까지 미쳐 상권을 좌우했으며, 시장내에는 수십곳의 중소상업자가 있었다.

태안은 외국인이 진출하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것은 조그만 면 소재라 해도 일본인이 재산권을 잡고 중국인이 상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안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일본인 두 사람이 관의 보호 아래 잡화상을 했고 중국인은 시장 한 쪽에서 빵과 호떡장사를 했다. 중국인이 커다란 피륙업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했었으나 정착하지 못하였다.

태안상회는 승용차 3대로 자동차부까지 운영했으며, 태안흥업주식회사라는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업체가 있었다. 대금업, 부동산업 등 경기도까지 세력을 뻗었으니 광범위했던 것이다. 대표자는 백 남복이었으며, 상회나 금융회사는 전부 남문리에 있었다. 남문리 사람이 재력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외국인이 침범을 못했던 것이다.

태안농업협동조합



○ 설립목적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도모

○ 운영지표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구현

운영전반	○ 조합원 지원·참여 확대
경제사업	○ 농산물 유통혁신
회원지원	○ 조합 자립경영기반 구축
교육지원	○ 농업·농촌 활력 지원
신용사업	○ 신뢰받는 선진금융 실현

○ 연혁

- 1972. 8. 12. 설립
- 1972. 8. 12. 업무개시
- 1978. 9. 9. 태안농협 동부지소 개점, 연쇄점 개점
- 1979. 10. 1. 성장조합으로 승격
- 1988. 12. 31. 복지조합으로 승격
- 1995. 5. 12. 남부지소 개점
- 1999. 10. 20. 미곡종합처리장 업무 개시
- 1999. 12. 31. 판매사업 100억원 달성
- 2002. 7. 5. 농자재마트 개점
- 2002. 7. 26. 동부지소를 동부지점으로 승격
- 2004. 1. 8. 남부지소를 남부지점으로 승격

- 2004. 12. 31. RPC 경영대상 수상
- 2005. 4. 2. 태안농협 하나로클럽 개점
- 2005. 7. 1. 동부지점 내 하나로마트(구 연쇄점) 폐쇄
- 2005. 12. 31. 총자산 1,286억원 달성
- 2006. 7. 18. 동부지점 확장 이전 개점
- 2006. 11. 30. 예수금 98,979백만원
- 2006. 11. 30. 대출금 49,260백만원
- 2006. 11. 30. 경제사업 33,94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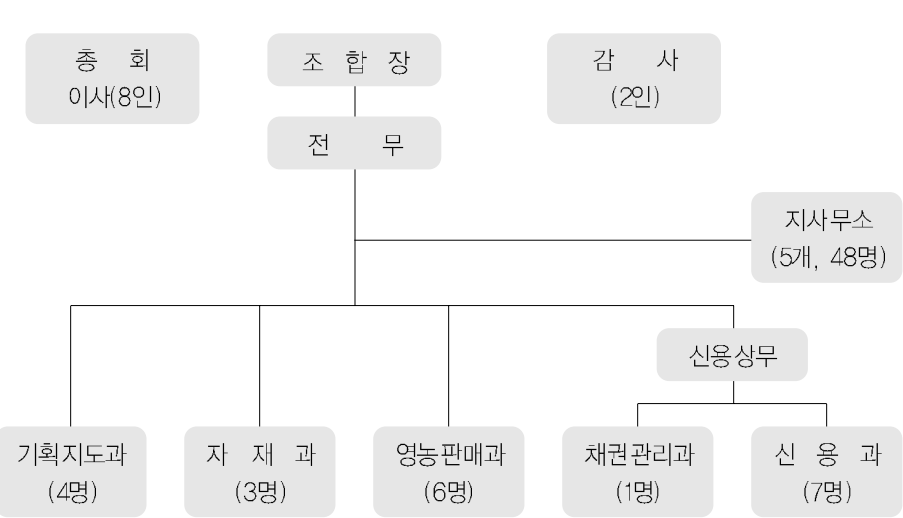
○ 관할구역

태안농업협동조합의 구역은 태안군 태안읍 일원이다.

○ 조직도

조합은 5과 4개 지사무소로 조직되어 있다.

조직구조도



○ 임직원 현황

성명		인원(2005년도)
임원	조합장(상임)	1(1)
	이사(상임)	8(0)
	감사(상임)	2(0)
직원	지도·경제	50
	신용	18
계		79

- 주) 1. 상임·비상임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상임은 ()에 별도 표시
 2. 직원 중 지도·경제직원은 지도·관리·경제사업 종사직원을 표시하고, 신용직원은 상호금융(공제 포함)에 종사하는 직원을 표시함.

○ 지사무소 및 사업장 현황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본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1-1	673-8931~4
동부지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3-6	673-8935~6
남부지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155-10	673-8939
미곡처리장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347-1	675-8931~2
하나로클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85-3	673-9231~5
농자재마트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88-1	674-2224
주유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산61-2	673-8937

○ 역대 조합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초대~제3대	이택동(李澤東)	1972. 6. 4.~1979. 9. 20.
제4대~제6대	가재욱(賈在郁)	1979. 11. 21.~1988. 11. 20.
제7대~제10대	한상국(韓相國)	1989. 4. 1.~2005. 3. 28.
제11대(현재)	이구형(李求炯)	2005. 4. 24.~현재

○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2006. 11. 31. 현재)

설 치 장 소	주 소	취급가능 업무
본 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1-1	입·출금 및 통장정리(365코너)
동 부 지 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3-6	입·출금 및 통장정리(365코너)
남 부 지 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155-10	입·출금 및 통장정리
하나로클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85-3	입·출금 및 통장정리(365코너)

반도신용협동조합

○ 신탁이란

신용협동조합은 지역, 직장, 단체에서 일정한 공동유대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자금을 조성하고 필요한 때에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 및 구성원들이 함께 경제, 사회, 문화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 연혁

- 1973. 2. 1. 창립총회 개최
- 1973. 8. 2. 재무부장관 설립인가 취득
- 1973. 8. 25. 법인 등기필
- 1973. 10. 30. 업무개시
- 1999. 11. 15. 안면도신탁 인수합병 업무개시
- 2002. 2. 4. 전국 온라인망 개통
- 2006. 2. 27. 제33차 정기총회 개최(조합원수 7,08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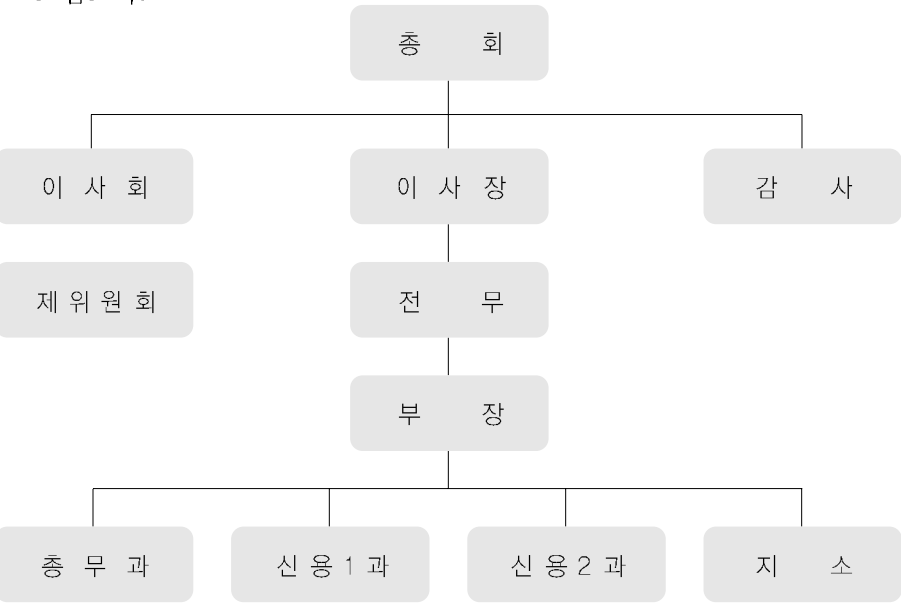
○ 기구 및 인원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등 9명이며 11명의 직원이 있다.

○ 역대 이사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명 수남(明 秀男)	1973. 2. 10.~1974. 5. 17.
2대	김 한석(金 漢錫)	1974. 5. 18.~1975. 4. 6.
3~7대	김 익수(金 翼洙)	1975. 4. 7.~1985. 2. 14.
8대	이 화형(李 華炯)	1985. 2. 15.~1986. 1. 17.
9~13대	이 은귀(李 殷貴)	1986. 1. 18.~1998. 3. 22.
14~15대	류 상희(柳 相燾)	1998. 3. 23.~2006. 2. 28.
16대	백 영흠(白 永欽)	2006. 3. 1.~현재

○ 조합조직도



○ 사무소 현황

사 무 소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본 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62-12	673-9141~3
안 면 도 지 소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235-1	673-7419

○ 반도신협의 업무

-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 조합원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
- 조합원을 위한 보호예수 업무
- 내국환
-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 어음 할인
-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등



서산축협 태안지소

○ 설립목적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활성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1957년 9월 1일 설립하였으며, 태안지소는 1990년 5월 8일 개점되었다.

○ 관할구역 : 태안군 일원

○ 운영지표

농·축산인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협 구현

운 영 전 반	조합원 지원·참여확대
경 제 사 업	농산물 유통혁신
회 원 지 원	조합 자립경영기반 구축
교 육 지 원	농업·농촌 활력 지원
신 용 사 업	신뢰 받는 선진금융 실현

○ 연 혁

- 1957. 9. 1. 서산군축산업협동조합 창립
- 1958. 3. 7. 업무개시
- 1977. 11. 1. 집유장 업무개시
- 1983. 8. 8. 상호금융 업무개시
- 1986. 12. 26. 신동부지소 개점
- 1988. 12. 30. 대산지소 개점
- 1990. 5. 8. 태안지소 개점
- 1991. 4. 1. 축산물 판매장 개점
- 1993. 12. 13. 해미지소 개점
- 2000. 7. 1. 농협중앙회 회원가입(농축협중앙회 통합)
- 2005. 8. 31. 예수금 1,000억원 달성탑 수상

○ 임직원현황

임원			직원			합계
조합장	이·감사	소계	정규직	계약직	소계	
1	11	12	73	14	87	99

○ 사무소현황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본소	서산시 동문동 795	665-7501~5
태안지소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163-9	674-5460~1

○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설치장소	주소	업무
축협본소	서산시 동문동 795	ATM 겸용 현금자동화기(365코너)
태안지소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163-9	통장정리 겸 현금자동화기

남문치안센터

○ 연혁

- 1979. 12. 29. 남문리 501-1번지로 청사 신축 이전
- 1981. 10. 26. 태안동부지서 신설로 관할구역 분할
- 1991. 8. 1. 태안서부파출소로 명칭 변경
- 1992. 8. 1. 남문파출소로 명칭 변경
- 2004. 7. 1. 남문치안센터로 명칭 변경

남문리의 주거공간

현대화의 물결로 단독주택의 보급보다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형태의 주거공간이 앞서는 현실이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이 대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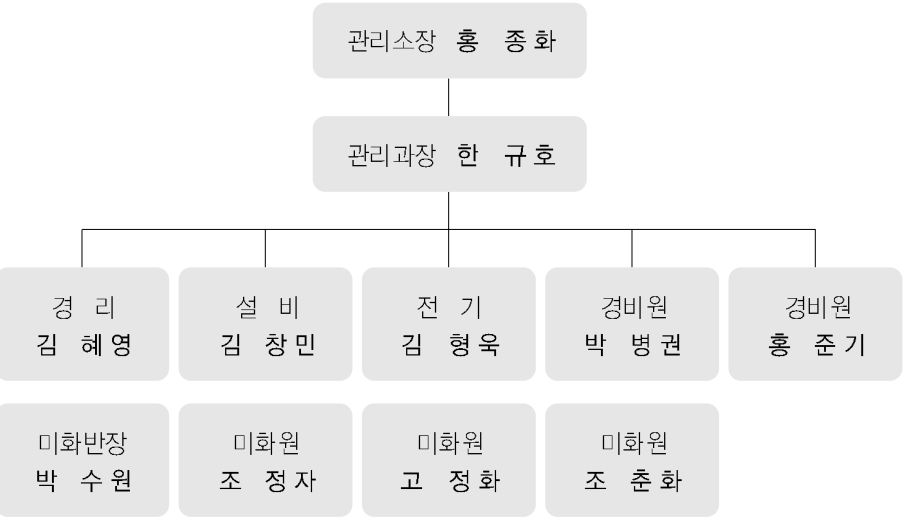
그러나 남문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아파트와 진흥W 아파트인데, 동문리의 대림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로 나뉘지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립주택을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삼성아파트와 진흥아파트만 요약하기로 한다.

태안진흥 W-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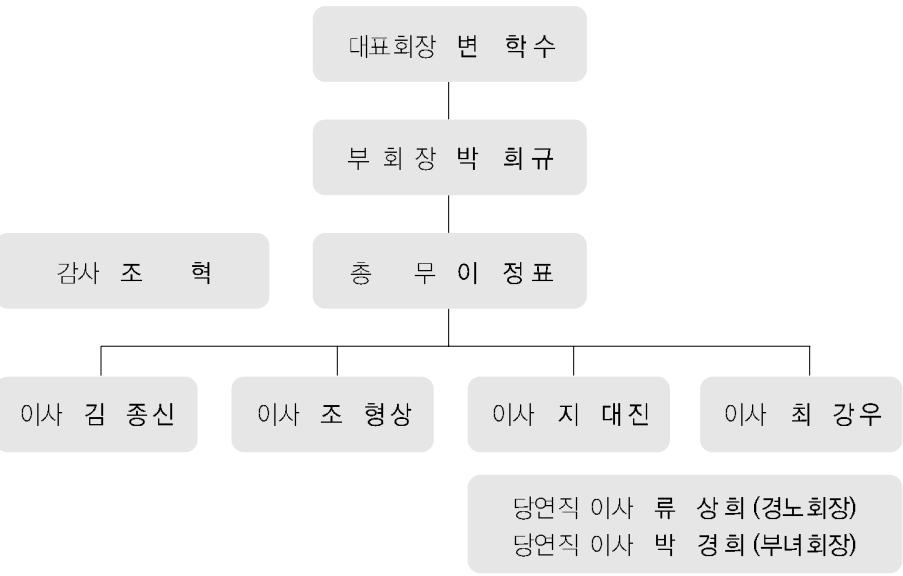
- 단지명 : 태안진흥 W-park
- 단지주소 : 357-901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10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 사업계획승인일 : 2000년 4월 1일
- 사용검사일 : 2006년 2월 28일
- 건물구조 :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건물규모 : 101~105동 385세대 개별난방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대표회의실
- 시공회사 : 진흥기업(주)
- 관리사무소 연락처 : 041) 673-2061



○ 진흥 W-park 아파트 관리소 직원 구성 현황



○ 진흥 W-park 아파트 대표회의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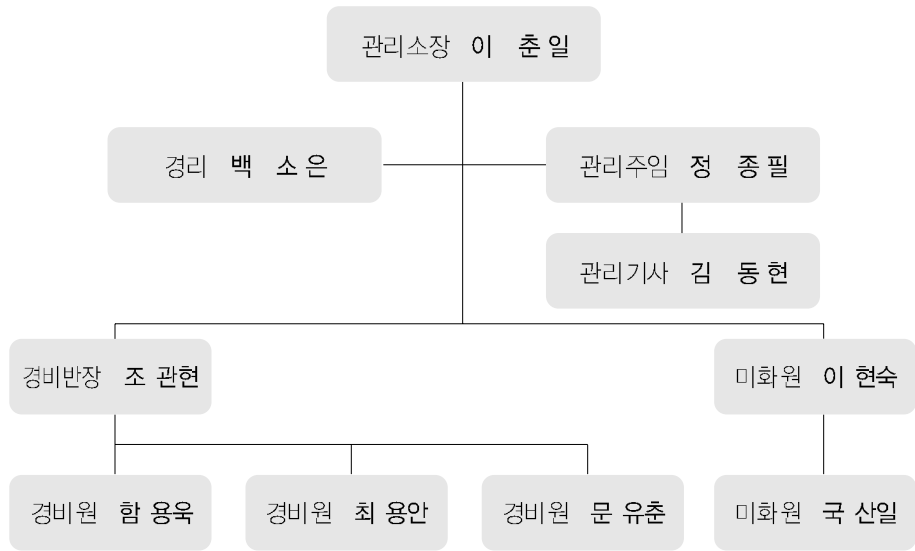
태안삼성아파트

○ 단지현황

단지	단 지 명 칭	태안삼성아파트		
	단 지 주 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구 645번지		
	대 지 면 적	11,913㎡	시 공 자	삼성건설(주) 건설부문
	사업승인날짜	1994. 6. 30.	준 공 일 자	1996. 8. 30.
주택	세 대 수	296세대	난 방 방 식	개별난방
	구 조	철근콘크리트	동 수	2개동
	층 수	지상 15층		
	연 면 적	21,474.72㎡	건 물 면 적	26,278.8㎡
부대 복리 시설	관리소 · 노인정	연 면 적	99㎡	
	경 비 실		2개소	
	기 계 실	연 면 적	224㎡	
	가 스 정 압 실	연 면 적	40.5㎡	
	어 린 이 놀 이 터	연 면 적	413㎡	
기타	수 변 전 시 설	계 약 전 력	940kw	수전용량 : 700 발전용량 : 240
	정 화 조	산화접촉식	승강기(로프식)	LG, 10대



○ 관리사무소 기구표



○ 대표회의 · 반장협의회 기구표



남문리의 전설

오만한 관속들에게 씌운 질갓(陶冠)

현재 태안읍사무소 안 왼쪽에 많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는 군수 송 관화(郡守 宋 觀和)의 선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송군수는 문벌이 높은 재상가의 아들로써 일찌기 15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태안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런데 송군수는 부임 직전에 출발 인사를 하기 위해 외삼촌인 최판서덕을 찾았다. 이때 최판서는 어린 조카가 군수로 부임하는 것은 매우 대견스러운 일이나, 너무 어린 나이이므로 노파심에 목민관으로서의 몇가지 명심할 사항을 익히도록 하라고 타일렀다.

이에 송관화는 자기가 데리고 간 하인을 불러 엽전 5푼을 주며 장터에 가서 짚신 한 켤레, 비 한 자루, 배(梨) 하나를 사오라고 하니, 최판서는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속히 떠나라고 하였다. 그가 떠난 뒤에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짚신과 비와 배를 사오게 한 이유와, 이를 보고 속히 떠나라고 한 뜻이 무엇이냐고 최판서에게 물으니 최판서가 말하기를 「그놈,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목민관 노릇을 제법 잘 할 텐데, 내가 괜히 실수를 하였다」하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유를 또 물었다.

이에 최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짚신은 자신의 앞길이나 잘 밟아나갈 것이지 남의 길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고, 비는 자신의 앞이나 깨끗이 쓸라는 뜻이며, 또한 배는 남의 상에 배 놓아라 감 놓아라 간섭하지 말라는 비유

인 것이니, 결국 나는 조카한테 창피를 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태안군수에 취임한 송 관화는 공무에는 열중하지 않고 매일 사냥을 하거나 제기차기로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이를 보는 관속(官屬)들은 철모르는 어린 군수로 알고 깔보면서 모든 일을 저희들 마음대로 처리하니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실태를 지켜보고 있던 송군수는 어느날 갑자기 안면도 백사장으로 고기잡이 구경을 가져다 하며 관속들을 데리고 사락정(思樂亭=현재 태안프라자 근처)앞에 이르러 이방을 불러 놓고 「저 밭에 가서 수수대 하나를 꺾어 오라」 하니 이방은 속으로 아기 군수가 또 무슨 장난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밭에 가서 수수대를 하나 꺾어다 주니 송군수는 이방에게 「이 수수대가 꺾여지지 않도록 소매 속에 넣어보라」고 하였다. 이에 이방은 매우 오만한 태도로 긴 수수대를 꺾지 않고 어떻게 소매 속에 넣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니, 송군수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숙한 태도로 추상같은 호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듣거라, 육방 관속들아! 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성장한 수수대로 꺾지 않고는 소매속에 넣을 수 없거늘, 하물며 15년의 긴 세월 동안 서울의 재상가에서 성장한 태안의 성주 송 관화를 너희들 소매 속에 넣고, 또한 백성 다루기를 함부로 하는가? 명령을 내리니 3일 이내에 질그릇으로 만든 갓 10개와 굵의 높이가 한자를 넘는 나막신 10켢레를 만들어 오라」 이에 지금까지 철모르는 아기 군수로만 여겨오던 이속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비범한 인물임을 깨닫고 크게 놀라는 한편, 지금까지 자신들의 그 무례하였던 행동을 반성하기에 이르렀다.

며칠 뒤에 질갓과 굵 높은 나막신이 준비되어 들어오니, 동헌뜰에 늘어놓고 육방 관속들을 집합시킨 뒤에 송군수는 「듣거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관청 출입하는 모습을 살펴보니, 너희들의 키가 작고 갓이 가벼워서 구부릴 줄을 모르니 이제부터 이 나막신과 이 갓을 쓰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것이라」하며

명령대로 실행하라고 하였다.

이에 나이는 비록 어리나 비범한 인물임을 깨달은 이속들은 크게 놀라면서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동헌 뜰에 엎드려 밤새도록 사죄하였다.

옛날의 이속들은 언제나 군수 앞에서 상반신을 구부려야 했는데 어린 군수라 깔보고 이를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다. 송군수가 재임 기간 동안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뒤에 군민들이 그 업적을 기리어 태안읍 동문리에 송덕비를 세웠었는데 최근에 이를 현재의 태안읍사무소 앞으로 옮겨 세웠다. 극히 최근까지도 태안지방에서는 윗사람에게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질 갓 씌워야 되겠다」는 말이 유행했다 한다.

약속을 저버린 배은망덕의 결과

오랜 옛날 태안읍내에 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몹시도 가난했다. 원래가 가난한 집안이라서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옴팡집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아무리 빠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은 물러가지 않았다. 조금 재산이 모아지는가 하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든가, 다른 일이 생겨서 지출할 일들만 생기니, 한 푼 벌면 두 푼을 쓰는 격이었다. 이렇게 되자 젊은이는 실의에 빠져 점점 게을러졌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젊은이가 문 밖에서 우두커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웬 중이 한 사람 찾아왔다. 그 중은 나이가 많고,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여 마치 거지같았는데 손에는 긴 지팡을 짚고 있었고 수염은 석 자는 될 성싶게 기르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어딘가 몸차림이 단정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이었다.

중이 젊은이 앞으로 다가서더니 부처님께 시주를 하라고 말했다.

“부처님께 시주하시고 복받으십시오.”

이 소리에 젊은이는 발끈 성을 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주할 만한 집에 가서 시주를 하라고 해야지, 다 쓰러져 가는 움막집에 와서 시주를 하라고 하니 엄치없는 중이 껄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이는 통명스런 어조로 말했다.

“시주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소.”

“보리쌀 한 줌이라도 좋습니다.”

“보리쌀 한 줌이 어디 있소. 난 아침 끼니도 거르고 있소.”

“그래요, 그것 참 안됐군요. 그런데 젊은이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오, 열심히 일하면 가난을 면할 수가 있지 않소.”

“아무리 일을 해 봐도 소용이 없소.”

젊은이는 지금의 자기 처지를 중에게 들려주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재산은 불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난하기만 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는 아무일도 하기 싫고 동냥이나 해야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나도 스님처럼 중이나 되어 여기저기 얻어먹으러 다니거나 해야겠소.”

“중은 아무나 되나요? 그러나 저러나 내가 보니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당신 선친의 묘가 잘못 들어선 것 같소. 그러니 부친의 묘를 이장하는 것이 어떻소. 내가 묘자리를 잡아주면 젊은이는 부자가 되고 또 벼슬을 얻을 것이오.”

“그렇습니까? 그럼 스님께서 좋은 자리 좀 잡아주십시오.”

젊은이는 아까와는 달리 중에게 매달리다시피 간청했다. 부자가 되고 벼슬도 얻는다는 말에 젊은이는 갑자기 긴 장마 끝에 햇볕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귀가 번쩍 띄었다.

“그야 어렵지 않지만, 조건이 있소.”

“조건이라면?”

“어려운 일이 아니오. 내가 당신의 선친 묘자리를 잡아준대로 묘를 쓰면 부

자가 되고 벼슬도 하게 될 것이오. 그 때 내게 3백냥만 주면 되오.”

“어부가 있습니까, 3백냥 보다 더한 것이라도 드려야지요.”

“그럼,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 중은 소매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고 붓을 꺼내더니 계약서를 작성했다. 내용이야 나중에 젊은이가 잘 되면 스님에게 3백냥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젊은이의 집 뒷산에 묘자리를 잡아주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 뒤로부터 수년 후, 이 젊은이는 점점 가산이 넉넉해져 글공부를 하게 되었고, 과거에도 급제하여 한 고을의 원님이 되었다. 늙은 중의 예언이 적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돈 백냥이 생기면 천냥만치 교만이 생기고, 원님이 되더니 정승이나 된 것만큼 교만하여지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가 하면 가난하고 지체낮은 사람들을 학대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한편, 묘자리를 잡아준 스님은 젊은이가 벼슬을 얻고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돈 3백냥을 받으러 길을 나섰다. 여러 날을 걸을 젊은이가 원님으로 있는 관청 앞에 오니 관청문 앞에는 문지기가 버티고 서서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어디서 온 중인데 지체높으신 양반을 만나겠다는거요, 썩 물러가시오.”

그러나 쉽게 물러설 중이 아니었다. 해가 지도록 문지기와 실랑이를 했다. 스님의 끈질긴 간청에 문지기도 하는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어디서 온 중이라고 할까요?”

“예, 오래전 원님의 부친 묘자리를 잡아준 중이라 이르시오.”

“잠시 기다려 보시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간 지 잠시후, 문지기는 화가 잔뜩 난 얼굴을 하고 나왔다.

“여보시오, 괜히 나만 야단맞게 할 게 뭐요. 원님이 당신같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요. 빨리 가 보시오.”

스님은 이 뜻하지 않은 문전박대에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분을 참으며 다시 문지기에게 말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가면 나를 알아볼 것이요, 이것을 원님께 드리시오.”

중은 소매주머니 속에서 몇년 전 젊은이와 계약했던 문서를 주면서 다시 간청했다.

“이게 뭐요?”

“원님만 아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문zburg가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고 이윽고 다시 나왔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 처음 들어갔다 나올 때보다도 더 화난 얼굴이었다.

“여보시오, 누구 불기맞는 꼴을 보려구 그러시오. 그 문서를 보자마자 원님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니, 그 문서를 찢어버리시고, 당장 당신을 쫓아 보내라고 야단이십디다.”

이쯤되자 스님은 원님의 못된 마음을 짐작하고 소매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몇 글자를 적어 문지기에게 다시 주며 말했다.

“여보시오, 나 때문에 야단맞아 미안하오만, 한 번만 더 수고를 해주시오. 이 종이 쪽지를 원님께 갖다 주시면 이번에는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요.”

“싫소이다. 이제 다시는 당신의 심부름을 하지 않겠소.”

문zburg는 한마디로 거절하고는 중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스님은 주머니에서 엽전 열냥을 꺼내 문zburg의 손에 쥐어주며 다시 간청했다.

“이거 얼마되지 않지만 받아 넣고 한 번만 더 원님을 만나주소.”

돈을 보자 문zburg는 눈일 휘둥그레졌다. 예나 지금이나 그놈의 돈 앞에는 사람들이 맥을 못추는 모양이다. 문zburg는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염려마시오, 내가 야단을 맞드래도 원님께 이 쪽지를 갖다드리겠소.”

이렇게 말한 문zburg는 그 쪽지를 원님께 갖다 드렸다. 쪽지를 본 원님은 조금 전과는 달리 얼굴색이 환해지면서 말씨도 부드럽게 문zburg에게 물었다.

“그 스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아직 문 밖에 있을 겁니다.”

“그럼 빨리 모셔 오너라.”

원님의 이 뜻하지 않은 돌변에 문zburg가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원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빨리 스님을 모셔오라는데 뭘 그리 꾸물거리고 있느냐?”

도데체 그 쪽지에는 뭐라고 써여 있었을까.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다.

「원님, 오늘 내가 원님을 찾아온 것은 옛날 약속한 돈 3백냥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원님이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선친의 묘를 지금의 위치에서 열 걸음 더 올려 쓰면 원님은 장차 이 나라의 정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리에 중을 그냥 보낼 리 없는 원님이었다. 문zburg에게 빨리 스님을 모셔오라고 호령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어서 들어오시랍니다.”

스님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머금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원님이 버선발로 쫓아나오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누구신가 했더니 스님께서 오셨군요. 내 그동안 깜박 잊고 무례하게 스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자, 어서 오르시지요.”

스님은 못이기는 척 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까 쪽지의 내용대로 3일후면 천묘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니 선친의 묘를 옮기라고 말했다.

“여부가 있습니까. 스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님은 제 집에 묵으시면서 편시 쉬십시오.”

사흘 후, 원님은 부친의 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스님을 앞세우고 산으로 올라갔다. 날씨가 화창한 봄날이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열 걸음을 세고는 발을 멈췄다.

“여기 올시다.”

스님이 잡아준대로 이장을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먼저 묘를 파헤치는 순간 지금껏 보지못했던 이상한 새 한마리가 푸르륵 하며 멀리 날아가는 것이었다.

“아니, 묘 속에 무슨 새야!”

“땅 속에서 새가 살다니 이게 무슨 조화여!”

일꾼들이 났을 옹고 서 있는데 스님의 너털웃음이 터졌다.

“하하하, 3백냥이 날아간다. 3백냥이 날아가.”

그제서야 원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원님은 저만치 휘적취적 내려가는 스님을 멍하니 쳐다 보고 있었다. 배은망덕한 자기의 실수를 후회했지만 파랑새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로 원님은 어떤 잘못으로 인해 원님의 자리에서 마저 쫓겨났고, 가산도 기울어져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다. 바로 배은망덕의 결과였다.

남문리의 민속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매년 같은 시기에 주기적(週期的)으로 반복되는 민간전승이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현재를 중시하며 살아 있는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이를 테면, 지금도 사람들에게 의해 이행되고 있는 전통문화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살아 있는 문화로서의 세시풍속은 지역성을 반영한다. 작계는 마을로부터 크게는 시나 도를 단위로 그들 지역 나름의 개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성은 대개 생활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남문리의 일 년 사계절 풍속을 두루 다룬다. 아울러, 이미 옛 풍속이 되어버린 사례라 할지라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예가 있다면 이 또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아 간략하게나마 여기에 옮겨둘 것이다.

정월

설날 차례와 성묘 설이 다가오면 객지에 나가 사는 자녀들이 고향에 돌아온다. 남문리의 젊은이들은 일부 도시에서 생활한다. 직장이나 수학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있는 젊은이들이 다수인데, 이들이 설을 맞아 고향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낸다. 설 차례는 고조 이내의 4대조를 대상으로 한다. 이른 아침에 차례상을 차리고 가족과 친척이 모여 차례를 모신다. 차

례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진설을 해야 한다. 차례상의 중앙에 지방(紙榜)이나 영정을 모시고 차례를 지낸다. 지방은 합설(合設)로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인데, 상차림은 기제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날은 설 차례이기 때문에 밥 대신 떡국을 올린다. 상차림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상차림 사례]

첫째 줄 : 떡국(추석에는 송편), 술잔, 촛불, 시저그릇과 시저(匙箸)

둘째 줄 : 육적, 육전, 어전, 채소전

셋째 줄 : 생선찜 등의 요리(조기, 감성돔, 민어), 탕(육탕, 채소탕, 어탕)

넷째 줄 : 포, 식혜, 패류 무침이나 구이 등의 요리(굴, 홍합, 소라, 고동 등), 나물(더덕, 도라지, 고사리), 김

다섯째 줄 : 실과류(대추, 밤, 꽃감, 배, 사과 등), 과자류

남문리의 설 차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차례상 중앙에 신위를 모시는데, 실제 방위와 관계없이 신위가 놓은 곳을 북쪽으로 본다. 제물 진설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차례상 앞에 모이면 제주가 상 앞으로 나와 분향(焚香) 강신(降神)을 한다. 이어서 참사자(參祀者)의 배례와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의 순으로 진행된다. 차례가 끝나면 상을 물리고, 떡국을 가져와 아침으로 먹는다.

설날 차례는 종가에서부터 지낸다. 이를테면 큰집에서 먼저 차례를 모시고 작은집으로 내려가면서 차례를 모신다. 차례를 지낸 뒤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 간다. 이때에는 4대뿐 아니라 지근에 있는 조상 묘역을 두루 찾아가 새해 인사를 올린다.

설빔과 세배 설빔은 설날을 맞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옷가지다. 1960~70년대만 해도 설빔은 부모가 직접 옷감을 구해 바느질을 해서 주었

다. 명주나 무명을 구하여 재단하고, 천 속에 솜을 넣어 옷을 지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옷을 만들기 위해 직접 바느질하는 예가 없다. 또, 전과 달리 부모가 자식에게 옷을 지어주기보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옷을 사오는 예가 더 흔다. 이러한 현상은 남문 마을 주민 다수의 자녀가 이미 장성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설날 차례를 지내고 나면 세배를 한다. 세배는 우선 직계를 대상으로 하되 제일 어른부터 먼저 한다. 직계에 대한 세배가 끝나면 친척들을 대상으로 세배를 한다. 같은 향렬은 나이에 관계없이 맞절을 한다.

복조리 근래에는 복조리를 산다거나 이와 관련된 풍속이 지극히 약화되었다. 전에는 설달그믐이나 정초에 조리장수가 복조리를 팔았으나 지금은 이러한 예가 사라졌다. 한 예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리장수가 복조리를 팔았다. 또는, 울타리 안에 매달아 두었으며, 더러는 조리 안에 돈이나 곡식을 넣어두기도 하였다.

안택고사 전에는 정초에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올리는 집이 다수 있었다. 이때에는 무당이나 법사를 불러 고사를 지냈는데, 일반적으로 안택고사는 초저녁에 준비하여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지속된다. 안택고사는 보통 안방에서 많은 시간 행해진다. 안방에서의 의식이 마무리되면 부엌으로, 다시 뒤뜰으로 나와 고사가 이어진다. 이때에도 안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당이 경을 읽으면 그 집의 안주인이 곁에서 비손한다. 고사에 준비하는 제물은 떡 한시루, 과일, 포, 청수 등이다.

안택고사의 목적은 일 년 내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비는 것이다. 아울러 그해의 농사나 어로에서 많은 수확을 올리기를 축원한다. 대개 이러한 소망은 무당의 경문과 해당 가정 안주인의 발원을 통하여 표현된다.

보름날 지신밧기 정월 보름의 지신밧기는 남문리의 대표적인 공동체 행사였다. 지신제(地神祭)라고 불리는 이 지신밧기는 1960~70년대까지만 하더라

도 마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었던 풍속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남문리에서는 풍물이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이 풍물패는 달리 두레패로 불리기도 한다.

지신밟기는 말 그대로 집집마다 돌면서 그 집의 지신을 밟아주는 것이다. 상쇠가 패를 이끌고 개인 가정을 방문한 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부엌이다. 부엌에서의 터밟기가 끝나면 마당의 뜰 앞으로 나온다. 그리고는 뜰 앞에서 풍물을 흐드러지게 울리며 터를 밟는다. 이어 집안의 여러 곳을 돌며 풍물을 울린다. 제보자는 풍물패가 돌며 지신밟기를 하는 것을 ‘간간마다 구석구석에서 친다’고 설명한다.

제보자는 지신밟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마을이나 가정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함’이라 한다.

한편, 지신을 밟아준 해당 가정에서는 쌀이나 돈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두레패가 집을 방문하면 술상을 차려 마당에 내놓았고, 지신을 밟고 난 뒤에는 재화로써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이나 쌀은 보통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 현편이 어려운 마을 주민에게 기부하기도 하였다.

오곡밥 정월 보름에 시절음식으로 오곡밥을 해먹었다. 오곡밥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수수, 조, 기장, 콩, 팥, 쌀, 찹쌀 등이다. 오곡밥은 오곡(五穀)이란 이름의 다섯 가지 곡식에 재한 밥지 않는다고 한다. 곧, 다섯 가지로도 할 수 있지만 각자 수확한 여러 곡식을 섞어서 밥을 지었다고 한다.

지금도 보름날 오곡밥을 지어 먹는 가정이 다수 있다. 다만, 예전처럼 이웃과 밥을 나누어 먹는 예는 전하지 않는다. 또, 전처럼 말린 나물로 찬을 해 먹는 예도 전한다.

부림과 귀밝이술 부림과 귀밝이술의 풍속은 무병식재(無病息災)를 바라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부림은 딱딱한 것을 깨물어서 그 해의 무병을 꾀하는 주

술성의 건강기원 풍속이다. 이러한 부림속은 남문리에도 남아 있다. 부림의 종류로는 밤, 땅콩, 은행, 호두, 잣, 무 등이다. 이것을 보름날 아침에 깨물면 그 해에 중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깨물었다고 한다.

귀밝이술을 마시는 예 또한 전한다. 보름날 이른 아침에 차가운 청주를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여 마셨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부림과 달리 귀밝이술의 습속은 미미하게 전할 뿐이다.

두더지와 노래기 쫓기 정월 보름의 기풍주술(祈豐呪術)로 두더지 쫓기가 있다. 두더지는 야산을 개간한 산밭에 자주 나타났다. 이들 두더지는 밭고랑과 밭두둑, 논둑에 길을 내고 다녔다. 또, 작물에 피해를 주는 예가 종종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름에 자신의 밭에 나가 두더지 쫓기를 하였다.

두더지 쫓기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내면에 주술성을 띠고 있다. 방식을 보면, 밭 임자가 팽이나 몽둥이로 자신의 밭을 친다. 그러면서 “네 땅이나 내 땅이지! 네 땅이나 내 땅이지!”를 외친다. 밭의 중간 중간을 옮겨가면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다. 그러면 두더지가 자기 땅으로 물러간다고 한다.

정월 보름에 행하는 또 다른 풍속으로 노래기 쫓기가 있다. 이 노래기 쫓기는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올리던 시기에 주로 행하던 것이다. 제보자는 짚을 엮어 지붕을 이면 노래기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 지붕의 짚이 썩으면서 노래기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노래기를 쫓기 위한 행위가 바로 노래기 쫓기이다.

방식을 보면, 그 집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솔잎을 지붕 위 여기저기에 뿌려놓는 것이다. 부연하면, 전날 솔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20센티미터 내외로 잘라 많이 준비해 둔다. 그리고는 보름날 이른 아침에 솔잎을 지붕 위에 던진다. 솔잎을 던지면서 “노래기 침 놓는다! 노래기 침이다! 노래기 침이다!”라고 외친다. 제보자는 “효과도 효과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였다”고 한다.

쥐불놀이 전에는 정월 열나흘날 쥐불놀이를 하였다. 청소년들이 불깁통을 만들어 돌리면서 마을 앞 밭에서 밤새는 줄 몰랐다. 옷을 태우기도 다반사였고 간혹 남문리와 동문리로 편을 나누어 다투기도 하였다. 지금은 보름 깡통을 보기가 쉽지 않다.

2월

농군의 날 2월은 정월에 비하여 세시속이 거의 전하지 않는다. 2월 1일을 머슴날이라고 하는 데 비해 이곳에서는 농군의 날이라고 하였다. 이 날에는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모여 음식을 하여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도 1960년대 전후의 이야기라고 한다.

3월

삼짇날과 한식 남문리의 한 제보자는 3월 2일을 삼짇날이라 하면서 ‘제비가 돌아오는 날’로 기억하고 있다. 이 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속설이 전한다는 것이다. 또, 전에는 삼짇날을 맞아 화전(花煎)을 부쳐 먹던 관습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봄을 맞아 답청이나 천렵이 있을 법도 한데 이 마을에는 이러한 예가 없다고 한다. 제보자의 대부분은 농경으로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고 한다.

한식(寒食)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 살피는 관습이 전한다. 이러한 예는 지금도 남아 있다. 예전에는 한식에 시제를 모시는 예도 있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보통, 해동기를 맞아 조상의 묘를 살피고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는 정도라고 한다.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인 4월 초파일에는 사찰을 찾아 공양을 올린다. 사찰을

찾는 사람들은 불자로 여성들이 주를 이룬다. 인근에 있는 백화산 ‘태을암’이나 상옥리 ‘홍주사’를 주로 찾는다고 한다.

사찰을 찾을 때에는 나름의 공양물을 가지고 간다. 이를테면, 떡과 밥을 지을 쌀과 초, 북어포, 과일, 약간의 돈을 공양한다. 예전에는 쌀을 가지고 가서 직접 빵아 떡을 찌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돈을 놓고 기도하는 예가 우세하다. 제보자 가운데에는 떡을 지어 올리고 싶어도 늙고 힘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도 있다.

기원 내용으로 가장 일반적인 예는 가정이 일 년 내내 편안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또, 배 부리는 집에서는 고기잡이 때에 가장이 안전하게 하여 달라는 것과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5월

단오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전에는 5월 5일 단오에 그네를 뛰었다. 남문 마을의 근민당 앞 노거수(老巨樹)에 그네를 묶고 뛰었는데, 이 그네뛰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지 않는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네뛰기가 중단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노거수가 고사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6월

6월에는 삼복(三伏)이 들어 있다. 대개 복날을 전후하여 개장(보신탕)을 먹어왔던 관습이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복날의 개장이 보편 음식이 되지 못한다. 주민의 다수는 개고기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7월

음력 7월에는 칠석과 백중이 들어 있다. 남문 마을에서는 칠석날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백중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칠석은 음력 7월 7일이다. 이 날은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만나는 날이라고 한다. 제보자 가운데에는 칠석날 까치와 까마귀가 놓아준 오작교(烏鵲橋)를 건너서 견우와 직녀가 사랑을 나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도 있다.

칠석날 마을을 단위로 한 행사는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찰을 찾거나 떡을 찢어 고사하는 예는 전한다. 불당에 갈 때에는 공양으로 쌀이나 돈을 가지고 간다. 쌀은 밥이나 떡을 지어 올리기 위해 가져가는 것이고, 돈은 불전에 올리는 헌금이라고 한다. 돈의 액수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제보자는 헌금으로 2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8월

추석 차례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 또는 추석이라 한다. 추석은 설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친다. 추석에는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 차례와 놀이가 전한다. 차례의 진행은 설 차례와 다르지 않다. 다만, 설날 떡국을 올리는 것과 달리 이날은 송편을 올린다. 차례를 지낸 뒤에 성묘를 가는 것도 설과 동일하다.

추석 차례는 설 차례와 달리 추수감사 제의적 성격이 강하다. 남문리는 비교적 너른 농토가 있어 주민들이 농사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이곳 사람들은 자신이 수확한 쌀로 송편을 빚는다. 벼가 익기 전에 추석이 닥치면 추석 지나 구구절(중양)에 햇곡을 베어 떡이나 밥을 지어 상에 놓고 별도로 천신제(薦新祭)를 하였다고 한다. 물론, 추석 차례는 그대로 지내지만, 후일 별도의 천신의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9월

음력 9월 9일을 중구일 또는 중양(重陽)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중(重)은 겹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곧, 9와 같은 양수(陽數)가 두 번 반복된다는 뜻에

서 중양이란 말이 나왔다. 남문리에서 중양은 특별한 날이 되지 못한다.

10월

시제 시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돌아간 이들이 후손이다. 이들 후손은 시제의 날을 맞아 묘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린다. 시제에 올리는 제수는 가정에서 기제를 올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곳이 어촌과 가깝기 때문에 해산물이 제사음식으로 다수 차려짐을 볼 수 있다. 우럭을 찌거나 상어포, 문어포 등이 상에 오르고, 굴탕과 굴부침 등의 음식이 상에 놓임을 볼 수 있다.

시제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묘에는 대개 위토답이 연결되어 있는 예가 많다. 위토답은 특정한 묘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돌아간 조상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위토를 마련하는 예도 흔하다. 토지 비용이 크게 상승한 요즘에는 대체로 여러 조상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위토를 장만한다. 그리고 이 위토로 인해 발생한 금전은 조상의 시제를 지내는 비용으로 활용된다.

11월

동지 전처럼 마을의 거의 모든 집에서 팔죽을 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다수의 가정에서 동짓날 팔죽을 쑤어 먹는다. 다만, 애동지에는 팔죽을 쑤지 않는다고 한다.

팔죽을 쑤면 제일 먼저 성주 아래에 팔죽 한 그릇을 찌다 놓았다. 남문리에서는 성주가 대청의 상량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청의 중양이나 한쪽에 작은 상을 놓고 여기에 팔죽을 한 그릇 놓아둔다. 이외에 집안의 여러 곳에 팔죽을 떠다놓는 예도 있다. 또는, 팔죽을 한 그릇 퍼서 집안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손가락으로 뿌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습속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곧, 팔죽을 쑤어 가족끼리 먹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이다.

김장 가정에 따라 10월에도 김장을 담지만 대개 11월에 김장을 담근다. 김장은 가족 수에 알맞게 담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다. 배추김치부터 백김치, 충각김치 등 여러 종류의 김치를 볼 수 있다. 제보자는 전에는 반찬이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김치를 여러 단지 담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찬의 종류가 많아져 전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김치를 담지 않는다고 한다.

12월

음력 12월을 선달이라 한다. 선달은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다. 따라서 내륙에서는 선달의 여러 풍속이 전한다. 70대의 제보자는 자신이 시집을 무렵인 50년 전에는 선달에 여러 풍속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선달 풍속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계절 풍속이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사라진 이유로 다양한 노동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세시풍속에서는 여성들이 많은 부분을 주관하는데, 이곳 남문리에서는 여성들이 사시사철 노동으로 눈 돌릴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다. 곧, 봄이면 농사짓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고 여름 지나 가을이면 다음 해 봄을 준비하느라 한눈 팔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이 선달 그림의 수세(守歲)이다. 가는 해의 마지막 날 집안의 구석구석에 불을 밝히는 관습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세속을 따르는 집은 대개 60대 이상의 주부가 있는 집이라야 한다고 말한다.



자선공익사업(慈善公益事業)

이 희열(李 希烈 · 1830~1918)은 본관이 고성이다.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바르고 곧았다. 일찍이 부모님이 앞뒤로 연이어 병이 심해지자 약을 쓰고, 맛 좋은 음식을 바치고, 부처에게 빌고, 손가락을 자르는 등 정성을 다해 간호하여 다행히도 회복시킬 수 있었다.

나이 30세에 밭 3두락(斗落)을 나누어 받고 분가하여 따로 산업을 일으켜 1여년 동안 농사지었는데, 종가(宗家)의 빈곤함을 가엾게 간청하여 토지를 돌려주고 맨손으로 힘써 농사지었으며 부업에 힘써 120량을 저축하였다. 이를 가지고 귀실리(貴室里)에 전답 5두락을 샀는데 이것이 흥업의 기초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년 생산량 2500석이 되었다. 우연히 행실이 나쁜 어부에게 피해를 입어 전후 4차례 사업에 실패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더욱 절약하고 근면하여, 늘어서는 마침내 거만(鉅萬)을 이루어 엄연하게 도내에서 손꼽히는 재산가가 되었다. 이는 진실로 이 희열 옹(翁)의 비범성 때문이지만 내조 또한 많았다. 일찍이 “모은 재산은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먼저 전답 백 두락을 기부하여 친족을 위해 공유재산으로 하고 유사를 정하여 관리하게 하였으며, -남은 증서와 관리 규칙이 있다. - 다시 공익자선 사업에 더욱 마음을 써 아들 기승(基升)으로 하여금 소작인 저축농계(貯蓄農契)를 만들어 농사의 공동개량과 질병재해에 공동구제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도록 하였다.

또 광무(光武) 6년에서부터 대정 2년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쌀 90석을 기증하였고 -베풀어 준 호수가 342호이다. - 대정5년에는 조(租) 400석을 구 태안군 지방 206동리 7414호에 기부하였다. -시가가 2800여원 이었다. - 또 각 면으로 하여금 산업저축계(産業貯蓄契)를 조직하게 하여 산업을 장려하고 근면하게 저축하는 풍습을 고취시키는데 사용하였고, 겸하여 흉년이나 재난을 위해 구조하는 자금으로 삼았다.

후에 장자 기석(基奭)의 명의로 조(租) 20석을 기준으로 친족 11호의 공동 재산으로 기부하였다. 또 장자 기석의 명의로 조 80석을 구 서산군 지방에 기부하였고, 셋째 아들 기상(基祥)의 명의로 조 30석을 구 해미군 지방에 기부하였다. 또한 지방 공동 저축계를 세워 농민들이 그 혜택 입음이 대단히 컸다. 그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으니 기석-군수-, 기훈(基訓)-의관(議官)-, 기상-군수-, 기승(基升)-참봉(參奉)-이다. 일찍이 의로운 방법으로 가르쳐 그 효성스럽고 우애함이 돈독하였고 집안을 다스리고 처세함에 공공 자선하는 관념을 모두 다 모범으로 삼으니, 논자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이 희열은 일찍이 “재산을 나누는 것은 근본을 고사시키는 장본인이다”라고 말하고 온 가족이 재산을 공유하는 규칙을 행하였다. 장자에게는 회계를 관장하게 하였고, 둘째 아들은 집안 법을 관장하게 하였고, 셋째는 외교를 관장하게 하였고, 넷째는 실업을 관장하게 하여 조리와 규칙이 정연하여 문란하지 않았다. 형제 네 사람은 모든 일에 반드시 합의하여 안전을 이루어 부친에게 아뢰어서 결재하였다. 그 가헌(家憲)에는 「을사협약안(乙巳協議案)」, 「신해신년잠(辛亥新年箴)」, 「갑인유신서(甲寅維新書)」 세 편이 있어 인륜, 집안 규칙, 교육, 재정, 정리, 식산(殖産)), 흥업, 위생, 자휼(慈恤), 저축 등의 대강(大綱)을 나누었고, 다시 실행 세목 수 백언을 부연 서술하여 자손에게 교훈으로 남겼으니 과연 이 희열은 위인이었다.

이 희열은 순조 30년 경인년(1830) 10월에 태안의 환동(環洞)에서 태어났

다. 만년에야 처음 벼슬하였으며, 광무 4년 중에는 관직을 뛰어넘어 가선대부 직위에 이르렀다. 대정 2년에는 훈국상(勳局賞)을 받아 은잔 한 벌이 하사되었다. 천수를 누리고 대정 7년 1월에 죽었으니 이 때 나이 88세였다. 조야의 명사로 상여줄을 잡은 자 5천여명이 “슬프도다! 위대한 사람이 죽었도다”라고 말하였다.

이 희열 사적에 관한 일단은 『수신서(修身書)』에 실려 있는데, 현재 서울 각 학교 생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 (서산군지, 1926.)

이 기승(李 基升)의 본관은 태안이다. 위인인 이 희열(李 希烈)의 네번째 아들로 고종 9년 임신년(1872)에 태어났다. 성품이 온후하고 정직하여 스스로를 근엄하게 견제하였으며 명성을 자랑하지도 공을 과장하지도 않고 아랫 사람에게 겸손하고 양보하며 남보다 자기를 아래에 두었으며 공익심은 더욱 두터웠다. 이 기석(李 基奭), 기훈(基訓), 기상(基祥), 기승(基升) 네 형제는 한 가정을 구성하여 공동생계를 유지하였는데 경비는 각자 미리 산출하고 배당하여 경영하였다. 서로 우애하면서 화목하게 노부모 받드는 것을 지극한 즐거움으로 여겼다.

광무 10년 세계 대세의 추이를 보고, 마침내 현해(玄海)를 건너 내지(內地)로 들어가 3개월 간 실업발전을 시찰하고 농사의 개량과 조림의 중요성에 감동하였다. 융희 2년에 태안면 상옥리(上玉里)의 땅을 상(相)보아 화림(華林)농장을 짓고 농사와 잠업, 기업, 과수, 양묘, 조림 등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스스로 직공 등을 지휘하였다. 비단 자신과 소작인들의 농업 개선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보인 모범을 표준으로 삼는 지방 사람들 관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솔선 실시한 것과 공익사업에 공헌한 실적 가운데 더욱 두드러진 것을 시험 삼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산야 조림 면적 563정(町), 일반 각종 묘목을 심은 것은 1,365,592그루, 송종(松種)을 뿌린 것은 2가마니 3말 9되로 지금 모두 울창하게 재목을 이루었다. 다시 지방 백성들을 종용하여 무상으로 종묘를 주어 농업 발전과 임상 개선을 촉진시켰다.

융희 4년부터 대정 10년에 이르기까지 군과 면 그리고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는, 조신력(早神力) 6가마니 5말, 다마금(多摩錦) 82가마니 4말 5되, 육도(陸稻) 4가마, 대맥(大麥)-골덴메론-2가마, 소맥(小麥)-대장부(大丈夫)-1가마, 감자(馬鈴薯) 14가마 6말, 감저만(甘藷蔓) 5만 7천 그루, 직예백채종(直隸白菜種) 5되, 궁중대근종(宮中大根種) 1말 5되, 잠종(蠶種) 20매, 양주율(楊州栗) 1가마 5되, 흑송종(黑松種) 8말 3되, 미류(米柳)-보뿌라-, 동명석옥(桐明石屋), 뽕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흑송, 감나무, 복숭아, 포도, 등, 삼, 회나무, 제충국(除蟲菊), 낙엽송, 잣나무, 편백(扁柏), 측백, 태산백(泰山柏), 나한백(羅漢柏), 오엽송(五葉松) 등 묘목 합계 5만2천2백2십9그루, 지나백맥(支那白脈) 12두(頭)이다. 또 개량종을 더욱 보급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융희4년부터 대정14년 봄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이자 없이 지방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으로는, 조생신력 88가마 대부, 다마금 403가마 8말 8되 대부, 66가마 6말 5되 교환, 대맥 13가마 대부, 15가마 7말 교환, 농자금을 이자 없이 4천8백원 대부. 대정 5년부터 대정 14년도까지 공익사업을 위해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는, 장형 기석의 명의로 1700원을 친족산업 기본금으로 기부하였고,

또 장형 명의로 1093원과 자신의 명의로 1023원을 공립사립학교와 학생에게 기부하였고, 장형명의 401원과 자신 명의 804원을 기타공익사업에 기부하였다. 장형 명의로 가뭄 이재민들 구제를 위해 3500원을 기부하였고, 자기명의로 화림자조회(華林自助會) 기본재산을 위해 곡식 30가마를 기부하였다. 장형 명의로 가난한 백성을 위해 기부한 것이 돈 1022원과 벼 103가마 4말이

다.

광무 9년 을사년 9월경에 각지에 학교 교육이 없는 것을 근심하여 사립 화양의숙(華陽義塾)을 태안에 설립하였고, 매년 경비 1000원 내외를 지방 자체 졸업자 120명에게 투자하였다. 융희 4년 8월에 이르자 태안군의 경영으로 옮겨졌는데, 당시 경비가 모자란 것을 우려하여 740원을 투자하여 유지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지금의 태안 공립보통학교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명치 44년 소작인집단지에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농계(農契)를 설립하게 하고 매년 가을 한 소작인에게 벼 5되를 내게 하고 그도 소작인 동수에게 동액의 벼를 제공하여 계의 기초를 다지고 소작인들에게 저축하는 마음을 고취시켰다. 그 계의 수는 25개였고 계원 수는 1597인이었으며 저축한 벼는 1056가마였다. 대정 9년에 큰 흉년을 만나자 소작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니,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그의 공익심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처리함에 있어서 모두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 반드시 형제 네 사람과 협정하고 행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애를 공경하고, 그들의 자선에 탄복하고, 그의 사업을 사모하여 즐겁게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본 도와 본 부에 알려져, 여러 차례 상을 내렸고 그의 공적을 기렸다. -지금은 태안 환동(環洞)에 살고 있다.- (서산군지, 1926.)

김 규항(金 圭恒)은 본관이 김해로 고종 18년 신사년에 태어났다. 성품이 관후하고 자혜로웠다. 흉년에는 가난한 자를 진휼하였고 약을 써서 사람들을 구한 것이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하루는 말을 타고 당진(唐津)을 지나는데 그 해는 바야흐로 큰 흉년이었다. 한 부녀자가 숲에서 꽃을 따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먹는 것으로 대신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탐문하여 알고는 9원을 주니 그 아녀자가 감동하여 흐느끼면서

성명을 물었지만 뒤돌아보지도 않고 갔다. 소유한 토지의 소작인들 가운데 이 동해서 살거나 사망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 소작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흉년 들 때를 위해 일 두락을 임시로 마련해 두고 다섯 말 미만을 수확하는 자는 전체를 소작인에게 주었다.

비록 평년에 조세를 낸다 할지라도 그 배나 미소로 실어 나르는 운반비 등은 모두 취하지 않았다. 춘궁기에는 곡식을 풀어 시가의 높은 가격을 낮추고 빈궁한 벼와 가난한 친족들 가운데 혼례와 상사에 힘이 모자란 자와 공적인 사업을 위해 멀리서 온 객중 자비가 모자란 자에게 후하게 급여하였다. -태안면 남문리(南門里)에 살고 있다. - (서산군지, 1926.)

白 南復

泰安面 南門里 出生. 金小節約과 現代의 經濟原理를 合理的으로 利用하여 많은 財産을 모았다. 己未年에 旱災가 있어 飢餓線上에서 허덕이는 貧民들이 많음을 가슴 아프게 느껴 며 200石을 貧民救恤에 使用해 달라고 瑞山郡廳에 寄附함을 비롯하여 多少 많은 公益事業에 協力하였다(서산군지, 1975.)



일화

능천(陵泉)은 태안읍 서쪽 탑동(塔洞)에 있다. 민간에 전하기를 조선 장조(莊祖)-사도세자(思悼世子)-가 세자 시에 일찍이 한밤중에 서울로부터 2시간 내에 안흥진을 왕래했는데 그 때 마신 것이 이 샘물이었기 때문에 능천(陵泉)-능새암-이라 부른다고 한다.

조선 고종(高宗) 3년 병인년(1866)에 프랑스 배가 강화도에 들어왔는데 도적들이 요란을 부린다고 여겼다. 당시 태안부 방어사 정 낙용(鄭 洛容)과 중군(中軍) 가 자운(賈 自雲)이 18읍의 수군을 거느리고 안흥만에서 출항하여 소란을 부리는 곳에 다다르려고 하고 용요교(龍腰橋)-지금 근흥면(近興面) 마금리(磨金里)-로 나오자, 그 지방사람 한 용순(韓 用盾)과 윤 병구(尹 秉九)외 21인이 출력해서 다리를 고쳤고, 또 군사들에게 주육(酒肉)을 베풀었다. 방어사가 그들의 노고를 기특히 여기고 40냥의 돈을 내놓아 설(楸)을 설치하게 하고 그 마을의 잡비로 보충하게 하였다.

안면도에서는 지금-대정 14년(1925)-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거주민들이 많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각 리(里)마다 산신에 기도를 했다. 이로부터 호랑이의 자취가 끊겼다. 꿈에 한 노인이 동인(洞人)들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곱 말에 데려다 호랑이를 쫓는데 대비해라. 말 한필은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 너희들은 잘 보호해라”라고 하였다. 그가 가리킨 곳을 가 보았더니 사제(砂製)로 된 일곱 말 가운데 한 필의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이에 그 일곱 말을 데려가 정당리(正堂里) 당산에 두었다. 지금 당은 무너지고 말은 도둑질을 당했다.

대정 11년(1922)에 어떤 한 승이 간월도로 와서 무학(舞鶴)승이 살던 절 터와 무학승이 심은 상수리나무를 찾았다. 섬사람이 그 곳을 가르쳐 주었다. 상수리나무는 교목(嶠木)으로 약 100년 동안 잎이 피지 않다가 광무(光武) 원년(1897)~정유년~에 다시 잎이 피기 시작했는데 대정 원년(1912)에 바람에 쓰러졌었다. 위에 말한 승은 곧 그 상수리나무가 서 있던 곳으로 가서 가래로 지초(芝草) 한 뿌리를 파냈다. 그 뿌리는 마치 동로(銅爐) 크기만 한 공 모양으로 얹혔고 무게는 5근이었는데, 승은 그것을 가지고 갔다.

간월도는 안면도 동북단에 있다. 섬 안에 무당사(舞堂寺)가 있는데, 옛 도승 무학이 여기에 살면서 득도했다. 음력 정월 그믐 경이면 이 절 앞 바다 가운데에 달 기둥이(月柱) 서 있으니, 기이함을 좋아하는 자들이 많이 와서 보았다. 이로 말미암아 섬이 간월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도비산(島飛山)은 단산(單山)이다. 한 산봉우리 한 계곡으로 각 고개의 형태를 나누는 것이 없이 푸르고 높은 머리채 같은 산이 아득히 위로 하늘에 닿아 있다. 그 때문에 노인들이 전하기를, 처지가 개벽하던 초기에 중국에서 날아왔다고 하고 그 때문에 도비산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아! 산이 어찌 날아 올리가 있단 말인가. 너무도 이치가 없는 말이다. -『호산록』-

지금~대정 14년(1925)~으로부터 400년 전에 대산면(大山面)에 활쏘기를 잘 하는 박씨 성의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에 한 용이 와서 고하기를, “나는 황금해(黃金海)를 지키는 용신으로 매년 어업을 하는 자들의 제향을 받고 어족(魚族)을 관할한다. 그런데 칠산해(七山海)의 백룡신(白龍神)이 내가 받는 제향을 뺏을까 하고 어족을 몰고 가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서로 3일을 싸우는데도 채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나는 독력(獨力)으로는 승리할 방도가 없으니 너는 내일 자각산(紫閣山)에 올라 싸움을 보고 있다가 이에 전각을 세우도록 명령하고 이어 중계하였다. 아! 사물이 드러나고 잠기는 것은 또한 성쇠의 이치상 당연하다. 백대의 일을 우러러 옛것을 새롭게 하여 금일처럼

방불하게 한다면, 일월상로에 혈기 있는 군자가 도를 행하고 산처초목이 다 정채를 지닐 것이다. 현인이 지난 땅에 일읍의 광영이 찬연히 본받을 만하고, 여러 선비들의 법도도 이미 보았다.

공사를 마치고 오늘에 준공하니 현인들의 공적이 후세에 민몰되지 않는다면, 전후 군수들의 수리한 명성도 함께 여기에 빛나게 될 것이다. 시판 말에 대략 썼으니, 현인을 사모하는 마음에 만분지 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대정 2년(1913) 10월 하순, 서산군수 권 익채(權 益采) 서. (서산군지, 1926.)

성뒤(城後) 일화

백화산 아래 (현)태안초등학교를 바라보면, 좌측으로 태안군 태안읍 남문4리 379-14번지, 380번지, 옛 집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데, 한 때는 동학농민군들의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양척왜(斥洋斥倭)를 부르짖으며 혁명의 발자취를 남긴 유서깊은 곳이기도 하다.

태안군관아 성 밖 약 500m 지점에 자리를 하고 있으며 이 곳에는 목조 초가지붕 주택으로 안채는 방 4개, 대청마루, 목욕탕, 부엌, 우물 등이 있고, 안채를 드나드는 중간 문과, 동쪽 대문, 아래채 중간에 큰 대문, 머슴이 귀거하는 방2개, 창고 2개였는데 건물을 둘러싼 돌담과 기와지붕이 있었다.

동네를 드나드는 동밖문, 서밖문, 남밖문으로 터를 넓게 잡고 있었다. 집 뒤에 선비의 상징이었던 오죽(烏竹)과 주택주변에는 이색적인 정원수와 과실나무 등 남쪽으로 큰대문 앞에 연못이 자리하고 그 안엔 샘이 있어 연못이 항상 물이 넘치며 못 가운데에 바위가 섬 모양으로 자리잡고 배롱나무(백일홍나무)



1950년대 (출처·이택영)

가 꽃을 피며 물고기가 춤을 추기도 했다.

남쪽 정원을 돌아보면 마당에 거위가 놀고, 빨래를 하는 용달샘 안에 가재가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지금도 바위틈에서 물이 한창 흐르고 있다. 그 위에 팔각정이 있었고 아래로 5층석탑 2식이 자리하고 옆으로는 백화산의 물줄기가 냇물을 이루며 자연의 조화로 이루어진 태안의 관광명소 몫을 훌륭하게 갖추었다.

초등학교를 옆에 둔 이 곳은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이용됐고

학생들의 야외 학습장으로 미술 시간이면 꼭 이 곳을 이용하는 등 태안읍에 사는 사람들의 휴식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특히 팔각정엔 지역 유지들의 휴식터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장구춤을 추는 등 회식 뒤풀이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팔각정과 오층석탑은 멸실되고 주변이 전멸 상태로 훼손 되었으나 흔적은 남아 있다.

일설에 의해 5층탑 밑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다하여 발굴한 결과 떠도는 풍문이었다.

이 건물은 환동 원려당(遠慮堂) 이 희열(李希烈)의 손자 이 갑진(李甲鎭, 1904~1939)이 건물을 지어 거주하다가 근년에 그 아들 이택영(李澤英)이 살았고 가세가 기울어 이 곳을 떠나 지금은 홍성 대흥면에 살고 있으며, 그의

아들 직상은 현재 안양에서 살고 있다. 5층탑 2식 중 1식은 현재 서울 모 대학에 옮겨져 있고 1식은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팔각정의 문은 현재 태안의 모 가정에 보관 중에 있다.



2006년

■ 읍면별 주요 현황 ■

구분 읍면별	면적 · 인구 · 가구						
	인구(천명)			인구밀도 (인/㎢)	가 구		
	2004	2005	2006		계	농 가	비농가
계	63,764	63,794	63,754	130.8	23,727	9,823	13,904
태안읍	27,035	27,046	27,373	316.0	9,483	1,853	7,630
안면읍	9,567	9,704	9,655	104.1	3,577	1,743	1,834
고남면	2,763	2,788	2,770	103.9	1,097	706	391
남 면	4,484	4,544	4,519	79.0	1,724	1,086	638
근흥면	6,196	6,155	5,995	122.6	2,483	1,100	1,383
소원면	6,210	6,146	6,079	96.3	2,411	1,445	966
원북면	5,126	5,033	4,976	73.8	1,011	1,240	781
이원면	2,383	2,378	2,387	59.9	931	650	281

구분 읍면별	도 시 계 획 (㎢)							
	주 거	상 업	공 업	녹 지				기 타
				계	자 연	생 산	보 존	
계	2.800	0.154	0.089	12.747	10.442	－	2.305	
태안읍	2.494	0.122	0.089	10.864	8.926	－	1.938	
안면읍	0.309	0.320	－	1.883	1.516	－	0.367	
고남면								
남 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 농가수는 2000 농어업총조사 잠정 결과임.

구분 읍면별	행 정 구 역				토 지 구 성 (㎡)					
	행정리	법정리	반	자연 부락	경 지			임 야	기 타	호당 경지 면적
					계	전	답			
계	181	65	810	585	171.91	63.65	108.26	242.77	87.84	0.7
태안읍	40	13	200	92	40.39	13.66	26.73	31.88	14.72	0.5
안면읍	28	6	179	164	32.24	13.87	18.37	39.56	18.97	0.9
고남면	15	3	54	37	10.94	4.88	6.06	12.13	4.56	2.8
남 면	17	9	76	88	28.51	8.90	19.61	18.52	13.21	0.6
근흥면	19	9	88	56	14.53	5.67	8.86	28.93	9.50	1.2
소원면	22	9	86	57	18.53	6.56	11.97	40.47	10.15	0.8
원북면	24	11	84	68	17.81	7.12	10.69	43.67	12.46	0.8
이원면	16	5	43	23	8.96	2.99	5.97	27.58	4.27	1.0

구분 읍면별	도 로 (km)				주 택		
	국 도	국가지원 지 방 도	지 방 도	군 도	총가구수 (가구)	주택총수 (등)	보급율 (%)
계	69.96(100)	44(100)	68.9(96.67)	159.2(59.79)	21,337	22,746	106.6
태안읍	13.91(100)	－	16.9(90.53)	224(41.07)	8,399	8,345	99.3
안면읍	24.40(100)	－	－	41.0(59.26)	3,069	3,433	111.8
고남면	3.20(100)	－	－	11.4(29.82)	1,035	1,138	109.9
남 면	14.80(100)	44(100)	44(100)	120(0)	1,560	1,723	110.4
근흥면	1.0(100)	－	10.8(100)	8.7(79.31)	2,179	2,346	107.6
소원면	12.62(100)	－	－	29.3(85.32)	2,192	2,541	115.9
원북면	－	－	21.1(100)	17.5(70.85)	2,037	2,239	109.9
이원면	－	－	15.7(100)	16.9(82.84)	866	981	113.2

※ ()안은 포장률임.

구분 읍면별	상 수 도				기업체 및 1인당 GRP		의 료 기 관	
	시설용량 (MT/D)	급수량 (MT/D)	상수도 보급율(%)	1인 1일 급수량(ℓ)	기업체수	종업원수	의료기관	병상수
계	9,200	8,256	46.3	269.5	41	487	64	174
태안읍	6,700	5,824	80.1	261.3	14	209	34	159
안면읍	1,500	1,531	36.2	443.9	5	79	12	15
고남면	—	—	—	—	1	11	2	—
남 면	—	—	15.5	—	2	20	2	—
근흥면	—	693	22.9	465.0	12	97	3	—
소원면	—	—	—	—	6	66	5	—
원북면	1,000	208	48.8	78.1	1	5	4	—
이원면	—	—	—	—	—	—	2	—

구분 읍면별	숙 박 업 소				학 교		
	계	호 텔	여 관	여인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98	1	123	74	21(5)	9(1)	4
태안읍	43	—	32	11	4	2	2
안면읍	24	1	19	4	4(1)	2	1
고남면	3	—	2	1	1	1	—
남 면	29	—	20	9	2	1	—
근흥면	42	—	17	25	3(1)	1	—
소원면	43	—	19	24	4(1)	1	1
원북면	14	—	14	—	2(1)	1	—
이원면	—	—	—	—	1(1)	(1)	—

※ 2003년 4월 1일 기준 작성, ()는 분교수로 전체에 미포함.

구분 읍면별	선 박 (어 선)						(단위 : 척)
	계		동력선(천톤)		무동력선(천톤)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계	1,837	7,626.62	1,802	7,614.21	35	12.41	
태안읍	4	2.23	4	2.23	—	—	
안면읍	310	1,288.90	305	1,286.80	6	2.10	
고남면	215	892.31	211	890.86	4	1.45	
남 면	268	1,113.49	263	1,111.67	5	1.81	
근흥면	456	1,904.42	447	1,901.32	9	3.10	
소원면	410	1,700.74	402	1,697.97	8	2.77	
원북면	88	366.08	86	365.48	2	0.60	
이원면	86	358.45	85	357.87	2	0.58	

※ 농가수는 2000 농어업총조사 잠정 결과임.

◎ 국 도

(단위 : km)

노 선 번 호	노 선 명	전용 구간 연장			포장율 (%)	비 고
		계	포 장	미포장		
계	2	69.95	69.95		100	
32	만리포~대전	22.80	22.80		100	0소원면 모항리~태안읍 인평리 04차선⇒9.450km
77	부산~인천	47.15	47.15		100	0고남면 영목리~태안읍 남산리 04차선⇒6.540km

◎ 국가지원 지방도

(단위 : km)

노 선 번 호	노 선 명	전용 구간 연장			포장율 (%)	비 고
		계	포 장	미포장		
96	태안~청원(충북)	4.4	4.4		100	

◎ 지 방 도 (단위: km)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전용 구간 연장			포장율 (%)	비 고
			계	포 장	미포장		
계	2	70.5	64.5	60.2	4.3	93.3	
603	안흥~이원	43.3	43.3	41.7	1.6	96.3	O중용구간연장 1.8km (근흥면 정죽리~이원면 내리)
634	학암포~성연(서산)	27.2	21.2	18.5	2.7	87.2	O중용구간연장 6km (원북면 방갈리~태안읍 도내리)

◎ 군 도 (단위: km)

노 선 번 호	노 선 명	총연장	전용 구간 연장			포장율 (%)	비 고
			계	포장	미포장(미개설)		
계	14	174.7	174.7	96.8	75.8(6.2)	56.1	
군도1호	고남~중장	13.5	13.5	5.9	7.6	43.7	
군도2호	의항~반계	8.9	8.9	4.2	4.7	47.1	
군도3호	고남~창기	31.0	31.0	5.6	25.4(3.2)	18.1	
군도4호	창기~황도	7.8	7.8	6.3	1.5	80.7	
군도5호	두야~양산	10.5	10.5	9.8	0.7	93.3	
군도6호	용신~송암	12.2	12.2	6.5	5.7	53.2	
군도7호	파도~모항	5.4	5.4	5.4	—	100.0	
군도8호	태안~부석	0.2	0.2	—	0.2	—	
군도9호	신덕~신두	11.5	11.5	10.7	0.8	93.0	
군도10호	방갈~관리	11.1	11.1	5.1	6.0(3.0)	45.9	
군도11호	송현~의항	8.1	8.1	8.1	—	100.0	
군도12호	사창~관리	12.6	12.6	12.5	0.1	99.2	
군도13호	당암~도내	28.7	28.7	5.6	23.1	19.5	
군도14호	방포~신온	13.2	13.2	11.1	—	100.0	중용구간연장 2.1km

◎ 농어촌도로 (단위: km)

노 선 수	전용 구간 연장			포장율 (%)	비 고
	계	포 장	미포장		
199	496.3	193.3	303.0	38.9	

◎ 주요 해수욕장 현황 (단위: km)

해 수 욕 장 명	위 치	피서철 관광객수(천명)
만리포 해수욕장	소원면 모항리	1,788
연 포 해수욕장	근흥면 도항리	425
몽산포 해수욕장	남 면 신장리	1,801
학암포 해수욕장	원북면 방갈리	375
천리포 해수욕장	소원면 의항리	156
방 포 해수욕장	안면읍 승언리	135
청포대 해수욕장	남 면 양잠리	164
백사장 해수욕장	안면읍 창기리	205
삼 봉 해수욕장	안면읍 창기리	499
꽃 지 해수욕장	안면읍 승언리	2,273

◎ 자동차수 (단위: 대)

총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관 응	자 가	영 업	계	관 응	자 가	영 업	계	관 응	자 가	영 업	계	관 응	자 가	영 업	계	관 응	자 가	영 업
17,860	115	17,174	571	9,884	27	9,647	210	1,504	28	1,386	90	6,409	55	6,121	233	63	5	20	38

◎ 문화재

(단위: km)

지정별	증 별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국가지정 (4)	국보(1)	제307호	태안마애삼존불	태안읍 동문리 산42
	천연기념물 (3)	제138호	안면모감주나무군락지	안면읍 승언리 1318-1
		제334호	란도랭이갈매기번식지	근흥면 가의도리 산22
		제431호	태안해안신두사구	원북면 신두리 일원
도지정 (18)	유 형 (5)	제28호	홍주사3층석탑	태안읍 상옥리 1154
		제122호	몽산리석가여래좌상	남면 몽산리 산182
		제123호	경이정	태안읍 동문리 573
		제133호	홍주사만세루	태안읍 상옥리 1154
		제138호	목애당	태안읍 남문리 300-7
	기 념 물 (6)	제11호	안흥성	근흥면 정죽리 1112-1
		제64호	안면내파수도	안면읍 승언리 3314
		제85호	옥파이종일생가	원북면 반계리 809
		제93호	소근진성	소원면 소근리 산2일원
		제139호	태안향교	태안읍 동문리 725
		제156호	홍주사은행나무	태안읍 상옥리 1154
	문화재자료 (4)	제201호	남문리5층석탑	태안읍 남문리 435-1
		제212호	백화산성	태안읍 동문리 일원
		제300호	송의사	남면 양잠리 338
		제315호	태안안면승언리상여	안면읍 승언리 799
	민속자료(1)	제16호	태안상옥리가영현가옥	태안읍 상옥리 816
	무 형 (2)	제12호	황도불기풍어제	안면읍 황도리 24
		제24호	설위설경	소원면 소근리 635
군지정	향토유적(1)	제2호	안양사	근흥면 안기리 922

태안군 팔경

林 成 萬 作 詩 · 1999

- 1경 華山城烽磨崖佛(화산성봉마애불)
백제의 백화산성과 봉수(烽燧)는 빈터만 남았지만,
마애삼존불의 밝고 잔잔한 미소가 산정을 감싸 주는데.
- 2경 眞城榮華海島景(진성영화해도경)
찬란했던 안흥진성의 영화 지금은 성곽으로만 남고,
섬과 섬이 이어진 해안절경은 또 다른 풍광이로다.
- 3경 安眠宋林香浦歸(안면송림향포귀)
끝없이 이어진 안면 솔 숲엔 향기 배어 나오는데,
백사장 포구로 풍어 깃발 날리며 배는 돌아오는구나.
- 4경 萬浦白沙千里樹(만포백사천리수)
흰 모래 밭은 만리포 해변에 곱디 곱게 펼쳐지고,
수 천 수 만가지 귀한 식물은 천리포에 모두 모여있는데.
- 5경 薪斗砂丘海棠花(신두사구해당화)
금빛 은빛으로 빛나는 신두리 모래 언덕에,
수줍은 듯 곱게 핀 해당화는 길손을 맞아 주는구나.
- 6경 賈誼滿船漁歌興(가의만선어가흥)
가의도 해안으로 돌아오는 만선에 가슴은 설레이고,
어부들은 저절로 흥에 겨운데 노랫소리 빠질 수 없네.
- 7경 夢山海邊淸浦沙(몽산해변청포사)
꿈속에 펼쳐진 드넓은 몽산포 해변은 길게 이어지는데,
청포대의 흰 모래밭은 어디쯤에서 끝을 보이려는가.
- 8경 姑岩落照莊嚴美(고암낙조장엄미)
꽃지의 할미 할아버지바위 너머 해는 장엄하게 저물 때,
세상에서 이 노을 빛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을 소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안군(泰安郡) 해제

동쪽으로는 서산군(瑞山郡) 경계에 이르기까지 12리요, 남쪽으로는 역시 서산군 경계에 이르기까지 65리이며, 서쪽으로는 소근포(所斤浦)에 이르기까지 33리이며, 북쪽으로는 서산군 경계에 이르기까지 17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4백39리이다.

〈건치 연혁〉 본래 백제의 성대해현(省大兮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때에 소태(蘇泰)로 고쳐 부성군(富城郡)의 속현으로 하였고, 고려 현종(顯宗) 9년에는 운주(運州)로 붙였으며, 충렬왕(忠烈王)때에 본군 사람 환자(宦者) 이 대순(李 大順)이 원(元)나라에 은충이 있었으므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한 것을 본조에서 그대로 이를 인습한 것이다.

〈관원〉 군수 · 훈도 : 각 1명

〈군명〉 성대해(省大兮) 소태(蘇泰) : 혹은 소주라고도 한다. 순성(蓴城).

〈성씨〉 본군 실(實) · 이(李) · 방(方) · 염(廉) · 황(黃) · 고(高) · 명(明) · 박(朴) : 모두 촌에 있다. 가(賈) · 장(張) · 김(金) : 모두 속(續)에 있다.

〈형승〉 해적(海寇)이 왕래하는 요충지이다 : 남 수문(南 秀文)의 객관기(客館記)에 있음. 비옥한 지대로 호칭한다 : 신 숙주(申 叔舟)의 객관기에 있음.

〈산천〉 백화산(白華山) : 읍 북쪽 3리 지점에 있는데 사면이 모두 돌로 되어 있다. 군 북쪽 13리 지점에 또 백화산이 있는데 역시 사면이 모두 돌로 되어

있어 두 산이 서로 유사하다. 내산(柰山) : 군 서쪽 23리 지점에 있다. 금굴산(金堀山) : 군 북쪽 13리 지점에 있다. 물금산(勿金山) : 군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안흥량(安興梁) : 군 서쪽 34리 지점에 있다. 옛날에는 난행량(難行梁)이라 불려왔는데, 바닷물이 험하여 조운선(漕運船)이 이곳에 이르러 누차 치패를 보았으므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싫어하며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지령산곶(知靈山串) : 군 서쪽 25리 지점에 있다. 대소산곶(大小山串) : 군 서쪽 25리 지점에 있다. 이산곶(梨山串) : 군 북쪽 42리 지점에 있다. 신곶(薪串) : 군 북쪽 29리 지점에 있다.

○ 이상 네 개의 곶(串)에는 모두 목장이 있다. 바다 : 본군 삼면이 모두 바다이다. 방이라도(方伊羅島) : 군 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형도(兄島) · 갈도(葛島) · 죽도(竹島) · 말웅개도(末應介島) · 가외도(加外島) · 토도(兔島) · 상산도(上山島) · 굴굴조도(屈屈鳥島) · 하초도(下草島) · 웅부도(瓮浮島) · 적점도(積岾島) · 거아도(居兒島) · 한음산도(閑音山島) · 나치도(羅治島) · 군북파도(郡北波島) : 이상의 여러 섬들은 모두 서해 가운데에 있다. 하산도(下山島)군 남쪽에 있다. 굴포(堀浦)군 동쪽 13리 지점에 있다.

○ 고려 인종(仁宗)이 안흥정(安興亭) 아래의 물길에 여러 물과 충격하는 곳이 되어 있고, 또 암석의 위험한 곳이 있으므로 가끔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으니, 소태현(蘇泰縣) 경계로부터 도랑을 파서 이를 통하게 하면 배가 다니는 데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하여, 정 습명(鄭 襲明)을 보내어 인근 군읍 사람 수 천 명을 징발하여 뚫으나, 마침내 이루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종실(宗室) 왕 강(王 康)이 건의하기를 “예전에 파던 도랑이 깊이 판 곳은 10여 리나 되고, 파지 않은 곳이 불과 7리인데, 만약 마저 다 파서 바닷물로 하여금 유통하게 한다면 매년 조운(漕運)할 때에 안흥량 4백여 리의 위험한 물길을 경우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인부를 징발하여 다시 파니, 돌이 물 밑에 깔려 있었고, 또 조수가 왕래하여 파는대로 이를 메워버리므로 필경 공을 거

두지 못하고 말았다. 본조 세조 때에 건의하는 자가 혹은 팔 만하다 하고 혹은 팔 수 없다 하여 세조가 안 철손(安 哲孫)을 보내어 시험하였던 바, 공을 이룰 수 없다 하여 대신(大臣)에게 제하여 자세히 살피게 하였으나 논의가 일치하지 않아서 중지하고 말았다. 부포(釜浦) : 군 서쪽 30리 지점에 있다. 신라 애장왕(哀莊王) 5년에 부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한 것은 바로 이 땅이다.

〈토산〉 대나무·대살(竹箭) : 죽도(竹島)와 탄항(炭項)에서 난다. 쇠 : 다수산관(多修山串)에 서 난다. 백옥(白玉) : 안흥량 해변에서 난다. 김(海衣)·황각(黃角)·세모(細毛)·전어(錢魚)·전복(鰓)·송어(秀魚)·농어(鱸魚)·청어(靑魚)·갈치(刀魚)·모래무지(魚鰲)·조기(石首魚)·고기부레(魚驕)·오징어(烏賊魚)·석굴(石花)·새우(蝦)·조개(蛤)·죽합(竹蛤)·삼치(麻魚)·해삼(海參)·소라(小螺)·살조개(江瑤柱).

〈성곽〉 읍성(邑城) : 돌로 쌓은 성으로 주위가 1천5백61척에 높이는 12척이며, 그 안에 네 개의 우물이 있다.

〈관방〉 소근포진(所斤浦鎭) : 일명 후근이포(朽斤伊浦)라고도 하며, 군 서쪽 33리 지점에 있는데 좌도 수군 첨절제사영(左道 水軍 僉節制使營)이 있고, 그 소관은 당진포(唐津浦)와 파지도(波知島)이다. ○ 첨절제사(僉節制使) 1명이 있다.

〈신증〉 정덕(正德) 갑술년에 비로소 돌 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2천1백65척에 높이는 11척이며, 그 안에 우물 하나가 있다. 안흥량수(安興梁戍) : 소근포 첨절제사(所斤浦 僉節制使)가 군병을 나누어서 지킨다.

〈봉수〉 백화산 봉수(白華山 烽燧) : 동쪽으로는 서산군의 북산(北山)과 도비산(都飛山)과 호응한다.

〈궁실〉 객관(客館) : 남 수문(南 秀文)의 기문에 “태안군은 옛날 신라의 소태현(蘇泰縣)이다.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五穀)을 재배하기에 알맞고, 또 어물과 소금을 생산하는 이익이 있어 백성들이 모두 즐겨 이 땅에 살아왔다. 그러나

이 고을의 읍내가 멀리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니 이는 곧 해상의 구적(寇賊)들이 왕래 출몰하는 요충이다. 고려 말기에 무비(武備)가 해술하고 왜적이 강성하여, 홍무(洪武) 계축년에 본군에서 입은 화란이란 몹시 참혹한 것 것이어서 수령이 겨우 한두 명의 아전을 인솔하고, 임시 서산군(瑞山郡)에 붙이고 있더니, 계해년에는 다시 예산현(禮山縣)으로 옮겼었다. 경오년에 이르러 도적들의 흉악한 노략질이 차츰 지식됨에 다시 서산에 성보(堡)를 쌓고 순제(尊堤)라 이름하고는 일면 해적의 방어에 대비하며 검하여 군의 행정을 맡아 다스렸다. 그러나 사방으로 흩어져 나간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므로 온 경내가 가시덤불 속에 황무(荒蕪)한 채 짐승의 소굴로 화하여 버려 두었고, 국가에서는 여기에 강무장(講武場)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영락(永樂) 병신년에 우리 태종께서 춘렵(春獵, 봄철에 행하는 수렵)에 임행하였다가 그 일대의 황폐한 것을 애석히 여기시고, 이에 본군의 옛 군을 복구하라 제하셨고, 다음 해에는 또 성을 쌓았다. 그러나 바야흐로 인민을 불러 모아서 안집(安集)시키는데 급급하고 관해(官廩)를 구축할 겨를이 없어 대충 별실(別室) 4칸을 얹어 사객(使客)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낮고 협소하여 바람과 이슬을 가리기에 바빴으나 그대로 수축하지 않고 지난 것이 20여 년이었다. 정통(正統) 기미년 2월에 나의 동년(同年·한 해에 함께 급제한 사람)인 김 혼지(金 侁之) 후가 무재(武才) 있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데 능하다는 것으로 선발되어 이 고을의 군수가 되니, 군사를 쓰는 기요(機要)와 백성을 다스리는 선무(先務)를 여유 작작하게 조처하고, 개연히 다시 폐허한 것을 부흥하려는 뜻을 두고 드디어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고 새 공관(公館)을 지으니, 읍사람 이회(李 懷)·이 지(李 地) 등 약간 명이 모금에 응하여 경비를 보조하여, 재목도 견고하고 기와도 좋았으며, 노는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드디어 대청(大廳) 5가(架)를 세우니, 무릇 3영(楹)이며, 조우의 중방(中房)은 5가에 각각 5영이며, 남녘 청(南廳)은 5가에 3영이며, 동서의 머름(軒)은 5가에 각각 3영이었고, 주

방(廚房)·곳간·욕실 등이 모두 그 자리를 갖추니 영으로 해어서 83개가 되는 셈이다.

기미년 겨울 10월에 역사를 시작하여 신유년 가을 8월에 일을 마쳤는데, 규모와 제도가 정대하고, 단청 또한 선제하여 울연히 한 고을의 장관(狀觀)을 이루었다. 김 후가 나에게 글을 보내어 그 일의 시말을 기술해 달라고 청해 왔다. 내 지금 사관(史官)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으니, 흥작(興作)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은 나의 직책이다. 하물며, 그 세도(世道)와 관계 있는 것이라. 이 고을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던 끝에 드디어 태평한 성대(聖代)를 만나고 어진 수령을 얻어서 가시밭을 다듬고 성곽과 군 모습을 복구하였으며, 조잡하고 험악한 것을 헐어버리고 높고 화려한 집을 지어 인습해오던 누습(陋習)을 깨끗이 씻고 장엄한 담장을 꾸몄으니, 어찌 세도를 위하여 기뻐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기록할 만한 것이다. 증 남풍(曾南豐·증공 曾鞏)의 말에, ‘무릇 고을에선 수령을 잘 얻어 만나기가 어렵고, 다행히 수령을 잘 얻어 만났다 하더라도, 일을 일으켜 이루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며, 다행히 일을 일으켜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뒷 사람을 잘 얻어서 황폐에 이르지 않기란 또 한층 더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지금 이 고을에서 다행하게도 그 얻기 어려운 것을 얻었으나, 다만 뒷 사람이 능히 김 후의 뜻을 잘 이어나갈 것 인지는 알지 못할 일이다. 이 또한 이 말을 기록하여 뒤에 오는 자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신 숙주(申叔舟)의 기문에, “태안군이 충청도에 있어 해변의 요충지가 되어 국가에서 순성진(尊城鎭)을 설치하고 지군사(知郡事 수령)로 하여금 이를 지휘 관할하게 하고 있다. 군내의 토지가 비옥하여 화마(禾麻)가 풍부하며, 어염(魚鹽)의 이익이 있어 옥구(沃區)로 일컬어왔다. 전조(前朝 고려) 말엽에 여러 차례 병란을 겪어서 모두 가시 덩굴의 숲이 되어 호토(狐兔)와 시호(豹虎)의 터로 변했었는데, 우리 국가가 일어남으로부터 인정(仁政)과 위엄이 먼 변방

까지 미쳐서 바다 도적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런 뒤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군민들이 모두 돌아오고, 다른 고을의 백성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자도 또한 즐겨 이곳으로 모여 왔던 것이다.

무진년에 조정에선 각 도에 영을 내려 지난 날 유치하여 없어진 민호를 조사하여 본적지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이리하여 군민으로서 그 본 고장으로 돌아가야 할 자가 1백4호나 되었는데, 그 업에 안착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그 옮기기 어려운 것이란(낮선 곳으로) 새로 이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지금의 지군사 동침절제사(知郡事 同僉節制使) 죽산후(竹山侯) 박 홍문(朴弘文)이 이 땅에 부임하여 다스린 지가 마침 4년이였다. 개연히 탄식하고 말하기를, “이 고을에 사는 백성이 겨우 3백 호인데, 부세(賦稅)를 내고 기약을 받들어 행하는 자의 거의 반수가 유리하여 들어와 우거(寓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이미 이곳에서 의식을 해결하고 남혼여가(男婚女嫁)하여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길러 사람마다 영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찌 다시 소란하게 하랴. 하물며 군이란 백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백성이 없으면 군이 될 수 없고, 진(鎭)을 설치한 것은 도적을 막자는 것인데, 백성이 없으면 그 누구와 더불어 지키란 말인가. 이는 조정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곧 고을 사람 전(前) 부사정(副司正) 이 숙(李 熟)과 호장(戶長) 가택(賈宅) 등을 보낼 제 친히 할 말을 지시하여 도당(都堂)에 아뢰어서 온 군대가 모두 옮기지 않고 전과 같이 편히 살게 되었다. 이리하여 어린아이들과 백발의 노인들까지 모두 환호성을 올리고, 감격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기를, “내가 추위에 떨 때, 원님이 더웁게 해 주었고, 내가 빼만 남았을 때, 원님이 살(肉)을 붙였으며, 내가 유리 분산하였을 때, 원님이 완취(完聚)하게 해 주었고, 내가 위태하였을 때, 원님이 편안하게 해 주었으니, 원님의 덕을 갚으려 할진대, 나의 부모와 무엇이 다르랴.

아름다운 덕 가려내어 영원히 전파하리로다.” 하고, 드디어 서로 박 후에게

로 나아가서 박 후의 공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해 보이도록 할 것을 요구하니, 박 후는 이를 사절하고 돌려보냈다. 박 후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도 알지만, 여러 사람들의 뜻도 또한 마침내 억누를 수 없음을 알고는 서울로 달려와서 나를 집현전(集賢殿)으로 찾아와 보고, 그 사실의 전말(顛末)을 써서 영구히 전하게 할 것을 청하는데, 그들의 심정과 언사가 모두 간곡하였다. 내 비록 글을 기록하는 것은 나의 직책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이 일찍이 박 후와는 잘 아는 사이인 데다가 그 사적의 쓸 만한 것이 이와같은 것이 있음이라. 박 후는 화락(和樂)하고 평이(平易)한 사람이다. 무예(武藝)가 뛰어나고, 목민지재(牧民之才)도 겸하여 중외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일찍이 백성도 다스렸고, 또 군사(軍事)도 다스렸는데, 청렴하고 공평하고, 위엄 있고, 은혜로운 정사를 펴서, 이르는 곳마다 이름이 있었거니와, 지금은 백성도 있고 군사도 있어 문·무의 정사가 그 한 몸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라, 의연(毅然)히 안집(安集)과 부강(富強)에 뜻을 두어, 조정에서 유리해 도망한 백성을 조사하여 돌려 보내라고, 기한을 정하고 엄중히 도책하는데 즈음하여 주군의 수령들이 그 견책을 두려워하여 바야흐로 명령을 받들어 행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도, 박 후는 능히 실정을 건의하여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서 군(郡)은 이로 말미암아 실하게 되고, 진(鎭)도 이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이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편하게 살게 되었으니, 박 후 같은 사람은 능히 국가에서 위임한 뜻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이를 수 있을 것이며, 백성의 부모로서의 도리도 또한 거의 다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일찍이 상고해 보건대, 옛날에 백성에게 덕을 베푼 자는 그 백성들이 반드시 비(碑)를 세워 그 공적을 기록하였고, 혹은 생사당(生祠堂)까지도 세웠으니, 이는 그 덕을 사모하여 마지 않는 성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그 군민의 청이 이와 같이 간곡한데,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드디어 이를 써서 돌려 보내는 바이다. 그 판에 새겨 벽에 걸어 군민으로 하여금 대대로 박 후의 덕을

알게 되어 길이 잊지 않게 할 것은 그대들의 일이며, 이에 이르면 박 후도 또한 거절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신증〉〈정사〉경이정(憬夷亭) : 군 남문(南門)밖에 있다.

〈학교〉향교 : 군 동쪽 1리 지점에 있으며, 어 세겸(魚世謙)의 기문이 있다.

〈역원〉하천역(下川驛) : 군 동쪽 12리 지점에 있다. 흥인원(興仁院) : 군 동쪽 12리 지점에 있다.

〈교량〉흥인교(興仁橋) : 굴포에 있다.

〈불우〉안파사(安波寺) : 지령산(知靈山)에 있다. 고려 때에 수로가 험악하여 조운선(漕運船)이 여러 차례의 실패를 보아 이 절을 세운 것인데, 중간에 왜적의 침입을 당하여 거의 다 파괴되었었고, 본조 세조 때에 중건하였다. 흥주사(興住寺) : 백화산에 있다.

〈사묘〉태일전(太一殿) : 백화산 고성(古城) 안에 있다. 성종(成宗) 10년 기해에, 경상도 의성현(義城縣)으로부터 이곳에 옮겨 봉안(奉安)하였다. 사직단 : 군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군 서북쪽 1리 지점에 있다. 여단 : 군 북쪽에 있다.

〈고적〉고 태안성(古 泰安城) : 굴포에 있다. 순성진(蓴城鎭) : 군 동쪽 14리 지점에 돌로 쌓은 성이 있는데, 주위가 1천3백53척이다. 지금은 폐해버렸다. 오산소(吳山所) : 군 남쪽 25리 지점에 있다. 양골소(梁骨所) : 군 남쪽 13리 지점에 있다. 복평향(福平鄉) : 군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본래 서산군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 세종 27년에 이리 붙여 왔다. 백화산성(白華山城) : 돌로 쌓은 성으로 주위가 2천 42척에, 높이는 10척이며, 안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폐해버렸다.

〈제영〉풍회도서미경랑(楓回島嶼迷驚浪) : 신 숙주(申叔舟)의 시에,

嶺上孤城落照邊登臨只見海浮天云云地僻民居生淡烟浦掘

영상고성낙조변등임지견해부천운운지벽민거생담인포굴

幾年功未效山來一帶斷猶運誰能設我通漕策但向樽前醉惘然

기년공미효산래일대단유운수능설아통조책단향준전취망연

〈해제〉 “고개 위에 외로운 성(城), 낙조(落照)가에 서 있는데 올라서 바라보니 다만 저 바다 하늘에 떠오르는 듯 보인다.

바람 불어 돌아가니 도서가 놀란 물결에 희미하고 땅이 궁벽하니 민가에선 뭍은 연기 오르네. 포(浦)를 판지 몇 해에 공을 이루지 못했더니 산에서 온 한 줄기 끊겼다가 다시 변했구나 뉘 능히 나에게 조운(漕運)통하는 계책을 말해 주려나 다만 술 준 사람 앞에서 취하여 망연(惘然)히 잊고만 싶구나”

〈방면〉 군내(郡內) : 처음은 5리, 끝은 20리, 동일도(東一導) : 남쪽으로 처음은 15리, 끝은 30리. 동이도(東二導) : 동쪽으로 처음은 12리, 끝은 20리. 남면(南面) : 처음은 20리, 끝은 60리. 근서(近西) : 서남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40리. 원일도(遠一導) : 서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20리, 원이도(遠二導) : 서쪽으로 처음은 20리, 끝은 40리. 북일도(北一導) : 끝이 70리. 북이도(北二導) : 끝이 40리.

〈진보〉 소근포진(所斤浦鎭) : 후근이포(朽斤伊浦)라고도 하며 서쪽 30리에 있다. 중종 9년에 성을 쌓았는데 둘레는 2천1백65척이고, 우물은 하나다.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한 사람이 있다.

안흥진(安興鎭) : 서쪽으로 40리에 있는데, 본래는 안흥량(安興梁)의 수자리하는 곳으로 근포첨사(斤浦僉使)의 분병이 수자리하는 곳이다. 효종 4년에 화정도(花亭島)에 옮겨 세웠다가 6년에 사인(士人) 김 석견(金 石堅)이 세우기를 청하여 진성(鎭城)을 세웠는데 둘레가 3천6백21척이다. ○수군첨절제사 한 사람이 있다.

〈토산〉 소금 · 감(柿)

참고문헌 인용

서산군지(충청향토문화사). 1926. 1975.

태안복군 10년사(태안군). 2000.

서산 · 태안 문화유적(서산문화원). 1991.

태안읍지(태안읍지편찬위원회). 1997.

문화유적분포지도(충청남도 ·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문화유적총람(충청남도). 1990.

문화재대관(충청남도). 1991.

동국여지지

조선환여승람(이 병연). 1929.

신증 동국여지승람(솔출판사). 1996.

안면도 고남리 패총 1~7 차 조사보고서(한양대학교박물관). 1990~1998.

안흥진성(태안군 ·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태안읍성(태안군 · 충남발전연구원). 2003.

태안의 전설을 찾아(태안군). 1998.

태안의 지명(태안문화원). 1993.

태안국민학교 80년사. 1991.

태안의 석조문화(태안문화원). 1993.

태안지역의 성곽과 마애불연구(립 성만). 1998.

시와 함께하는 태안팔경연구(립 성만). 2000.

태안 마애삼존불연구(립 성만). 2000.

「泰安半島의 表象 南門誌」 편찬위원회

고 문 _ 박 국환

위 원 장 _ 류 상희

부위원장 _ 배 광모

위 원 _ 구 승서, 김 낙제
김 용식, 문 영식
박 규웅, 박 태진
방 원태, 오 병익
이 근상, 이 복희
이 사형, 이 상목
이 용희, 조 정남

감수위원 _ 김 영규, 배 광모
홍 임기

집필위원 _ 림 성만

후기

먹이와 함께 들어온 이물질이 조개의 속살에 상처를 내면, 조개는 즉각 콘키올린을 내어 이물질을 감싼다. 콘키올린이란 조개가 먹이로 흡수한 것 가운데 미네랄 등의 칼슘 성분을 화학처리 해 만든 물질인데, 그것에 놀란 조개는 콘키올린을 내고 또 내어 수백 수천 번씩 이물질을 감싼다.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것이 진주다. 다른 광물성 보석과 달리 진주는 한 생명체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이런 진주의 생성 과정은 종종 예술 창조 행위를 상징한다. 예술이란 집단 혹은 개인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니 여기에 비유해도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글로 옮겨지면 서사가 되고, 운율에 얹히지면 음악이 되며, 색채와 형태로 전환되면 회화가 된다. 화려하게만 보이는 인상파 회화의 바탕엔 존재의 순간성이란 한계가 깔려 있고, 세잔이 엄격한 기하학적 도형에 기댄것은 모든 이런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문지를 만드는 것은 상처에서 돌아나는 새살과도 같았다. 그런 상처와 새살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문지는 없었을 것이다. 오랜 시간을 방황하고 熱考하기만 해서 인지 끝내는 정작 내가 가야하는 길에 대하여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다. 내가 어느 목적을 위해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야 할 끼니벌이를 위하여 가는 길인지, 그렇다해도 내가 가는 길에 왜 그리 많은 걸림돌이 있는지……

하지만 이내 이러한 끝없는 화두를 거두고 즐기면서(?) 아무런 고심, 고민과 나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생각을 접기로 했다. 3년전 책을 만들 수 있게 기획하신 전 임 정 우영 태안문화원장, 노구를 이끌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박 국환 선생, 꼼꼼히 감수해 주신 홍 임기 감수위원, 남문지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신 류 상희 편찬위원장께 감사 드린다.

2006. 12. 백화산자락 락기실 동창아래에서 동포 림 성만



《《 남문지 발간에 협조해 주신(단체 · 개인) 분들

- | | |
|-------------------------|--------------------------|
| • (주)가나레포트 대표이사 (류 상배) | • 태안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구형) |
| • (주)충남전기 대표이사 (이 종진) | • 태안 반도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백 영흠) |
| • (주)보령주택건설 대표이사 (최 정규) | • 태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종진) |
| • 태안 삼성상사 대표 (김 진우) | • 태안읍 남문 1리 리장 (김 용식) |
| • (주)신용산업개발 대표이사 (문 영진) | • 태안읍 남문 2리 리장 (조 정남) |
| • 태안 국제농기계 대표 (최 종환) | • 태안읍 남문 3리 리장 (오 병익) |
| • 태안 비치컨트리클럽 (이 천복) | • 태안읍 남문 4리 리장 (구 승서) |
| • 태안 현대종합건재상사 대표 (박 영철) | • 남문리지 편찬위원 일동 |

泰安半島 表象 南門誌

인 쇄 / 2006년 12월 20일
발 행 / 2006년 12월 23일
발행인 / 류 상희 (남문지 편찬위원장)
집필인 / 림 성만

발행처 / 태안문화원 (남문지 편찬위원회)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3리 53-11
전화 (041) 674-2192
<http://taean.cult21.or.kr> (한글주소 : 태안문화원)
cc357a@hanmail.net

퍼낸곳 / 도서출판 가야
등 록 / 제13-05-11-34호
주 소 / 충남 서산시 읍내동 466-10
전화 (041) 667-6400

©태안문화원 2006.

※ 이 책은 향토민속발굴사업기금과 남문지 편찬위원회의 도움으로 발간되었습니다.

